

海州崔氏

宗誌

第2輯 1992

- ▨ 崔冲先生の生涯와 教學思想
- ▨ 清白吏詩人 孤竹 崔慶昌
- ▨ 文清公崔滋의 文學과 生涯

去遠
益傳
西山氏

海州崔氏大宗會 刊

文憲公詩選

任昌淳 泰東古典研究所長 譯

戒二子詩 (五律二首)

吾今戒二子	내가 두 아들에게 훈계하며
付與吾家珍	아울러 우리 집안의 보배를 주려한다
清儉銘諸己	청렴과 검소함을 몸에 새겨두고
文章繡一身	문장으로 몸을 수 놓아라
傳家爲國寶	집안에 전하는 것이 나라에 보배가 되고
繼世作王臣	대대로 이어 나라의 신하가 될 것이다.
莫學紛華子	허영을 숭상하는 사람을 본뜨지 말라.
花開一餉春	꽃피는 것은 봄한철 뿐이니라
家世無長物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온 좋은 물건이 없으나
唯傳至寶藏	오직 값진 보배를 전해 간직 해 왔다.
文章爲錦繡	문장을 바로 비단으로 여겼고
德行是珪璋	덕행은 곧 옥이다.
今日相分付	오늘 날 서로에게 이르는 말을
他年莫敢忘	부디 뒷날에도 이것을 잊지 말라
好支廊廟用	그러면 나라에 귀히 쓰이게 되며
世世益興昌	대대로 더욱 번영하리라

示座客(七律)

水閣風檣苦見招	水亭 시원한 대청이 나를 부르는데도
簿書叢裏度流年	文書 더미 속에서 세월을 보내는구나
朱櫻紫筍時將過	붉은 앵두, 자주빛竹筍철이 벌써 지나려 하는데
紅槿丹榴態亦妍	붉은 무궁화와 석류 모습은 역시 곱구나
病久却嫌邀客飲	오래 병들어 손을 청해 마시는 일도 귀찮아 졌고
性慵使喜聽鶯眠	성품이 게을러서 피꼬리 소리 들으며 잠자기를 즐겨하네
良辰健日終難再	좋은 시절 몸성한 때가 다시 오기 어려우니
急趁花開作醉仙	꽃이 피었을 때 일어나 醉仙이 되려 한다.

絕句(七言絕句)

滿庭月色無煙燭	뜰에 가득한 달빛은 연기 없는 촛불이요
入座山光不速賓	자리에 드는 산빛은 청하지 않는 손님일세
更有松絃彈譜外	거기에 또 솔거문고 있어 악보 없는 곡조를 타노니
只堪珍重未傳人	다만 나혼자 즐길뿐 남에게 전하지 못하네

文憲書院



文憲書院 全景

목 차

(第 2 輯)

發刊辭

덕과 학문을 숭상하는 정신 … 大宗會長 元植 (13)

編纂辭

종지를 통한 전통계승의 현대적 의미 … 宗誌委員長 俊基 (16)

激勵辭

海東孔子후손의 긍지를드높이자 … 前公報處長官 昌潤 (20)

文憲公崔冲先生の 生涯와 敎學 思想 …… 崔根德 (23)

九齋와 十二徒의 史的 意義 …………… 吉 竣 (49)

우리가 사는 時代는 어떠한 時代인가? …… 昌 浩 (60)

文淸公崔滋의 文學과 生涯 …………… 元容文 (69)

海州崔門의 宗魂…………… 永 哲 (79)

淸白吏詩人孤竹崔慶昌 …………… 崔명환 (88)

뿌리가 깊은 나무가 지나 앞이 무성하다 …… 萬 基 (97)

烏山文憲書院創建의 意義 …………… 元植 (100)

〈門中近世人物考〉

崔麟先生の 毀譽褒貶에 찬 生涯…………… 愚 (105)

기개와 風流의 詩人 崔慶昌 …………… 安大會 (117)

民主主義思想家 崔冲先祖 …………… 漢 秀 (123)

〈프로필〉

祖上崇拜가 信仰인 萬秀宗친 …………… 愚 (131)

〈隨筆·隨想〉

崔氏앉은자리 풀도 안난다 起鎬 (134)

원활한 對話 昌燮 (137)

내게 꼭 맞은 점괘 雲植 (142)

반듯한 家門의 意味 希娟 (147)

和合의 意味 昌燮 (150)

崔氏의 矜持 윤섭 (153)

〈探訪記〉

北京大교수 龍水宗친을 찾아 W記 (155)

文憲公誕辰千周年紀念大同譜를 發刊하고서 ... 吉峻 (165)

譜書編纂을 讚함 頌基 (210)

獄中에서 冤死하신 雙栢堂 崔沂할아버지 ... 光普 (212)

義士 崔在範 泳澤 (215)

多數決과 我執 愚 (217)

影幀制作과 懸板揮毫 承君 (220)

祝詩 承健 (224)

文憲公追慕詩 義培 (224)

海陵君忠勳頌 熙燮 (225)

〈碩士學位論文〉

高麗時代九齋學堂의 研究 濟實 (226)

文憲書院享祀儀節 在夏 (253)

〈附錄〉

大宗會任員 및 運營委員 名單 (280)

編輯後記 (309)



海東孔子文憲公崔冲先生真

烏山 文憲書院 奉安 影幀



文和公崔惟善先生真

烏山 文憲書院 奉安 影幀

文莊公崔惟吉先生真



烏山 文憲書院 奉安 影幀



影幀閣 全景(1991. 9. 20 竣工)



全南靈岩의 東溪祠.
1991. 4에 重建되다(文憲公,
萬理公, 孤竹公 陽坡, 晚醒公 奉安)



文憲書院 起工式(上下)(1992. 5. 1)



第 2 輯 (1992, 壬申年)

海州崔氏宗誌



海州崔氏大宗會

1954年10月1日



北京人民广播电台

發 刊 辭

덕과 학문을 숭상하는 정신



大宗會長 元 植

문헌공(文憲公) 최충(崔冲) 선조는 서기 984년에 탄생하여 1068년까지 살으시면서 많은 업적을 이룩하신 어른이시다. 특별히 유학(儒學)의 크나큰 학풍을 이루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사립교육기관인 구재학당(九齋學堂)을 세움으로써 사학을 융성하게 하고, 조선시대의 서원으로 학맥이 이어지게 하였다

대유학자로서 이름이 높으시고, 교육자, 정치가, 사상가로서도 크신 업적을 남기셨다. 더욱이 임금으로부터 “문장으로 나라를 빛낸다(文章華國)”라는 칭찬을 받으신 대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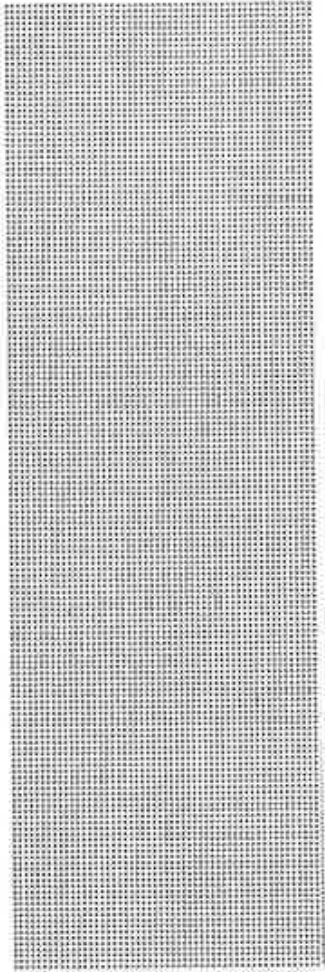
덕과 문장을 숭상하는 시가로서 최자의 <보한집(補閑集)>에 실려 있는 ‘계이자시(戒二子詩)’가 있다.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좋은 물건은

없으나 / 오직 값진 보배를 간직해왔다 /
 문장은 바로 비단이 되고 / 덕행은 곧
 귀한 옥이 된다 / 오늘 서로에게 분부하
 노니 / 부디 뒷날 이것을 잊지 말라 / 그
 러면 나라에 귀히 쓰이게 되고 / 세세
 토록 더욱 흥창하리라 / (家世無長物,
 惟傳至寶藏, 文章爲錦繡, 德行是珪璋, 今
 日相分付, 他年莫敢忘, 好支廊廟用, 世
 世益興昌)

이것은 문헌공의 좌우명이며 삶의 철
 학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문을 갈고
 닦고 덕행을 훌륭하게 쌓으면 나라의
 귀중한 일꾼이 되고 대대로 번창할 것
 이라는 진리의 말씀이시다. 이에 따라
 두 아드님(유선, 유길)은 유명한 재상
 이 되었고 고려시대에 빛나는 가문을
 이루었다. 그리고 대대로 많은 문장가
 와 애국지사가 나와서 국가 민족을 위
 하여 봉사하고 있으며 번창하고 있다.

1984년은 바로 문헌공 탄신 1,000주
 년을 기념하는 해로서 우리 대종회에서
 〈학술대회〉도 개최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海州崔氏大同譜〉도 간행했으며
 〈文憲書院〉도 건립하게 되었다. 이제
 〈宗誌〉도 둘째권을 편찬하게 되기에 기
 뻐 마음으로 간행을 경하하며 이에 노
 려를 아끼지 않은 종지편찬위원장과 그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아울러 이십만 종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담기는 종지로서 나날이 발전하길 기원하며, 문헌공의 말씀을 따라 학문을 갈고 닦고 덕행을 쌓아서 나라의 큰 일꾼이 우리 가문에서 많이 나오길 기원하는 바이다.

그리고 하루 빨리 조국통일이 이룩되어 이산가족이 함께 만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 본다. 황해도 해주에 있는 선조들의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제를 올릴 수 있길 바란다. 신광사(神光寺) 풍치 좋은 곳에 있는 문헌서원(文憲書院)에서 남북한 우리 종친들이 모두 모여서 문헌공의 덕을 기리며 상봉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는 바이다.

종지를 통한 전통 계승의 현대적 의의



俊 基

(한대교수겸 한양여전학장 문학박사)

현대 사회에서 전통의 중요성이 부단히 강조되는 것은 옛 선인들의 가르침을 상고하여 오늘을 사는 삶의 지혜로 삼고자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전통이란, 지나간 한 시기의 낡고 고루한 인습이 아니라 우리 몸 속에서 끊임 없이 뛰고 있는 맥박과도 같은 것으로 오랜 세월을 거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슬기로운 삶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주최씨종지(海州崔氏宗誌) 제2집 발간을 맞아, 다시금 전통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본시 하나의 국가는 가족에 기초한 씨족 단위의 부족국가로 출발하였거니와, 이러한 씨족사회야말로 집단공동체의 토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족사회에서의 가르침이 발전하여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질서체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사회구조와 생활 형태가 다변화 되면서, 현대적 질서체계와 사고방식에 가려, 우리 삶의 근본이 되어 온 옛 선조들의 가르침

을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것도 오늘
의 현실입니다.

우리 해주최씨대중회가 결성된
지도 어언 십년, 전국각지에 산재한
종친들을 찾아 상호유대를 돈독히
하면서 같은 조상을 모시는 자손으
로서 다함께 선조의 얼을 기리는
것도 오늘 우리가 영위하는 삶의
근본과 그 가르침의 깊은 정신을
되새기며 문중의 화합과 발전을
통해 나라와 민족의 중흥에 힘이
되고자 하여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해주최씨대중회의 결성은
국가의 기본 구성단위인 씨족의
결집으로 중지와 역량을 쌓아 국가
에 봉사하려는데 그 참다운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
서 1982년 10월, 우리 해주최씨대중
회가 재결성된 것이라던가, 또한
문헌공 탄신 1천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여 온 것은 우리 문중자체의
거룩하고 보람있는 일인 동시에
우리 사회와 민족의 정신문화 향상
에 크게 이바지 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경하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해주최씨의
조상이신 문헌공(文憲公) 충(冲)
선조님께서 고려시대의 대정치가요

해동공자로 숭앙받으며 우리나라
유학의 초석을 이룬 대학자이셨습
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급할 땐
나아가 외적과 싸우고 들어와서는
임금을 보필하는 출장입상(出將入
相)의 본을 실천하였으며, 때에
이르러 벼슬을 사양하시고 향리로
돌아와 구재학당(九齋學堂)을 여시
매, 경향각지의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으니 이는 우리나라 사학
의 효시이거니와, 일찍이 오늘날
우리가 소망하는 평생교육과 전인
교육의 이념을 몸소 펼치셨던 것입
니다. 따라서 문헌공 冲선조님의
가르침을 오늘에 다시금 상고하는
것은 비단 그 후손들로 하여금 격려
와 자극을 통한 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자성의
시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사회는 산업문
명의 가속화로 말미암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물질문
명의 팽창과 비례해서 정신적 위기
도 그도를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
다. 더욱이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붕괴에 따른 가치관의 상실과 빈약한 사고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일층 어둡게만 할 뿐입니다. 이 모든 현대문명의 병적 징후는 생활상의 다원화와 역사의 가속화로 인한 전통적 정서의 결핍에서 연유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위기에 처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말 그대로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 가르침을 회복하여 오늘에 새롭게 되살리는 일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해주최씨대종회가 재결성된 이래로 우리는 이미 사계의 석학들에게 위촉하여 문헌공연구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문헌공연구논총(文憲公研究論叢)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학자들의 문헌공에 대한 순수한 연구논문집으로 학계에 공헌한 바도 크지만 우리에게서 현대를 사는 생활지침이자 후세에 기려 물려 줄 귀중한 업적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문중의 숙원사업이던 해주최씨대동보 전 8권의 완간과 그리고 沖선조님의 가르침과 덕을 기리는 문헌서원

(文憲書院)을 최근 오산에 다시 세움으로써 후손들로 하여금 송조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은 실로 우리 문중의 큰 감격과 기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해방과 더불어 남북이 분단된지 어언 반세기가 가까와 오는 지금, 다행히 민족통일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시작되는 작금의 현실이지만 시조 문헌공께서 태어나시고 또 모셔져 있는 해주땅을 지척에 두고 참배하지 못하는 서러움과 안타까운 심정은 상기도 한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만물지영장이라는 사람은 물론 하찮은 미물에 이르도록 귀소본능(歸巢本能)이 있게 마련인데 이것은 하늘이 내린 섭리이거니와 우리 자신의 근원을 찾아 그곳에서 삶의 위로와 화평을 얻으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 대대로 평화와 복락을 누려온 본향(本鄉) 해주땅, 돌하나 풀 한포기에도 조상의 숨결과 삶의 역사가 스며 있을 그곳이 갈 수 없는 이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중이 오산에 건립하는 문헌서원에 봉안되는

영정에 문중일동 고개숙여 선조님의 얼을 받들고 후손들의 복락을 기원하면서 정신적 안식을 찾게 된것은 참으로 일대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컨대 통일이 되어 다시 본향을 찾는 그 날까지 본 해주최씨종지가 종친 모두에게 상호간의 결속과 친화는 물론 상부상조하는 교량적 역할이 됨과 동시에 선조 문헌공의 정신과 가르침을 주제로 하는 종중 문화의 표상이 되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종지를 통하여 선조님의 가르침과 정신이 현대적으로 발현되어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생활 철학이자 조상들의 값진 유산으로 영원

히 간직할 전통이 되기를 재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종지에 귀중한 옥고를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종회를 이끌어 주시면서 문헌서원 완공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元植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과 해주최씨대동보 발간에 역시 심혈을 기울여 수고가 많으셨던 吉堧 수석 부회장님과 여러위원 종친들, 그리고 대종회 대소사에 크게 이바지하시면서 본 종지를 꾸미는데 애쓰신 愚 종친을 비롯하여 편집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激 勵 辭

海東孔子 후손의 공지를 드높이자



昌 潤

(前公報處長官·政治學博士)

海州 崔氏 宗誌 제2집의 발간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옛 詩에 「胡馬依北風 越鳥巢南枝」라는 句節이 있습니다만, 비단 말이나 새뿐만 아니라 사람도 자기의 뿌리와 根源을 그리워하고 歸依하려는 本性을 가지고 있음은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찌기 高麗 초기에 海東孔子로 불리운 文憲公 崔冲 先祖의 후손들이 이땅의 곳곳에 터전을 잡고 子子孫孫 삶을 이어온지 千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文憲公을 先祖로 모시고 있는 海州 崔氏는 그 根源의 멀고 아득함과 그 血統의 由緒깊음이 이땅의 어느 名門巨族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矜持와 自負心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고도의 産業社會로 이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도 점차 都市化되어 가고 있어 우리는 자칫 農耕時代에 가졌던

故郷에 대한 觀念을 잊어버리거나, 祖上에 대한 根本을 찾는데 소홀함이 없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인듯 합니다.

또한 오늘의 우리 사회는 門閥을 내세우고 직업의 貴賤을 따지던 階級社會가 아니라, 個人의 능력과 책임을 중시하고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는 平等社會인 까닭에 宗親이나 親族에 대한 애착과 상호 依存度가 지난날보다 매우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祖上을 崇慕하고 宗親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참뜻은 반드시 편협한 分派主義나 集團利己主義의 소치라고 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루어져 바다로 흘러간다.』

일찌기 우리의 선인들이 이렇게 노래했듯이, 「나」를 찾고 나를 앎으로써 나의 根本을 바로 헤아린다는 것은 곧 나의 正體性을 뚜렷이 함으로써, 나아가 서는 큰 「우리」에 이르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수많은 넷물과 강줄기가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宗親간에 서로 돕고 家門의 傳統과 脈絡을 이어간다는 것은 크게는 民族共同體의 團結과 協同을 더욱 튼튼히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지금부터 10년전인 1982. 10. 23에 海州崔氏大宗會가 再建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며, 그동안 會報발간, 文憲公기념사업회결성, 文憲公탄신 1000주년기념학술회 개최 및 研究論叢 발간, 宗誌 창간, 大同譜 完刊 등 매우 중요한 사업들이 뜻있는 어른들의 주도아래 이루어진데 대해 충심으로 깊은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元植 海州崔氏大宗會長께서는 앞에 열거한 여러가지 宗中사업에 앞장서 오셨을 뿐 아니라, 금년 여름 준공 예정으로 지금 京畿道 烏山에 건립중인 文憲書院을 위해 상당한 私財를 쾌척해 주신데 대해 宗人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感謝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海東孔子 文憲公의 후손이라는 드높은 矜持를 가지고, 빛나고 悠久한 宗中の 傳統을 오늘에 이어나가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달이 가고 해가 거듭될 수록 宗中이 더욱 繁昌하고, 서로 돕고 사랑과 우애를 나누는 가운데 宗人 개개인과 家門의 더욱 큰 發展이 있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文憲公 崔冲先生の 生涯와 教學思想



崔 根 德

〈筆 者〉

慶州崔氏

成大 儒學大學長・儒學大學院長

成均館副館長

圃隱思想研究院長・栗谷學會長・禮學長

專攻：儒教經典學

一. 序 言

高麗一代를 통하여 成宗은 英
명한 君主였다. 建國以來 미처
갖추어지지 않았던 地方行政組織
을 完結했고, 따라서 官僚體制가
確立되었다. 官制・軍制에서 衣
冠에 이르기까지 모든 文物제도
를 완성시킨 것은 물론이고 興學
文治에 기울인 그의 업적은 邦家
를 반석위에 올려놓은 기틀이 되
었으며 길이 후세의 垂範이 되었
다.

太祖의 손자로서 제6대 王이

된 그는 16년간 王位에 머물렀는
데, 儒學史에 남을만한 사실을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① 元年 夏六月에 “임금의 德
은 신하에게 힘입는 바, 예나 지
금이나 마찬가지이다. 朕이 새로
이 萬機를 총람하게 되어 혹여
정사에 잘못이 있을까 두렵다.
京官 5품이상은 각각 封事를 올
려 時政의 得失을 論하기 바란
다.”는 制書를 내렸고, 이에 응
하여 崔承老가 「時務 第28條」를
올리게 되며 王은 恣연히 嘉納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게 되

었다. 그 결과 儒教를 統治理念으로 한 일대 혁신이 가해졌다.

② 二年 春正月에 王은 圓丘에 거동해서 풍년을 빌고 太祖를 配享했다. 그리고는 몸소 籍田에 나아가 밭을 갈고 神農을 제사지냈으며 后稷을 配享했다. 풍년을 빌고 籍田에 밭가는 禮(祈穀籍田之禮)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러한 垂範은 儒教立國의 기틀을 다진 것이었다.

③ 二年 夏五月에 博士 任老成이 宋에서 돌아와 大廟堂圖와 記, 社稷堂圖와 記, 文宣王廟圖와 祭器圖, 七十二賢贊記 등을 바쳤다.

④ 五年에 崔罕·王琳을 宋에 留學보냈으며 이들은 國字監에 入學했다. 이는 王이 宋의 學制를 알아보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6年후에 結實이 된다.

⑤ 五年 夏五月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 되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써 하늘을 삼는다.”(民爲邦本 民以食爲天)는 유명한 勸農敎書를 내린다.(『高麗史節要』 卷2 成宗5年條)

⑥ 六年 秋八月에 鄭又玄 등이 급제를 했고 王은 敎書를 내렸다.

“옛날에 새끼에 매듭을 맺어 文字를 삼고 기왕에 卦를 그린 이래로 나라 다스리는 임금은 五常을 익혀 학교를 베풀었고 六經을 교재로 법을 취했다. 그러므로 虞에서는 上下의 序를 열었고 夏에서는 東西의 序를 두었으며, 殷에서는 兩學을 닦았고 周에서는 二膠를 세웠다. 先生을 가려 토론을 하게 하고 國子에게 명해 익히도록 해서, 君臣父子가 모두 사랑하고 공경하는 풍습을 알고 禮樂詩書로 족히 經綸의 業을 創出케 했다. 이로써 人倫軌範과 王道紀綱이 찬란하게 빛났던 것이다.”

이에 王도 이를 모범삼아 풍속을 변화시키고 사람마다 禮讓을 알게하고 싶었다. 그래서,

“近者에 널리 모든 州·郡·縣의 자제들을 모집해서 서울에 올라와 학업을 익히게 했다. 과연 바람을 타고 이르고

詔書에 응해 와서 講堂에는 학생수가 자못 많아졌으나, 대개 집을 멀리 떠나오고 나그네 생활이 길어지자 성공을 하려는 뜻은 게을러지고 고향을 그리는 정만 깊어지니, 그 떨어져 있음을 민망히 여겨 諭言을 내리노니, 머물기를 원하는 자는 서울에서 살게하고 물러가기를 구하는 자는 돌아가도록 허락해 각각 경비를 나누어 줘서 떠나가고 머무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하라. 그러나 총명한 성품을 지닌 자가 스승이 없어 一經의 뜻도 배우지 못하고 헛되이 세월만 보내게 된다면, 비록 앞길이 있다하나 버려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재를 얻을 계획도 없을 것이며, 선비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이제 經書에 통하고 典籍을 널리 읽은 선비, 溫故知新하는 무리를 뽑아 12牧에 각각 經學博士 1명과 醫學博士 1명을 파견해서 부지런히 착한 길로 인도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칠 것이며, 반드시 功績의 얹고 깊

음을 살피고 헤아려서 벼슬길로 뽑아 올려 장려할 것이다. 모든 州·郡·縣의 官長은 이에 응해 백성중에 가르칠만한 아이를 둔 자에게 훈계하여 공부에 힘쓰도록 하라. 혹여 그 부모가 國風을 알지 못하고 집안살림에만 급급해 오늘 아침의 이익만 알고 내일의 영화를 모르고서 ‘배워서 무엇하며 글을 읽어 무슨 이익이 있는가. 집 일에 방해된다’고 하여 오직 나무하는 일만 강요하게 되면, 그 아들은 평생토록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그 아버지는 영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너무 길어서 原文을 모두 인용하지 못하지만(『高麗史』「世家」卷第三 成宗六年條) 成宗의 儒教에 대한 인식과 教育에 대한 의욕이 잘 드러나 있는 教書이다.

특히 중앙에 설치한 國學에서의 미흡함을 보충하기 위해 각 지방에 經學博士를 파견한 것이나(醫學博士는 백성들의 保生 療病을 위해 파견했다), 어리석은

백성이 집안 일을 핑계로 자제들의 敎育을 기피하는 경향을 간절하게 달래는 대목은 깊은 감명을 준다. 敎育에 貴賤 貧富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⑦ 七年 春二月에 左補闕 咸 知起居注 벼슬에 있는 李陽이 封事를 올려 같은 요지로 上奏했다.

“첫째, 옛 밝은 임금은 天道를 받들어 높이고 人時를 경건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농사의 어려움을 알고 백성은 農祭의 빠르고 늦은 것을 알고, 집집마다 넉넉하게 되고 해마다 풍년을 이룩했습니다. 月令을 살펴보건대 立春전에 土牛(흙으로 만든 소, 봄맞이 의식에 씌)를 내어 농사의 이르고 늦음을 알려주고 故事를 들어 때에 맞춰 행했습니다.

둘째, 임금께서 籍田을 몸소 경작하는 것은 明王의 重農의 뜻이며, 경건하게 길쌈을 행하는 것은 어진 왕비가 임금의

德을 돕는 것이고 天地에 致誠해 나라에 경사를 쌓는 일이옵니다.”

셋째, 聖人이 굽어 살피고 우러러 봐서 때의 변화에 통하며, 王者는 仁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어 物情을 이루게 하는 것이옵니다.

세가지를 모두 『禮記』의 「月令」, 『周禮』에 의거해 임금이 몸소 실천하고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王은 이에 대해 ‘李陽의 所論이 모두 經典에 의거한 것’이라며 嘉納을 하고, 兩京의 모든 관리와 十二牧의 牧民官들에게 알려서 힘써 시행토록 조치하고 있다.

이는 儒敎的 政治思想을 실제 行政에 具題한 것으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⑧ 九年 秋九月에 “무릇 국가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반드시 먼저 根本에 힘써야 하며, 根本을 힘쓰는 데는 孝보다 더 중한 것이 없다.”면서 일일이 實例를 들어 孝의 실천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⑨ 九年 十二月에 西京에 修書院을 설치해서 史籍을 베껴 간수하고 藏書를 늘여가도록 조치했다.

“秦皇은 三代의 詩書를 불태웠고, 漢帝는 五常의 載籍을 천명했다.”

國家(高麗) 草創의 시초와 羅代(新羅)가 喪亡할 무렵에 많은 귀중한 圖書 典籍이 불타 없어지고 버려져, 여러代를 내려오면서 잃어버린 책이며 글들을 보충해 읽고 베껴서 재있다. 募人이 왕위를 이은 후로 더욱 儒教를 높이고 지난 날의 일을 계승·발전시켜, (中略) 秦漢의 舊俗으로 하여금 鄒魯의 遺風을 알게하고 父慈子孝의 常道를 깨달아 兄友弟恭의 美德을 익히게 하였다. 마땅히 有司에게 命하여 西京에 修書院을 설치해서 諸生으로 하여금 史籍을 抄書해 간수하도록 하리라.”

⑩ 十年 春二月에 安慰使를 諸道에 보내어 백성의 疾苦를 慰問

하도록 하였고, 閏月에 社稷을 세웠다.

“내가 듣기에 社는 土地의 主이다. 땅이 넓어 다 공경할 수 없으므로, 封土를 하여 社를 삼아서 功에 보답하는 것이다. 稷은 五穀의 長이다. 곡식이 많아 두루 제사할 수 없으므로, 稷神을 세워 제사하는 것이다.”

⑪ 十一年 十二月에 太廟가 落成되었다. 前年부터 新營하기 시작해서 이때 완공이 된 것이다. 在朝 儒臣들이 昭穆 位次와 衿 儀禮를 議定해서 王께 올렸다.

⑫ 十一年 十二月 丙寅에 내린 敎書는 興學하는 뜻을 더욱 확고하게 밝히고 더 많은 學校의 설립을 勸獎하고 있다.

“王者가 天下를 化成하는 데는 學校가 우선이 된다. 堯舜의 風을 祖述하고 周孔의 道를 躋아서 國家 憲章의 제도를 베 풀고 君臣上下의 예의를 분별하는 것은 賢儒에 맡기지 않으

면 어찌 軌範을 이루겠는가. 하늘을 헤아리고 땅을 열어 大統을 보전하고 功德을 定立하려면, 진실로 장차 높이고 장려해 行해야 할 것이며, 잠시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創業을 한 지 이미 오래이며 文을 지킴으로써 일어났다. 내가 보잘것 없는 몸으로 王位에 올라 九流의 說을 천명하고 四術(詩書禮樂)의 門을 널리 열 것을 생각하여, 저 童蒙을 啓發시키고 學校를 설치하자 이곳 저곳에 經典을 옆에 끼고 다니는 선비가 무리를 이루었으며, 학교에는 就學하는 學徒로 저자가 되었다. 綸·(中書省)를 열어 재주를 겨루고 會府(尙書省)를 열어 인재를 뽑으니, 省試에 나아가는 자는 많고 仙科를 보는 자는 줄어들었다. 이렇지만 배움에 學舍가 없고 인재가 잘 다듬어지지 않고 있다. 有司에게 명령하노니, 좋은 곳을 찾아서 널리 學舍를 경영하고, 田莊을 넉넉히 주어서 하여금 金을 단련해 잠빛이 나게 하고

구슬을 갈아 그릇이 되게 할 것이며, 무릇 모든 선비들에게 내 뜻을 알게 할지니라.”

⑬ 十四年 春二月에 文治를 돈 구고 敎書를 내리고 있다.

“天文을 보아 時變을 살피고 人文을 보아 天下를 化成하는 것이니, 文의 意義가 크도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文을 業으로 하는 선비가 겨우 科名을 얻은 뒤로는 公務에 이끌리어 素業을 소홀히하는 일이다. 그 나이가 五十이하로 知制를 거치지 않은 자는 翰林院에서 出題하여 每月 詩三篇, 賦一篇을 지어 올리게 하고, 在外 文官은 스스로 한 해에 詩三十篇, 賦一篇을 지어 올리게 하며, 翰林院은 品評해서 奏上토록 하라.”

⑭ 十六年 冬十月 戊午에 王의 患候가 危重했다. 開革君을 불러 傳位를 했는데, 平章事 王融이 大赦를 할 것을 奏請하자 王이 말했다. “死生은 在天이거늘 어

찌 罪人을 풀어주어 그릇되게 목숨이 연장되기를 求할 것인가. 그리고 나를 繼承하는 자도 어찌 新恩을 베풀 것인가.”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臨終에도 그 뜻은 儒者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二. 生 涯

崔冲의 生年에 대해서는 明確하지가 않다. 海州崔氏族譜에는 成宗5年(丙戌. 檀紀 3319年, 西紀 986年)으로 되어 있으나. 『高麗史』에 의한 推算은 이와 차이가 나고 있다. 『高麗史』 「列傳」崔冲傳에 보면 “七年冲以年講七旬乞退”라고 되어 있다. 七年은 文宗七年으로, 이 해에 冲이 나이 七十에 차서 隱退하기를 청했다는 것이다. 이 해를 逆算하면 崔冲은 成宗3年(甲申. 檀紀 3317年, 西紀 984年)生이 된다.

學界에서는 史書에 根據해서 1984년에 崔冲 誕生1千年 기념행사를 치른 바 있다. 本稿에서는 『高麗史』를 따르기로 한다.

先生은 本貫이 海州로 黃海道

海州 大寧郡 出身이라고 하며, 先代는 알려지지 않았다. 海州崔氏는 海州 大寧郡 首陽山下에서 世居했다고 하는데, 그 곳의 別稱이 孤竹郡이어서 孤竹崔氏라고도 한다. 海州崔氏는 溫을 始祖로 삼는데, 바로 先生の 아버지시다.

海州崔氏側의 「崔子年譜」에 다음과 같이 先生の 誕生逸話가 실려있다.

“先考 牧使公(諱 溫)께서는 재산을 늘려 대단히 넉넉하였다. 당시에 海州牧使 金興祖가 그 豪富함을 보고는 억지로 戶長으로 삼았다. 그 후 며칠 되지 않아서 밤에 큰 별이 東北의 首陽山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산이 울고 龍首峰이 무너지며 봉우리 위에 구름과 안개가 자욱히 일대를 둘러싸서 사흘동안 걷히지 않는 것이었다. 興祖가 마음속으로 대단히 기이하게 여겨 이튿날 이른 아침에 관리를 별이 떨어진 곳에 보내어 탐문하게 했더니, 곧 돌아와 보고하기를 崔戶長

집에서 지난밤 아들을 낳았고 달리는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興祖가 듣고는 심히 기이하게 여겨 戶長의 役을 면해 주었다.”(先考 牧使公諱溫 殖在甚饒 時海州牧使 金興祖 見其豪富 抑定爲鄉 戶長 未數日 夜見大星隕于東北首陽 山鳴龍首峰 崩 峰上雲霞·繞一洞 三日不捲 興祖 心甚異之 明日早朝 遣吏于星隕處 探問之 則報曰崔戶長家去夜生男 而別無他故矣 興祖聞甚奇之 因免其戶長之役)

대개 名人의 誕生에는 異非가 따르는 법이지만 선생에게는 별이 등장한다.(范伏厓曰 先生 夢凝奎星而生. 權陽村曰 文祥燦奎勃興斯辰 등)

父 溫에 대해서는 『東國輿地勝覽』에 州吏라 칭하고 있다. 戶長을 두고 한 말인지 모른다. 高麗 말엽의 學者 權遇가 先生의 行狀에서 말했듯이, 이 무렵의 戶長이 근세의 州縣 鄉吏와는 그 格이 다르다(戶長 非近世州縣鄉吏)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先生의 字는 浩然이고, 號는

惺齋·月圃·放晦齋라 했다.

『高麗史』에는 사람됨을 “風姿瑰偉하고, 성품과 지조가 굳고 바르다.”(風姿瑰偉 性操堅貞)고 평하고 있다. 그리고 “어릴적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글짓기를 잘 하였다.”(少好學善屬文)라고 적고 있다

穆宗8년에 甲科第一로 登第했는데, 弱冠 21세였고 崔沆의 門下였다. 崔沆은 當代 첫손가락 꼽히는 巨儒로서 본관이 慶州이고 新羅儒學의 맥을 高麗에 이어준 유명한 崔彥撝의 손자였다. 崔沆은 儒者로서 名臣이었고 清廉潔白한 성품이었는데, 好佛의 일면도 있었다. 好佛은 이 시대의 풍조이었고, 선생도 그 影響을 받았음직하다.

登科이후 선생의 宦路는 탄탄대로로 활짝 열리기 시작한다. 몇 단계를 거쳐 6년후인 顯宗2년에는 右拾遺가 되고, 右補闕·起居舍人·翰林學士·內史舍人·知製誥 등을 거쳐 드디어 顯宗17년(서기 1026年) 內史舍人으로 知貢擧가 된다. 知貢擧는 科擧의 考試官으로 官界뿐만 아니라 學

界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자리였다. 高麗 科擧制度는 考試官인 知貢擧에 人材登庸을 일임했고, 따라서 知貢擧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知貢擧와 及第者 사이에는 師弟의 誼가 맺어지고 일생을 그 影響下에 있게 되는 것이었다.

先生은 知貢擧가 되어 甲科에 崔貶등을 급제시킨 후, 많은 人材를 배출시키게 되는데 世上에서는 尙書榜이라 일컬었다고 한다. 尙書榜이란 尙書감의 뛰어난 人材를 뽑아내는 榜이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이는 선생의 높은 見識과 公正한 考選, 그리고 知人之鑑을 말해주는 것이다. 知貢擧로서의 탁월한 成果는 훗날 九齋設置의 基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教育者로서의 타고난 天稟을 보여주는 것이다.

顯宗20年(己巳 서기 1029年)에 右諫議大夫가 되는데, 이때 선생은 46歲로 한창 일할 나이였다. 諫議大夫는 中書門下省의 正四品 벼슬로 樞要의 자리라 할 수 있었다. 中書門下省은 政府의 서무를 통할하고 諫諍을 맡은 부

서인 것이다. 이듬해(庚午)에 太子右諭德이 되고 아드님 되는 惟善이 이 해 4월에 乙科 장원으로 登科를 해서 家門에 영예를 더한다.

顯宗은 在位22年으로 끝막음을 하는데 즉위전에도 파란이 많았고, 그의 治世 또한 파란의 연속이었다. 先代가 7代王 穆宗으로 18歲에 즉위하게 되자 母后인 千秋太后가 攝政을 했었다. 太后의 外戚 金致陽이라는 자가 있어 중을 일컬으며 宮中을 드나들다가 太后와의 사이에 醜聞이 있어 成宗에 의해 杖配된 바 있었다(太后는 景宗의 妃, 成宗은 景宗다음 임금님), 太后는 섭정을 하게 되자 곧 金致陽을 配所에서 다시 불러들여 通情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 穆宗이 후사가 없이 병석에 눕게 되자 太后와 金致陽은 둘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穆宗의 뒤를 잇게 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 음모를 탐지한 사람이 선생의 恩門(座主·試官)인 崔沆으로서 蔡忠順과 協力하여 顯宗을 즉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선생께서 顯宗元年에 西京掌書記에서 修製官이 됨으로써 中央政府 進出에 기틀이 되었고, 이후 누진을 한 것은 恩門 崔沆의 추천에 힘입은 바도 없지 않을 것이다. 물론 선생의 뛰어난 品行과 人格을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어지러운 中央政界의 실정으로서로는 品行이나 人格만으로 宦路가 열리는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선생의 出身이 鄉吏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推測은 얼마든지 可能하다. 그리고 登科後 5년간(穆宗 8年에서 顯宗5년까지) 별다른 仕官의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金致陽 일파에게 백안시되어 벼슬길이 막혀있지 않았나 짐작이 되기도 한다.

海州崔氏측의 「崔子年譜」(文和公年譜附)에는 顯宗元年(庚戌)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선생 25세, 5월에 西京掌書記에서 修製官으로 옮겼다.<『高麗史』康兆傳에 나옴.> 穆宗때 선생께서 直言으로 내침을 당했는데, 顯宗朝에 즉각

불러들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今王께서 大統을 이을 것은 前王이 이미 정해 놓았었다. 前王을 殺害한 것은 康兆이지 今王이 아니다.’하고, 곧 벼슬에 나아갔다.”(先生二十五歲五月以西京掌書記 遷修製官<出麗史康兆傳> 穆宗時 先生以直言被黜 顯宗初即召之 先生曰 今王之致統 前王之既宗正命 前王之弒 康兆也 非今王也 即就任)

사실 顯宗의 부름에 금방 나아가기가 게름칙했는지 모른다.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崔沆과 蔡忠順의 탐지로 太后와 金致陽 일파의 음모를 알게된 목종은 급히 서둘러 당숙인 郁의 아들 大良君 詢을 後繼王으로 內定을 하고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西北面都巡檢使 康兆에게 王宮을 호위할 것을 命했다. 康兆는 王命대로 오천군사를 이끌고 開京으로 올라왔는데, 風聞으로 穆宗이 이미 죽은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다. 그는 부하 諸將과 의논한 끝에 別將으로 하여금 大

良君 詢을 맞이하게 하고, 자신은 王宮으로 들어가 穆宗에게 退任을 강요했다. 그리고는 金致陽父子를 죽이고 千秋太后를 귀양 보내 궁중을 일신했다. 康兆는 이에 그치지 않고 폐위되어 忠州로 쫓겨가는 穆宗을 弑害하기에 이르렀다.

康兆의 政變에 의해 王位에 오른 大良君 詢이 곧 顯宗으로, 그는 後嗣없는 穆宗에 의해 뒤를 잇도록 이미 定해져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武臣 康兆의 힘을 입은 셈이 되었다.

하여튼 顯宗은 즉위전에 唯一한 왕위 계승권자였기 때문에 千秋太后와 金致陽 一派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生命의 위협을 여러차례 받은 것이 사실이다. 요행히 王座에 앉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康兆의 穆宗弑害로 해서 누를 입지 않을 수 없었다. 선생께서 顯宗의 부름을 받았을 때, 就任을 주저한듯한 흔적도 혹여 儒敎的 大義에 비추어 어긋남이 있지 않은지 잠깐 동안이나마 성찰이 필요했을 것이다.

先生은 ①顯宗의 大權繼承은

穆宗이 이미 정당한 命으로 確定해 놓았었고, ②穆宗을 시해한 것은 康兆이며, 현종은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두가지 名分을 찾아 그 부름에 應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顯宗은 在位期間에 前王弑害의 누에 시달려야 했다. 이 무렵 契丹에는 聖宗이라는 야심만만한 군주가 있어 以臣伐君을 問責한다는 구실로 40만 대군을 휘몰아 侵入해 와서, 방어에 나선 康兆의 군대가 大破되고 開京이 함락되는 비운을 겪었으며 康兆는 결국 사로잡혀 갔다.

契丹軍은 王의 親朝를 조건으로 和議를 成立시키고 물러갔는데, 현종이 이를 끝내 이행하지 않자 江東 6州를 要求해 왔고, 이를 거절하자 9년(서기 1018년) 다시 蕭排押이 大軍으로 來侵했으나 上元帥 姜邯贊 장군의 뛰어난 전술에 걸려 참패하고 물러갔다.

顯宗은 強大國 契丹에 의한 끊임없는 外患에 시달려야 했는데도 內治에 주력해서 종종의 업적을 남겼는데, 그 중에도 儒敎振

興에 힘써 薛聰 崔致遠 등 先儒를 追封해서 文廟 從祀의 先例를 最初로 만든 사실은 特記할 일이 아닐 수 없다.

顯宗이 在位22年으로 돌아가고 太子 欽이 卽位하는데 이가 德宗이다. 德宗은 卽位初에 國子監試를 新設(閏十月己酉始設國子監試)함으로써 儒教를 治國의 要道로 삼을 意志를 나타낸다. 그리고는 元年에 王可道를 監修國史로 任命해 前王때 시작한 國史編纂事業을 完成한다.

實은 先生께서도 일찍이(顯宗4年) 右拾遺로 國史修撰官을 兼任해 太祖로부터 穆宗에 이르는 七朝實錄을 편찬한 바 있다.

『高麗史』 「列傳」에는 “德宗初에 右散騎常侍 同知中樞院事로 轉任되어 成宗때 內外 諸司廳壁에 모두 說苑의 六正六邪의 文과 漢나라의 刺史 六條光命을 써놓은 것을 이제는 바꾸어 다시 써서 걸어놓게 해 左位者로 하여금 신척하고 힘쓸 바를 알게 하옵소서 하고 아뢰었고 王이 이를 좃았다.”고 쓰여있다.

先生께서 右散騎常侍가 된 것

은 德宗2年 正月이고, 同知中樞院事가 된 것은 4月이다.

일찍이 成宗9年(西紀 990年)에 右補闕 曺 起居注 벼슬에 있는 金審言이 封事를 올려 儒教를 基本으로한 政教를 펴서 治道를 一新할 것을 上奏한 바 있었고, 王은 그의 建議에 따라 說苑의 六正六邪와 漢의 刺史 六條之命을 中央과 地方의 모든 官廳의 벽에 써붙여 놓고 벼슬아치들의 勸戒로 삼게 했었다.

六正이란 人臣이 지켜야 하는 여섯개의 올바른 道理를 말하는 것이고, 六邪는 人臣이 犯해서는 아니되는 여섯개의 邪惡한 짓을 말한다. 이에 따라 六正臣이 있는데 聖臣·良臣·忠臣·智臣·貞臣·直臣이고, 六邪臣은 具臣·諛臣·姦臣·讒臣, 賊臣, 亡國臣이다.

漢 刺史 六條之命이라는 것은 漢 武帝때 刺史에게 준 六個條의 警戒사항으로, ①勢力을 믿고 強하게 구는 일.(豪強·勢) ②백성에게 침탈하는 일.(侵漁百姓) ③형벌과 포상을 함부로 남발하는 일.(刑賞猥濫) ④사사로이 아첨

해서 어진 이를 가로막는 일.(阿私蔽賢) ⑤子弟를 청탁하는 일.(子弟請託) ⑥법을 굽혀 뇌물을 들이는 일.(屈法納賂) 등이다.

六正六邪는 내용이 상당한 長文인데 全文을 모두 揭示했던 것 같다.

先生께서는 세월이 오래 흘러 낡았으니 이것을 다시 써서 揭示함으로써 모든 官員에게 飾勵할 거울로 삼자고 건의한 것이었고, 德宗은 이를 嘉納해 따른 것이다.

이듬해에 刑部尙書 中樞使가 되었는데, 德宗이 승하하고 그의 아우인 후이 왕위를 계승해 靖宗이 된다.

『高麗史』「列傳」에는 이 때의 활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靖宗朝에 尙書 左僕射 泰知政事 判西北路兵馬事를 除授했다. 王이 冲에게 邊境으로 가서 城池를 개척하고, 확정짓게 命했고 衣服下賜해서 파견했다. 冲이 寧遠平虜等 鎮과 여러 堡 열네곳을 설치하고서 돌아오니, 벼슬을 內史侍郎平章

事로 올렸고 守司徒 修國史 上桂國으로 더했고 다시 門下侍郎平章事로 옮겼다.”

靖宗 初년에 先生의 나이 52歲로 巴야흐로 학문도 宦路도 老熟의 境地로 접어들 時期였다. 靖宗은 卽位以後 줄곧 北方의 契丹에 대해 對備策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실은 前王때(德宗2年) 이미 平章事 柳韶을 보내어 鴨綠江口로부터 都連浦에 이르는 국경지대에 千里長城을 쌓고 있었고 王은 이의 完成을 눈앞에 두고서 國力을 기울이고 있었다.(10年 完成, 西紀 1044年)

先生께서 北邊으로 파견된 것도 契丹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으며, 寧遠平虜等 鎮과 諸堡는 千里長城의 一部였다. 先生은 出將入相으로 國事に 몸을 맡겼으며 성공적으로 임무를 끝내고 돌아오자 벼슬이 오르게 된 것이다.

靖宗은 11年(서기 1045年)에 秘書省으로 하여금 『禮記正義』 『毛詩正義』등의 儒教經典을 刊行

해서 斯文振作에도 노력하는데 左位 12年으로 끝막음을 하고, 아우(顯宗 第三子)인 徽가 뒤를 이어 文宗이 된다.

文宗은 先生을 門下侍中으로 삼는다. 門下侍中은 從一品으로 모든 政事를 보살피는 最高位職이다. 그만큼 王의 優遇가 두터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朝廷에는 老大臣이자 儒宗으로 崔齊顏(崔承老의 孫子)이 있었는데, 文宗은 卽位하자 宣政殿에 납시어 侍中 崔齊顏과 侍郎 崔冲 등을 불러 時政의 得失을 論했다는 것을 보면 王이 先生에게 隆崇한 대우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崔齊顏은 이 해 病歿하게 되고 先生이 老大臣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다. 나이 64세였다.

先生은 王命으로 律令과 書算을 考定하게 되는데 정확한 내용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3년에 守太保로 加資되고 4년에는 開府儀同 三司 守太傅도 올라 推忠贊道功臣號가 下賜된다.

「列傳」에는 이 무렵의 일 세 가지를 特記하고 있다.

첫째는 西北州鎮에 흉년이 들었으니 백성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奏請이다.

“冲이 侍中으로서 都兵馬使가 되어 아뢰기를 ‘지난해 西北의 州鎮에 곡식이 익지 못해 백성이 貧乏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徭役에 시달리고 여자는 徵糶에 시달리고 있으니 청컨대 城池를 수선하는 것 外에는 모든 공사를 지금부터 禁하옵소서.’했다. 이를 좇았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때 高麗는 西北邊境에 대해 무척 신경을 썼다.

契丹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께서는 일찍이 北邊에 파견되어 鎭堡 열네곳을 설치한 경험이 있고, 그 곳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이러한 奏請을 한 것이었다. 사실 千里長城이 完成은 되었지만 邊境地帶의 賦役은 그칠 새가 없었다. 흉년이 든 것을 契機로 이의 輕減을 建議한 것이었다.

둘째는 억류되어 있는 女眞族 86名을 放還하라는 上奏를 하고 있다.

“東女眞 酋長 鹽漢 등 86人 이 여러차례 邊境을 침범하다가 지금 京館에 억류된지 여러 날이 됩니다. 夷狄은 人面獸心이라 刑法으로서 懲戒할 수도 없고 仁義로서 教化시킬 수도 없습니다. 억류한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情으로 필시 忿怨이 깊을 것이고 또한 먹이는 비용도 대단히 많이 듭니다.

청컨대 모두 돌려보내 주옵소서.”

이 짙막한 글에서 先生の 女眞族에 대한 見解를 엿볼 수 있다.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으나 그 마음은 짐승’(人面獸心)이라 단정하고, ‘法으로 징계할 수 없고’(不可以刑法懲) ‘仁義로 教化시킬 수 없다’(不可以仁義教)고 보고 있는 것이다. 女眞族에 대한 이러한 認識은 사실 先生 個人에 限한 것은 아니었고, 當時 高麗

의 보편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을런지 모른다. 일찍이 太祖도 契丹을 禽獸의 나라라 단정하면서 그들이 要請하는 外交關係를 허락하지 않은 적이 있는 것이다.

셋째로 벼슬에 門閥을 따져야 한다는 建議를 하고 있다.

“明年에는 式目都監使가 되었다. 內史侍郎 王寵之 등과 더불어 아뢰기를, ‘及第 李申錫이 氏族을 記錄하지 않았으니 朝官으로 登庸하기에 마땅하지 않습니다.’라 했다. 門下侍郎 金元冲과 判御史臺事 金廷俊이 아뢰기를 ‘氏族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祖父의 잘못이지 申錫의 罪가 아닙니다. 하물며 공부에 功을 쌓아 과거에 급제를 했고 一身에 허물이 없어’ 簪紳들과 사귀고 있음에 있어서라.”

두 相反된 주장에 대해 文宗은 다음과 같이 評정을 내리고 있다.

“冲 등이 아뢴 바는 진실로 常典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데는 널리 門戶를 열어야 하는 것이다. 막음에 집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元冲 등이 아뢴 바대로 하라.”

式目都監使가 되었다는 것은 門下侍中으로서 兼任일 것이다. 式目都監은 國家의 중요한 格式을 議定하는 機關으로 이 해에 처음 설치되었다.

先生은 格式을 議定하는 국가 기관의 長官을 맡으면서 朝官의 氏族을 舉論하고 나온 것이다. 여기에서 ‘氏族을 記錄하지 않았다’(不錄氏族)는 것이 具體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分明하지 않지만, 아마도 四代祖까지의 姓名履歷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 그렇고 보면 海州崔氏의 始祖를 先生의 父인 溫으로 삼고있는 것은 그 緣由를 알 수 없다. 先生의 文集이 연위되었기 때문에 그 以上の 祖上을 알아낼 수 없었을까.

어쨌든 先生께서는 門閥을 重

要視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때의 科擧制度에 있어서 應試資格에 아무런 制限이 없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직도 身分制度가 確立되어 있지 않아서 朝官중에는 그 淵源이 分明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高官登庸에 있어서도 굳이 門地를 따지지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文宗7年(西紀 1053年) 선생의 나이 70이 되었고, 隱退를 ‘上奏한다. 이에 대해 王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내린다.

“侍中 崔冲은 累代 儒宗이며 三韓의 耆德이다. 지금 비록 은퇴를 請하나 차마 따를 수 없다. 마땅히 당해 관아에서는 옛 典據를 상고해서 几杖을 주어 일을 보게 하라.”

그리고는 推忠贊道協謀同德致理功臣 開府儀同三司守太師 兼 門下侍中 上柱國으로 優遇한 特典을 내린다.

先生이 정작 致仕한 것은 9年(서기 1055年)이고 王은 內史令으로 벼슬을 더해 주었다.

致仕에 즈음해서 王은 中使를 先生の 私第로 보내 告身과 禮物를 내릴려고 했고, 이를 전해들은 先生은 表章을 올려 굳이 사양을 한다.

“臣은 立朝以來 輔佐를 다하지 못하다가 힘이 다하고 나이가 들어 감히 骸骨을 빌었나이다. 尸位에 앉아 넉넉한 祿俸을 받았으니 이미 분수 넘치는 은혜를 입었거늘, 이제 또한 특별하신 綸音을 내리시고 장차 궁중에서 中使를 내리시어 閭里에 영광이 미치게 하니 분수에 비추어 未安한 바이오며, 가득차면(盈) 덜음(損)을 부르는 것이 臣의 두려워하는 바이라 아무쪼록 거두어 주옵소서.”

謙讓을 하고 있는데 王은 듣지 않았다. 內史侍郎 平章事 金元鼎과 同知中樞院事 王懋崇을 私第로 보내어 칭송하는 賀辭와 함께 內史令致仕의 告身(職牒)과 衣帶·銀器·綵段·布貨·鞍馬 등을 下賜했다.

先生은 致仕후에도 元老大臣의

優遇를 입어 國家大事의 諮問에 應해야 했고, 宋으로 가는 外交文書는 여전히 그의 손에서 나갔다고 한다. 그렇길래 內史門下省을 中書門下省으로 改稱하게 되자 中書令致仕로 고쳐 삼기도 했었다.

先生은 致仕 후 10여년을 後進養成에 종사하다가 文宗22年(西紀 1068年)에 85歲로 棄世하게 되니, 天壽를 다한 셈이다. 諡號를 文憲이라 했고, 靖宗 廟庭에 配享하였다.

三. 思想과 事功

先生은 鄉吏의 子弟로 몸을 일으켜 中央의 官界에 진출해서 四朝에 걸쳐 樞要의 職을 두루 거치고, 드디어 國家의 元勳이 되었으며 뛰어난 學問과 操行으로 一世의 儒宗이 되었다.

더구나 惟善·惟吉 두 아들이 빼어나 榮達했을 뿐 아니라, 이後 끊임없이 國家棟樑之材를 輩出하는 閥閥家門이 되기에 이르렀으며, 그의 學脈 또한 오래도록 繁榮을 누리게 된다.

四朝에 걸친 先生의 宦歷이 아무리 絢爛하다 하더라도 後世의 일컬음에 빛이 되지는 못한다. 따지고 보면 그의 在朝中에 軍國은 몇 차례에 걸쳐 危機를 겪지만 뚜렷한 發言이나 行跡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史籍·文章의 湮滅에 理由를 댈 수는 없지만, 어떤 機微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特히 君王을 弑害한 康兆의 變이나 崔質·金訓의 武臣亂 등에 있어서 先生의 處身에 대해 「列傳」에 言及이 없는 것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외적으로도 契丹의 侵入·威脅이 끊임없이 가해지는 時期였고 高麗로서는 힘겨운 抗爭을 계속해야 하는 亂局의 연속이었다.

어쨌거나 先生의 後世에 끼친 聲名은 宦路에서 빛어진 것이 아니고, 그 지칠 줄 모르는 後進教育의 情熱과 規模에서 비롯된다.

「列傳」에 다음과 같은 句節이 보인다.

“顯宗이후 전쟁이 겨우 사그라졌으나 미처 文教를 일으킬 여유가 없었는데 沖이 後進을 거두어서 가르치기를 게을리하

지 않으니 學徒가 떼지어 모여 들어서 거리에 넘쳐 흘렀다. 드디어 九齋로 나누었으니, 樂聖·大中·誠明·敬業·造道·率性·進德·太和·待聘이었으며, 이를 侍中 崔公徒라 일렀다. 무릇 科擧에 應試할 子弟들은 반드시 무리속에서 배웠다. 매년 여름에는 歸法寺 僧房을 빌어 夏課를 베풀었는데, 무리속에서 及第를 하고서 학문이 뛰어나며 아직 官吏로 등용되지 않는 者를 擇해 敎導로 삼아서 九經 三史를 가르치게 했다. 간혹 先輩가 오면, 刻燭賦詩(초에 금을 새겨두고, 그 금까지 불이 타들어 가는 동안 詩를 짓는 일)를 하며 차례를 매겨 榜으로 붙이고 이름을 불러 들게해서 조출한 잔치를 베풀기도 했는데, 아이와 어른이 左右로 列을 지어 樽(술을 담는 그릇, 또는 잔)과 俎(안주를 담는 그릇)를 받들어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감이 절도가 있었다. 나이 많은 이와 어린 이가 차례가 있었고, 서로 더불어 酬唱하기를

해가 저물도록 했으며 모두 洛生詠(詠歌의 一種)을 짓고서 마치었으니, 보는 사람들이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顯宗以後 干戈息·未遑文教 冲收召後進 教誨不倦 學徒·集填溢街巷 遂分九齋 曰樂聖 大中 誠明 敬業 造道 率性 進德 太和待聘 謂之侍中崔公徒 凡應學子弟 必先隸徒中 學焉 每歲暑日 借歸法寺僧房 爲夏課 擇徒中及第學優未官者 爲教導 授以九經三史 間或先進來過 刻燭賦詩 榜其次第 唱名以人 設小酌 童冠列左右 奉樽俎 進退有儀 長幼有序 相興酬唱及日暮 皆作洛生詠以罷 觀者 莫不嘉歎)

참고문헌이 극히 드문 지금의 實情으로서는 앞에 引用한 「列傳」의 言及이 참으로 귀중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 몇가지 점에 대해 理解를 얻을 수 있다.

첫째는 ‘顯宗이후 전쟁이 겨우 사그라졌으나 文教를 일으킬 여유가 없었다.’에서 이 무렵 高麗

의 官學이 크게 쇠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지로 앞서 引用한 바도 있지만(崔冲冒頭) 儒治의 賢君으로 일컫는 成宗도 이미 官學 儒生들이 공부에 精進하지 않고 故鄉으로 돌아가려는 생각만 한다고 不滿을 吐露한 바 있다.

“요즈음 널리 모든 州郡縣의 子弟들을 모집하여 京師로 올라와 學業을 익히게 하니 과연 바람을 타고 몰려오고 詔書에 應해 와서 講堂안에 學徒가 자못 많더니, 대개 집을 멀리 떠나오고 나그네 생활이 깊어지자 성공을 하려는 뜻은 게을러지고 고향을 그리는 情만 깊어지니 그 떨어져 있음을 민망히 여겨 諭言을 내리노니, 머물기를 願하는 자는 서울에서 살게 하고 물러가기를 求하는 자는 돌아가도록 허락해 각각 경비를 나누어 줘서 떠나가고 머무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하라.” (近者 廣募諸州郡縣子弟 詣京習業 果以乘風而至 應詔而來講肆之中 學徒頗衆 蓋以辭家路遠

爲客日多 且志隋於爲山 却情深
於懷土 憫其離索 睠降諭言 願
留者 任住京華 求退者 許還乘
梓 各有頒賜 以遂居留)

君王이 널리 各 地方에 命을 내려 학생을 모집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제법 득실거리더니 이내 공부에는 뜻을 두지 않고 故鄉을 그리워하는 분위기로 변해 버린다. 學業에 열중하면 위에서 賞도 내리고, 그 결과 과거에 급제하면 立身揚名의 길도 환하게 트이는데, 그걸 마다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아무래도 高麗의 과거제도에 그 原因이 있을 것 같다.

高麗의 과거는 試官(知貢舉·同知貢舉)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及第者는 及第 당시의 試官을 恩門이라 평생 받들게 되고, 스스로 門生의 禮를 다했다. 試官은 座主라는 별칭이 말해주듯이 監試에 대해 全權을 行使했음직하다.

따라서 과거 지망생은 숨막히는 官學에서 절제를 받아가며 공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有力한 座

主를 찾아 그 아래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有利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사실 高麗에서 私學이 발달한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과거 제도에 연유하는 것이다. 더욱이 知貢舉로 일컬어지는 座主는 한 사람이 몇번이고 連任하는 수가 많았다.

成宗은 이어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총명한 성품을 지닌 者가 스승이 없어 一經의 뜻도 배우지 못하고 헛되이 세월만 보내게 된다면 비록 앞길이 있다하나 버려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재를 계책도 없을 것이며, 선비는 또 어떻게 求할 수 있겠는가.”(然恐有性聰明 無師教授 未學一經之旨趣 虛過數紀之光陰 雖有前程 空爲棄物 得人無計 求士何因, 「高麗史」 「世家」 卷第三 成宗六年 春三月 條)

이로 미루어 보면 과거제도의

虛點 말고도 學業을 忌避하려는 時代風潮도 만연되고 있었던 것 같다.

成宗의 綸音은 구체적인 實例까지 지적하고 있다.

“모든 州郡縣의 官長은 이에 응해 백성중에 가르칠만한 아이를 둔 者에게 훈계해서 공부에 힘쓰도록 편의를 봐 주어라. 혹여 그 부모가 나라의 風教를 알지 못하고 집안 살림에만 급급해 단지 오늘 아침의 이익만 알고 내일의 영화를 생각하지 않고 ‘배워서 무엇하며 글을 읽어 무슨 이익인가. 도리어 집안 일에 방해가 된다.’ 하고 오직 나무하는 일만 강요하게 된다면, 그 아들은 평생토록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그 아버지는 영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應其州郡縣長吏百姓有兒可教學者 合可訓戒勉篤師資 儻其父母 未識國風 爲營家產 只見今朝之利 不思他日之榮 謂學習何爲 讀書勿益 却妨編柳 唯要負薪 其子則沒齒無聞 其親則榮身莫得)

이러한 風潮에다 契丹과의 戰亂으로 해서 國難이 거듭됨에 따라 자연히 官學은 衰退一路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成宗같은 賢君이 다행히 뒤를 이어 國事に 當했다면 또 몰라도 不幸히도 宮中에 紛亂이 일고 弱王暗君으로 이어지는 形勢라 官學의 解弛는 더욱 深化되어 갈 뿐이었다.

顯宗이 卞位를 踐은 後에 王位를 차지했고 다행히 宮中을 바로 잡게 되면서 外患도 차츰 사그라지게 되었는지라 文教에 대해 配慮를 한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 나라의 文教振興은 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契機 또한 쉽게 잡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社會나 時代精神이 흐르고 있게 마련인 것이다.

이런 時流를 아주 敏感하게 잡은 것이 崔冲의 九齋開設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는 九齋의 이름을 밝혀 놓음으로써 教科內容 進學課程을 짐작할 수 있다.

九齋는 樂聖·大中·誠明·敬業·造道·率性·進德·太和·待聘으로 두말할 것도 없이 儒敎思想을 內包하고 있거나 직접 儒敎經典에서 딴 文字들이다.

다만 이 九齋가 進學課程으로서 아홉개의 段階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르치는 經典의 내용에 따른 分類인지는, 확실치가 않다. 齋라고 한 것을 보면 단순히 가르치는 講堂, 즉 齋室의 이름같기도 하다. 하지만 齋室의 이름을 구태여 史書에 羅列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보면 學業의 成就度에 따라 順次로 進級하는 段階(學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훗날 後의 일이지만 睿宗4年(己丑, 西紀 1109年) 國學에 七齋를 設置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周易』을 가르치는 곳은 麗擇, 『尙書』는 待聘, 『毛詩』는 經德, 『周禮』는 求仁, 『戴禮』는 服膺, 『春秋』는 養正, 武學은 講藝등이다.

말하자면 七齋는 麗擇齋 등 일곱 齋室(講堂)인데 그 재실에 따라 教科目이 달랐다는 것이다.

이 七齋의 設置는 崔冲 死後 40年만의 일인데 아마도 國學에서 崔冲의 九齋制度를 본따 導入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崔冲의 九齋도 教科目에 의한 分類가 아닌가 싶다.

하기는 九齋에서의 教育內容이 九經三史라 했으니 九經을 하나씩 配當하고 程度에 따라 三史를 곁들였는지도 모른다. 특히 待聘齋는 九齋의 마지막에 있고 國學 七齋에서는 『尙書』를 講義하는 곳으로 되어있다.

세번째로는 文教振興이라는 大前提로 九齋를 설치한 것이 사실이지만 科擧에 應試하려는 젊은 이들이 大擧 몰려왔다는 것도 사실이고, 登科에다 教育目標를 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高麗 官學의 쇠퇴가 應擧子弟에 대한 알뜰한 뒷바라지가 되지 못했고 눈에 띄는 特惠가 없었다는 데에 원인이 있었다면, 과거에서 絶對的인 影響力을 行使하는 座主(知貢擧)가 설립한 私學에 科擧 志望生들이 거리가 넘치도록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列傳」에서도 “무릇

과거에 응시하려는 젊은이들은 반드시 먼저 이 무리속에서 배웠다.”(凡應舉子弟 必先詣徒中 學焉)고 밝혀놓고 있는 것이다.

네번째로는 여름에는 시원한 山間 寺院으로 옮겨 夏課를 공부한 것으로 되어있다. 夏課는 아마도 詩文을 익히는 일이었을 것이다. 朝鮮時代에도 여름 酷暑期(대개 1개월)에는 귀글이라 해서 詩賦를 배우고 지으며 쉬는 틈에는 글씨를 익혔다.

이 때의 夏課도 이런 類였을 것이다. 딱딱하고 難解한 經典에서 벗어나 風流的인 文章에 接하고 또한 山水間에 노닐면서 性情을 陶冶했을 것이다.

다섯번째로는 敎導가 있어 직접 學徒들의 指導·敎務에 臨했던 것 같다.

70이 넘어 致仕한 老大家가 몸소 수 많은 학생들을 敎誨하기란 난감한 일이었을 것이고, 실제 敎學에 從事하는 中堅學者가 필요했을 것이다.

敎導는 九齋를 거친 者로서 科舉에 及第한 後 아직 벼슬자리에 취임하지 않은 사람이 맡은 것으

로 되어있다.(擇徒中及第學優未官者 爲敎導) 물론 學問이 뛰어나야 했었다.(學優) 이런 敎導가 한 사람이 아니라 많았던 것으로 推定이 된다. 이들이 侍中 崔文憲公徒의 學脈을 維持 繼承해 가는 中樞的 役割을 담당했던 것이다.

여섯번째로는 敎科目을 九經 三史라 못박고 있다.

九經이 具體的으로 밝혀져있지 않아 그 내용은 詳考할 길이 없다. 通常的으로 九經이라 하면 『周易』·『詩經』·『書經』·『禮記』·『春秋』·『孝經』·『論語』·『孟子』·『周禮』를 말하거나, 『周易』·『詩經』·『書經』·『周禮』·『儀禮』·『禮記』·『左傳』·『公羊傳』·『穀梁傳』을 말하는데, 이 때의 九經은 어느 쪽인지 확실하지가 않다.

다만 앞에서 말한 睿宗 다음인 仁宗祖 式日都監에서 詳定한 學式에 依하면 “무릇 經은 『周易』·『尙書』·『周禮』·『禮記』·『毛詩』·『春秋左氏傳』·『公羊傳』·『穀梁傳』이 各各 一經이 되고 『孝經』·『論語』는 반드시 하여

금 兼通하게 하며, 모든 學生은 『孝經』·『論語』를 공부하되 다 같이 一年에 限한다. 『尙書』·『公羊』·『穀梁』은 각각 二年半에 限하고, 『周易』·『毛詩』·『周禮』·『儀禮』는 各 二年, 『禮記』·『左傳』은 各 三年에 限한다. 모두 먼저 『孝經』·『論語』를 읽고 다음으로 諸經을 읽으며, 아울러 算과 時務策을 익히고 여가가 있으면 글씨를 익히되 하루에 종이 한장을 쓰고 아울러 『國語』·『說文』·『字林』·『三倉』·『爾雅』를 읽는다”고 되어있다.

이를 미루어 보면 『孝經』·『論語』는 必須課目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머지 八經에서 加減이 있었던 것 같다. 혹은 필수적인 『論語』를 빼고 나머지로 九經이라 했을 법도 하다.

三史는 『史記』·『漢書』·『後漢書』로 推測된다.

일곱번째는 先後輩가 어울려 詩를 짓고 唱名 設酌의 모임도 가졌던 것 같다. 더구나 飲酒禮의 儀式을 거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모임은 讀書의 여가를 利用한 다분히 風流的인 情趣를 보여주고 있다. 이 대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간혹 선배가 찾아오면 刻燭賦詩를 했다. 刻燭賦詩는 타고 있는 촛불에다 금을 그어 놓고 불이 그 금에 이르는 동안 詩를 짓는 아주 풍류스런 행사이다. 짧은 시간에 簾을 맞춘 定型詩(漢詩)를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선후배가 한 자리에 앉으면 의례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것은 당시 學徒들의 학문적 水準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②詩를 짓고는 등급을 매겨 榜으로 붙였다. 누구의 시가 잘 되고 못된 것을 選考해서 作者의 이름을 크게 써붙였던 것 같다. 이것은 분명히 科擧를 흉내낸 것이다. 그리고 보면 刻燭賦詩 자체가 模擬科擧였던 것이다. 科場에서도 글을 짓는 시간이 制限되어 있다. 촛불에 금을 그어 놓고 시를 짓는 내기를 한 것은 말하자면 과거연습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選考를 하고 榜

에다 이름을 써붙였던 것이다.

③ 이름을 불러 들게해서 조그만 잔치를 베풀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詩에 ‘차례를 매졌다’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小酌은 분명히 餘興인성인데 儀式이 있다.

④ 아이(童) 어른(冠)이 左右에 차례로 列을 짓고,

⑤ 樽(술을 담는 그릇, 또는 잔), 俎(안주담는 그릇)를 받들어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감이 절도가 있었다. 이것은 飲酒禮를 익혔다는 것을 말해준다. 鄉飲酒禮와 방불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이보다 근 1백년 후인 仁宗 14년에 科擧制度를 정비하였는데, 이 때의 규정에 諸州에서 中央으로 貢士를 보낼 때는 鄉飲酒禮를 行하도록 되어 있다.)

⑥나이 많은 이와 어린 이가 차례가 있었고 서로 더불어 唱하기를 해가 저물도록 했다. 이 대목으로 보면 이런 詩를 짓고 잔치 베푸는 일은 여름에 시원한 山間 寺院으로 옮겨 夏課를 공부하던 기간에 행해졌던 것같

다.

⑦마지막으로 모두 洛生詠을 짓고서 罷했다. 洛生詠이란 洛下書生吟詠의 준말로 中國 東晋의 名士들이 즐겨 지어 읊었다고 한다. 晉이 상당히 重濁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여튼 이 洛生詠이 당시 高麗 識者層에 널리 퍼져 있었고, 배우는 學生들도 즐겨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⑧보는 사람들이 모두 아리따게 여기고 감탄해마지 않았다. 그 풍류스러움에 감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格調높은 淸遊에 부러움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하기는 門閥좋은 上流層 子弟들이거나 뛰어난 총명을 지닌 선택받은 秀才들의 놀이라 일반 庶民들의 눈에는 희한한 일로 비쳤을 것이고, 사실 드물게 보는 일이었을 것이다. 혹은 이런 행사가 이때 처음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官學에서는 아무래도 融通性이 적었을 것이니 私學의 開設과 함께 이러한 풍류스러운 행사가 시작되었을 법도 하다.

文憲公의 九齋開設을 계기로 高麗의 教育界는 私學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高麗의 科擧制度가 試官(座主·恩門)에게 절대적인 權限을 주고, 試官中心制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私學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不可避性을 말하는 學者도 있지만, 실제로 이때 官學이 크게 萎縮되어 있었다는 實說도 된다. 屢代에 걸친 外患 때문에 朝廷에서 官學을 알뜰히 보살필 여가도 없었겠지만 定式的이고 硬塞化된 분위기가 儒生들의 인기를 끌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길래 崇儒興學에 힘쓴 成宗같은 이가 ‘고향이 그리워 돌아가고 싶은 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탄식하며, ‘가고 싶으면 가고 보고 싶으면 오라’는 질책

을 했을 것이다.

어쨌건 爾後 私學이 蔚然히 興盛해서 이른바 私學十二徒의 일컬음이 생겨나게 되었으니 ① 文憲公徒(侍中 崔冲), ② 弘文公徒(侍中 鄭倍傑·態川徒라고도 한다) ③ 匡憲公徒(參知政事 盧旦), ④ 南山徒(祭酒 金尙賓), ⑤ 西園徒(僕射 金無滯), ⑥ 文忠公徒(侍郎 殷鼎), ⑦ 良愼公徒(平章事 金義珍 혹은 郎中 朴明保), ⑧ 貞敬公徒(平章事 黃瑩), ⑨ 忠平公徒(柳監), ⑩ 貞憲公徒(侍中 文正), ⑪ 徐侍郎徒(侍郎 徐碩), ⑫ 龜山徒(設立者 未詳)가 그 것이다.

文憲公은 敎學에 끼친 이러한 功勞로 해서 後世에 海東孔子의 尊稱을 듣게 된 것이다.

九齋와 十二徒의 史的意義



吉 堧

(大宗會首席副會長 校理公派)

目 次

1. 머리말
2. 儒學史的 意義
3. 性理學史的 意義
4. 文化 및 教育史的 意義
5. 맺음 말

1. 머리 말

文憲公 諱 冲은 고려 成宗3년 (984)에 海州 首陽山下 大寧郡에서 출생하여 穆宗 8년 약관 20세에 甲科壯元으로 급제하여 5년 후인 顯宗 元年에 西京掌書記遷修制官을 초임으로 그후 45년간 顯宗, 德宗, 靖宗, 文宗 4대에 걸쳐 出將入相

국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文宗 즉위년에 首相인 門下侍中에 올라 文宗 7년에 致仕할 것을 청하였으나 賜几杖 視事토록 하여 文宗 9년 72세에 致仕退老 하였으며 致仕후 곧바로 九齋라고 하는 私學을 개설 하여 中庸을 중심으로한 儒學의 진수를 탐구하고 많은 인재를 양성 하여 이른바 文憲公徒를 위시한 十二徒를 출현케 함으로써 고려 文運을 크게 진작시키고 우리나라 儒學史上 처음으로 實踐倫理로서의 經學의 根本義를 천명하는 등 文化史上 최대의 劃期的인 업적을 남기신 어른입니다. 그러나 그후 鄭仲夫의 武臣亂에 의한 文人도살및 文獻

훼손과 뒤이은 蒙古의 侵入 등으로 이와 같은 文憲公의 위대한 先覺者의인 새로운 학문이 계승발전 되지 못하였고 文憲公의 著述은 물론 九齋나 十二徒의 규모와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는 文獻이 거의 일실되어 이를 연구하는 學者들이 몇가지 단편적인 史料에 의존 할 수밖에 없어 확실한 실증보다는 대부분 추측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太宗會에서는 처음으로 文憲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져 文憲公 誕辰 千周年 紀念 事業으로 1984년에 慶熙大學校 傳統文化研究所 주관으로 “崔冲 研究論叢”을 발간케하고 뒤이어 동년 12월 1일에는 전국적인 규모로 文憲公의 학문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文憲公의 학문과 교육 등 문화적인 업적이 정당하게 평가되기 위하여는 앞으로는 史料의 발굴 등 관계자료의 수집과 史學연구에 꾸준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일을

학계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이에 참여하고 후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촉구하는 뜻에서 九齋와 十二徒의 史的인 意義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져 합니다.

2. 儒學史的 意義

儒學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에 대하여는 箕子시대 또는 漢四郡시대 또는 三國시대 등 학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며 그 계승에 대하여도 張志淵氏는 箕子-薛聰-崔冲-安珣說을 李丙燾氏는 漢四郡-強首-薛聰-崔致遠-崔承老-崔冲說을, 玄相允氏는 三國時代-薛聰-崔致遠-崔冲說을 주장하여 약간씩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나 三者 모두 崔冲을 거론하고 있어 崔冲을論하지 아니하고는 고려 이후의 儒學을 논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儒學者로는 文廟配享의 영예를 받고있는 薛聰, 崔致遠을 꼽아야 할 것이나 薛聰은 強首와 더불어 통일 신라초의 훌륭한 儒學者로서 吏讀文字

(方言)로 九經을 해석하여서 後生을 訓導하였고 또한 花王戒1篇을 남겨 뛰어난 문장실력을 과시한 學者이며 崔致遠은 12세에 入唐유학하여 唐에서 登科하여 官職에 올랐고 귀국후에는 신라의 관직을 역임하고 文章學에 뛰어나 이름을 날렸으나 官界를 물러난 후에는 山水에 노닐면서 道家, 神仙術을 좋아해 별다른 포부를 펴지 못한 半儒, 半道라는 評을 받기도 하는 學者로써 이들 두 학자의 학문은 訓話學的이고 詩文學的인 漢唐學風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며 儒學을 修己治人の 實踐倫理로서 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탐구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왕조에서는 건국초기부터 太祖王建의 독실한 신심에 의하여 護佛정책이 政敎의 대방침을 이루었고 이 때문에 四代 光宗때에 科擧제도가 채택되면서 僧科도 병설되어 宣祖때부터는 佛僧이 王師나 國師가 되어 국정에 참여하는등 불교가 크게 융성한 반면 儒學은 극히 衰微하게 되어 과거시험에서도 詩賦의 詞章學을 주로 하는 등 漢唐學風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國學인 國子監도

유명무실하여 학문의 振作이 크게 요청 되던 때에 文憲公이 九齋를 개설하여 九經三史를 가르침으로써 天下의 俊재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이른바 12徒를 출현케 하여 고려의 文運을 크게진작시켰으며 특히 九齋출신인 文憲公徒는 고려조는 물론 李朝초의 지도적 인물을 거의 대부분 배출하는등 고려 최고의 私學徒集團으로써 고려文運을 주도해 온 것입니다.

九齋의 개설은 참으로 우리나라 儒學史上 일대 획기적 사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더욱이 九齋의 齋名인 樂聖 大中, 誠明, 敬業, 造道, 率性, 太和 待聘의 18字는 儒學思想의 中核을 이루고 있는 中庸의 根本義를 남김없이 표출한 것으로 九齋의 建學理念이나 敎育방법이 종래의 詩文 詞章學的인 漢唐學風에서 벗어나 비로서 經學의 根本義를 교리적으로 탐구하고 修己治人の 實踐的인 倫理觀을 정립하는데 두었다는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나라 儒學이 庸學중심의 洙泗學的 先秦儒學으로 經學思想의 一大變혁이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海東孔子의 미칭이 시사하

는 바와 같이 文憲公이야말로 우리나라 儒學의 진정한 祖宗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文宗朝 고려史에 의하면 「東方學校之興 由冲始自是 文章豪傑之士 彬彬輩出 鋪張國家之制作. 中國稱爲 詩書之國 以至于今者 何莫非 冲之賜也」라고 하여 中國人들마저 고려를 詩書之國이라稱할 만큼 文憲公이 儒學을 크게 일으켰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李朝시대에 들어와서는 文廟配享을 신라 및 고려조의 儒學者로서는 薛聰 崔致遠, 安珣 세 사람에게 국한시키고 있는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文憲公의 九齋를 단순한 科學 위주의 鄉學으로만 보고 우리나라 儒學史를 訓話學的 詞章學에서 文憲公 死後 240여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서 소개된 宋代性理學에 의한 性理學史로 바로 연결된 것으로 대체 하고 있음은 크게 잘못된 史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昨수에 와서 사려깊은 학자들이 程朱子에 앞서 中庸의 大意를 남김 없이 드러내고 있는 九齋의 출현과 그 업적에 주목하여 李朝시대의 儒學史觀이 잘못 되었음을 적시함은 물론 진정한 우리나라 儒學의

創始者는 文憲公임으로 종래의 우리나라 儒學史를 크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으나 한편으로는 史料의 태부족으로 “今 不可考”를 내세우는 학자도 적지 아니함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文貞公 申賢은 文憲公의 文集으로 天道 地道 人道 物道の 四編이 있었으며 이는 理와 氣가 동일한 근원에서 흘러 本性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본 바탕이 나누어 지는 것을 말하는등 참으로 儒學의 奧妙한 진리를 論究한 중요한 著作이었으나 의종 24년(1170) 鄭仲夫는 文憲公으로 因하여 세워진 中學과 國學 그리고 文廟와 九齋등을 불 태우고 文憲公의 文集은 물론 모든 史料를 모조리 불속에 넣어 文憲公의 先覺者的인 學問이 계승·발전되는 것을 저지 하였다고 記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不幸한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儒學이 크게 발전 되지 못하고 또한 文憲公의 歷史的 位置도 올바르게 평가 되지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宗中에서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앞으로 끊임 없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3. 性理學史的 意義

한국의 性理學은 고려 忠烈王때 安珦(일명安裕 1243~1306), 白頤正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이 定說로 되어있으나 한국性理學의 시원이 반드시 安珦에 의하여 도입된 朱子學에서 비롯된 것인가에 대하여는 많은 學者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中國의 性理學은 唐末의 韓昌黎(768~824) 李翱(770~846)와 같은 선구적인 학자들에 의하여 원초적인 性理學의 이론이 제기되었으며 宋代에 들어와서 周濂溪(1017~1073) 張橫渠(1020~1077) 邵康節(1011~1077)등의 학자에 의하여 그 윤곽이 뚜렷하게 연구되었고 다시 程明道(1032~1085) 程伊川(1033~1107)의 형제학자에 이르러 그 성격과 체계 및 내용이 거의 갖추어 졌으며 朱熹에 의하여 비로서 集大成이 된후 元나라를 거쳐 明代에 이르러서 象山學과 陽明學의 두 계통으로 발전하였으며 우리나라

라에서는 朱熹에 의하여 집대성된 朱子學(程朱學)이 전술한 바와 같이 安珦에 의하여 소개된 후 李穡, 鄭夢周, 吉再, 鄭道傳등을 거쳐 李朝에 들어와 李退溪(1501~1570) 李栗谷(1536~1584)의 理氣論 등에 의하여 크게 발전 함으로써 유일한 傳統理念의 基本思潮로서의 자리를 굳혀 李朝시대의 통치 및 사회 생활에 肯定 또는 否定간에 막중한 영향을 끼쳐온 것입니다.

性理學은 지극히 광범위한 학문으로서 中庸, 大學, 易經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中庸을 중요시 하여 性理學의 중심사상이 모두 中庸에서 추출된 것으로서 文憲公의 九齋學堂의 명칭을 살펴볼때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입니다.

中庸에서는 性과 道와 教로서 綱領을 삼고 中和, 中庸, 貴隱, 說誠, 說德으로 節目을 삼아 綱領은 內求的인 修省의 德目を 나타내고 節目은 人倫的인 實踐倫理를 제시하고 있는 것에 상응하여 九齋에서는 그 學堂의 명칭가운데 樂聖, 大中, 誠明을 修省의 德目인 綱領으로 삼고 있으며 敬業, 造道, 率性,

進德, 太和, 待聘을 實踐倫理인 節目으로 삼고 있어 그 명칭 18字는 中庸의 심오한 根本義를 남김없이 표출한 것으로 性理學의 내용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北宋初의 性理學者들이 漢唐이래의 官學중심 經典章句중심의 敎학 형식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儒學을 보다 道學的이고 철학적인 새로운 학문으로 즉 性理學으로 발전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文憲公도 확실히 程 朱子보다 40여년이나 앞서 漢唐學風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儒學을 나름대로 性理學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킨 것이며 이는 참으로 새롭고 획기적인 시도로서 우리나라 性理學의 시원을 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鄭仲夫의 武臣亂과 30여년에 걸친 蒙古侵入 사건 등으로 文憲公의 위대한 선구적인 學問世界를 계승, 발전 시키지 못하고 文憲公의 死後 240여년이 지난 후에야 安珦등에 의하여 새로운 學問인 양 경탄을 하면서 中國의 性理學을 수입하여 우리나라 學問이 中國학술 문화의 周邊的 受容國에 머무르게 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文憲公의 학문적인 理念을 올바르게 연구 재평가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性理學史가 재정립 되도록 儒學 및 史學界의 연구를 우리 후손들이 적극 후원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文化 및 敎育史的 意義

文憲公이 文宗9년(1055)에 九齋를 개설하여 九經三史를 가르침으로서 天下의 俊才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私學이 크게 일어남에 따라 이들 九齋출신을 崔侍中徒(文憲公死後 文憲公徒라 칭함)라 하였고 이를 모방하여 十一徒가 출현 함으로써 文宗朝에 가장 크게 文運이 진작되었으며, 그 후 文憲公徒를 포함한 十二徒는 恭讓王 3년(1394) 王命에 의하여 九齋가 폐지될 때까지 高麗朝의 文運을 주름잡으면서 官學을 압도하고 私學敎育의 전통을 세운 것입니다.

고려 王朝는 건국초 부터 太祖 王建의 독실한 佛心에 의하여 護佛 정책이 정부의 大方針을 이루고 있으나 太祖의 訓要十條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儒, 佛, 仙을 혼합한 理念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실제 정치면에서는 地方豪族에 대신하는 中央執權的인 정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儒學理念에 의한 新官僚의 배출이 요청됨에 따라 四代 光宗(988) 때에 科擧제도가 채택되었고 그 후 六代 成宗의 治世부터 儒學이 제도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으며 八代 顯宗朝에 이르러 王11년(1020) 및 13년(1022)에 崔致遠을 文昌侯로 薛聰을 弘儒侯로 追封하여 孔子의 廟庭에 配享케 하는 등 儒學의 진작에 힘썼으나 그 후 崔賢, 金訓등의 武臣亂과 契丹의 침입 등으로 학문의 진흥이 멈추고 官學인 國字監도 유명무실하게 극도로 쇠퇴 함으로서 文教面의 정체가 극심할 때에 文憲公이 九齋를 개설하여 고려 文運의 일대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文憲公은 九齋의 齋名 18자에 모두 함축되어 있는 中庸의 大義를 교육의 목표로 삼음으로써 종래의 詞章, 詩文學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儒學을 새로운 경지로 전환시켰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거니와 그 교육방식이 德行의 준거가 되는

儒教 經典과 正史를 주로 가르치되 山寺의 夏課에서 刻燭賦詩할 때에는 小酌을 베풀어 進退의 禮儀와 長幼의 秩序를 지키며 종일토록 酬唱하는 등 의식을 갖추어 공동으로 학문을 연마하고 師弟가 서로 道義로 굳게 결속되는 교육방식을 취하였으며 이러한 私學의 學風이 오랜 세월을 두고 유지 계승되어 나아감으로써 신라의 花郎徒와 유사한 결속력을 가진 고려의 儒徒 즉 學閥로서의 私學徒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文憲公이 세운 九齋에 많은 사람이 모여 크게 성공하자 별도의 열한 사람이 각기 私學을 세워 九齋출신의 文憲公徒와 함께 이른바 十二公徒가 출현하였으나 史書에 “冲徒爲最盛”이라하고 또 “學校之興이 蓋由冲始”라고 한 바와 같이 그 數와 質에 있어서 文憲公徒가 단연 우세하였고 九齋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私學의 始源이며 元祖임은 물론 고려 私學의 主宗이었음은 더 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文宗朝의 中期와 後期에 발생한 十二徒는 쇠퇴한 國學을 크게 융성케하여 고려 文運을 진작

시켰으나 그후 鄭仲夫의 武人亂과 몽고의 침입등으로 文運이 다시 전체적으로 침체됨을 면치 못하였으나 文憲公 死後 240 여년이 지난 忠烈王때에 이르러 朱子學이 전래됨에 따라 새 儒士들의 연구열이 높아지고 安珦의 興學養賢을 위한 建議에 따라 國學을 成均館이라 개칭하고 그 외에 여러가지 방책을 강구해 감으로써 國學은 새로운 轉機를 맞게 되나 여전히 私學이 儒學을 주도해 나갔으며 고려 末葉 恭愍王때에 이르러 李穡을 비롯한 鄭夢周, 李崇仁 등 名儒들이 成均館으로 出講하여 國學의 권위가 크게 떨치게 되었으며 恭愍王 元年(1352)에 李穡이 올린 上疏로 鄉校와 東西學堂에서 재주가 우수한 사람을 十二徒에 올리고 그 十二徒중에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成均館으로 올리게 함으로써 사실상 十二徒를 成均館 즉 國學의 豫備課程으로 전락시켰으나 그 上疏文에서 “登仕者는 不必及第요 及第者는 不必由 國學”이라고 하여 그 때 까지도 十二徒가 여전히 無視 못 할 교육기관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恭讓王3년(139

1)에 文憲公이 九齋를 개설한지 336년 만에 十二徒를 정폐 시킴으로써 우리나라 私學의 脈이 끊어진 것입니다.

金石文이나 文獻등에 散見되는 九齋에 관한 史料를 보면 李奎報는 明宗11년(1181) 14세때 誠明齋에 文憲公徒로 入徒하여 夏課에서 거듭 壯元하였으며 그 후 金獻과 함께 江華島에서 九齋의 復興運動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侍郎 李宗胄는 高宗31년(1244) 王命으로 九齋生徒를 모아 夏課를 說하여 55人을 가려 뽑았다고 하였고 忠烈王 11년(1285)에 王이 歸山寺에 행차하여 九齋 夏課를 보고 격려하였으며 李穡은 韓修 등과 함께 九齋에서 刻燭賦詩하되 “十二徒稱曰九齋 國中龍冠集山崖 賦試刻燭才何疾 勸學興文意其佳”라 읊었고 恭愍王이 十二徒 즉 九齋에 布米를 내리고 누차 行幸 親試 등을 행한 기록이 있다.

이러한 文獻의 내용으로 보아 文宗朝에 출현한 十二徒가 麗末에 이르기 까지 300여년간 지속되면서 점차 九齋가 十二徒의 代名詞처럼 되고 文憲公徒가 곧 十二徒처럼

지칭된것을 알 수 있으나 그 규모와 위치 및 齋長이나 學官 등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史料가 발견되고 있지 아니함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려 松京誌등에 의하면 文憲公 沒後 士之赴學者는 亦皆隸名九齋, 謂之 文憲公徒라 하였고 또한 麗末에 와서도 本朝(고려조) 古今 應學者는 皆稱 文憲公徒라 한것을 보면 고려朝의 科擧及第者가 거의 전부 文憲公徒임을 알 수 있으며 麗末의 李穡, 鄭夢周, 李崇仁 등은 말 할 것도 없고 麗末에 登第한 일이 있는 孟思誠, 黃憲, 河崙, 權近, 元天錫 등이 모두 文憲公徒 출신임을 볼 때 九齋私學의 권위가 어떠한가는 可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고려朝의 應學者 대부분이 十二徒 특히 文憲公徒 출신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九齋가 곧 단순한 官吏養成所에 불과 하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려末의 李齊賢이 “위로는 公鄉 嫡庶로 부터 아래로는 州縣學者에 이르기까지 다 九齋籍中에 이름을

걸고 聖人之道를 익혔다.”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高麗朝에서 科擧合格은 물론 모든 人物이 거의 大部分 九齋를 거쳐 갔으며 이는 九齋私學이 名實共히 최고의 교육 기관으로써 官學을 압도하면서 300여년간 고려文運을 완전히 주름 잡은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私學교육의 전통이 있음으로 해서 忠烈王 이후 朱子學의 도입으로 고려 末期의 儒學발전과 國學의 재흥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마련된 것이며 이는 儒教哲學에 의한 王朝交替와 李朝儒學의 脈을 이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준것입니다.

李氏조선 초에 太祖와 太宗이 文憲公의 後孫을 우대케한 사실도 儒教의 脈을 면면히 이어 儒教哲學에 의한 王朝交替에 九齋私學의 역할이 컸음을 높이 평가한데서 온 처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李朝時代에 들어와 世宗22년(1440년) 海州鄉人들이 文憲公의 九齋자리에 文廟를 세우고 文憲公과 그 아드님 文和公父子를 配享하였으나 그후 成宗20년(1489)에 禮曹 弘文館의 반대로 이를 폐지한 것은 李朝 儒者들의

自己 도취적인 아집에서 나온 처사로써 歷史에 대한 깊은 省察없이 피상적인 관찰에 그쳐 九齋私學을 단순한 鄉學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學生들이 서울大學을 비롯한 몇몇 有名大學에 몰리고 자연히 이들 名門大學에서 國家考試 合格者의 대부분을 배출하고 있으나 이들 名門大學이 결코 國家考試 合格者 養成所 일수는 없는 것이고 其外의 각 방면에 훌륭한 人材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현상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中國에서는 때로는 官學의 橫暴와 농단이 있기는 하였으나 孔子에 의하여 세워진 私學은 꾸준히 그 전통이 이어져 왔고 특히 中國 儒學 史上 가장 훌륭한 哲學體系를 이룬 宋 明 性理學이 발달하게 된것도 唐末 宋初의 私學이 크게 부흥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王朝나 政權에 따라 부침하는 관학 보다는 私學이 심오한 學問탐구는 물론 人間教育이나 道德教育에 보다더 치중할 수 있어 한나라 한민

族의 學術文化를 크게 創造시키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東西古今을 통한 엄연한 眞理인 것입니다.

九齋私學과 十二徒가 전술한 바와같이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文憲公의 독자적이고 선구적인 새로운 學問世界를 계승 발전시켜 크게 開花시키지는 못 하였다 하더라도 고려 文運을 크게 진작시키고 우리나라 私學의 전통을 세우면서 學問의 脈을 주도해온 업적을 過少 評價해서는 안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學術文化의 白眉라고 할수있는 九齋와 이에따른 十二徒의 역할에 대하여서는 계속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5. 맺음말

文憲公이 후세의 師表로서 길이 추앙을 받고 계시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官職이나 정치활동 보다는 말년에 교육 사업을 크게 일으켜 海東孔子의 美稱을 받으실 정도로 학문의 개척과 흥륭을 가져 온데

있다는 것은 누누히 말씀드린바와 같거니와 그러나 文憲公의 경륜높은 學問境地는 물론 私學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고려 儒學을 주도해온 九齋와 고려조 300년간은 물론 李朝초까지 社會의 지도적 인물이 대부분 籍을 두었던 文憲公徒의 眞面目등이 史料의 부족으로 그

실상이 남김없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때문에 門中에서는 보다 더 眞實이 밝혀 질 수 있도록 史料의 수집이나 學界의 연구 활동등을 꾸준히 뒷바침 하는등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祝

宗誌第2輯發刊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長

行政學博士 崔昌浩

(大宗會運營委員)

서울特別市 江南區 驛三3洞 684-18

電話：(職) 450-3270 (自) 552-5885 番

祥明女子大學校 國文學科教授

文學博士 崔起鎬

(宗誌編纂委員)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신동아 아파트 3동 110호

電話：(職) 398-5095 (自) 566-1655 番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地方化時代로의 轉換期라는 視角에서—



昌 浩

(33世 執義公派 建大行政大學院長)

略歷 1935. 8. 6 平北寧邊 出生

서울大 法大, 同大學院卒

行政學博士

美國 Georgia大學 交換教授

韓國地方自治學會 副會長

建國大學校 政治大學長

I. 머 리 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세기의 말은 어떠한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 資本主義와 共產主義의 경쟁에 있어 그 勝負의 判定이 나고 있는 시대, 兩極의 對立이 해소되고 세계가 하나로 되고 있는 시대, 世界秩序가 再編되고 있는 시대, 세계정세 속에서 분할되었던 나라들이 再統一되고 있는 시대, 韓半島의 再統一

이 눈앞에 닥아오고 있는 시대 등 여러 角度에서 여러 가지로 이 시대를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의 하나로, 지금까지의 역사의 흐름속에서 國家性格이 변천되어 온 과정을 분석해 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新生國들의 國家發展 과정을 정리해 본 후, 앞으로 21세기의 經濟·社會의 狀況變化를 예측해 볼 때에 우리의 政治·經濟·社會·生活이 종래의

中央集中·中央執權 일변도에서 地方分散·地方分權化로 전환해 갈 전망이 뚜렷해지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지금 그러한 轉換의 시발점에서 있다고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요즈음 흔히들 “地方化時代”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요즈음 흔히 쓰이는 그 地方化時代란, 地方議會가 구성되고 地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쓰이는 말로 보이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방화시대는 단순히 그러한 현상때문만이 아니고 歷史의 흐름속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우리의 文化 자체가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우리 人類의 政治史를 훑어보고, 우리 나라 國家發展의 段階와 1990年代의 의미를 살펴본 후, 21세기의 經濟·社會를 전망하면서 地方自治의 重要性을 설명하고자 한다.

II. 國家性格의 變遷과 分權時代의 擡頭

세계 歷史의 全般的인 흐름속에서 國家性格의 일반적인 변천을 보면, 대체로 프랑스혁명 이전인 18세기까지는 이른바 絕對主義國家가 지배적이었고, 프랑스혁명에 의하여 절대군주가 타도된 후인 19세기에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自由主義國家 내지 放任主義國家가 풍미하였으며, 그러한 자유방임의 폐해가 심화되고난 후인 20세기에는 국가는 국민 전체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福祉主義國家 내지 職能主義國家가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정리하여 보면, 18세기까지는 국가의 權力的 支配가 지나치게 강하였고, 19세기에는 그 폐해에 대한 반동으로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制限 내지 抑制되었으며, 20세기에는 그 폐해에 대한 반동으로 다시 국가권력이 強化된 일종의 辨證法的인 발전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국가권력이 극도로 강화된 20세기 말의 오늘의 상황은 어떠한가? 국가가 사회에 干與하여 독점규제, 가격통제, 수출입계획, 식품단속, 원호, 보조, 사업경영 등 많은 일들을 끊임없이 확대하여 해 나가다보니 豫算不足, 人力不足 등 어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각국이 이른바 cutback management, 節減政策, 減縮管理, 減量經營, 民營化, 自律化, 民間委任 등을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말의 이러한 경향은 이제 곧 닥아올 21세기의 國家의 性格의 변천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21세기에는 결국 국가권력의 消極化·制限化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성격의 변천은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간의 權限의 配分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인데, 대체로 絶對主義國家에서는 지방의 자주성은 전연 인정될 수 없었는데 비하여, 自由放任主義國家에서는 지방의 자율성, 즉 地方自治가 최대한 보장되었고, 반면에 福祉主義國家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복잡·다기한 문제의 전문·기술적 처리 및 막대한 예산소요의 업무에 중앙정부의 지도성이 커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中央集權化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제 民營化·自律化를 추구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이른바 地方分權化가 추진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獨逸·日本·伊太利 등에서 상당한 민주적이고도 분권적인 지방제도의 개혁이 있었던 것, 프랑스의 최근의 역사적인 분권화 개혁, 美國의 이른바 신연방주의, 蘇聯의 연방해체의 경향 등이 모두 그러한 경향을 대변하고 있고, 종래에 과도한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을 해온 많은 新生·發展途上國家들에 있어서 分權化와 分散化, 그리고 多樣化와 競爭化를 도모하여 이른바 ‘地方化’를 추구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국가권력이 消極化하는 21세기에는 地方分權의 경향이 명백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국가성격의 변천과, 중앙·지방간의 권한배분(集權

化·分權化)의 추이를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國家性格 변천과 集權·分權 주의

18 세기	19 세기	20 세기	21 세기
絶對國家	自由·放任國家	福祉·職能國家	(-)
中央集權	地方分權 (지방자치)	新中央集權	新地方分權 (지방화)

Ⅲ. 國家發展의 段階와 1990年代

많은 신생·발전도상국가들의 국가발전 과정은 대체로 세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 제1단계는 이른바 '國民形成'의 단계로서 말하자면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는 단계이고, 그 제2단계는 이른바 '經濟進歩'의 단계로서 말하자면 경제적 빈곤을 극복하는 단계이며, 그 제3단계는 이른바 '福祉增進'의 단계로서 사회적 불균형을 교정하는 단계이다.

국가발전에 있어서 그 제1단계에서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많은 規制와 統制 및 制約이 가해져 국민의 개인적 자유와 권리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제2단계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제한된 자원의 전략적 투자가 도모되고 따라서 不均衡的 成長이 이루어져서 산업간·지역간의 發展隔差, 개인간 所得隔差가 나타나게 되는바, 그 제3단계에서는 이러한 제1·제2단계의 유산을 이어받아 정치적 자유·권리의 신장을 도모함과 아울러, 경제적 불균형·격차의 시정에 주력하여 全國民의 參與와 全國的인 均衡發展을 도모하게 된다.

이러한 제3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획일화·표준화·집중화·총량화적인 발전에서 多樣化·多元化·分散化·配分化的인 발전으로 그 發展哲學의 轉換을 도모하게 되며,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地方分權的인 통치체제로 전환시키는 하나의 대변혁적 탈바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독립후 국가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1940년대와 1950년대에 그 제1단계를,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그 제2단계를 거쳐, 1980년대부터 그 제3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해석되는데 198

0년대에 우리가 많은 혼란을 겪은 것은 그 앞의 제1단계의 유산(參與欲求의 분출)과 제2단계의 유산(隔差意識의 폭발)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1990년대에 地方分權 체제로의 전환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그림 2 참조>.

〈그림 2〉 韓國의 國家發展 段階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해방, 건국	6·25, 복구	경제계획개시	산업화추진	참여욕구 격차의식) 분출	분권화시작
發展 第 1 段 階		發展 第 2 段 階		發展 第 3 段 階	
國 民 形 成 (정치적 혼란의 수습)		經 濟 進 步 (경제적 빈곤의 극복)		社 會 福 祉 (사회불균형의 시정)	

우리가 흔히들 앞으로 전개될 사회를 ‘地方化社會’라 하고, 그러한 시대를 ‘地方化時代’라고 하는데 여기서에 잠깐 그 의미와 내용을 검토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방화사회 또는 지방화시대란 그 쓰이는 의미가 경우마다 다양하여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이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政治·行政的인 分權化이다. 즉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의 폐해를 방지하고 분권적인 운영을 기하면서 지방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는, 經濟·社會的인 分散化이다. 즉 대도시, 특히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경제·사회의 여러 기능을 농촌과 지방도시

분산시켜, 국민이 어디에나 고르게 살며, 각 지방이 모두 나름대로의 특성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國民生活方式의 多樣化이다. 즉 현대 사회에서 국민생활 방식이 지나치게 획일화·동일기준화한 데서 오는 이른바 ‘비교의 비극’을 극복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다원성, 그리고 개인의 고유가치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넷째는, 地域간의 善意의 競爭이다. 즉 내고장, 내마을, 내지방이 더 잘살기 위한 노력이 지역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이것이 각 지역의 고유한 산업과 전래의 문화를 복원하고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지방화의 여러 내용 중에 첫번째의 것이 地方分權化·地方自治化를 의미한다고 하겠는데, 지방화에는 이러한 정치·행정상의 분권화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및 생활상의 분산화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고 하겠다.

IV. 21세기 社會의 展望과 地方自治

이제 곧 닥아올 21세기의 社會는 어떠한 것이 될까? 21세기는 이제 9년후이면 우리앞에 현실로서 닥아설 것이다.

지금의 우리 사회의 변화추세에 근거해서 21세기를 전망해 보건대, 21세기는 고도의 산업화사회, 전국 도시화사회, 정보화사회, 고령화사회, 개방화사회가 되리라고 예측되고 있다.

〈高度産業化社會〉

오늘날 진전되고 있는 산업화는 앞으로 尖端科學技術의 발달에 따라 電子·原子力·新素材·微生物·生命工學 등을 이용한 보다 정밀하고 종합적이며 다이나믹한 그리고 매우 복잡하고도 다양한 산업으로 계속 발전하여 地方經濟, 國家經濟, 國際經濟 등 經濟분야는 물론 우리의 社會·文化生活분야에도 상상을 초월할만큼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에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내·외의 경제조류와 인간의 생활변화를 정확히 파악·예측하여 부단한 시험·연구를 통하여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그 存立 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全國都市化社會〉

산업과 중추관리기능 및 고등교육기관의 대도시집중에 따라 서울과 부산을 위시한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다. 이제부터는 인구의 특정지역에의 과밀집중에 따른 폐해를 피해 인간은 고속도로를 따라 郊外地域에의 소산을 경쟁적으로 벌여 결국 대도시와 대도시 사이의 連帶都市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megalopolis 시대), 그것이 더 진행되면 모든 농촌·벽지에 까지도 인구가 소산하여 全國 어디에나 都市 아닌 곳이 없게 될 것이다(ecumenopolis 시대).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60년경에는 우리 나라 도시인구율이 97.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에 편리한 都市의 生活樣式이 전국에 확산될 것인 바, 그렇게 되면 도시적 편리시설·문화시

설 등에 대한 막대한 행정수요에 정부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질 것이다.

〈情報化社會〉

현재에도 국민들이 전화카드, 현금카드, Personal computer, wordprocessor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통신기술·컴퓨터의 계속적인 발달로 다종·다양한 정보의 신속하고도 정확한 가공·축적·검색·전달을 가능케 하는 정보시스템이 정부와 기업, 가정, 개인의 모든 부문에 걸쳐 고도로 활용되게 될 것이다. 즉 行政, 金融, 教育, 醫療, 生産, 注文, 處理, 決裁, 勤務, 勞動, 發送, 傳達 등에 정보시스템이 활용되는 고도의 情報化時代가 곧 우리에게 도래될 것인 바, 직장에 출근않고도 직장 근무를 할 수 있고, 집에 앉아서 쇼핑도 하고, 집에 앉아서 진찰도 받고, 학습도 할 수 있으며, 또한 집에 앉아서 행정참여도, 지역활동, 문화활동, 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정보기능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私生活(privacy)의 침해의 위험성도 있게 될 것이다.

〈高齡化社會〉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45년간에 인구가 배로 늘어났고, 의료기술의 발달과 출산률의 저하로 老年人口가 계속 늘고 있다. 우리의 평균수명이 1960년에는 55.3세(남자 53.5세, 여자 57.8세)였는데 1990년에는 69.8세(남자 67.4세, 여자 75.4세)로 늘어났고,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960년에 2.9%였는데 1990년에는 4.7%로 늘어났다. 이제 2020년이 되면 우리의 평균수명이 75.4세로 65세이상 인구의 비율이 11.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선진국가들의 그것에 비하여 낮은 편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서서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정부에 많은 과제를 안겨주게 된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인구의 증가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國際化社會〉

오늘날 전세계가 교통·통신수단의 비약적 발전, 자유무역화 등에 따라 국가간의 상호의존의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환경문제, 식량문제, 핵문제 등 인류공동의 과제에 대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가 협력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의 국제화도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한국인의 海外旅行이 1987년에 50만명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156만명으로 불과 3년동안에 3배 이상 신장하였고, 外國人의 한국방문이 1960년에 1,500명에 불과하였던 것이 1990년에 296만명으로 무려 200배 신장하였으며 貿易量도 착실히 확대되어 1979년에 수출 150억불, 수입 203억불이었던 것이 1990년에 수출 650억불, 수입 700억불로 각각 4배 내외로 늘어났다. 이제는 우리 국민의 식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食料品이 외국에서 공급되고, 그의 木材, 嗜好品 등도 세계 각지에서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21세기의 사회는 高度産業化, 全國都市化, 情報化, 高齡化, 國際化의 사회가 되겠는데, 이러한 사회에서 國家도 물론 전국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국민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구체적인 사항에는 地方自治團體가 보다 실천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만, 國政은 국민으로부터 멀고 복잡한 반면, 地方自治는 비교적 가깝고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과 이해가 용이한 데다가, 地方自治團體는 지역의 實情과 주민의 生活事情을 잘 알기 때문에 보다 適實性있고 公正하면

서도 能率的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주민의 協助를 받아 보다 創意的인 처리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고도 산업사회에서 疎外와 不安에 시달린 人間群을 따듯이 품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政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地方自治는 현재에도 그러하지만 21세기에는 더욱더 事實상의 人間生活의 核心的 場이 될 것이다.

祝

宗誌第2輯發刊

西江大學校 新放科教授

新聞學博士 崔昌燮

(宗誌編纂委員)

서울特別市 陽川區 木洞

신시가지 아파트 522동 403호

電話：(職) 705-8382

(自) 647-2113 番

최자(文淸公)의 생애와 문학



元 容 文

(韓國敎員大學校 敎授)

우리 문학사에서 고려시대를 위축시대 또는 잠동시대라고 기술한 저술이 있다. 이것은 국문시가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 해당되는 말이고, 당시에 산출된 한문학까지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면 사정은 달라지리라고 본다. 이러한 내용은 바로 이 글에서 논의하려는 <보한집>의 서문만 참고해 보아도 능히 짐작되는 바다. 거기에는 광종현덕 5년에 과거를 시행하여 어질고 훌륭한 인재를 뽑았으니, 비길데 없는 위용을 갖춘 선비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시를 대표할 인물로 왕용, 조익, 서희, 김책 등을 들었던 것이다. 이어서 경종에서 현종에 이르기까지 수대

에 걸쳐서는 이몽유, 유방현 등이 문장으로 두드러졌고, 정배결, 고응 등은 시와 부로 뛰어났으며, 문헌공 최충은 명세의 학자로 유학을 크게 일으킨 인물로 추앙받는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박인량 외에 50여명을 거명하면서 이들의 업적이 마치 별과 달이 서로 번갈아 빛을 내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해놓았던 것이다. 아울러 고금의 명현들 가운데 문집을 엮어놓은 사람은 수십명에 불과하니, 나머지 명장(名章)과 수구(秀句)는 모두 인멸되어 찾아볼 수 없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어쨌든 고려시대에 배출된 그 수많은 문인 학자들의 문집을 두루 섭렵하지 않고서는 그 시대의

문학적 성격을 바르게 진단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 학계의 현실은 이들 자료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하거나 국역하는 작업조차 제대로 이루어내지 않은 상태라고 본다. 다만 고려시대의 문인으로는 백운거사이규보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된 형편이고, 그 밖에 이인로, 김주기, 최자 등 소수의 인물 중심으로 작가론이 형성되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안다. 그만큼 고려시대의 문인이나 작품에 대한 연구는 다른 시대에 비하여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고, 그 연구성과 또한 저조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 제자들의 중론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문학 연구자들은 고려시대의 문학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더욱이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문인이요 정치가인 최자에 대하여 문학적 현상들을 살펴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본격적인 작가론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 글에서는 다만 그의 생애와 보한집의 비평적 성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 생애와 인간적 면모

어떤 한 개인에 대한 평가는 그가 살던 시대배경을 면밀히 관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자연구는 그가 생존했던 고려 중엽의 정치적 상황, 사회적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었나를 살펴보고 나아가서 작가는 그 위난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나갔는지 바르게 진단하는 작업부터 수행해 나가야 되리라고 본다. 그 당시 고려는 전기에 관료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던 문신들의 전횡 때문에 무신들은 천대받는 존재였고 문신들에게 사역당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신들의 불평불만을 크게 증대시켰으며, 드디어 1014년(현종 5년) 김훈 등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천대는 특히 태평호문의 임금이라고 일컬어지는 의종(1146~1170) 때에 극도에 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의종은 태평대, 환희대, 미성대 등의 호화로운 정자를 지어 놓고

향락생활에만 도취해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그를 따르는 문신들은 영화를 누리면서 방자하게 되고, 그들을 호위해야 하는 무신이나 군인들은 상대적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차별정책으로 인해서 무신 정중부는 문신 김돈중에게 좃붙로 수염을 태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고, 또 대장군이 소응은 문신 한뢰에게 뺨을 얻어 맞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무신의 반란은 의종 24년(1170)에 일어나게 되었다. 그 당시 왕이 보현원에 거동했을 때 호종하던 무신 정중부, 이의방 등은 문관을 쓴 자는 모조리 죽이라는 선동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어서 반란에 성공한 그들은 의종을 폐하고 그 아우 명종을 옹립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권을 쥔 무신들은 중방(重房)을 중심으로 모든 관직을 독차지하게 되었고, 더욱이 사전(私田)을 확대하여 경제적인 실력까지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정중부, 이의방, 경대승, 이의민 등 무신의 군웅시대를 거쳐 최충헌의 집권에 이르러 일단 난세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하겠다. 최충헌(1150~1219)은 무인으로 출세하여 조위총의 토벌에 공을 세워 출세하기 시작한 인물이다. 그는 집권하자 이전의 도방(都房)을 강화하여 자신의 아성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손자로 계승되어 최씨 정권의 사적 무력의 지주로 삼았다고 한다. 또 그는 왕의 권력을 무력하게 만들었으니, 그는 일대 동안에 명종과 희종 2왕을 폐하고 신종·희종·광종 및 고종의 4왕을 옹립하였다.(李基白：韓國史新論)

그러니까 왕위는 완전히 그의 손아귀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최씨의 독재체제는 그의 아들 최우 때 가서 한층 더 강화되었다. 최우는 1225년(고종8) 정방을 자기 집에 두고는 관료의 인사권을 장악하였고, 1227년에는 자기집에 서방(書房)을 베풀어 문객 중의 명유를 포섭하여 정치에 이용하는 한편, 아버지 때의 도방을 외도방, 자기의 가병(家兵)을 내도방으로 하여 저택 내외의 경비를 맡게 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최씨 정권의 새 통치 질서가 생겨남으로써 그 독재체제는 더욱 견고해졌으며 기존질서는

크게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 왔던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기존질서의 동요는 새로운 사회체제의 출현 가능성을 질게 해주었으나 몽고와의 전쟁으로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 된다. 또 무인정권이 수립되면서 문인들 사이에는 현실을 도피하려는 경향이 생겨 산촌에서 술과 노래로써 세월을 보내는 이들이 많게 되었다.

최자(1188~1260)는 바로 고려 왕조가 혼미를 거듭하고 무인정권이 전횡을 부리던 시기에 생존하고 활동했던 대표적인 문인이요 정치가라고 하겠다. 그의 가계를 보면 해주최씨 가문으로 문헌공 충(冲)은 6대조이고, 그 뒤로 문화공 유선(文和公惟善), 양평공 사제(思齊) 등으로 이어진다. 증조부는 약(濶)조부는 윤인(允仁) 아버지는 민(敏)이었다. 최자의 가문은 충(冲) 이후로 세 명의 장원과 세 명의 상국(相國), 네 명의 공신 그리고 십여명의 재상을 배출한 명문귀족이었다. 최자는 이러한 가문의 후광을 받으며 무신집권하의 관계에 진출하여 이재(吏才)에 뛰어나 목민(牧民)에 남다른 능력을 발휘

했고, 일면으로는 당시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위난에 직면했던 고려 정부를 지탱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朴性奎:補閑集解説) 그리고 고려사 열전에 의하면 최자의 자는 수덕(樹德), 초명은 종유(宗裕), 그 이후에는 안(安)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천자(天資)가 순눌(淳訥)하여 표면에 나서는 것으로써 능사를 삼지 않고 어려서 부터 학문에 힘써 글짓기에 능하였다고 되어 있었다. 강종(1212~1213) 때에 문과에 급제, 상주의 사록(司錄)이 되어 그 지방을 잘다스렸으므로 국학학유(國學學諭)에 보임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는 관운이 일시 막혀서 10여년 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좌절감을 맛보기도 했다. 그 내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당시의 집권자였던 최우가 조정의 선비들을 품제(品第)할 때에 그들을 네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자기 손으로 병풍에다 직접 써놓고 그것에 따라 인사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 등급을 매기는 표준을 시문과 행정의 능력에

두고, 두 가지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상급, 시문은 잘하나 행정력이 부실한 사람을 그 다음, 행정력은 있으나 시문이 시원치 않은 사람을 또 그 다음, 시문과 행정이 다 부실한 사람을 하급으로 잡았던 것이다.(車柱環:崔滋의 時評) 그런데 최자는 천성적으로 아부하지 못하고, 자기자신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최우에게 하급으로 매겨져 10년간이나 선임되지 못하는 불운을 맞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자는 당시 최우의 비호하에서 문한(文翰)을 맡고 있던 이규보의 강력한 추천을 받아 재기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최자는 일찍이 <虞美人草歌>와 <水精盃詩>를 지었는데, 이규보가 이 작품들을 보고 그의 시재가 대단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최자가 추천된 과정을 살펴보면 최우가 이규보에게 문한을 맡아볼 후계자가 누구인가를 물은 일이 있었는데, 이규보는 자기의 후계자로 최자를 제일로 꼽고, 김구(金丘)를 두번째로 천거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우는 이들의 문제를 시험코자 하여 그 당시 문명을 떨치던 이수

(李需), 이백순(李百順), 하천단(河千旦), 이함(李咸), 임경숙(任景肅) 등과 함께 서표(書表)를 짓게 하고는 이규보로 하여금 시험점수를 매기게 했다. 모두 10번이나 시험보았는데 그 중에서 최자는 5차례나 장원을 하고 나머지 5차례는 2등급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 최자의 이재(吏才)를 시험하기 위하여 급전도감록사(給田都監錄事)를 위시하여 몇 군데의 지방관을 시켰는데 역시 민첩하고 근면해서 중용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당시 고종때는 여러 번 천거받아 정언(正言)이 되었고, 이어서 상주의 목사가 되어 선정을 베푸니 이민(吏民)이 우러러 보는 바가 되었다고 한다. 계속해서 전중소감보문각대제(殿中少監寶文閣待制) 자리에 올랐고, 충청도와 전라도의 안찰사를 역임한 뒤 국자대사성지(國子大司成知御史臺事)를 지내게 되었으니, 그의 학식과 능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씨정권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물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승진과 영전의 기회를 얻어 상서우복야한림학사승지(尙書右僕

射翰林學士承旨) 자리로 옮겨갔고, 중서평장사(中書平章事)를 거쳐 수태사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판이부사(守太師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判吏部事)에 올라 치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 고려사 열전에 의하면 그가 남긴 저술로 가집 10권과 속파한집 3권이 전한다는 것이다. 이 속파한집은 세상에 <보한집>이라고 널리 알려진 시평론집으로 상권에 52항 중권에 46항 하권에 49항이 수록되어 있다. 그 밖에 문학작품으로는 부2편, 칠언고시 1편, 오언율시 2편, 칠언율시 4편, 칠언배율 2편, 칠언절구 2편이 <동문선>에 전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명성이나 문학적 역량 등을 미루어 볼 때 방대한 양의 시작품을 남겼을 것으로 추측되며, 다만 그것들이 전해지지 않아 접해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까지 최자가 생존했던 시기의 사회적 배경과 그의 활동상황과 문학적 업적에 대하여 살펴보았거니와 이러한 논의들을 밑받침해보면 그에 대한 인간적 면모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생존했던 시기는 밖으로부터는 몽고의 침입에 시달려야 했고, 안으로는 무인집권 세력에 의하여 새로운 통치질서가 구축되었던 내우외환의 시련기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문인으로서의 관계 진출은 많은 제약을 받던 시기란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를 편력하면서 관·학·시(官學詩)의 대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범상인의 경지를 뛰어넘은 역사적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시재는 누구보다도 당대 제일임을 자부하는 이규보에게 인정받았다. 그의 정치적 역량은 당시 집권세력의 핵심인물인 최우에게 인정받았다. 그의 학자적 면모는 제가들의 많은 작품들을 일목요연하게 비평해놓은 <보한집>을 통하여 여실하게 드러났다. 아울러 최자는 지방의 방백으로 진출하여 치민구휼함에 있어 선정을 베풀었고, 눌러 지내던 백성들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 주어 추앙을 받았던 사실이나, 몽고와의 극한적인 대립상태하에서 끝까지 고려정부를 유지해나가는데 동량이 되었던 애국적인 행동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朴性奎：補閑集 해설)

◎ 보한집의 비평적 성격

〈보한집〉이란 서명은 이미 다른 저서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출간된 자기의 저서가 있는데, 그 책의 부족한 점이나 고쳐야 할 점을 보충하고 다듬어서 더 좋은 책으로 만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자의 〈보한집〉은 이인로가 쓴 〈파한집〉의 속편이란 뜻에서 그 책의 원명은 〈속파한집〉이라 전해왔던 것이다. 먼저 〈파한집〉의 성격을 보면, 이 책은 당시 문집을 낸 명현들의 시를 비평 내지 거론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인멸되어 알려지지 않을 명장수구를 다루는데 주력했던 책이고 또 다루는 작품들도 507언 절구와 율시에 국한시켰다는 점을 상기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최자도 대체로 문집으로 편성된 것과 507언 절을 이외의 것은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보한집 편찬 작업에 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보한집의 서문을 통해서

이책의 찬술동기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금의 명현들로 문집을 만든 사람은 오직 수십인에 지나지 않고, 그 밖의 이름난 문장과 뛰어난 구절은 인멸되어 전하지 않는다. 학사 이인로가 대략 모아 책을 만들어 〈파한집〉이라 이름붙였다. 진양공(晉陽公)이 그 책은 내용이 넓지 않다고 나에게 보충하라고 하였다. 간신히 없어진 나머지들을 모았는데 근체시 약간 연을 얻었다. 혹 승려나 아녀자들의 한두 가지 일이라도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시가 비록 아름답지 않더라도 모두 기록하여 3권을 만들었다. 아직까지 인쇄에 올릴 겨를이 없었더니 지금에 와서 시중상주국(侍中上柱國) 최공께서 선친의 뜻을 추술하여 그 원본을 찾기에 삼가 엮어서 올린다”(補閑集序)

이 서문에 따르면 최자가 〈보한집〉을 저술하게 된 동기는 당시 국권을 천단하던 최우의 명에 의하여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서(自序)에 “晉陽公以其書未廣 命豫續補”라는 귀절에서, 최우는 이인로의 〈파한집〉을 보충하도록 최자에

게 명령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고, 최우의 뒤를 이은 최항도 여기에 관심을 나타내어 이 책은 완성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인로의 <파한집>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멸되기 쉬운 명장수구를 모으는데 주력했던 책이란 점을 감안할 때, 진양공이 그것을 보충하여 새로이 책을 만들라고 명령한 것은 본격적인 시평이나 시인평을 하도록 권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한집의 가장 큰 공헌은 이 평론문학 분야에 있다(許永美: 補閑集의文學的 성격)고 평가한 이야기나, 보한집을 저술하게 된 동기는 새로운 문학장르로 등장한 비평문학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의도에 있다(朴性奎: 崔滋論)고 하는 논설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녔다고 하겠다. 아울러 최자는 이책의 말미에서 “이 글은 감히 문장으로써 나라를 빛나게 하는데 보탬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성조의 유사를 찬술 기록한 것도 아니다”(보한집 하권, 49항)라고 하여 이 글의 성격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이어서 신진고학자(新進苦學者)들로 하여금 놀고 쉬게 할

수 있도록 음괴한 일을 수록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 내용이 방종한데가 있기는 하나 감계의 뜻도 함축되었으니 잘 살펴보라는 독자들에게 대한 권장사항도 있었다. 어쨌든 이 보한집의 내용은 복잡다단하여 그 책의 성격을 시화, 시평집이라고도 하고, 수필문학, 수필체 시화집, 시화만록, 잡록 등 각인각색으로 규정짓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고 보한집 같은 책은 패관문학이라 총칭하면서 패관문학의 성격은 소설·설화가 정상적 발달과정으로서 주류이고 시화는 방계에 불과하다(朴晟義: 韓國文學背景研究)는 학설을 주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책은 중국에서 시화란 이름으로 처음 나온 구양수의 육일시화(六一詩話)의 형식과 서술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이책의 내용도 시평이 82장, 수필이 58장, 문담이 7장으로 분류되어 <파한집>의 속집으로서의 <보한집>은 향설(巷說)이나 일사(逸事), 부도(浮屠), 경사(經史)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보완한 것이 아니라 문학비평 쪽에 치중했다(朴性奎: 보한집해설)는 사실

을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순공의 〈浦口詩〉에는 「호수가 맑으니 호심에 비친 달이 교묘하게 찍혔고 / 개가 넓으니 입에 들어오는 조수를 탐내어 삼키네」라고 했다. 삼킨다고 말하고 또 입이라고 말한 것은 비록 유유(類喩)에 가깝지만 새로이 시를 배우는 신진들이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릇 시를 짓는데는 글자를 빌어 비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러나 노련한 시인들이 글을 빌어 쓰면 말이 완전해지고 뜻을 교묘하게 이루지만 반면에 시를 배우는 자가 그렇게 한다면 말이 생경하게 되고 뜻이 소략해진다”(보한집 중권, 33항).

여기 인용한 시화의 내용은 문순공 이규보의 작품을 높게 평가하고, 그 잘된 점으로서는 비유법을 참신하게 잘 구사한데 있다는 점을 밝혔던 것이다. 호심에 비친 달의 모양을 도장 찍듯이 찍어놓은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포구에 밀려드는 조수를 탐내어 삼킨다고 한 것은 현대적인 안목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능란한 솜씨를 발휘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이규보의

윗작품은 비유법이나 의인법을 뛰어나게 잘 구사해서 신진학자들이 이끌어낼 수 없는 경지라고 평가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규보는 최자를 높이 평가해준 지기인 동시에 그를 자신의 첫째 가는 후계자로서까지 추천해준 선배이며 상사였다”(車柱環 : 崔滋의 詩評)는 인간 관계에 치중한 정실비평이 아닌란 점만은 분명해졌다고 본다. 그 밖에 상기 인용문에서 “신진배들은 이끌어 낼 수 없는 경지다” “새로 배우는 이들이 이걸 쓰면 말이 생경하고 뜻이 소략해진다”라는 귀절들은 보한집의 편찬의도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보한집의 서문에도 “지금의 후진들은 성률과 장구만 숭상하여 글자를 다듬을 때는 반드시 새롭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생소해진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 책의 마지막 단락에 “두어 가지 음괴한 일을 기록하여 신진고학자(新進苦學者)로 하여금 놀면서 쉬도록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어, 후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보한집〉은 여러 가지 시화들을

통해서 시평, 시론, 시문에 따른 일화 등을 전개하여, 고려시단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 했던 것이고, 아울러 후진학자들에게 올바른 시작법이나 시해석법을 가르쳐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 〈보한집〉은

우리나라 최초로 본격적인 시비평을 시도했던 저술이란 점과, 시를 배우기 힘들어하는 신진고학자들에게 시를 가르쳐 주려는 교과서 역할을 하도록 편찬되었다는 점에서 그 문학사적 의의 또한 지대하다고 평가된다.

祝

宗誌第2輯發刊

韓國敎員大學校 敎授

文學博士 崔雲植

(宗誌編纂委員)

서울特別市 城北區 下月谷洞 90-1854

電話：(職) (0431) 60-3509 (自) (02) 912-4909 番

建國大學校 政治學科敎授

政治學博士 崔漢秀

(宗誌編纂委員)

서울特別市 松坡區 文井洞

훼미리아파트 308동 804호

電話：(職) 450-3554 (自) 404-6656 番

海州崔門의 宗魂



永 哲

(校理公派, 宗誌編纂委員)

序 論

1. 뼈대 있는 집안
2. 學德으로 世上을 빛낸 海州崔門
3. 剛直한 海州崔門
4. 國難에 忠節을 다한 海州崔門

結 論

序 論

이 世上의 宇宙萬物은 모두 脈이 있고 脈을 더듬어 올라가면 根源의 뿌리가 있는 것이다. 人間도 先祖로부터 代代世世로 血脈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날 血統을 같이하는

宗門이 있고 魂을 같이하는 民族社會가 形成되는 것이다. 血統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는 魂도 같이 따라 代代世世로 이어지는 것이 宇宙法則인 故로 東西古今을 莫論하여 어떤 名望의 人物이나 奸惡한 사람이 있어 物議 對象이 될 때에는 반드시 어느집 子孫인가? 어느 宗門인가로 祖上까지도 쳐드는 것이 通俗이다. 한 사람의 德 不德의 行爲가 그 宗門에 끼치는 影響은 莫重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에 千餘年間의 長久한 歲月 血統이 이어져 내려온 海州崔門의 宗魂은 어떤것이며 그 根源은 어디에 있는가? 그 뿌리를 더듬어 볼까한다.

1. 뼈대 있는 집안

本來 튼튼한 뿌리가 있으면 흔들림이 없이 잘 成長하고 좋은 結實까지도 맺어 他에게 利로움을 주는 存在가 되어 그를 아껴주며 좋아하게 마련이다. 海州崔門이 全國 坊坊 曲曲에 繁榮을 누리며 他에 알됨이 없이 떳떳하게 살고 있는 것은 海州崔門의 뿌리가 튼튼하고 훌륭한 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제 現世에 脈을 이은 海州崔門된 사람은 모두다 훌륭한 祖上님들을 모신 자랑스러운 宗族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自負心을 가지고 宗魂을 다시 燦爛하게 꽃피워 꽃香氣를 드높일 때가 아닌가 한다. 이에 海州崔門의 祖上님들께서 後世에게 내리신 貴重한 訓戒말씀을 되새기려 한다.

○ 海東孔子로 推仰 받는 文憲公 諱 冲 先祖께서 두 아드님께 내리신 글

代代로 물려줄 長物은 없으나 오직 한가지 傳해줄 보배가 있으니.

文章은 값진 錦繡와 같고

德行은 貴한 珠玉과 같은 것이니라.

이제 두아들에게 家寶를 주려 하노니.

清廉과 儉素를 마음에 새기고 文章으로 몸 治裝을 하여라.

이를 家寶로 하여 代代孫孫 忠直 할지어다.

虛榮을 일삼는 者를 본뜨지 말라.

虛榮은 꽃이 봄한철格이니라.

○ 四世 忠景公 諱 思 誨께서 아드님께 訓戒하신 말씀

나의 祖父 文憲公께서는 政界나 學界의 最高峰이시었으나 恒時 儉素하시어 木器만을 쓰셨노라 너희들도 이를 본받아 勤勉하고 儉素할지어다

以上과 같은 寶訓들은 海州崔門이 創宗以來 千餘年間 핏줄을 이으는 동안의 歷史를 더듬어 볼때에 虛榮된 사람이나 奸惡한 사람 찾아 볼수 없으니 이는 家寶인 宗訓이 血脈에 질게 스며져 代代世世 이어진 所致가 아니겠는가?

2. 學德으로 世上을 빛낸 海州 崔門

○ 儒學 興隆의 元祖

儒學의 鼻祖는 春秋時代의 魯나라 孔子님이시나 우리 나라에 儒學의 뿌리를 깊게 심은 것은 海東孔子로 推仰 받는 海州崔門의 二世 文憲公 諱冲 先祖께서 創設하신 九齋가 밑바탕이 된다. 九齋가 創設 되므로서 이어서 여러 私塾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우리 나라 中世의 大儒學者들이 거의 九齋의 出身이거나 그 學系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文憲公 先祖께서는 春秋 七十高齡에 首相의 重任에서 退野하시어 國家의 人材養成과 學問의 興隆을 爲하여 九齋(樂聖·大中·誠明·敬業·造道·率性·進德·太和·待聘)를 創設 하시니 四方에서 學徒들이 구름 같이 모여들어 國家에 致仕하기 爲한 科擧工夫나 學理 探究에 盡力들을 하니 國家棟樑之材가 여기에서 養成되고 國基를 튼튼히 할 學究의 틀이 確立되게 되었다.

九齋는 오늘날의 綜合大學校와 같은 것이며 私立學校의 紀元이라하

겠다.

○ 높은 學德으로 逆賊奸計를 紛粹

다음으로 海州崔門에서 學德으로 名聲을 떨친 어른을 든다면 海州崔門 九世 忠憲公 諱有滄을 빼놓을 수 없다.

公의 뛰어난 學識과 높은 學德은 當時 元나라에 까지 널리 알려졌었다. 마침 高麗 逆賊 오잠과 조적이 27代 忠肅王을 廢하고 高麗를 元나라의 一個 行域으로 만들것을 計策하여 元나라에 對하여 高麗를 謀陷하여 高麗나라가 危機에 直面하자 有滄께서는 七十老軀도 不顧하시고 元나라에 가시어 오잠 조적等の 諫言이 그릇됨을 說得시키니 元나라에서는 이러한 學德 높은분의 말을 믿지 않고 누구의 말을 옳게 들으리오 하고 逆賊 諫言의 萬事를 白紙化시켜 高麗나라를 危機에서 救할 수 있었으니 忠憲公의 뛰어난 學識이 아니었더라면 그 때 우리 韓民族은 어찌 되었을까? 참으로 아찔한 感이 든다.

○ 뛰어난 文章力으로 國威를 宣揚

海州崔門의 校理公派 中始祖이신 十五世 校理公 諱 璘께서도 非凡하신 文章力으로 國威를 빛내신바 있다. 校理公이 弱冠時節에 成均館에서 學問을 修練 하시던 때에 明나라 使臣 陳鑑과 高潤이 成均館에 들러 景觀에 心醉되어 詩 한 句節을 지어 읊는데 森森한 소나무는 하늘을 찌를듯 雨露의 힘으로 이루어졌구나 한즉 옆에서 듣고 있던 校理公께서 即席에서 對句의 詩를 지어 읊기를 빛나는 文章은 太陽처럼 빛나 天地의 調和 속에 이루어졌네 이를 들은 明 使臣이 깜짝 놀라 다시 一句를 읊으기를

하늘에는 恩籠의 물결이 높구나 라고 하니 校理公께서 다시 이를 받아 人間에게는 調和를 베푸는 太陽이 밝도다 라고 對句하니 明使臣이 그 뛰어난 文章力에 驚歎을 禁치 않았다 한다.

○ 耽羅에 文化의 씨를 심다.

海州崔門 八世 文淸公 諱 滋께서

젊은 時節 耽羅王로 除授되어 到任하고 보니 百姓들이 모두 無學인지라 于先 無識을 깨우쳐 주는 것이 先務임을 느끼고 學堂을 세워 글을 배우게하니 耽羅(지금의 濟州道)에 文化의 씨를 비로서 뿌린 治績이 至大하였다.

○ 古今詳定禮文을 編纂 世界最初로 金屬活字로 刊行

海州崔門 六世 英烈公 諱 允儀께서는 ‘古今詳定禮文’ 五十卷을 編纂하시어 이를 金屬活字를 써서 刊行하였는데 이 金屬活字는 세계에서 最古의 金屬活字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보다 200年이나 年代가 앞서는 것이라 하니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이 밖에도 海州崔門으로서 高名하신 분은 栗谷 李珣와 더불어 朝鮮 八大文章으로 손꼽히는 海州崔門 十九世 諱 慶昌公等 學德이 뛰어나고 文化의 治績을 남긴분이 數多하니 이는 歷代 海州崔門들이 ‘學과 德으로 몸治裝을 하라’는 宗訓이 代代孫孫 이어지는 血脈 속에 깊이 새겨진 所致가 아니겠는가?

3. 剛直한 海州崔門

世上에서 흔히들 崔氏는 毒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는 惡毒이 아니라 ‘곧고 바르고 節概가 있다’는 말로서 不義를 容納하지 않는다는 것에 根源된 말이다. 오늘날의 世上에서는 이러한 剛直이 自己 個人의 立身揚名과 榮達에는 當場은 利롭지 못 할 것이어나 小我를 犧牲하여 大義를 바로 잡아 뒤를 뒹뒹하게 하는데에는 高貴한 精神이요 이 社會가 바라는 精神姿勢가 아닐 수 없다.

○ 風遊만을 즐기는 임금께 忠諫

高麗 16代 임금 예종이 風遊를 좋아하여 政事보다 重臣들과 더불어 風遊로 虛送함이 지나쳤다. 그날도 또 平壤에 重臣들과 같이 行次하시어 詩를 읊으며 즐기는지라 國事를 근심한 海州崔門의 五世 翰林學士 諱 瀾 께서 王에게 直諫하기를 ‘上께서는 重臣들과 國政을 論議하심이 宜當할 일이어늘 어찌 風遊만을 즐기시나이까 痛축하소서’라고 諫하였다. 그러자 周圍의 奸臣들이

一齊히 ‘저 사람은 詩文이 能하지 못하여 저런 방자한 行爲를 하는 것이오니 嚴히 罰하소서’라고 하여 王은 即席에서 翰林學士를 春川府使로 左遷命을 내렸다. 翰林學士는 할수없이 春川 任地로 向하여 떠나가시던 途中 울적한 心情을 못이겨 詩 한 首를 지어 읊었는데 ‘우리 家門 代代로 忠誠을 다하여 왔고 이 몸 亦是 적은 智慧로서 王에게 보탬을 드리려 했던 꿈이 이제는 아득하게 되었구나’라고 읊으니 이를 들은 周圍의 人士들이 忠節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이 詩를 王께 올리니 王께서는 그제서야 뒤우치시고 公을 다시 불러 原職에 復歸시켰다.

○ 敢히 손 못대던 勢道家의 行悖를 뿌리 뽑아

은 世上을 손아귀에 쥐고 뒹뒹드는 勢道家 등등한 宰相 崔怡의 아들 得全이 중이 되어 全羅道 月南寺에 있으면서 勢道家의 背景을 업고 地方 官民에게 行悖가 極甚하였으나 누구도 敢히 沮止시키지 못하는 것을 全羅道 按察使로 나갔던 海州

崔門의 八世 文淸公諱 滋께서 이 事實을 알고 뒤를 두려워 하지않고 法에 따라 嚴正하게 宰相의 아들 得全을 處罰하여 橫暴를 中止 시키니 萬民이 安堵의 숨을 쉬고 기뻐하였다.

○ 죽음을 當해 가면서도 不義를 폭로

李朝 宣祖 때에 海州崔門 十九世 諱：沂(雙栢堂)公이 刑曹 吏曹參議 右承旨職을 歷任한 뒤 海州牧使로 나가 있을때의 일이다.

當時 朝廷에는 李爾瞻·朴承宗·柳稀奮 등이 勢道를 잡고 있으면서 勢力다툼이 심했었다. 李爾瞻이 朴·柳의 兩勢를 없애고 權勢를 獨占하려고 海州에 사는 朴希一과 朴以彬이라는 者를 隱密히 불러 올려 그 者들로 하여금 朴承宗, 柳稀奮이 海州에서 逆賊 陰謀를 한다는 謀陷의 上變書를 海州牧使에게 올리게 하였다. 崔沂牧使가 이 上變書를 받아 보고 自初之終을 케어본 結果 謀陷이 分明하고 政界의 要人들이 關聯되어 있는지라 이 上變書를 中央에 陳述하면 必是

政局에 大波瀾이 일것이 憂慮 되므로 이 上變書는 불태워 없애고 虛僞 告變者 兩 朴은 그의 父母들로 하여금 威脅을 加하게 하여 自刃케 하였다. 그러나 이 上變書가 中央에 上達 되기를 苦待하던 李爾瞻이 이 같은 事實을 알고 崔沂牧使를 隱密히 불러 올려 鞫問을 하는 一方 牧使를 달래어 이러저렇게 하면 厚待하겠다는 회유책도 썼지만 剛直한 崔沂牧使는 끝까지 屈하지 않고 이 眞相을 暴露하기에 이르니 李爾瞻은 도리어 崔沂牧使가 逆賊 陰謀의 괴수였다는 罪目을 뒤집어 씌워 아깝게 獄死케 하였다. 事必歸正이라 朝廷에서는 崔牧使의 正當性이 後에 밝혀져 公을 吏曹判書와 大提學에 追贈하였다.

○ 스스로를 犧牲한 剛直

海州崔門의 十二世 襄武公諱：永址는 天性이 곧고 權力에 굽힐 줄 모르는 武官으로서 西北兵馬節 都使로서 軍의 紀綱을 確固히 하고 國境地帶의 防備를 물샬틈 없이 하는 한편 愛民治世에도 卓越한 器量을 發揮하여 萬人이 그 人品을

우리르는 大將帥였다. 西北 一帶의 都巡撫察使 兼 平壤府尹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有備無患의 信條가 透徹한 公께서는 平壤城이 되락하여 西北 防備에 虛實 됨을 느끼고 平壤城 修築 役事를 하였다. 이 때 한 役卒이 어느 門中 先代의 墓碑를 파낸 것이 問題가 되어 關聯 部下들이 處罰 當하게 되자 公께서는 部下들의 過誤는 덮어두고 스스로가 이 問題의 모든 責任을 혼자 지고 깨끗이 그 職을 물러나 시끄러웠던 問題를 마무리 짓는 剛直性을 보여주었다. 剛直性의 宗魂이 透徹하지 못하였던들 어찌 그러하였으리오?

4. 國難에 忠節을 다한 海州崔門

壬辰亂 때에는 全國土가 倭賊에게 짓밟혀 韓民族이 大受難을 當하였으나 海上의 李舜臣將軍 陸地의 崔慶會將軍과 權慄將軍만은 倭賊들이 屈服을 시키지 못하고 두려워 했다.

海州崔門 十七世 忠毅公諱：慶會將軍은 學識이 높고 地方官으로

赴任하는 곳마다 두드러진 治績을 쌓아 萬民이 우러러던 次에 壬辰亂이 일어나 全國土가 倭賊에게 짓밟히게 되자 公께서는 義兵을 일으켜 智 勇으로서 三南地方의 倭賊을 모조리 섬멸시켜 나가니 倭賊들이 겁에 질려 敢히 對抗치 못하고 있었다. 그리자 倭將加藤清正이 어떻게 해서든지 崔將軍을 잡아야겠다는 決心을 하고 倭賊의 最強主力 大軍을 이끌고 慶會將軍이 陣치고 있는 晋州城을 겹겹이 包圍하고 攻勢를 해왔다. 그러나 城門을 굳게 닫고 鎗筒 같이 守備를 하는 晋州城은 陷落되지 않고 攻擊해 오는 賊들은 매번 沒殺을 當하여 城밑에는 倭兵의 屍體가 山같이 쌓였다. 그러나 많은 時日이 걸리자 城에는 限定된 火藥·糧食이 다하여 더 싸울 길이 없어지자 將軍께서는 城 樓閣에 올라 앉아 “축석루 안의 삼장사 술한잔 나누고 江 물 가리키며 웃네

도도하게 흐르는 저 江물 저 波濤 멈추지 않는 한 내넌도 죽지 않으리.”라고 詩 一首를 지어 읊으고 江물에 몸을 던지셨으니 敵將을 겨안고 南江으로 같이 投身을 한

慶會將軍의 副室 義烈 論介의 녀과 더불어 아직도 南江에 護國神으로 남아계시리라

○ 敵將도 그의 忠節에는 感服

高麗 高宗 때에 蒙古의 사리타이는 中國 全土는 勿論 中東과 歐洲地域까지 征伐을 하고 그 餘勢를 몰아 高麗를 侵攻하니 開京이 陷落되어 麗朝는 江華로 遷都를 하여 三十餘年間을 降伏하지 않고 버티다가 급기야는 講和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 間 全國 各城은 蒙古軍에 陷落 되었으나 唯獨 海州崔門인 崔椿命이 거느리는 慈州城만은 包圍만 當했을뿐 講和가 이루어진 때까지도 蒙古軍이 陷落을 못시켰다. 蒙古 元首 살리타이는 화를 견디지 못하여 高麗 朝廷을 꾸짖어 慈州城이 降伏하도록 하라고 하니 高麗朝廷에서는 內侍郎中 宋國瞻을 慈州城에 보내어 ‘朝廷에서도 降伏을 하였으니 蒙古軍에게 降伏하라’고 勸告하였다. 그러나 崔公은 ‘내 祖國疆土를 짓밟은 오랑캐에게 어찌 降伏을 할것인가’하고 끝내 듣지 않았다. 蒙古軍의 壓力에 依하

여 結局 崔公이 王命을 거역하였다는 罪目을 씌워 西京에 投獄되어 處刑하기에 이르렀었다. 이 때 蒙古 살리타이가 그의 忠誠에 感服되어 마음을 고쳐먹고 도리어 椿命을 살려주도록 高麗朝에 救命運動을 벌렸다. 後에 崔公에게 高麗朝에서는 一等功臣에 論功되고 樞密院副使에 奉하였으니 忠節名門의 공지가 透徹한 所致가 아니겠는가

끝 맺음

本稿는 海州崔門의 宗訓이라할 수 있는 學과 德으로 몸 治裝, 虛榮 없이 ‘清廉과 儉素한 삶’, ‘不義를 不容하는 剛直’, ‘救國을 爲하여는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忠節’의 宗魂을 實行에 옮긴 海州崔門의 先賢들께서 後代에 큰 가르치심을 주신 한 둘씩의 例를 列舉한데 不過 하나 그 外에도 海州崔門으로서 宗魂을 通하여 國家와 民族을 爲한 貢獻으로 名聲을 떨친 先賢들이 數多하나 紙面 關係로 더 많이 記述 못함을 先賢들과 名賢들을 先代祖로 모시는 여러 宗派 宗親들에게 罪스럽게 생각한다.

오늘의 世態는 生活方式이나 思潮가 많이 變했다. 그러나 人間 五倫의 基本은 萬古 不變인즉 海州 崔門의 宗魂이 血脈에 흐름을 느끼는 崔門이라면 名門의 後裔라는

矜持를 가지고 珠玉 같은 宗訓을 지키며 오직 正道에 따라 現世에 適應하고 오늘날에 다시 한번 海州 崔門의 宗魂을 더욱 燦爛하게 꽃피울 義務를 지니지 않았는지?

祝

宗誌第2輯發刊

大宗會組織副幹事 崔 光 勳

서울特別市 中浪區 面牧2洞 133-24

電話：434-7152 番

大宗會事業副幹事 崔 鮮 植

서울特別市 蘆原區 倉1洞 297-1

창동 상아아파트 1동 502호

電話：908-4408番

清白吏 詩人 孤竹 崔慶昌



최 명 환

(公州教育大 教授 本貫 慶州)

孤竹 崔慶昌은 穆陵盛際의 三唐詩人이요, 八文章 중의 한 사람으로 內外에 널리 알려진 宣祖 때의 詩人이다. 孤竹의 詩風은 淸勁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는데, 그에 대한 詩評을 종합컨대 성격도 강직했던 것으로 보인다. 굽히지 않는 성격 때문에 禍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시세계를 구축할 수도 있었다.

孤竹의 시문학은 굳건한 外在와 해맑은 內在로 해서 三唐詩人 가운데서도 뚜렷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孤竹은 唐詩를 익혀 이른바 正音을 통한 語聲의 표상으로 國初에서 올려진 學唐의 詩風을 발전시킨 점에서 더욱 유명하다. 그리고 孟郊와 賈島의 詩風에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독자적인 詩語選擇에 고심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性情을 주로 한 唐詩가 《杜詩諺解》 이후 우리 나라에 唐風을 불러 일으켜 새로워진 氣風은 결국 麗末 이래로 蘇軾에 전념했던 우리의 문학사조를 學唐으로 굳혔다는 明證이다.

이러한 배경의 선두에 섰던 孤竹의 生涯와 交友關係를 알아보고, 三唐詩人의 位相을 정립한 다음, 漢文學史에 찬란한 孤竹詩의 정수를 살펴보고자 하자.

I. 孤竹의 生涯

崔慶昌의 字는 嘉運이요, 號는 孤竹이다. 본관은 海州이며, 中宗 34년(1539) 전라도 靈岩에서 守仁의 아들로 태어났다. 文憲公 崔冲의 17代孫이고, 崔滋와 崔萬理는 각각 11대, 5대조이기도 하다.

그는 젊어서 玉峰 白光勳과 함께 李後白과 梁應鼎의 문하에서 배웠다. 23세에 進士에 오르고, 29세에 文科及第하였다. 그리하여 北評事에 임명되고, 1573년에 讀書堂에 간택되었으며, 이어 禮曹와 兵曹의 員外郎을 거쳐 1575년 司諫院 正言에 올랐다. 이 때 宣祖의 신망을 얻게 되고 使節의 수행원으로 明나라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러나 뜻밖의 補外에 충격을 받고 1576년 외직인 靈光 수령직을 사임했다. 그는 1577년 大同察訪으로 복직되고 宣祖의 배려로 鏡城府使, 都護府使에 취임하고, 뒤에 成均館 直講에 임명되었으나 上京 도중 鏡城 客館에서 他界하고 말았으니, 그의 나이 45세 때였다. 경기도 坡州에 묘소가 있다. 뒤에 吏曹判書에 추증됐고, 肅宗 때 清白吏에 선임되었다.

孤竹은 약관에 栗谷 李珥, 龜峰 宋翼弼, 東臯 崔岾 등과 武夷洞에서 酬唱 交遊했는데, 모두 八文章으로 불리는 인물들이었다. 또한 松江 鄭澈, 萬竹 徐益 등의 名流와 三清洞에서 교유했다. 당시 이들을 28宿이라 불렀다.

孤竹은 詩에 書畫는 물론 射藝에도 능하여 남다른 逸話를 남기기까지 하였다. 文武를 겸비한 그가 宣祖의 인정을 받았으면서도 벼슬길이 순탄하지 않았던 까닭은 要津의 인물들과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던 데다가 艷聞의 소용돌이도 있었지만 실은 李滌을 풍자한 詩 <養虎詞> 때문이라 전해진다. 李滌의 險巧難信한 인물됨을 시로써 읊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처신이 분명했던 孤竹의 位相을 살펴보도록 하자.

II. 三唐詩人의 位相

任相元은 崔慶昌, 白光勳, 李達을 ‘三唐集者’라 했다. 이는 세 詩人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詩品이 워낙 唐風에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任相元의 ‘三唐集者’란 許筠이 한 말을 인용한 것이고, ‘三人’ 또한 許筠을 따른 것이다. 近代에 와서는 金台俊이 ‘三唐의 詩’로, 趙潤濟가 ‘三唐派’, 또는 ‘三唐家’라 불렀으니, 이 명칭은 許筠에서 비롯하여 任相元이 三唐이라 쓰기 시작하였다. 이는 唐詩를 익힌 세 사람을 일컫는 말로되, 그들의 詩가 唐風을 필적할 경지에 놓인 것으로 평가 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三唐詩를 맨처음 언급한 이는 李達에게 배운 바 있는 許筠이다. 그는 三唐詩人을 孤竹은 清勁, 玉峰은 枯淡 그리고 蓀谷은 富艷하다 총평했다. 또 唐詩風 중에서도 中庸의 孟郊와 賈島의 영향이 컸음을 지적하였다. 許筠의 《鶴山樵談》과 《惺叟詩話》에 나타난 三唐詩人에 대한 詩話を 살펴보면, 그는 三唐詩人 중 孤竹을 첫째로 꼽으면서 蓀谷 優位를 비쳤고, 玉峰에 대하여는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孤竹에 대한 詩話는 내용면에서도 알찬 것이어서 中原에까지 알려졌고, 詩語 選擇과 彫琢에 남달랐으며, 五言古詩와 律詩에 뛰어나다는 사실을 이미 밝혀 놓았다.

李晔光은 三唐詩人의 등장을 우리 나라 詩風의 일대 전환으로 파악하는 한편 中唐風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柳夢寅, 申緯가 三唐詩人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Ⅲ. 清白吏 孤竹의 詩世界

孤竹의 詩世界를 清勁, 寫實, 艷麗로 가름하여 고찰해 보자. 이 가운데서도 清勁이 주류를 이룬다. 그의 詩에 갈무리진 飛潛動植은 바로 그의 精神이자 品性이었으니 그 詩品에 돋보이는 선비의 指向은 도도하기만 하다.

1. 清勁

心地가 淡泊하고 깔려 있는 내음이 짙어 까딱도 하지 않는 요지부동의 자세, 俗氣가 제거된 淸瘦한 정신, 맑고 산뜻하되 억센 느낌마저 드는 강단

의 詩—淸切, 淸楚, 淸靜, 淸證, 淸爽, 淸快와 淸苦의 경지에 든 詩風을 淸勁이라 할 때, 孤竹의 詩品에서 이 같은 작품을 찾아내기란 어렵지 않다. 佛家와 인연을 갖고 있는 작품들로 禪味를 체험한 관조의 시적 變容을 淸勁의 세계로 형상화한 작품에 <高峰山齋>가 있다.

古郡無城郭 海岳은 고을이라 성은 무너지고
 山齋有樹林 산마을의 재실은 수풀만 우겼네.
 蕭條人吏散 쓸쓸타 벼슬아치 산산이 흩어지고
 隔水搗寒砧 개울 건너 다듬잇소리 처량도 하다.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有無共存의 세계를 孤竹은 읊고 있다. 첫 행의 좌절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리는 신비한 메아리, 하늘의 울림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李丙疇는 詩心을 개울 건너의 처량한 다듬잇소리에 돌린 점은 五絶의 묘미라 평하고 있다. 淸新의 아지랑이 같은 처상적인 아름다움을 감춘 <高峰山齋>는 淸勁의 시상을 대표하는 수작으로 일찍부터 꼽혀 왔다.

다듬잇소리가 世俗의 知音이라면 풍경 소리는 승속의 지음이라.

秋山人臥病 가을산에 사람은 병저눕고
 葉落覆行逕 가는 길엔 낙엽만 쌓여 있어라
 忽憶西菴僧 홀연히 떠오르는 西菴의 스님
 遙聞日暮聲 해질녘 풍경소리 멀리서 들려오네.

스님은 평소의 知音이었을 것이다. 스님 생각에 풍경소리였을까, 풍경소리에 스님이 떠오른 것일까. 노을과의 동행이 그를 멈추게 하는 것일까. 병들어 누운 사실이 해 지는 것으로 맺힐 때 풍경 소리는 하늘의 소리가 되어 노을이 꺾가에 맴돌게 되는 것이다. <寄僧>은 자연과 동화된 孤竹의 짐짓이다.

그 밖에도 말하는이[話者]와 소리의 거리감을 〈御題擣紈〉은 신령하게 전달하고 있다. 솜씨가 주옥을 만든 應制作이라. 어느 집에서 다듬잇소리가 나는지 알 수 없으되 尾聯에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 空과 靜을 체득했지만 아직도 空外聲을 듣는 이 시는 禪의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는 인간적 고뇌의 情恨을 이렇게 승화시킨 것이다. 許筠은 〈映月樓〉의 마지막 수에서 起句의 清氣, 承句의 冷明, 轉句의 斷切 그리고 結句의 無常을 清切이라 평했다. ‘清峭’의 시로 〈武陵溪〉를 뽑고, ‘峭麗’로 수놓인 〈邊思〉를 살피노라면 孤竹이 性眞 스님에게 보낸 〈上座僧〉에서 ‘寒儉’한 禪味를 읽을 수 있다. 게다가 신선과 스님이 말하는 이로 되어 있는 〈天壇〉과 〈奉恩寺〉의 고운 시상은 다듬잇 소리, 풍경소리, 空外聲에 담긴 드넓은 청각의 세계와 더불어 孤竹의 清勁한 시세계라 하겠다.

2. 寫 實

三唐詩人이 ‘새로운 방향의 뚜렷한 성과’를 올렸다는 조동일의 문학사적 평가는 이들의 詩風을 두고 하는 말이다. 고려 때에도 宋詩의 기풍으로 기울어지는 조짐이 보였지만, 조선전기에 이르러서는 사대부문학이 난숙하고 세련된 경지에 이르자 宋詩와 더욱 밀착되었다. 그 결과 시가 자연스러운 감동에서 멀어지고, 인정·세태의 절실한 경험을 외면하는가 하면 위신과 규범만을 갖추고자 했기에 이미 설정한 격식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여기에 三唐詩人의 위상이 뚜렷한 것이고, 寫實의 詩風이 문학사의 轉機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孤竹은 寫實로써 선비정신을 구현하였다. 험난한 세상에서 歸去來하여 자신을 발견한 그는 현실인식에 민감해진다. 현실을 직시하자 궁핍한 〈田家〉를 살필 수 있게 된 것이다.

田家無宿糧 농가엔 묵은 식량 다 떨어져
日日摘新麥 날마다 풋보리 베어온다네

摘多麥已盡 하도 베어 이미 다했건만
 東隣猶未穫 이웃은 베기 시작도 안 했네.

전통적인 격식에다 궁핍한 현실을 붙여 넣는 孤竹의 현실인식은 시대상황을 조명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가 雨雹의 피해를 외면할 리 없다.

九月十七夜 9월이라 열이렛밤
 雲黑風頗奔 구름은 검고 바람 거세게
 電光室中明 번개는 방안까지 번쩍이고
 怒雷裂厚坤 무서운 벼락소리 땅이 꺼지네
 飛雨雜鳴雹 퍼붓는 빗속에 우박섞이니
 崩駕酒林園 하늘이 무너지고 땅마저 꺼질듯
 是時尙未穫 때마침 수확도 멀었는데
 禾穀遍郊原 벌판에 널린 벼이삭
 擺落半泥土 떨어진 나락은 흙투성이니
 殘實復幾存 남은 벳남 얼마나 될까
 粵自數歲來 아, 요 몇해 전부터
 天氣失寒溫 날씨가 변덕스러워
 癘疫人丁死 염병에 장정이 죽고
 毒禍及牛豚 재앙은 가축에도 미쳤구나
 蕭條如經亂 쓸쓸토다, 난리 겪은 듯
 山谷多空村 산마을 텅텅 비었고
 老弱服耒耜 늙고 병든 사람의 쟁기질
 辛苦良難言 고생스러움 말하기 어려워
 纔喜春苗盛 못자리 무성타 좋아했건만
 夏潦又渾渾 여름장마 끊어질 않더니
 涼吹乾枝葉 건들바람 벳잎까지 말리고
 螟食盡節根 멀구는 벳대를 감아 먹어

豈知凋悴餘 서글픈 나마에 어찌 알았으랴
 迄此突逾繁 양화가 이 지경에 이를 줄
 何以供賦稅 무엇으로 세금 내며
 敢望具饗殮 어찌 조석 바라랴
 四隣絕晨烟 이웃은 아침거리 끊어져
 但聞哭聲喧 다만 곡소리 과갈스럴 뿐일세.

〈雨雹〉은, 天災에 癘疾이 겹친데다 가축마저 모조리 휩쓸어가 텅 빈 마을에
 哭聲을 배경에 깔아 비장미를 고조시키고 있다. 孤竹은 이미 戰亂을 예감이
 라도 한 듯 ‘經亂’이라 쓰고 있다. 〈雨雹〉은 壬亂 직전의 민중이 궁핍과 곤고
 에 시달리는 현실을 극명하게 묘사하여 공감을 얻었다. 그래서 漢詩로서의
 格調를 유지하고 직접적인 토로를 배제하면서, 자기 의식을 농민의 처지와
 일치시켜 농작물에 닥친 피해를 민중의 것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찾은 데
 뜻이 있다. 孤竹은 상황을 인식하자 민중의 감정에 맞는 표현 양식으로 조선
 전기 사대부 문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니, 艷麗에 그의
 진면목이 잘 드러난다.

3. 艷麗

전통유가에서 詩業을 익힌 孤竹이지만, 그는 주자학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여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시화하는데
 힘썼다. 三唐詩人은 文學을 전업했을 뿐더러 존재이유를 밝히는 목적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학의 독자성을 확립한 것이 인간성의 본질에 접근
 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孤竹과 洪娘이 신분을 초월하여 나눈 사랑은 당대의 여건으로 보아 파격
 이 아닐 수 없다. 파격의 지평에 洪랑이 등장한 것이고, 孤竹의 인간애와
 洪랑의 정절이 艷麗情恨으로 승화되어 時調와 翻方의 꽃으로 피어났던 것이
 다. 특히 洪랑의 시조를 漢譯하고, 이를 그의 문집에 실은 정신은 孤竹의

진실이 시공을 초월하여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折楊柳寄與千里人 뒷버들 같이 것거 보내노라 님의 손터
爲我試向庭前種 자시는 窓밭과 심거두고 보쇼셔
須知一夜新生葉 밤비에 새넙 곳 나거든
憔悴愁眉是妾身 날인가도 너기쇼셔.

가지를 꺾는 아픔없이 사랑이 영글 수 없다. ‘새잎’은 관기 홍랑과 시인 최경창의 분신으로 태어나는 새 생명,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이것이 홍랑과 고죽의 만남이요, 평등의 선언이며, 시적 승화였던 것이다. 세상의 艷聞도 인간에 대한 신뢰로 나타낸 孤竹과 洪娘의 진실은 風聞을 인간애의 승리로 기록하였다 할 것이다.

IV. 맺 는 말

孤竹 崔慶昌은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李俊白, 梁應鼎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문과급제를 통하여 鏡城府使에까지 올랐던 시인이다. 그는 성격과 艷聞 때문에 官路가 순탄하지는 않았다.

孤竹을 삼당시인으로 부르게 된 것은 許筠에서 비롯하여 습용되어 왔다고 보인다. 崔·白·李의 순으로 자리잡힌 까닭은 孤竹의 淸勁한 시풍과 절차 탁마로써 자아와 세계를 형상화한 律詩와 古詩에 뛰어났기 때문인 데다 당대의 八文章에 든 시인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고죽의 시세계를 淸勁, 寫實, 艷麗로 가름하여 살펴보았다. 관조의 경지에서 드맑은 시풍으로 禪境을 묘사한 청경, 날카로운 선비정신으로 현실을 직시했던 사실, 파란을 몰고 왔다고 보이는 염정의 세계가 그것인데, 이는 고죽 문학의 총화이면서 각양임을 확인하였다. 고죽이 사회현실의 개혁의지와 인간성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가 당대의 현실을 직시한 차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구적인 근대의식의 발로였다. 특히 한국적인 시어 선택과 소재

의 발굴, 우리의 유적·史實 등을 시화한 의식은 독자적 문학세계를 구축한 원천이 되었는데 이는 획기적 성과라 하겠다.

주자학을 숭상하던 사대부들이 문학을 도구화한 데 대하여, 고죽은 문학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주장하고, 이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그의 문학은 개성의 소산이며, 문학적 신념은 忠厚責人の 전범이었다고 할 것이다. 三唐詩人中 최저의 작품량으로도 으뜸에 선 고죽은 허균, 이수광 등에게 근대의식을 불어넣은 선견의 시인이었고, 한국적 시학과 현실적 문학관으로 그 시대 상황을 직필하게 묘사하였으며, 개성의 창달에 앞장서 전통적 시형식을 시대정신에 맞게 추구한 점 또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삼당시인으로서의 최고의 관직에 올랐던 그가 庶孽 출신의 이달과 격의없이 사귀었으며, 관기 홍량을 곁에 있게 한 파격은 남다른 인간애의 발현이었다 할 것이다. 게다가 홍량의 시조를 漢譯하고, 그 같은 사실을 유고에까지 실어 밝힌 것을 생각한다면 고죽의 인간성을 오늘의 시점에서 재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를 시인으로 자처하고, 시를 짓는데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며, 사랑의 정감과 민중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맞는 표현을 개척한 고죽의 시문학과 그와 함께했던 삼당시인들이야말로 오늘의 문학사적 관점에서 평가하건대 민중민학·민족문학의 한 원류였다 할 것이다.

祝

宗 誌 第 2 輯 發 刊

社團 法人 韓國學院總聯合會

事務總長 崔 順 炫
(大宗會副幹事長)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北加佐洞 300-18
電話：(職) 798-8881~4, (自) 372-3701 番

뿌리가 깊은 나무라야 그 가지나 잎도 무성하다



萬 基

(大宗會 副會長)

우리 海州崔氏大宗會가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다시 태어나고서 아직 日淺한 光陰인데도 여러가지 획기적인 事業들을 成功的으로 이루어 낸것은, 全國의 모든 宗人들이 渾然一體가 되어 마음과 뜻을 모아준 德分이라고 믿어 會長團의 한사람으로 마음 든든하고 또 기쁘기 限量없습니다.

本人은 어려서부터 祖父母님이나 父母님 슬하에서 名門의 後孫이라는 自矜心을 이어 받아 왔고, 나름대로 祖上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 일과 親族間에 和睦해야 하는 德目を

익혀 왔으며, 특히 祖上님들의 奉祭祀에는 때와 場所를 가리지 않고 參禮를 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6·25 動亂으로 南下 避難한뒤, 先塋參拜가 不可能해진 것은 물론 一家親族들과 散之四方으로 흐터진 狀況에서 실로 허전한 나날을 보낼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차에 愚族叔(현 大宗會 宗誌編纂委員會 副委員長)을 만나 校理公小宗會를 創立強化하는 일에 微力이나마 힘을 바쳐왔으며, 또 文憲

獎學會의 會長자리도 말고 門中의 後進양성에 一助를 하면서 보람을 느껴오고 있습니다.

특히, 文憲公先祖님의 誕辰千周年을 맞으면서 그래도 後孫된 道理에서 舉門中的으로 무엇인가 紀念될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자면 大宗會를 再建해야 할터이니 發起人모임에 族弟가 적극 협조 해주어야 하겠다는 吉竣 族兄(大宗會 首席副會長)의 提議를 쾌히 받아 들였던 일들은 本人 나름대로의 祖上을 위하고 또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微意에서 엮음을 새삼 回顧합니다.

굳이 本人이 敷衍할 必要는 없을줄 알지만, 近代 産業文明의 激流속에서 자칫 잊혀지기 쉬운 血統에 對한 關心을 우리 스스로 불러 일으키고 또 자라나는 後進들을 認識시키기 위해서도 훌륭한 祖上들의 功德을 顯彰하고 門中の 親睦과 發展을 도모하는 門中事業은 아주 意義가 있는 일

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全國宗人들은 현재도 宗事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성적으로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大同團結로 大宗會發展에 寄與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周知하시는 바와같이 大宗會라고 하는 組織은 都市나 벽촌이 따로 없고 窮達을 가리지 않으며, 身分의 貴賤이 없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같은 피와 같은 先祖의 가르침 속에서 똑같이 태어 났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責任도 같고 義務도 같은 것입니다. 즉 어느 先人の 말대로 萬身이 一心이요 千里가 一室인 것입니다.

本人은 平素에도 祖上을 높이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어야겠다는 다짐속에 살아왔습니다만, 얼마전에 他界한 “앨릭스헤일리”의 自傳的小說인 <뿌리>를 TV를 통해 시청하고서, 自責같은 것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6代祖까지

소급해서 추적을 하여 피의 뿌리를 캐낸 그의 집념과 그의 뿌리에 對한 소중한 認識에 크게 感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엘릭스헤일리”의 〈自己自身도 소중한지만 自己自身을 존재케 한 뿌리는 더욱 소중한다〉고 한 말은 本人의 뇌리에 그대로 새겨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言及했지만, 本人은 失鄉民이기 때문에 뿌리의 소중함이 더욱 切實하고 祖上을 崇慕하는 마음 더욱 애뜻합니다. 그리하여 勞心焦思 끝에 京畿道楊州땅에 立地가 좋은 山을 求하여 이미 故鄉에서 他界하셨을 父母님의 魂을 招魂하여 편히 모시고 또 海州崔氏在北先塋追慕祭壇(設壇)을 마련 해마다 가을철 (註: 故鄉에서 時祭모시던 때

를 좇아서 날을 잡음)에 在北先祖追慕祭를 奉享하고 있습니다. 특히 追慕碑에는 溫始祖로부터 世系先祖를 모셨기 때문에 全國의 宗人이 함께 祭祀를 받드는 것입니다.

결국 後孫으로서의 마땅한 道理라고 믿어 솔선해서 追慕祭祀를 모시고 있는 것이며, 남을 意識해서 이거나 어떤 體面을 생각 해서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祖上을 崇慕하고 뿌리를 소중히 여기고 血親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은 누구를 위하는 일이 아니고 自己自身을 위하는 일입니다.

우리宗人 다같이 宗事를 위해 精誠을 받쳐야 할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라야 가지도 무성하고 잎도 무성한 법입니다.

..... 烏山 “文憲書院” 創建의 意義

元 植
(文憲書院建立委員長)

1. 建立背景

남한땅의 20만 海州崔氏 침종들은, 高麗조의 명재상이자 海東孔子로 추앙을 받고 있는 先祖 文憲公 諱 冲을 모신 “文憲書院”이 북한땅 海州에 자리잡고 있는 것을 못내 아쉽게 생각하고 남한땅 적당한 곳에다 다시 창건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의논하여 왔다.

그러던 차에 지난 1984년 冲先祖의 탄신 1천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주: 한국의 역사학계 최고권위학자를 총망라한 학술심포지엄의 개최, 연구논총의 발간, 대동보의 편찬 등)을 성공리에 마무리짓고 곧이어 “文憲書院”의 창건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하여 여러모로 입지조건이 좋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에다 부지를 조성하고 (註: 同敷地는 叅判公門中の 所有였으나, 祖上을 위하는 門中の 赤誠으로 書院부지로 제공하여 주었다.) 書院創建에 착수,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 일차 공사로 이미 “영정각”의 준공을 보게 되었으며, 이어 書院과 齋室 등의 工事に 着手. 9月경 준공 예정이다.

한편 烏山市에다 “文憲書院”을 창건하게 되는 경위와 배경은 여러가지로 설명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 烏山市의 내삼미동은 崔冲先祖와 여러 의미에

서 인연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 “文憲書院”이 건립되고 있는 일대는 冲先祖의 12代孫이자 朝鮮조의 대학자 崔萬理 副提學公의 증손자인 參判公(諱璿)의 묘소가 있는 宗山이며 특히 烏山市의 지근거리인 成歡에는 대한민국 국보 제7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冲先祖의 비문이 새겨진 事蹟碑 “봉선 흥경사비갈”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고, 또 인접군인 安城佛智에는 冲先祖를 奉享하고 있는 “文憲影堂”과 朝鮮조의 명재상인 良齋公 諱奎瑞(崔冲先祖의 21代孫)의 산소와 御書閣 등 유적이 있다.

그러므로 북한땅 海州나 高麗의 도성인 松都(북한땅 開城) 이외의 남한 땅에는 이렇다할 만한 연고가 없는 崔冲先祖에 있어서 烏山은 여러모로 인연이 있는 입지라고 판단이 되어 이곳에 “文憲書院”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특히 門中에서는 書院이 완공되는 대로 부속건물인 강당은 옛날부터의 전통을 살려 각종 수련회 등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또는 문화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烏山市와 華城郡에 제공할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道德的·禮讓的 鄉風을 진작시킨 崔冲先祖를 모실 烏山 “文憲書院”의 창건은 地方文化暢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2. 文憲公 崔冲先祖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崔冲先祖는, AD984년에 황해도 海州에서 태어나 약관으로 급제한 이래 목·현·덕·정·문종 5朝에 역사하여 벼슬이 門下侍中에 이르렀으며, 문종 9년에는 內史丞으로 치사를 하였다. 崔冲先祖는 그 후에도 나라의 대사를 자문받는 원로로서, 또 教育의 대가로서 활동을 하다가 문종 22년 그러니까 1068년 9월 15일 85세의 천수를 다하고 졸하였으며 文憲이라는 시호가 내려지고 정종묘정에 배향되었다.

그러나 崔冲先祖의 인품이나 사상은 벼슬길에서 물러난 뒤의 교육사업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즉 崔冲先祖가 일으킨 私學 九齋學堂은 거란과의 전란 등에 의해 침체일로에 있던 교육을 일으키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으나 결국은 문화민족의 자부심을 키우는 큰 뜻과도 연결이 되었다.

더구나 詞章과 詩文만이 위주였던 당시의 국학의 현실에 비추어 崔冲先祖가 세운 九齋學堂에서는 이것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德行의 전거가 되는 儒教經典과 正史를 존중하고 또 실천을 도모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이것은 후세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九齋學堂이 단순히 학문연찬에만 치중하지 않고 進退의 儀와 長幼의 서열 등을 분명히 하고 또 심신단련에도 힘쓰게 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 지향하는 지·덕·체 일체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崔冲先祖의 九齋學堂이 지니는 의미는 儒學의 침체를 극복하고 醇正儒學을 興起시키는 결정적 동기를 만들었다는 사실과, 또 제도적으로 官學과 나란히 私學을 역사상 최초로 설립, 동방에서의 사립학교의 발흥을 선도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崔冲先祖는 海東孔子로 호칭되었으며, 私學의 元祖로서 순정 유학의 비조로서 후세가 추앙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文憲書院의 내력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學問을 크게 일으킨 대학자나 충성을 다하고 절개를 지키다 돌아간 어른의 영정이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받드는 한편 선비들이나 서생들이 모여서 학문을 강론하는 곳을 書院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書院은 글을 배우고 강론을 하는 私學機關인 동시에 그 書院에 모신 어른의 제사를 받드는 祠宇이기도 한 것이다.

문헌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 書院이 처음으로 세워진 것은 1543년(조선조 11대 임금인 중종 38년)대이며 이때를 전후하여 東方性理學의 祖宗인 동시에 벼슬이 人臣의 극에 달했던 文憲公 崔冲先祖를 모신 “文憲書院”이 황해도 해주에 세워졌던 것이다.

처음에 崔冲先祖를 모신 祠堂은 孔子廟가 있는 서쪽에 있었으나 조선조 명종 7년(1550년) 황해도 관찰사 周世鵬이 적지를 물색 九齋學堂을 모방한 훌륭한 書院을 건립하고 이곳으로 옮겨 모셨다고 한다.

특히 周世鵬 관찰사는 崔冲先祖의 훌륭한 업적과 그 덕망을 들어 나라에 액호(현판에 붙일 이름)를 내려주기를 청하였던 바, 당시 선조임금께서는 이를 특별히 허락하는 한편 九經과 性理學에 관한 많은 서적과 程·朱子の 저서들을 많이 보내주었다. 그리고 “文憲書院”에 소속시킬 土地도 상당히 마련하여 주었다.

1571년(선조 5년)에는 황해도 관찰사로 새로 부임한 朴承任과 해주목사 韓性源이 “文憲書院”을 석동 백운봉 아래로 옮겨세우고 李栗谷이 石潭에 은퇴할 때에 院長이 되어 學規를 새로 만들고 이를 벽에 걸어놓기도 하였다.

1673년(현종 14년)에는 새로 부임한 황해도 관찰사 尹容이 나라에 청원을 하여 산에서 재목을 베어다가 “文憲書院”을 중수하였고, 1685년에는 문중의 후손인 錫鼎이 書院에 봉안할 文憲公, 文和公(公의 長子惟善) 두분의 화상(영정)을 다시 모사(改模)하기도 하였다.

그 뒤에도 새로 부임해오는 도관찰사마다 경비를 보조하여 “文憲書院”의 수리 등 관리를 철저히 하였다.

1862년(철종 13년)에는 후손 琮炯과 載奎가 書院建物이 낡아 손상되는 것을 염려하여 비석을 세워 사실을 기술하여 두기로 의논하고 경비를 염출하여 비석을 세웠는데, 비명은 당시의 규장각 직제학 李裕元이 지었다고 한다.

이렇듯 海州의 “文憲書院”은 그곳에 모신 崔冲先祖의 상징적 의미와 함께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로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물론 관찰사(도지사)나 牧使들이 정성을 다하여 보수·관리를 해왔으며, 1945년 남북이 분단되는 시점까지 온존하게 보존이 되었었다.

현재 남한 땅에는 崔冲先祖를 모신 書院이 두 곳(洪川의 魯東書院, 康津의 明谷書院)이 있고 影堂이 여러 곳에 있으나, 그래도 본거가 되는 書院은

海州의 “文憲書院”이기 때문에 이를 烏山에다 다시 건립하는 것이며, 이 役事는 문중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도의심의 퇴락을 개탄하는 우리의 사회 현실에서 또는 향토문화진작이라는 측면에서 다같이 경하해야 할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끝으로 烏山 文憲書院建立에 있어서 協調를 아끼지 아니한 關係當局(文化部·京畿道廳·烏山市廳)과 成均館에 感謝를 드리며 아울러 渾然一體가 되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준 門中 여러분에게 충심에서 謝意를表하는 바이다. 더욱이 國事に 奔忙한 가운데도 宗事를 위해 恪別히 支援을 해주신 公報處長官 昌潤 宗親. 大同譜編纂事業을 통해 書院建立基金造成에 앞장으로서 주신 吉坡首席副會長. 老軀를 이끌고 書院設計를 위한 基礎資料調查에 直接참여해 주신 翼列. 天溥 두 副會長님. 自身의 事業은 뒤로 하고 官公署 관계일로 몇달을 수고한 愚 宗親. 처음부터 끝까지 自己自身の 일같이 現場을 오르내리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昌燮事業幹事 등 관계 宗人모두에게 깊은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祝

宗誌第2輯發刊

大宗會 運營委員

崔宗植

(進士公派)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47

한성아파트B동 1309호

電話：783-1052 番

近世門中人物考

3·1 獨立宣言民族代表의 한분인

崔麟先生의

毀譽褒貶에 찬生涯

教育者로, 獨立運動家로, 宗教指導者로, 그리고 끝내는 附日의 汚名을 남기는 등 波瀾萬丈한 삶을 살다 6·25 事變中 拉北된 先生의 一代記



愚

(宗誌編纂副委員長)

글 머리에

「蓋棺論定」이라고 하여 사람에게 대한 評價는, 그가 죽은뒤 棺뚜껑을 덮을때 비로소 定해진다고 했다. 그러나 사람에게 따서는 棺뚜껑을 덮은 뒤에도 評價를 내리기가 힘든 수가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남긴 자

취가 凡常치 않을 때, 그 자취를 評價하는 視角이 사람에게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0년, 六堂 崔南善先生의 탄신百周年을 기념하기 위한 講演會에서 있던 일이다. 그때 演士가운데 한사람인 前國무총리 姜英勳氏(주:姜씨는 六堂의 滿洲建國大學의 제자이다)는



麟 先生

“六堂선생은 우리나라의 앞날과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는 大義에서 어떤 確信을 가지고 附日을 했던것이다”라고 하나하나 辯證을 해가면서 六堂先生을 두둔했고, 金東吉教授는 “그 時代를 살아 보지도 않고서, 그 時代狀況을 겪어 보지도 않고서, 그 時代를 살아간 사람들의 行狀에 대해서 一方的으로 曰可曰否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라고 했다. 또 洪一植教授는 “일렁이는 물에는 山 그림자도 흔들리고 나무그림자도 흔들리게 보이듯이 激動의 시대에는 어떤 人物의 모습이 올바르게 照明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등 演士들이 한결같이 六堂先生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을 듣고, 評者의 主觀과 視角에 따라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실감했다. 결국 잘한 일에 대한 賞讚은 인색하면서 잘못된 일들은 과장해서 헐뜯기를 좋아하는 우리네 風土에서 示唆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筆者는 이날, 六堂과 같은 時代에 비슷한 삶을 살다간 門中의 巨人 崔麟先生에 대해서도 적당한 기회에 다시 照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과 함께 어떤 아쉬움같은 것을 느꼈다. 특히 一部 식자들 사이에서 膾炙되고 있는 先生의 行적과 筆者가 알고 있는 內容과는 相異하는 점도 적지 않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1952년초 美極東司令部 駐韓連絡處 心理作戰學校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때 六堂崔南善先生으로부터 崔麟先生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가 있었다.

즉, 강한 意志, 적극적인 행동력 그리고 남달리 투철했던

애국심 등은 이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의 한분이었으나, 3·1만세운동으로 옥고를 치루고 있을 때 악랄한 日帝의 공작에 휘말려 감옥에서 풀려났으며(가석방), 그후도 韓民族의 自治운동을 벌이는 등 눈부신 활약을 하다 日帝말기에 다시 附日을 하게된 경위와, 또 解放후 反民特委에서 거의 모든 附日人士들이 한결같이 自己辯明을 하였던 것과는 달리 그 빛나는 抗日운동 경력에다 辯明의 余地도 많았던 先生이 一言半句의 변명도 하지 않은채 參회의 빛만 보였다는 이야기와, 그 후 北으로 拉致되어 갈때까지 『과거참회, 현재 靜觀, 미래 精進』이라는 標語를 내걸고 隱居하였던 先生에 관한 逸話를 소개하면서 崔麟先生은 확실히 우리 近代史에 기록될 出衆한 人物이었다 라고 極讚까지 하였다.

하기야 六堂先生도 崔麟先生과 똑 같은 경우에 處해 있었기 때문에 그 極讚이 어느만큼의 客觀性을 지닐 수 있는냐 하는 問題가 제기될수도 있겠으나,

아뭏든 말년에 附日을 하기전까지의 先生의 족적은 확실히 우리 近代史에 찬연히 記錄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筆者는 門中の 後人으로서 先生에 대한 어떤 評價보다는 격동의 時代를 特出하게 살다간 한 큰 人物의 一生을 記錄과 證言中心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다.

大寧君派이며

溫始祖의 29世

崔麟先生은 1878년(高宗戊寅) 1월25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舊韓國시대의 中樞院 議官을 지낸 德彥氏(行列에 따르는 啣字는 崇林氏)와 淸州金氏사이에서 一男二女의 長子로 태어났다. 先生의 初名은 文鐸이며 號는 古友, 또는 如庵이다.

◇先生의 系譜◇

溫→冲→惟善→思齊→淪→允仁
→敏→滋→有淦→持→得全→鄆
→虎掃→有相→太異→興副→松

山→致雲→希瑞→愛南→胤新→
哲英→廷雄→光朝→雲祥→泰來
→日沉→德彥→麟(29世)

先生은 아주 어려서부터 漢學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13세 되던 해 같은 함흥시 덕산의 軍威朴氏와 결혼을 하였다.

(주: 많은 자료에는 密陽朴氏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우리 海州崔氏譜書에 依하면 軍威朴氏가 분명하다.)

1896년, 先生의 나이 19세때 咸境南道觀察部 執事로 官職에 첫발을 내디뎠다. 관찰부 집사라고 하는 자리는 당시 監營의 高級將校에 해당되는 직책이었다. 그리고 같은해 10月에는 이른바 甲午改革에 따르는 「新章程」, 「革政新制度」에 의거한 國民保護官시험에 응시(응시자격은 道內有力人士의 자제들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合格을 하였으나, 그職이 巡檢인 것을 알고는 곧바로 辭職을 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4~5년간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가 없으나, 24세 되던 해 上京을 하고 부터의 행적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기록들이 있다.

先生은 1902년 25세 되던해에 당시 開化黨을 이끌던 朴泳孝가 領導하던 活貧黨에 가입했으며, 또 日本陸軍士官學校에 留學을 하고 돌아온 젊은이들로 조직된 一心會에도 加入을 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였다. 참고로 이 두 團體의 성격을 살펴보면, 活貧黨은 돈많은 富者들로 하여금 재물을 내도록하여 가난한 青年學生들의 學費를 보조해 주는 것이 主된 目的이었고, 一心會는 일종의 革命團體로서 각자가 자기가 이끄는 軍隊를 동원하여 일조유사시에 낡은 政府를 革新하자는 것이 그 目的이었다.

그러나 活貧黨이 해체되고 一心會도 그 조직목적이 탄로되어 많은 會員들이 체포구금되자 先生은 同志 몇 사람과 몸을 피하고 仁川에서 배편을 이용 日本으로 건너 가려 했으나, 여의롭

지가 앓자 다시 말을 타고 釜山으로 내려가 거기서 渡日을 하였다.

이렇게 日本으로 피신을 한 先生은 大阪에 머무르면서 日本人學者 山本 憲으로 부터 日本語를 배웠으며, 이때 우연한 機會에 日本에서 亡命생활을 하고 있던 天道教 教領인 義庵 孫秉熙를 만났는데 이것이 아마도 先生이 天道教에 入門하게된 動機가 아니었나 여겨진다.

그후 國內에선 예의 一心會 사건으로 主動者급 30여명만이 實刑을 선고 받고 복역을 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會員들은 특사로 방면이 되었다. 이와같은 소식에 접한 先生은 歸國을 결심하고 곧바로 國內로 돌아왔으며 이때 한때 外部主事職에 任命되었었다.

1905년 先生은 皇室特派 留學生 50人中의 한사람으로 선발이 되어 다시 日本으로 건너갔으며, 東京府立第一中學校(世稱東京一高)에 入學하였다.

(註：당시 皇室留學生과견은 露日전쟁이 끝날무렵 高宗皇

帝의 특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는데, 勅奏任官의 子弟 700名을 모집하고 이 가운데에서 試驗을 통해 50명만을 선발하였다고 하는데 先生은 5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힌 것으로 보아 出衆한 人材였음을 알 수가 있다.)

抗日運動의 선봉에 서다

先生이 日本에서 新學文을 공부하고 있는 동안의 國內政治정세는 복잡미묘하게 얽혀 가고 있었다. 즉, 露日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日本은 우리나라에 對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소위 乙巳條約을 강요하고 不法的으로 調印(1905年11月17日)시켰다. 이러한 報道에 접한 先生은 크게 충격을 받고 비분강개하고 있던 터에 당시 東京府立第一中學校 校長으로 있던 『勝補』란 者가 『報知新聞』이라고 하는 日本신문에다 기고한 글에서 朝鮮人유학생에 대한 教育의 不必要性을 주장한 내용에 분노를 느끼고 다른 유학생들과

함께 登校拒否운동을 일으켰다. 이때 問題가 예상외로 심각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 日本政府에서는 學生들을 駐日 韓國公使館에 모이게 하고는 여러 가지 方法을 동원하여 學生들로 하여금 登校하도록 회유를 하였다. 그러나 先生을 비롯한 9명의 學生은 끝내 登校를 거부하고 退學處分을 받았다.

이 消息이 우리政府에 알려지자 高宗皇帝께서는 先生등 아홉 學生의 爲國忠節을 가상히 여기고 皇室예산으로 學費를 대주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다.

그러나 乙巳保護條約의 체결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日本에 의해 박탈 당하자 우리나라의 公使館은 日本에서 철수를 해야 했고, 公使館의 철수와 함께 한국의 유학생은 보호를 받을 機關을 잃게 되었다. 이때 先生은 전체 한국유학생의 自治단체인 『日本留學生會』를 조직하고 자신은 副會長직을 맡았다가 얼마 뒤 會長자리에 선임이 되었다.

1906년, 先生은 名門 明治大

學 法科로 옮겼는데 이때에 先生은 歷史에 길이 남을 두가지 事件을 치루게 된다. 즉, 그 하나는 「와세다대학의 모의 국회 사건」인데 그 전말은 대강 이러하다.

1907년, 와세다대학에서는 모의국회를 열고 여기에서 『조선 황실을 日本의 王族으로 흡수하자』는 案을 上程하고 이를 심의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先生은 긴급히 全體 留學生會를 소집하고 대응방법을 의논한 끝에 先生과 또 한사람의 學生이 대표로 선발되어 와세다대학을 찾아가 學長에게 엄중항의를 한 끝에 學長으로 부터 공식 사과를 받아냈던 것이다.

또 한가지 事件은 1907년 초 겨울 東京시내의 한 興行場에서는 菊花를 가지고 도꾸가와이에 야스(德川家康)의 人形과 그의 앞에서 허리를 굽혀 拜禮를 하는 朝鮮王의 人形을 만들어 놓고는 “朝鮮王來訪”이라는 팻말을 만들어 세워 놓은 사건이다. 이때도 先生은 200余名の 留學生을 이끌고 그 興行場을 습격

하여 예의 菊花人形을 모조리 부서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興行場측에서 기마경찰대를 동원하였고, 결국은 우리留學生들과 出動한 경찰들과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인솔자인 先生등 주동학생들은 “營業妨害罪”에다 “器物破壞罪”까지 겹쳐져 엄중한 調査를 받았으나 결국은 興行場측의 잘못이 인정되어 무사히 풀려났다고 한다.

이렇듯 先生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皇室을 존경하는 마음이 남달리 극진하였던 것이다.

1909년, 先生은 明治大學 法科를 졸업하고 귀국을 하였는데, 당시의 法部大臣(지금의 법무부장관) 趙重應이 사람을 보내어 官職에 오를 것을 권유했으나 끝내 이를 사양 하였다.

1910년, 先生은 날로 기울고 있는 國運을 걱정한 나머지 동지 5~6명을 규합하고 날마다 漢江백사장에서 모임을 가지고 “주검으로 나라에 보답하자”로 결의하고, 일차 거사계획으로 各國 公館에 불을 질러 朝鮮의

문제를 國際문제화 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同志를 규합하는 과정에서 모의가 탄로나 本町경찰서에 체포되었으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韓·日합병조약이 공포되었다는 소식에 접하고는 그자리에 쓰러져 마루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대성통곡을 하였다고 한다. 이때 先生의 주먹은 피투성이가 되고 마루바닥은 유혈이 낭자하자 당황한 日本人 경찰서장은 황급히 人力車를 불러 先生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先生은 인력거에 몸을 의지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밖을 내다보니 종로통에서 광화문까지의 보도에서는 商人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500년 사직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렸는데 아무리 순박한 百姓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마음이 안온할 수가 있단 말인가...』하고 비분강개하였으나, 이내 그뜻을 나름대로 되새기게 되었다고 한

다.

즉, 朝鮮王朝는 전제정치에다 철저한 귀족정치 체제로 末期의 흐트러진 政治는 족히 많은 百姓들을 괴롭혔을 것이고, 亂政에 시달린 많은 百姓들은, 나라가 亡했다는 생각보다는 李氏王朝가 亡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토록 무관심할 것이라고-.

天道教入敎와

3·1運動

많은 憂國志士들이 그러하였듯이 先生도 韓·日합병후에는 매일같이 실의와 좌절속에서 방황을 하였다고 한다.

國外로 亡命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숫재 宗教에 귀의하여 은둔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苦心한 끝에 宗教생활을 하면서 國內活動을 계속하기로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日本유학시절 접촉을 가진 바 있는 天道教의 孫秉熙先生을 찾아갔다. 이때가 1910년 가을

이었다.

그후 先生은 孫秉熙先生과 의기투합하여 生死苦樂을 같이 하기로 굳게 약속을 하였으며, 天道教활동에 열중하는 한편으로 孫秉熙先生의 부탁으로 普成學校의 校長職을 맡고 10年間 후진교육에 헌신하기도 했다.

원래 普成學校는 李容翊이 설립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韓·日합병으로 李容翊이 러시아로 亡命, 그곳에서 死亡을 하자 經營主가 없는 普成學校는 門을 닫아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天道教에서는 어떻게든지 學校는 살려서 民族教育을 말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學校운영권을 인수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일반사회에서는 신성한 教育機關을 특정 종교집단이 손을 대려 한다고 크게 반발하였고, 學校側에서도 敎職員과 學生들이 일제히 반발, 同盟休學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손병희선생은 初志를 굽히지 않고, 崔麟같이 탁월한 能力을 가진

사람은 분명 사태를 슬기롭게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先生이 校長에 취임하는 조건으로 普成學校를 引受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義庵 손병희선생이 생각했던대로 崔麟先生은 校長에 취임하자마자 탁월한 수완과 비상한 노력으로 악화일로를 차단하고 있던 一連의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여 학교를 정상화시켰다고 한다.

결국 이 일로하여 先生에 대한 義庵의 信任은 날로 두터워졌고, 天道教내에서의 위치도 확고해지고 서서히 二人者의 자리를 굳혀 가고 있었다.

특히 孫秉熙선생은 3·1獨立 선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先生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核心的 역할을 맡게 했으며, 各界各層의 민족대표를 망라 규합하는 일에서 부터 3·1운동의 基本路線인 大衆化, 單一化, 非暴力化의 三原則밑에 우리 민족을 결집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先生은 獨立宣言書의 작성에서부터 그 印刷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관여하였으며 運動資金의 적절한 運用管理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3·1 독립운동에서 전위적 역할을 담당했던 先生은 民族代表 33人의 한사람으로 日本경찰에 체포되어 1年8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1920년 10월30일 京城覆審法院에서 保安法과 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3年刑을 선고 받았는데 이 刑量은 33人中 최고형량으로 당시 3年刑을 받은 사람으로는 先生을 포함 7人이었다.

(孫秉熙, 咸台永, 權東鎭, 吳世昌, 韓龍雲, 李鍾一)

그런데 先生은 최고형량을 선고받고도 上告를 포기하고 그대로 服役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감옥살이에 들어갔던 것이다.

한편 民族代表 33人에 의해 불이 붙은 3·1만세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全國으로 번져 엄청난 民族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며, 全國 218개군 가운데 211개군에서 1,500여회에 걸친 萬歲集회가 있었다. 그리하여 당초

武力으로 시위를 탄압하던 일제는 破竹之勢로 번지고 있는 狀況에 武力탄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齋藤총독의 이른바

〈文化政治〉에로의 對應으로 그 方向을 바꾸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공작에 말려들고 가출옥이 되다

齋藤총독의 소위 〈文化政治〉의 이면에는 높은 次元의 술수가 숨어 있었다.

즉, 어떠한 手段, 어떠한 方法을 다 동원해서라도 朝鮮의 有志(특히 33人을 비롯한 抗日獨立運動家들)들을 포섭하여 親日派로 전향시키는 計略을 꾸미던 것이다. 그리하여 日帝는 先生과 같이 朝鮮民族에게 큰 影響력을 지닌 저명한 民族主義人士들을 우선 그 대상으로 정하고 집요하게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해 가면서 포섭공작을 벌였는데, 이 공작에 말려든 人士가 先生과 六堂 崔南善, 그리고 春園 李光洙등이었다.

결국 先生과 六堂은 가출옥 형식으로 풀려났으며, 1920년 중반 研政會 조직에 깊숙하게 관여하게 되는데 이 研政會란, 朝鮮의 自治추진을 목적으로 하

는 단체로서 先生을 비롯하여 李昇薰, 曹晚植, 宋鎮禹, 徐相日 등이 中心이 되어 비밀리에 결성이 되었는데, 당시의 朝鮮실정으로는 參政權운동이 民衆들로부터 支持를 얻기가 힘든데서 그 代案으로 구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研政會의 조선민족 자치운동도 參政權운동과 같이 日帝총독부의 악랄한 배후공작으로 民族主義者들의 日帝포섭에 惡用당하는 등으로 이렇다할 활동도 못해 보고 유아무야 해지고 말았다.

1926년, 先生과 宋鎮禹, 崔南善등은 다시 조선민족의 自治運動을 위한 조직체를 만들기로 하고 會晤를 거듭하였으나 역시 日帝의 직접적인 관여로 하여 이 計劃 또한 實을 거두지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先生은 朝鮮民族自治의 꿈을 버리지 않고 끈질기게 推進을 하였으며, 1926년부터 1928년 초에 걸쳐 民族自治운동에 대한 “在外民族主義者들의 支援과 양해를 얻어 내기 위해서” 海外旅行에 나서게 된다.

先生은 먼저 美國으로 건너가 島山 安昌浩와 靑南 李承晚을 만났으며, 당시 民族主義問題에 초점이 되고 있던 아일랜드에 가서 그 나라의 有名한 民衆指導者였던 메발레타와도 만났다. 그리고 1927년 8월 벨기에의 수도 부뤼셀에서 열린 世界弱小民族大會에도 참가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특기할 것은 美國방문시에는 때때로 反日民族主義, 발언을 하여 日帝를 긴장시켰다는 사실이다. 결국 당시의 대세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전향은 했지만 속마음은 늘 나라를 되찾는 일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튼 先生은 民族改革主義運動, 民族自治運動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자 1930년부터는 宗

敎활동에 몰두하여 天道敎의 최고 영수인 敎領에 選任되었으며, 附日에도 적극성을 보여 1933년에는 日帝下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고의 榮譽로 여겼던 中樞院參議에 任命되기도 하였다.

1937년에는 총독부 기관지인 每日新報의 초대사장에 취임 하였으며, 민족해방을 몇 달 앞둔 1945년에는 親日奉仕團體인 <朝鮮言論奉國會>의 會長에 추대되었다. 참고로 이 단체의 간부들을 소개하면 常務理事에 崔載瑞(門中人으로 有名한 英文學者), 理事에 金活蘭(前梨大總長), 李晟煥, 金八峰(小說家), 方仁德, 辛泰嶽(변호사, 정치인), 柳光烈(言論人, 國會議長 秘書室長) 등 제제다사들이었다.

맺는말

이상 先生의 一代記를 자료중심으로 서술하였으나, 先生은 한마디로 한 時代를 風靡했던 巨木임에 틀림없다. 흔히 지난 일에 對해서 假定은 있을 수 없

다고 하나, 모든 간난을 무릅쓰고 初志一貫 이 나라의 代表的 民族主義者로 남아 있었다면, 그리고 6·25南侵때 拉北되지만 았았다면, 모르긴해도 이 나라의 가장 으뜸이 되는 指導者가 되었을 것이다. 언젠가 金東吉 교수가 말했듯이 사람은 時代상황이나 있었던 場所에 따라 여러가지 評價를 받게 되는 것인데, 先生도 日帝末期에 國內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하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허기야 附日을 하고도 해방후 歷代政權에서 고관대작을 두루 歷任한 人士가 많고 많은데, 先生은 유난히 거센 批判을 받았으며, 否定的인 측면에서 회자된 까닭은 무엇일까...아마도 先生의 出衆한 人物됨과 또 변절하기 전의 혁혁한 民族主義 운동경력을 아쉽게 생각하는데서 연유하는 것이리라.

筆者는 1950년4월(6·25가 발발하기 2개월전)先生과 같은 처지에 있던 校理公派門中の 속행벌이 되는 故 允周氏를 관훈동 자택으로 찾아 간 일이 있다.

(註：允周氏는 한때 獨立운동에 투신하여 上海臨政의 동만 통신부장 등을 역임하였으나 末年에 中樞院參議로 任命되고 해방후에 反民族行爲者로 몰렸었다. 한편, 崇祖愛親思想이 강해 6·25사변전에 小冊子 “文憲公傳”을 집필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때 允周氏는 自身の 立場을 해명하면서 崔麟先生에 대해서도 이렇게 술회하였다.

“麟先生이 우리 門中분이라서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人物 됨됨이를 존경한다. 누가 무어라해도 그분은 나라를 사랑하고 民族을 사랑하신 분이 다. 麟先生은 附日을 하면서도 民族의 먼 앞날을 圖謀하고 있었다.” 라고—

아무튼 崔麟先生은 참회의 삶을 살다가 1950년 7월, 그의 나이 73세때 서울을 침공한 북한 공산군에 의해 北으로 강제 납치되어 그곳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끝맺었다.

門中後人인 筆者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비는 바이다.

기개와 풍류의 시인

孤竹 崔慶昌

安 大 會

(延世大 講師)

조선왕조가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16세기 중반에 시단(詩壇)에 일군의 시인이 등장하여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들이 바로 이달(생물년 미상)·최경창(1539-1583)·백광훈(1537-1582)의 삼당파(三唐派) 시인이고, 이들 외에도 고경명(1533-1592)·임제(1549-1587)등이 등장하여 시사(詩詞)로서 일세를 풍미한다. 전라도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이들은 (이달만 충청도 사람이다) 발군의 재주를 가지고 서울의 시단에 등장하거니와, 그들이 발휘한 시의 조격(調格)과 정서가 당대(唐代)의 그것과 방불하다 하여 당풍을 진작시킨 시인들로 한시사에서 기록하고 있다. 시운동의 차원에서 볼 때, 상호 깊은 우정을 맺고 있던 이들 시인의 활동은 고상한 의경(意境)과 엄정한 체재(體裁)를 숭상하는 송시풍에 대한 거부와 부섬(富贍)하고 민첩한 작시를 지향하는 대각(臺閣) 중심의 시인들에 대한 반발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이들에게서는 인간의 삶을 낭만적으로 읊고, 시의 흥취를 숭상하며, 인생의 애상과 감개를 노래하는 서정시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당시풍으로의 이러한 변화는 사회에 대한 시인 각자의 인식과 체험이 내재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달의 애상과 절망, 임제의 걱정과 비분강개함, 백광훈의 우수와 비애, 그리고 최경창의 기개와 풍류같은 시적 특질은 그 이면에 남도인들의 낭만적 정감을 깊숙히 담고 있으며, 기득권을 가진 서울 상층사회의 사람들에 대한 지방인으로서의 불평과 반항을 당시풍(唐詩風)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모두 뛰어난 재주에도 불구하고 방랑을 하고, 낮은 벼슬에 안주하여야 하는 불우한 삶을 보내야 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하나의 예이다. 이들의 시는 사회현실에 대한 저항과 인생의 감가불우(轉軻不遇)함에 대한 노래였다고 할 수 있다. 고죽은 당시대의 수많은 명사와 교유를 하였다. 예컨대, 율곡(栗谷) 이이(李珣)·우계(牛溪) 성혼(成渾)·사암(思庵) 박순(朴淳)·송강(松江) 정철(鄭澈)등이 그들이다. 율곡은 고죽의 인생 태도에 대하여 빙상소리(氷霜素履, 얼음이나 서리같이 자기의 본분을 지킴)라 말하고 있다. 고죽은 당시에 시와 서예·활쏘기·피리 등 많은 재주에 능하였고, 그의 나이 30세(1568)에 문과에 급제하여 청현직(淸顯職)에 오를 것이 기대되었으나 그의 재주를 시기한 자들에 의하여 저지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타협을 모르는 그의 성격 때문이었다. 그는 〈感遇十首寄鄭季涵〉이라는 고시 제7수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외로운 대나무가 가지와 잎도 없이
바닷가 산 위에 목숨을 붙였네
해마다 서리와 눈 속에 묻힌 데다
벼랑마저 기울어 뿌리가 불안해라
대나무를 어찌 재목으로 쓰라마는
추위를 이기는 모습, 너무도 고귀해라

孤竹無枝葉，寄生海上山。
年年霜雪埋，崖傾根未安。
豈是材可用，所貴能傲寒。

여기에서 읊고 있는 제재인 고죽(孤竹)은 그의 호가 가진 내포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벼랑 위의 눈서리 속에 묻혀 있는 외로운 대나무의 이미지는 견고하고 굽힐 줄 모르는 강인한 정신력의 인간형을 제시한다. 그에게는 이러한 대나무가 추운 겨울 속에 살지만 능히 추위

風流와 기개의 詩人 孤竹

를 오만하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 때문에 삶의 가치를 지닌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그는 이처럼 자신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삶의 바람직한 형상을 호(號)에 기탁하고 다시 시로 읊었다. 위의 시구는 직설적으로 그의 삶을 드러낸다. 그런데 강인하고 기개에 찬 그의 모습은 오히려 시의 내밀한 세계에 은밀하게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의 시는 간결하고 산뜻한 리듬과 시어를 구사하고 있고, 의상(意想)에 있어서는 나약함이나 방종함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는 읊어나 장시보다는 짧은 절구에 그의 장기를 보이는데 고죽에게 있어 짧은 시는 그의 세계를 표현하는 최상의 형식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삼당파의 특징이기도 하다.

가을 바람이 낡은 절간에 불어오고
산 속 빗줄기에 나뭇잎들이 울며 떨어지네.
빈 곁채는 고요해서 스님도 없는데,
돌마루에 향불만 실오라기처럼 피어오르네.

秋風吹古寺, 木落啼山雨.
空廊寂無僧, 石榻香如縷. <奉恩寺僧軸·2>

저 멀리로 해는 떨어지고
쓸쓸한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네.
배 매어 둔 곳이 멀리 보이니
저쪽 강언덕에는 집들도 있겠네.
窅窅日沈夕, 蕭蕭風起波.
遙知泊船處, 隔岸有人家. <詠畫>

시에 있어서 없음은 있음을 은연중 전제하고, 없음은 은연중 있음을 예상한다. 첫시에서 향불이 실오라기처럼 조용히 올라간다는 사실은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의미하여 앞구의 승려 하나 없는 고독한 정경을 형상화하고 있고, 이는 다시 봉은사에 살고 있는 스님의 외출을 의미하며, 앞의 두 구에

서 스님이 없기에 황량하게 변한 산 풍경을 그림으로써 시인과 만난 스님의 귀사(歸寺)를 예상하고 있다. 둘째 시는 손곡(蓀谷)과 함께 지은 시로서 그림은 바로 〈虛舟繫岸圖〉이다. 고죽의 시의 낙구(落句)에서는 강 너머에 인가가 있다고 읊음으로써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인가에 있음을 제시하고, 이는 바로 강가에 정박한 배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홍만종(洪萬宗)의 《小華詩評上》에서는 이 시구를 손곡의 泊舟人不見, 沽酒有漁家에 비교하고 고죽의 시에는 人不見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서도 그 뜻을 보였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어부들의 부재는 앞의 두 구에서 해가 저물었고, 바람에 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을 읊음으로써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두 시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부재감과 고독한 영상들은 그의 시를 안받침하고 있는 주요한 정서이다.

그에 관하여 전해 오는 사연은 그의 풍류와 멋스러움, 그리고 자유스러운 삶의 추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가적 풍모가 엿보이는 그러한 삶을 영위한 그의 시에 있어서는 인생의 일상적 고독과 애상, 이별과 슬픔이 전편에 흐르고 있다. 이 두 시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절구는 구와 구 사이에 표면적으로는 성근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깊은 관련과 계기성을 보여주어 매우 함축적인 시상의 전개를 하고 있다. 그의 절구는 어떤 영상을 창조하기 위한 조탁이 없고, 특별히 새로운 의상(意想)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음감의 조절에 의해 낭만적 정감을 밀도있게 표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같은 시풍을 보이기에 교산 허균은 “그의 시가 백광훈에 대비할 때 한경(悍頸)하다”고 평가하였는데 이 평은 고죽의 삶이 보여주는 기개의 정신 자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그의 인격을 평하여 청고지절(淸苦之節)을 지녔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고죽은 천근(淺近)한 시어를 운용하여 깊은 정절(情節)과 사연을 함축시킴으로써 절구라는 형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발휘하고 있다. 그것은 또 짧은 형식이기에 장시가 잘못 산만하고 지리한 데로 흐르기 쉬운 점을 면할 수 있어 그의 정신을 표현하는데 매우 적절한 형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소시(小詩)는 그의

선배들이 보여준 답답한 율시의 고착된 형식미에서 벗어나 흥(興)이라는 호남 사람의 서정과 가락을 발휘하기에 매우 적절한 형식이었다.

예전 장안 살 때에
 흰 모시 치마를 지었었지요.
 그대 헤어지고 나선 차마 입을 수 없네요.
 노래 부르고 춤 춰도 같이할 수 없으니까요.

憶在長安日, 新裁白紵裙。
 別來那忍著, 歌舞不同君。〈白苧辭〉

떠로 엮은 암자가 흰 구름 사이에 얽혀 있는데,
 늙은 스님은 서쪽으로 노닐러 가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네.
 누렇게 물든 나뭇잎 날리며 성긴 빗줄기가 지나간 뒤에,
 차가운 경쇠를 홀로 두드리다 가을 산 속에서 잠드네.

茅庵寄在白雲間, 丈老西遊久未還。
 黃葉飛時疎雨過, 獨敲寒磬宿秋山。〈寄性眞上座僧〉

첫번째 시는 이별의 슬픔을, 두번째 시는 맑고 담박한 정경을 그리고 있다. 고죽의 시를 한시의 입장에서 감상할 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점은 바로 그 운율의 아름다움이다. 고죽의 시에는 흥(興), 향(響) 그리고 가락으로서의 해조(諧調)가 부드럽게 느껴진다. 그래서 소리내어 읊지 않고 마음속으로 시를 읽는 자는 이 시의 가장 주요한 아름다움을 일단 놓치게 된다. 교산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고죽의 시는 한편 한편이 모두 아름답다. 반드시 단련과 조탁을 거친 뒤 마음에 든 것만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가 단련, 조탁한 것은 분명 읽어서 군색하지 않고 막힘이 없는 유려한 음악적 시를 만들고자 해서였을 것이다. 위에 인용한 시에서 그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시의 그같은 음악적 해조(諧調)가 지나치게 중시됨으로 인해서 내용이나 정서를 압도하여 독자로 하여금, 더구나 현대의 읽는 시에 익숙한 독자로 하여금 그가 표현하는 정서나 정경으로 쉽게, 그리고 깊숙하게 빨려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고죽의 시가 가진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은 그의 삶의 저 풍류아적 방종, 자연의 원기에 좀더 충실하려는 노력, 그리고 남도인 특유의 흥취에 대한 체득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인용된 시에서는 학자풍의 고상함과 신선한 의경(意境), 그리고 분석적 냄새는 발현되지 않는다. 백곡(栢谷) 김득신(金得臣)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의 시에서는 향(響)이 있을 뿐 이(理)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특질은 분명 해조(諧調)도 없고 정경(情境)도 드러나지 않는 선배 시인들의 무미한 시에 비한다면 큰 혁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죽의 시를 그 맑은 정경과 유려한 가락을 중심으로 감상한다면, 그가 시사 위에 이루어 놓은 공헌도 놓치지 않으면서 기개와 풍류를 지닌 작가로서의 성취도 동시에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祝

宗誌第2輯發刊

東部靑果株式會社

專務理事 崔承君

(大宗會幹事長)

서울特別市 松坡區 風納2洞 388-7

우성아파트 2동 1105호

電話：(職) 962-2537, 966-5227

(自) 483-7775 番

민주주의 선각자 崔冲先祖



漢 秀

(건대교수, 정치학박사)

1. 서 언

海州 崔씨의 선조인 文憲公崔冲은 민주주의의 위대한 선각자이다. 민주주의 사상은 서구에서는 이미 2500년전에 싹트기 시작하였다. 즉 그리이스의 아테네에서는 기원전 5세기에 제한적이거나 인민평등의 사상과 함께 최소한 노예를 제외한 평민들은 나름대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상을 바탕으로 터전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양에서 민주주의 사상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상 서기 1000년대 崔冲先祖는 이미 민주주의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실제 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또한 더욱 중요하게는 이를 실천에 옮긴 당시의 유일 무이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왜 崔冲先祖가 그러한 인물인지를 간단하게 일고하여 보기로 한다.

2. 민주주의의 본질

민주주의는 다의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모호한 대상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삶의 원리인 동시에 방식이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유는 인간이 하고자 하는 바를 타의에 의하여 하지못하도록 강제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강제되지 않는 대상은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누구나 하고싶은 대로 한다면 사회는 흠스가 일찌기 말한대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전개되는 야수의 사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는 국가와 법 그리고 도덕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자신이 남으로 부터 침해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자신도 남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유는 사실상 완전하고 무제한 적인 것은 아니다.

평등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천부적으로 다른 인간 모두가 똑 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누구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시도하는데는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근대적인 의미에서 기회의 중요한 측면은 우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자유와 평등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보장되고 있다. 여기에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누리려해도 기본적으로 그에 필요한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인간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놓고 풍부하게 아름다움을 마음속의 만끽하는데는 그 내용을 음미하고 그려낼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연에서 아주 극히 제한된 맛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생각은 아주 제한되게 된다. 이것은 곧 간접적인 자유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살기좋은 환경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이전의 자유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된다. 누구나 대학에 갈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도 돈이 없

다면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그 차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은 시도되어야 하고, 또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즉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해지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육이다. 교육을 받으면 풍부한 사상을 간직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하게는 교육은 사회에서 신분의 이동체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즉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회에서 상위그룹으로 진출할 수 있게된다. 결국 교육은 인간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비록 돈은 없어도 자신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즉 낮은 신분이나 지위에 있어도 교육을 받은 사람은 시험경쟁을 통하여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교육은 받은자와 받지않은자 또는 능력 있는자와 능력이 모자라는자, 또는 노력하는자와 게으른자간의 차이를 만든다. 이것은 결국 그런 부류들간의 불평등을 만들

어 낸다. 그러나 여기에서 불평등은 앞에서 언급한 평등의 반대개념은 아니다. 평등이라고 하여 누구나를 똑같이 만드는 것은 아니다. 만약 평등이 그렇게 해석된다면 우리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평등은 「기회」에 대한 평등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기회가 확대된다면 평등의 조건은 그만큼 확대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한국최초의 사학 설립

인간이 출신별로 서열화 되어 있고, 그것이 세습화되던 봉건 시대에는 자유와 평등은 아주 제한된 소수만의 특권이였다. 인간이 타고난 신분은 능력을 초월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었다. 그것은 과거제도다. 그러나 과거는 고도의 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

이다. 이시대에도 비록 평민이라도 과거에만 합격하면 일약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시대는 오늘날 처럼 교육기회가 그렇게 널리 확대 보급된 것이 아니었다. 이 당시 교육기관은 관학기관인 國子監 뿐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감으로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선택된 소수만이 교육기회를 독차지 하여 성실하고 유능한 많은 인재가 사장된채 불평등한 상황에서 일생을 마감하여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학을 설립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두 원리중의 하나인 평등의 정도를 향상시키고 그에 따라 내면적 자유마저 증진 시킨이가 바로 崔冲先祖인 것이다.

崔冲先祖는 문종 9년 즉 서기 1055년 74세의 고령으로 관직에서 물러난후 사학인 私塾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 사학은 학도들을 九齋로 나누어 교육하여 흔히 九齋學堂이라고 불린다. 또한 그의 학도는 侍中 崔公徒

라 불렸으며 공이 서거한후에는 그의 諡號에 따라 文憲公徒라 불렸던 것이었다.

물론 崔冲先祖의 사학은 일반 평민들에게 까지 문호가 개방된 것은 아니었고 귀족계급에 한정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관학일변도에서 사학의 운영은 국가지배의 획일성에 있어 중대한 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모든 권한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던 상황에서 교육기관만이라도 부분적으로 민간이 독자적으로 하게된 것은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상에 절대로 필요한 다원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다.

4. 맺음말

모든역사의 발전은 어느 예기치 않은 사건에 의하여 비롯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위대한 인물에 의하여 창조되는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민중의 각성에 의하여 수행되는 수도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학은 崔冲先祖의 위대한 선각자적 형

안에 의하여 창도되었다. 교육이 같은 중요성, 그리고 교육은 민주주의의 두 지주인 평등의 실현과 확대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지식은 인간의 내면적 자유를 확대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교육기회의 확대는 곧 민주주의 실현의 초석이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때 崔冲先祖의 사학설립은

당시의 시대상황에 따라 비록 그 범위가 제한되었다고 하여도 자유와 평등 사상을 배태한 채 근대민주주의 사상을 향한 거보가 아닐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崔冲先祖를 우리나라 역사속의 민주주의 선각자라고 보고자 하는 것이다.

祝

宗誌第2輯發刊

大宗會總務副幹事 崔 賞 均

서울特別市 城東區 紫陽洞 695-1

한양아파트 2동 1103호

電話：444-6603 番

大宗會財務副幹事 崔 基 奉

서울特別市 江西區 禾谷本洞 46-68

궁전빌라 301호

電話：693-2965 番

祝

宗誌第2輯發刊

大東特殊고무工業社

會長 崔 東 植

(大宗會副會長)

서울特別市 麻浦區 大興洞 500-5

電話：(職) 716-6990

(自) 716-6451 番

祝

宗誌第2輯發刊

華川樂園農場
樂園開發株式會社

代表理事 崔萬秀

(大宗會運營委員)

江原道 春川市 後坪2洞

한신아파트 4동 403호

電話：(職) (0361) 52-8089

(自) (0361) 54-3363 番

祝

宗誌第2輯發刊

放送文化研究院(株)

院長 崔 炳 壽

(大宗會運營委員)

서울特別市 松坡區 蠶室洞

장미아파트 17동 601호

電話：(職) 632-2486

(自) 418-7671 番

프로필

祖上받드는 일이 信仰인 萬秀宗親



4月の陽光이 마냥 눈부신 어느날
正午 筆者는 春川の 萬秀宗친을
그의 사무실로 찾아 갔다.

몇일전부터 先約을 해 두었는데
도 萬秀宗친은 出他中이었다. 뒤에
알게 된 일이지만, 마침 총선거의
막판 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던 시기
라, 서울에서 선거 지원차 여당의
K최고위원이 春川을 訪問하게 됨에
따라 그 영접 행사에 참석 했었다는
것이다.

(註：萬秀宗친은 民主自由黨의

鐵原·華川 地區黨 副委員長이다.)

아무튼 잘 訓練된 사원들과 女祕
書의 배려로 별로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萬秀宗친의 歸社를 기다릴
수가 있었다.

社長室에 들어서니 마치 軍의
一線指揮本部의 司令官室을 연상하
리만치 機動性(?)이 있게 꾸며져
가벼운 緊張感마저 느끼게 하였으
나, 正面의 태극기를 가운데로 하고
左右에 나란히 모셔진 文憲公, 文和
公, 兩位분의 影幀을 拜見하고는
금시 “과연 萬秀宗친의 사무실이구
나”하고 감탄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갔다.

사실 萬秀宗친의 祖上님을 崇尚
하는 一念은 全國의 宗人이 익히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이토록 철저하
게 祖上崇拜思想을 지니고 生活하
고 있는 줄은 筆者도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

인터뷰하는 가운데 들은 이야기

지만, 萬秀宗친은 正月초하룻날도 아침일찍 맨 먼저 魯東書院을 參拜한 뒤에 父母님 山所를 參拜하고 그리고 집안 어른들에게 歲拜를 하는 등 祖上 모시는 일이 日常의 家庭儀禮에 있어서 最優先이 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精神은 子女들에게도 그대로 계승되게 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祖上을 받들어 모시는 일이 萬秀宗친에게는 절대적인 信仰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萬秀宗친은 오늘날의 成功이 오직 祖上님의 蔭德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대로 지난번 魯東書院 보수비조의 1億원 기부와 宗土用으로의 2千坪 기증 등은 萬秀宗친의 財力과는 연관 지을 수 없는 精誠의 발로라고 해야 옳을 것 같으며, 崇祖정신에서 能히 全宗人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萬秀宗친은 그의 외모에서 품기 드시 意志와 信念에 찬 사람이며,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될 立志傳的인 사람이다.

忠南 成歎의 가난한 農家에서 태어난 萬秀宗친은 가난을 벗어나

自立의 길을 찾고자 15歲 되던 해에 春川의 叔父를 찾아 나섰고 叔父에게 依支 할수만은 없다는 생각에서 19세되던 해에 自立을 하고는 밤을 낮삼아 超人的인 노력을 기울여 오늘날의 基盤을 이룩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간의 고초나 노력은 이루 다 筆舌로 형용할 수 없으나 한가지 그의 決心의 일단을 밝히면, 萬秀宗친은 불우한 지난날의 환경에서 술과 담배의 유혹을 끊임 없이 받아야 했지만, 기반이 닦일때까지는 일절 입에 대지 않기로 결심, 그 결심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하니 얼마나 철저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히 萬秀宗친은 어려서 남과같이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恨이 되어 晚學의 꿈을 실현 夫婦가 나란히 江原大學校 경영대학원을 마쳤으며, 事業體인 낙원건설, 낙원개발, 낙원농장을 경영하는 한편, 많은 公職에도 관여하고 있어서 춘천체육회장, 춘천교도소 교화위원회 부위원장, 소양라이온스·클럽회장, 강원 양돈조합장, 고등학교 육성회장 등을 역임 또는 현재 활동중에

있다.

끝으로 筆者가 萬秀宗친의 생활 신조를 물었더니 그는 一平生〈근면·성실〉을 신조로 살아 왔고 또 그렇게 살아 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첨가해서 抱負를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밝혔다.

첫째는, 내 가정을 화목하고 安定되게 하는 것.

두번째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하는 것.

다음은, 門中사업을 돕는 것.

마지막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

이라고…….

筆者는 萬秀宗친의 체취가 그대로 품기는 듯한 構內食堂의 점심대접을 받고 그와 작별을 하였다.

—愚—

祝

宗誌第2輯發刊

大慶機械技術株式會社

常任監事 崔光植

(宗誌編纂委員)

서울特別市 江南區 大峙3洞 972

로알타운 306호

電話：(職) (0522) 73-8712

(自) (02) 562-5220 番

최씨 앉은 자리 풀도 안 난다



起 鎬

(상명여대교수, 문학박사)

흔히 최씨를 놀려대는 말로 ‘최씨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고 한다. 혹은 ‘죽은 최씨 한 사람이 산 김씨 셋을 당한다’느니 ‘최강강’이니, ‘최고집’이니 하여 최씨가 지독하고, 고집이 세며 고집이 센 것으로 놀려대고 있다. 혹은 고집이 세기로는 ‘안 강 최’라고 하여 고집 센 사람으로 안씨 강씨 최씨가 제일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민간어원들은 본래의 뜻에서 상당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시경(詩經) 제1권 주남(周南) 권이편(卷耳篇)에는 다음과 같은 시구가 있다.

‘척파최외’(陟彼崔嵬)
아마회운(我馬廻隕)’

‘내가 저 높고 험준한 산을 오르고자 하나, 나의 말이 비루 먹고 피곤하여 갈수 없다’라는 뜻의 시이다. 여기에서 ‘최외(崔嵬)’라는 말은 ‘산 우뚝할 최’ ‘산 뽕족할 외’라는 뜻의 글자로서 ‘아주 높은 바위산’이라는 뜻이 되어 결국 풀도 나지 않는 험준한 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경」의 ‘최외(崔嵬)’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글 잘하는 학자들이 이 시를 자주 인용하여 ‘최씨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라고 최씨를 놀리는데로 옮겨진 것이다.

결국 최씨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경의 ‘崔嵬’라는 글귀에서 유래한 민간어원인 것이다.

그리고 중국 고대소설에는 최판관(崔判官)이라는 벼슬이름이 나온다. 이는 염라대왕 앞에서 죽은 자의 죄과나 선행 등을 판단하여 상벌을 주는 구실을 하였다. 이러한 중국 고대소설의 옛이야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에 최씨에게 잘해야 죽은 뒤에 잘 봐준다는 말이 와전되어 ‘죽은 최씨 한 사람이 산 김씨 셋을 당한다’는 말로 바뀌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김씨가 나오는 것은 김씨가 변죽한 성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김씨 아니면 이씨가 맞는다’고 하는 말로 우리나라에서 김씨가 가장 변죽한 성이기 때문에 일컫는 말이다.

‘최깡깡’이라고 놀리는 말도 사실은 최앵앵(崔鶯鶯)’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최앵앵’이는 당나라때의 실존 인물로서 절세의 미인이며 문사(文詞)에도 능하며 천하에 명성이 높았던 여인이다. 왕실보(王實甫)는 이 여인을 서상기(西廂記)의 여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남주인공 -장상(張生)과 사랑

하는 미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최앵앵’이가 ‘최깡깡’이로 변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볼때 최씨가 고집이 세고 고지식하다는 속설은 엉뚱한 민간어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씨가 고집 세고 고지식하다’는 것이 이러한 민간어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씨에게 어느 정도 걸맞는 표현으로 인식되는 것도 우연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강직하고 고지식하며 충절의 인물이 많은 것도 원인이 될 것으로 본다.

신라때의 유명한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을 비롯하여 고려때의 해동공자(海東孔子)라는 칭호를 얻었던 최충(崔冲)이 있으며 명장으로 이름을 날린 최영(崔瑩) 장군이 있고 조선조에는 고집이 세고 고지식했던 청백리(清白吏)인 최만리(崔萬璡) 같은 학자들을 볼 때 그런 느낌도 있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 싸움에서 일화를 남긴 최경

회(崔慶會)장군을 비롯하여 근대에는 최익현(崔益鉉), 최제우(崔濟愚), 최시형(崔時亨) 등이 있고, 최현배(崔鉉培) 같은 대쪽같이 곧은 성품의 학자들은 최씨들의 성격과 어느 정도 상통하게 하고 있다.

우리 해주 최씨의 경우에는 충절과 청백리가 많이 나온 자랑스런 집안인데 그것은 아마도 최충(崔冲) 어른의 계이자시(戒二子詩)의 교훈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헌공은 아드님 유선 유길 형제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주어 교훈으로 삼게 했다.

「家世無長物 惟傳至寶藏
文章爲錦繡 德行是珪璋
今日相分付 他年莫敢忘
好支廊廟用 世世益興昌」

쉽게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집안에는 좋은 물건은 없지만 오직 보배로 전하는 것은 문장은 비단이 되고 덕행이 곧 보물이라는 것이다. 오늘 당부하는 것을 서로 잊지 않는다면 나라의 큰 기둥이 되어 세세토록 흥창하리라.”

그러나 이러한 속설이나 선입

관을 가지고 사람을 미리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최씨들이 강직하고 곧곧하며 고집이 센 것은 어떤 면에서는 큰 장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불명예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1960년 경제기획원의 국세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5대 성씨로 김씨(544만) 이씨(371만) 박씨(211만) 최씨(119만) 정씨(109만)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258개의 성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조사에서 드문 성씨로는 석(碩)씨는 1명 개(介)씨 7명 수(水)씨는 14명 삼(參)씨는 14명 단(端)씨는 16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성씨들이 한데 어울려 살기 위하여는 양반 성씨니 상민 성씨니 하며 구별하고 따지는 것은 오늘에는 맞지 않는 생각이다. 민주화시대요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온 인류가 이웃이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활한 대화



昌 燮

(西江大教授, 言論學博士)

宗親은 곧 뿌리다라는 생각이 든다. 뿌리와 뿌리가 얽히고 설키면서 엮어지고 엮어지면서 뿌리는 더욱 깊어지고 그 위에 맺어지는 가지와 열매는 더욱 번창하기 마련인가 보다. 무심코 얼굴을 내밀었던 종친회가 날로 번성해가고 특히 1990년에 완성을 본 「대동보」의 모습을 대하면서 종친회의 의미와 가치를 새삼 되새겨보게 된다. 종친 모두가 가꾸고 다듬어야 할 만남의 장이요 나눔의 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 종친회가 더더욱 귀하게 느껴진다.

단, 본인이 종친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고 그 역사도 일천한 관계로 아직은 나눔의 깊이가

얕아 앞으로 더많은 종친 개개인과 의 친교를 통해 종친으로서의 사귄을 더욱 값지게 했으면 하는 염원과 바람이 있다. 차제에 평소에 느끼던 대화의 중요성을 함께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인간의 만남이 때로는 결속을 가져오는가 하면 또 많은 경우에는 단절을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근자에 우리는 대화부재에 따르는 후유증을 절감하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더더욱 피부로 느낀다. 노사분규,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학원가의 소요, 정가의 소용돌이, 정부와 국민간의 불신의식 고조 등 사회전반에 걸친 매듭현상을 목격하면서 대화

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해 본다.

이런때일수록 쌍방간의 중간입장에서 중재를 위한 제3의 대화통로 내지는 조정역이 상존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을 더욱 필요로 하는지도 모른다. 평소에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연륜과 경험 및 덕망이 겸비된 선망의 대화통로역이 축적되어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난국을 헤쳐가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떨쳐버리기가 힘들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각자는 나눔과 결속의 친교를 위한 전령사요 매개체로서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가적으로 본다면 정부와 국민, 정치적으로 본다면 여당과 야당, 기업적으로 본다면 경영자와 근로자, 부서와 부서간, 상사와 부하직원간, 본사와 공장간, 동료사원간의 원활한 대화가 중요시되며, 가정의 차원에서도 부부간, 부모와 자녀간의 진정한 대화가 이뤄져야만 그조직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종친회의 차원에서도 종친간은 물론이려니와 종친회와 사회

간의 원활한 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는 마치 우리 육체가 건강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전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하며 신경조직망에 의한 지체간의 피드백이 그때그때 잘 이뤄져야 하는 원리와도 같다.

만일 몸의 일부가 마비현상을 일으켜 끓는 물에 넣어도 뜨겁다는 피드백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면 결국 그 부분은 화상을 입어 심한 경우에는 절단까지도 감수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는가.

우리 사회전체가 작금에 시련을 겪고 있는 분규사태도 원활한 대화의 부재에서 오는 부분적인 마비현상인 것이다. 똑같은 벽돌일지라도 쓰이는 용도에 따라 이웃과 이웃을 연결시키는 교량역할의 다리를 만드는 재료로 쓰여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웃을 차단시키는 담벼락을 쌓는 재료로 쓰여질 수 있듯이 대화도 대화나름에 따라 '연결-차단'이라는 극단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화란 무엇이며 바람직한 대화의 방향은 어떻게 모색될 수 있겠는가. 우선 대화란 "나"와

“너” 사이에 이뤄지는 나눔의 행위라는 데서 그 의미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겠다. ‘나’와 ‘너’가 만남을 통해 지속적인 체험을 나누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경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대화이며, 이를 통해 이상적으로 양자간에 완전일치를 이룰 수 있다면 불이(하나)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눔의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내지는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할 때 이뤄진다는 깊은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이해와 믿음, 신뢰와 존중이 없는 나눔이란 피상적인 허구에 지나지 않아 진정한 내면세계의 나눔이 없는 낭비에 불과하다.

一言不中 千語用, 信言不美 美言不信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 한 마디가 반듯하지 못하면 천 마디가 소용이 없고, 진실에는 수식어가 없고 미사여구가 많은 말에는 진실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언어로 표현되는 대화는 언어이전에 각자의 내면 세계에서 이뤄지는 충분한 사색과 마음의 되새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 마디를 위해 열매의 내면

적 뒷받침이 있을 때 비로소 입에서 입으로의 피상적인 차원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진솔한 나눔의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대화를 위한 몇가지 구체적인 기본자세를 제시해볼 수 있겠다. 첫째, 대화에 임할때는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기본전제는 서로간의 이해로 영어의 ‘under와 standing’의 복합어로 이뤄진 understanding 으로 ‘밑에+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해를 추구함은 자기 스스로를 상대방의 아래에 두는 자세를 일컫는 것이다. 상대방의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는 쉽게 상대방으로부터 이해를 얻어낼 수 없다. 이해의 본 바탕은 희생과 봉사정신임을 알아야 한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대화는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포용력을 가진 사람들간에는 진정한 의미의 성숙된 대화가 이뤄진다. 반면 교만과 아집, 이기심으로 가득찬 인간 사이에는 주고받는 대화가 성립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이 있을 뿐이다.

남의 위에 군림하는 교만으로 가득차 스스로를 폐쇄시켜버리면 마치 바위에 물을 부을 때처럼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모두 겉으로 흘러버리게 마련이다.

셋째, 경청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남의 이야기는 두번 듣고 자신의 이야기는 한번만 하고, 남의 이야기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항상 양쪽의 이야기를 다들어보고, 남의 이야기는 높이 받드는 기본자세야말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넷째, 진정한 의미를 나눌 수 있는 부드러움을 갖도록 해야 한다. 겉으로는 많은 대화가 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위에 뿌린 씨앗이 흩어져 버려 싹을 틔우지 못하듯 서로 경직된 상태로서는 진정한 나눔이 없는 허구적인 대화만이 오갈 뿐이다.

다섯째, 대화에 임할때는 선입견과 선입관을 버리고 긍정적인 자세로서 상대방의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선입견과 선입관은 어둠이나 그림자에 비유될 수 있

다. 밝은 빛을 향하여 서면 그림자나 어둠을 볼 수 없다. 어두운 면은 빛을 등질때만 보인다. 그리고 그림자는 빛에 가까울수록 짧아지고 빛으로 멀어질수록 길어진다. 따라서 빛을 향해서 빛을 바라보는 자세로 대화에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여섯째, 대화는 무조건 주는 입장과 용서하는 자세로 행해져야 한다. 자신감과 용서는 성숙한 부모의 입장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자신감에서 나오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할때 원숙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끝으로 대화는 상징적 반응의 연속이어야 한다. 즉각적 반응이 점차 증폭현상을 일으켜 싸움을 가열시키고 마침내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지듯이 오고가는 단어 한마디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대화가 결렬되는 현상은 바로 독약이 든 고기를 생각없이 덥석 무는 개의 차원과 다를 바가 없다. '뛰기 전에 살펴보고, 화가 날때 열까지 세어라'라는 옛속담을 되새기면서 함축적이고 지연된 상징적 반응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화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올바른 대화는 쌍방 모두의 인간됨
됨이와 성숙함 및 인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가꾸고 다듬는 정성어

린 나눔의 꽃을 피워 종친간의 결속
을 위해 각자 대화의 깊은 의미와
접근방법을 한번쯤 심각하게 되새
겨 보자.

祝

宗誌第2輯發刊

三祐鹽業社

社長 崔觀郁

(大宗會運營委員)

現 場：忠清南道 泰安郡 安眠邑 倉基里 209

自 宅：서울特別市 東大門區 長安4洞 93-28 연풍연립 101호

電 話：(職) (0455) 73-5149, (自) (02) 213-4377 番

大宗會運營委員

崔 鍾 千

忠清南道 唐津郡 松山面 柳谷里

電話：(0457) 53-7968 番

내게 꼭 맞은 점괘



雲 植

(한국교원대 교수, 문학박사)

내가 처음 점을 쳐 본 것은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서른 한 살 때의 일이다. 그 당시 대학원 석사과정에 다니던 나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은사인 K교수님과 함께 충북지방으로 설화 및 민속 자료 조사를 갔었다. 진천, 음성을 거쳐 제천에 갔는데, 그곳에 아주 유명한 무당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그 아주머니를 찾아가, 시름시름 앓다가 낫을 하면 얼마 동안 병이 나았다가 다시 앓던 일, 눈만 감으면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 무엇을 주면서 잘 간직하라고 하던 일, 신이 내렸다 하여 내림굿을 하고 무당이 되던 일 등 무당이 되기까

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것은 신병(神病) 및 강신(降神) 체험과 입무과정(入巫過程)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기에 자세히 조사하였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찾아가 무가(巫歌)와 경문(經文)을 녹음하였다. 그리고는 그 아주머니의 점 치는 방식과 점사(占辭)를 녹음하기로 하고, 우리들의 점을 쳐달라고 부탁하였다. 우리가 점을 해 달라고 하자, 그 아주머니는 대답을 하고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아주머니의 행동을 살펴보니, 그 아주머니는 우물가로 가서 다시 세수를 하고 들어왔다. 정신을 집중하

고, 신통력을 얻기 위한 정성이
라 생각되었다.

나는 그 아주머니가 밖에 나
간 틈을 이용하여 그 아주머니
가 듣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로
K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의 생년월일시를 말
씀하시지요.”

“나는 많이 보았으니, 오늘
은 최선생 점을 좀 쳐 보아.”

“저는 예수쟁이인데, 점괘
가 나오겠습니까?”

“괜찮아, 이런 때 최선생
점을 좀 봐. 사주를 묻거든
최선생 사주를 말해.”

이렇게 하여 나는 뜻하지 않
게, 생전 처음으로 점을 치게
되었다.

방으로 들어온 아주머니는 신
단 밑에서 작은 상자를 올려 놓
은 상을 꺼내놓고 바르게 앉더
니, 나의 생년월일시를 물었다.
아주머니는 상자 안에서 옛날
동전 일곱 개를 꺼내어 왼손바
닥에 놓고, 그위에 오른손바닥
을 포갠 다음, 두손을 몸의 중
앙 가슴 높이로 들어 세우고
‘쉬-’ 소리를 길게 내며 정신

을 집중하였다. 그리고는 주언
(呪言)과 함께 내 생년월일시를
외우더니, 동전을 상위에 가볍
게 던졌다. 동전 일곱 개가 상
위에서 마음껏 구르다가 자리를
잡았다. 아주머니는 동전이 놓
인 모양을 주의 깊게 본 다음,
내게 말했다

“태 버린 곳이 아니시군
요.”

나는 무슨 뜻인지를 몰라 순
간적으로 당황하였으나, 얼른
충청도 촌놈이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 태를 버린 고향이 아
닌, 타관에서 살고 있다는 말임
을 알아차리고 대답하였다. 기
왕이면 아주머니의 비위를 좀
맞춰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서,

“예,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군
요.”

“예, 그렇습니다.”

“아버님 산소의 좌향이 서
남향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잘
아시네요.”

“산소 앞에 나무가 없군요.

나무를 좀 심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것은 나의 과거를 알아 맞추는 점괘였다.

그러더니 다시 동전을 모아 들고 흔들면서 주언을 원 다음, 상위에 던졌다.

“모래 위에 배를 띄운 괘입니다. 모래 위에 배를 띄웠으니, 그 배가 갑니까? 명은 나고 이름은 낮으나 실속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현재의 운세인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다. 아주머니는 다시 먼저와 같이 동전을 모아 흔들며 주언을 외운 뒤에 던졌다.

“앞으로는 좋습니다. 만경창파에 배를 띄운 괘입니다. 배가 있는 모래 사장에 물이 들어와 그 배가 물위에 뜨게 되고,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서른 하나, 둘부터 점점 좋아져서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기분이 좋

았다. 그래서 복채를 다시 내어 놓으며, 내 아내의 점도 보아 달라고 하니, 아주머니는 앞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한 다음

“장가 잘 들으셨습니다. 두분의 관계는 아주머니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아저씨는 옆에 편히 앉아서 가는 괘입니다. 아주머니 잘 위해 드리세요.”

하고 말했다.

그 아주머니는 점을 칠 때에, 가볍게 던진 동전이 자리잡은 위치를 보아 점괘를 읽는데, 사실은 다섯 살 먹은 ‘신동’이라는 여자 아이의 영혼이 일러주는 대로 말한다고 하였다. 이 아주머니는 머리가 하얀 대감신이 내려 무당이 된 강신무(降神巫)인데, ‘명두형’ 무당에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죽은 아이의 영혼까지 내려 그녀에게 신통한 점을 치도록 도와 준다고 하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집에 돌아와 점사를 녹음한 테이프를 다시 들어 본 다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내가, 생전 처음 본 점괘를 어떻게 받

아들여야 할까를 놓고 여러가지로 생각을 하였다. 미신이라고 무시해 버려야 할까? 그 아주머니는 아주 신통한 점괘이라고들 하고,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맞췄으니, 믿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던 나는, 믿어도 좋고 무시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왕이면 그 점괘가 꼭 맞는 것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을 되돌아 보고, 서른한 살인 금년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았다.

그 해에, 나는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한 지 6년만에 편입학한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다니고 있었으니, 그것은 그 해의 더없이 좋은 일이었다. 서른한 살 때부터 차츰차츰 좋아진다고 한 점괘자의 말은 이미 들어맞은 셈이었다.

점괘가 맞으려면, 내년에도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데, 내년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여 한 가지 목

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다. 그리고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하였다. 그 해 연말에 생각해 보니, 목표로 정했던 일은 무난히 이루어졌다. 그 다음해에도, 그 다음해에도, 해마다 연말이면, 나는 이 일을 되풀이하였는데, 그 때마다 목표로 정하고 노력한 일은 다 이루어졌다. 점괘자의 말은 용케도 꼭꼭 들어맞았다.

이러한 나의 태도는 자기 스스로 성취할 바를 예언해 놓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성예언(自成豫言)’과 관련이 있다. 강한 성취동기를 바탕으로 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겠는가? 이것은 종교나 신앙심에 좌우되는 일이기보다는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종교적 신앙심이 있다면, 더할 수 없이 좋은 일이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점괘

이의 점괘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는가? 반대로 앞으로 궂은 일, 고생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괘가 나왔다 하여 매사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누가 나에게 점은 맞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점장이의

점괘는 그 점괘를 받은 사람의 태도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나는 나에게 준 제천 무당의 점괘가 꼭 맞았다고 생각하며, 아내를 잘 위해 주라고 하던 말을 떠올려 본다.

(1991. 11.29)

祝

宗誌第2輯發刊

裕山綜合商社

社長 崔英憲

(大宗會 弘報副幹事)

仁川西區佳佐4洞 주공2단지 103동 102호

電話：(職) 691-8118 (自) (032) 579-0387 番

日 星 堂

代表 崔明植

(大宗會宗務副幹事)

서울特別市 江東區 千戶洞 48-16

電話：(職) 478-2814 (自) 479-2814 番

반듯한 家門이 뜻하는 것



希 娟

(文學博士 32世 校理公派)

나는 철이 들면서 부터 우리 아버지(愚氏)에게는 會社일과 大學에서 강의하시는 일 이외에 또 다른 업무(?)가 있으시다는 것을 의식 하게 되었다. 즉, 宗中을 위한 일련의 일들이 그것이었다.

늘 “종친회관계”라고 씌어진 서류봉투가 서재의 책상위에 놓여 있었으며, 어쩌다 틈만 나시면 그 서류봉투의 것들을 꺼내서 무엇인가 정리를 하시고 또 집필을 하시는 것이었다.

훗싯뒤에 안 일이지만, 아버지께서는 고향인 북한땅 황해도 연백에서 남하 피난한 일가 친척을 종친회로 묶는 일에 앞장 서서 활약을 하시면서 때로는 여기 저기 산지 사방으로 호터져 살고 있는 일가분들을 수소문 해서 연

락이 닿도록 하고 때로는 명부를 정리 하고, 그리고 會則을 만드는 일, 族譜(派譜라는 것을 뒤에야 알게 되었다)를 편찬하는 일. 宗誌를 엮어서 펴내는일 등등 그야말로 어느것이 주된 業務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宗中일에 열중하시는 것이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집으로 걸려오는 아버지에게의 電話는 거의 대부분이 宗親會관계의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三男妹가 함께 모일수 있는 機會만 있으면 물싯호기 하시고 家門의 내력과 고향에서 일가 친척이 友愛있게 지내던 일 등등을 설명해 주시곤 하는 것이었다.

특히 海東孔子로 추앙받는 文憲公 冲 할아버지에 관한 설명으

로 이야기가 발전 되면, 아버지께서는 예외없이 班常에 대한 당시의 계급구조의 설명과 함께 兩班家門의 矜持와 자존, 그리고 후손들이 지녀야 할 마음의 자세 등 자세하게 일러 주시는 것이었다.

그럴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을 쉽게 헤아리지 못하고,

“아니 지금 세상에 양반과 상인이 어데 있으며, 또 옛날 조상님들이 東쪽 班列에 올랐었던 西쪽 반열에 올랐던 지금의 후손들에게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인가…… 그보다는 오늘날 집안의 누군가가 잘돼서 가족이나 주위의 친척들이 빛을 볼수 있어야지……”

하고 은근히 당위론으로 반발에 가까운 생각까지를 하곤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어찌면 고루하다 싶을 정도의 조상님 숭배사상을 이해하게 되었고, 門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참된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아버지께서는 그 어떤 보상을 바라

고 門中일에 열중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보상(?)을 내가 찾아 할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나는 大學(延世大學校 本大學院)에서 碩士과정을 마치자마자 전문대학과 大學의 講師자리를 얻어 博士과정을 마치고 學位를 취득할때까지 줄곧 講義를 맡을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校理公派의 종친회장이신 漢陽大學의 俊基학장님의 각별한 배려 덕분이었다.

또, 나는 결혼적령기라고 하는 나이에 늘 學校와 도서관에서 지내다보니 어쩔수 없이 혼기가 늦어졌고, 애를 태우시는 父母님이 서울시내의 이른바 결혼상담소를 순례하셔야만 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이때 강남의 큰 감리교회인 K교회의 결혼상담소의 주선으로 남편<고려대학교 전산학과 교수>과 맞선을 보게 되었고, 서로간의 호감으로 몇번인가의 데이트 끝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데이트 기간중 (데이트기간이라야 한달반남짓의 기간이지만) 어느날 집을 찾아온 그 사람은 느닷없이 아버지에게

“물론 어르신네댁에 보서를 모시고 계시겠지요? 저의 큰 댁에서 족보를 좀 보셨으면 합니다.”

라고 우리 족보를 빌려 달라는 것이었다. 이때 나는 깜짝 놀라 마음속으로 “아무리 班常을 찾는 忠淸道출신이라지만, 英國에서도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그것도 物理學을 한다는 사람이 저럴수가 있을까……”하고 크게 의아해 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아뭏든 아버지께서는 마치 오랜 세월功들인 일의 결실 이라도

찾아 하는 듯이 득의 만만한 표정으로 家門에 대한 내력과 派譜로 엮어낸 사유등을 설명 하시면서 族譜를 건네주는 것이었다.

하기야 家門이 반듯하고 족보가 있어서 결혼이 성사되었는지 여부는 알길이 없고 그 뒤로도 남편에게 그것을 물어본 일이 없지만, 적어도 그런것들이 결혼의 必要條件가운데 하나였음은 분명한 것 같이 느껴져 반듯한 家門의 긍지를 새삼 실감 할수가 있었든 것이다.

宗 誌 第 2 輯 發 刊

축산자동화 설비전문

玉 山 實 業

社長 崔 鍾 弼

(大宗會運營委員)

京畿道 龍仁郡 水枝面 城福里 477-2

電話：(職) (0331) 281-1212, 1775

(自) (0331) 281-3220 番

和合의 意味



昌 燮
(大宗會事業幹事)

우리 大宗會 會則 第三條에 先祖의 偉業을 기리고 宗親間에 친목을 돈독히 하는 한편 後孫들의 무궁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條項을 참고 삼아 親睦과 和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옛 명장의 兵書에 “天時不如地理 地理不如人和”라는 말이 있다. 즉, 天時가 아무리 절호의 기회라 할지라도 地理를 잘 이용함만 못하고 地理가 아무리 유리하다해도 서로가 하나로 굳게 뭉친 人和로서 단결된 힘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한다.

家和萬事成이란, 하나의 平凡한 文句를 한번 되새겨 보자. 집안의 화목함이 계획된 모든 일을 성취시

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社會와 國家發展을 기약할 수 있다는 뜻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도 家訓으로 많이 쓰고 있지 않은가?

實力도 있고, 能力도 있는 사람이 社會에서 敗北者가 된 경우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데 이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家庭이나 社會生活에 있어서 和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흔히 우리들은 社會적으로 명성을 얻거나 부자가 된 사람을 출세했다고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출세가 될 수 없다. 성공적인 社會組織生活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和合할 수 있는 人格이 갖추어져야 한다. 때문에 옛 선인들은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했을 것이다.

人間의 삶은 기다림과 고독의 연속일런지 모른다. 現代社會와 같이 모든 것이 복잡다난하고 不確實한 시대일수록 우리들끼리의 和合과 단결은 더욱더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화합의 바탕을 이루려면 궁극적으로 남이 나에게 대화의 요청이 있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남에게 친근히 다가가겠다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더불어 사는 社會에서 인간관계를 보다 밀접하게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태도이다. 적이라고 생각하는 상대도 이해하고 용서하면 동지가 되는 것이다.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단점을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장점을 찾아내어 확대시켜 보아야 한다. 매사가 방자하고 자만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자신감 있는 대범한 사람이라고 생각도 해보며 상대를 항시 부정적면에서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에서도 보아줄 때 보다 가깝게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德必有隣이란 말처럼 德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외로울 수 없다. 진실로, 상대와 대화를 원한다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德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漢書에 “畫虎畫皮難畫骨이요 知人知面不知心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서로가 반목과 불신을 하다보니 상대방의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 모두가 좀더 허심탄회한 和合의 대화가 필요하다. 또한 장자는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면 그것에 따른다고 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며 습관이 運命을 결정짓는다는 말이 있듯이 마음이 바르고 착하면 존경받을 행동이 나오고 마음이 성실치못하면 다수인에게 비난 받을 행동이 나오기 마련이다.

지난 歷史속에 화려하게 부상했다가 물거품같이 스쳐간 숱한 국가나 社會組織集團의 경우 대부분이 外侵의 곤경에 봉착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내부에 있어서 人和의 결핍때문에 분열되어 마침내 쓰러져갔던 사실들을 우리들은

우리주변에서 쉽사리 찾아볼수 있다.

할일많은 세상에 寧日없이 질타하고 시기하고, 반목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이 분명 부끄러운일이요. 슬픈일들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의 先祖님들은 謙讓을 앞세우고 德性을 뒤로하고 자기自尊을 가운데에 심고 그야말로 한세상을 의젓하게 살아갔는데 오늘에 사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이해와 양보없이 자존같은것은 아예 찾아볼수가 없다. 또한 漢書에 若要人重我이어든 無過我重人이라했다. 즉, 남이 나를 소중히 여겨줄것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한다는 뜻일 것이다. 오늘에사는 우리들의 처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것을 일깨

워주는 훌륭한 명언이 아닐수 없다. 人和라는것이 대단히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조금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자세만 되어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밀가루는 반죽을 하여 하나로 뭉쳐 쪄올때 음식을 만들수 있지가루만으로는 별쓸모가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목표를 세워 구심점을 중심으로, 뭉쳐야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믿고 화합하는 것이 人間의 삶의 기본이 아닐까한다. 우리 大宗會가 先祖님의 위업을 기리고 종친간에 화합 하면서 보다 발전하는 大宗會가 될것을 期待한다.

═══════════════════════ 崔氏의矜持 ════════════════════════

윤 섭

최씨의 긍지는 굳이 여기서 서술할 필요도 없이 다 아는 바이나, 언제부터인가 전해오는 두마디말로써 내 평생을 살아 왔기에, 해주최씨의 여러 어른과 더불어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죽은 최가 한분이 산 김씨 세분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흔히 고집이 세다고 표현한 말이라고 하나 나는 결코 그렇게만 생각치 않고 우리 최씨 한사람의 능력을 김씨 또는 타성씨들과 비유한 말로 믿고 있습니다. 즉, 죽은 한 분이 산사람 세분과 견줄만큼 능력이 있다. 다시말해서 최씨 한 사람이 타성씨 세사람 아니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믿어왔고, 그러기에 그 긍지에 걸맞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다 훌륭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보다 착하고, 의롭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둘째는 “최씨 앉은자리에는 풀도 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말은 그만큼 독하다고 비유한 말이나 이또한 나는 그렇게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최씨는 뜻한바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 두가지의 긍지를 가지고 나는 살아 왔기에 서슴없이 “나는 분명히 해주최씨의 한 사람이다” 자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자부심에 걸맞게 살아가는데 성심 성의껏 노력할 것입니다.

문득 열살때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충북 음성군 무극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때 “역기”에 열이올라 운동기구를 구하려하니 쉽지 않아서 생각끝에 무극광산에 가면 역기에 필요한 광물 운반용 차량의 쇠바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동네친구들을

동원하여 광산에가서 버려진 바퀴들을 많이 구했으나 내가 목적하는 모양은 하나 밖에 구하지 못하였다. 다름아닌 바퀴 주위가 부러져 나간 가운데 둥근 뭉치만 남은 것이 또 하나가 있어야 짝을 맞추어 몸을 푸는 운동기구로 안성마춤이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고민끝에 묘안이 떠올라 친구들과 상의하였으나 어렵없는 소리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으니 날도 저무는데 어서 가자고들 하였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될 것으로 판단했다. 즉, 쇠망치로 생생한 바퀴의 둘레를 때내고 만들면 된다고 확신이 섰다. 모두들 말리며 가자고 야단들이었지만, 나는 이것 못만들면 안내려갈테니 먼저 가라고 했다. 그곳에서 일하는 일꾼들한테 큰 쇠망치를 빌려 줄 것을 청했으나 일꾼들이 말했다. 나의 고집과 집념은 누구도 꺾지를 못했고, 나는 망치를 빌려와 급소라고 여겨지는 곳을 열번 스무번 치고 또 쳐서 결국은 금이가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일꾼들은 혀를 차며 달려와 나머지 부분을 만들어주며 도대체 “너는 어디 사는 누구냐?”하기에 “죽은 한사람이 산사람 세 김씨를 이기고, 앓은 자리에 풀도 나지 않는 최씨입니다” 하였다. 이때 모두들 입을 벌리며 그놈 대단하다고 칭찬하였고 나는 그때부터 자신감과 힘을 갖고 이 세상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하늘을 마음대로 날 수 있는 세계 제일의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에 입대하여 전투조종사가 되었고, 1963년에 제대한후 대한항공에 입사하여 민간 항공기 비행사로서 현대 문명과 과학의 총합체인 점보(Boing-747) 비행기를 몰며 전세계를 비행하고 있습니다.

문벌 거족인 우리 해주최씨는 앞으로도 훌륭하신 조상님들의 후예답게 슬기롭고, 힘차게 자신을 가지고 뜻한 바를 마음껏 이룩할 수 있는 삶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두마디의 말을 생활의 신조와 긍지로 알고, 살아온 제가 해주최씨의 후손임을 조상님께 감사드립니다.

□ 同姓同本은 百代之親 □

北京大學 교수인

龍水 종친을 찾아

愚

((社) KJC 論說主幹)

총선열기로 들떠있던 3月中旬의 어느날 正午, 記者는 學術交流를 위해 來韓한 中國의 北京大學校 교수인 龍水宗親을 그가 묵고 있는 '蠶室'의 S호텔로 찾아 갔다.

電話로 先約을 했던 터라 방문을 노크하자마자 龍水 종친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만나는 同氣간을 대하듯이 무척 반갑게 맞아 주었다.

“아이구 아이구 거저 반갑구만요. 어서 앉으시라구요”

中國에서 태어난 移民三世인데도 그의 말씨에는 平安道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母國에는 이번이 처음이십니까? 記者의 물음에 龍水宗親은 지난 88년에 退溪學會의 초청을 받고

다녀간 일이 있으며 이번이 두번째라고 한다. 그러면서 “명색이 東方哲學(朝鮮哲學)을 하는 사람이, 그것도 朝鮮儒學을 깊이 研究하는 처지에 있는 당사자가 自己뿌리나 祖上에 대해서 소홀한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88년도에 母國을 訪問하였을때도 뿌리에 대해서 興趣를 가지고 찾아 보았습니다만 워낙 日程도 빡빡하고 해서 뜻이 미치지 못했으나, 이번에 成均館大學의 崔根德 교수(註:慶州人)를 통해서 海州崔氏大宗會가 활발한 事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龍水宗親은 中國式表現인지 興味와 關心을 함께 나타내는 말로 興趣라는 單語를 자주 使用하였다.

그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80年前 그의 祖父가 平安北道 楚山郡 古面 文德里에서 食솔을 거느리고 中國으로 건너갔다고 하는데 그 動機는 자세히 모르겠다고 한다. 특히 그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로는 그의 故鄉에는 海州崔氏가 集姓村을 이루고 살았다고 하며, 그의 祖父는 집에 모시고 있던 族譜를 다른 친척에게 맡기고 돈벌어 가지고 가서 되찾기로 하였으나 이런 저런 事情으로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龍水 宗親은, 故鄉의 마을 이름이 文德里라고 하는 것은 崔冲 先祖의 學問이나 功德과 어떤 因緣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면서 文憲公 先祖를 비롯한 祖上님들에 관계되는 典籍같은 것을 찾아 보려 했으나 如意치 않았다고 했다.

龍水宗親은 1936年生으로 우리나라로 今年57세인데 重厚한 人品과 타고난 俊秀한 외모로 해서 나이를 짐작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1962년에 北京大學 哲學科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계속해서 學問을 연찬, 母校의 教授가 되었으며

譯書로 <通俗哲學>이 있고 論文은 <朝鮮儒學의 特性和 役割>, <退溪學研究>, <栗谷의 實學思想> 등 多數를 發表했으며, 斯界의 권위있는 學者로 國內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遼寧大學의 哲學科科長인 貞錫宗親과는 같은 學問의 길을 걷는 哲學徒로서는 勿論 같은 海州崔氏宗人으로서 恪別한 友愛를 나누고 있다고 한다.

龍水宗親에 依하면 現在 中國에 있는 우리 海州崔氏宗人 가운데는 알려진 學者만도 여러 명이 있는데 醫科大學 總長을 歷任한 수환 宗親(咸鏡道出身)은 族譜를 소중하게 모시고 있을뿐 아니라 海州崔氏에 關聯한 論文까지 發表했다고 한다. 그리고 中國政府의 法律심의회도 참여하는 大法學者도 있다고 한다.

한편 中國政府는 1952년에 모든 少數民族을 集體的(註: 龍水宗親의 表現)으로 歸化시켰기 때문에 모든 宗親이 中國國籍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뿌리는 잊지 않고 있어서 그의 子弟는 勿論 宗親들 子女들은 한결같이 籍貫(註:

中國式으로 本籍과 貫鄉)을 물으면 朝鮮의 海州崔氏라고 또렷이 대답을 한다고 한다.

끝으로 龍水宗親은, 先親(天吉氏)의 말에 따르면 가까운 그의 집안에 贊一氏라고 日本留學까지 한 叔行벌 되는 이가 있는데 반드시 南韓 어디엔가 살고 있을 것이라 하면서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記者는 멀고 먼 共產圈 中國에서 온 異邦人같은 宗人에게서 끈끈한 血肉의 情같은 것을 느끼면서 가까운 食堂으로 案内 母國의 正統음식을 대접하고 惜別의 情을 나누었다.

그도 江原大學에서의 特講준비가 있어서 時間이 빠듯하다고 하며 再會를 다짐했다.

祝

宗誌第2輯發刊

中央海難審判院 首席調查官

書記官 崔 禎 燮

(大宗會 組織幹事)

서울特別市 陽川區 新亭6洞 목동아파트 1304동 507호

電話：(職) 392-9895 (自) 646-0646 番

서울特別市 西部教育廳

管理局長 書記官 崔 在 夏

(大宗會宗務幹事)

서울特別市 麻浦區 大興洞 18-63

電話：(職) 362-1201 (自) 717-0320 番

건 축 용
적 벽 돌
종합생산업체

일신 **적** 벽돌

생
산
품
목

여주 I 공장

변 색 벽 돌
환원칼라벽돌

성환공장

미장유공벽돌
미장무늬벽돌
미장이형벽돌

宗親님께서 建築키 爲한 注文時
特別生産原價로 供給하겠습니다.

日新煉瓦工業株式會社

代表理事 : 崔 廣 洙(海陵君派)
(大宗會運營委員)

- 서울·본사 : 서울·강남구 신사동 570-4 (일신빌딩)
전화 : (02)540-0633(代) FAX : (02)546-9882
- 여주 공장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159
전화 : (0334)85-5477~9. (02)743-4944
- 성환 공장 : 충남 천안군 성환읍 수향리 171
전화 : (0417)581-3094~5720, (02) 744-5046

營業種目

教會用電子올건(和蘭) 파이프 올건(獨逸) 各種 컴퓨터

世伊伸化學工業社
SELECTROS, INC(美)
株式會社 曉承物産
代表理事 崔 愚

서울特別市 鍾路區 社稷洞 262-8

電話：722-6277, 6279, 6697

FAX：(02) 722-6278 番

祝

宗誌第2輯發刊

崔 齒 科 醫 院

院長醫學博士 崔 奉 燮

(大宗會運營委員)

서울特別市 龍山區 龍門洞 23-1

電話：712-7019

718-1001 番

祝

宗誌第2輯發刊

宗誌編纂委員

崔永哲

仁川直轄市 南區 官校洞 13-9

星志아파트 103동 1203호

電話：(032) 421-2698 番

祝

宗誌第2輯發刊

宗誌編纂委員

崔承萬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43-4

미주아파트 B동 408호

電話：782-3527 番

祝

宗誌第2輯發刊

世明染織工業社

社長 崔 仁 求

(大宗會運營委員)

大邱直轄市 中區 大鳳洞 111-1

청운맨손 7동 1208호

電話：(職) (053) 355-1441~2

(自) (053) 423-2019 番

祝

宗誌第2輯發刊

漢陽女子專門大學長

文學博士 崔俊基

(宗誌編纂委員長)

서울特別市 城東區 紫陽洞 220-4

電話：(職) 293-4102, 292-8181

(自) 444-9006 番

祝

宗誌第2輯發刊

宗誌編纂委員

崔理燮

서울特別市 江南區 淸潭洞 134-18

三益아파트 5동 303호

電話：542-9087 番

祝

宗誌第2輯發刊

水踰產業社

社長 崔萬基

(大宗會副會長)

서울特別市 江南區 論峴洞 105

동현아파트 1동 1002호

電話：544-9445 番

祝

宗誌第2輯發刊

大宗會副會長 崔秉倫

서울特別市 松坡區 蠶室洞

86아시아선수촌아파트 2동 1002호

電話：(職) 554-6365, 558-2405

(自) 417-0896 番

祝

宗誌第2輯發刊

新安相互信用金庫

會長 崔光敏

(大宗會監事)

(佐郎公派監察公後孫宗中會會長)

京畿道 九里市 仁倉 2洞 495-7

電話：(0346) 63-2741 番

祝

宗誌第2輯發刊

마포한의원

院長 韓醫學博士 崔大善

(大宗會監事)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 183-6

電話：712-1191,

717-1191 番

文憲公誕辰千周年紀念 大同譜를 發刊하고서

譜書編纂委員長 吉 堉
(32世 校理公派)

目	次
1. 머리말	4) 進士公派의 新設(派祖 諱尹卓)
2. 紀念譜書發行的 意義	5) 典書公派의 新設
3. 全宗親의 總意에 의한 編纂業務의 進行과 最多人員의 收單參與	6) 縣監公派의 新設
4. 家藏 및 文獻의 完譯	7) 副司果公派를 文貞公派로 名稱 變更
5. 系派의 新設 및 補完	6. 體裁와 外樣
1) 直提學公派의 新設	7. 記載內容
2) 執義公派의 新設	8. 會計處理
3) 進士公派의 新設(派祖 諱尹望)	9. 贊助金 및 譜書豫約
	10. 印刷 및 校正
	11. 譜書頒布 및 決算

1. 머리말

大宗會가 새로 발족한후 文憲公誕辰千周年(高麗通史上 1984年) 紀念 사업으로 崔冲研究論叢(慶熙大學 附設 傳統文化研究所 刊行)의 발간과 文憲公에 대한 學術研究 세미나의 개최 그리고 매년 文憲公影堂 享祀의

學門的인 봉행의 定着化와 宗誌의 발행등 우리 문중에서 일찍이 시도한 일이 없었던 여러가지 뜻깊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나 뒤이어 大同譜上 文憲公誕辰 1,000주년인 되는 1986年(高麗通史와 大同譜의 기록에는 2년의 差異가 있음)을 기하여 紀念譜書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門中여론이 크게 일어남에 따라 大宗會의 최고의결기관인 運營委員會에서 이를 심도있게 논의 한 결과 1986년 12월 13일에 개최된 第11次 運營委員會에서 紀念譜書 발행을 만장일치로 의결확정하고 1987년 4월에 개최된 佛智影堂에서의 大宗會 定期總會에 이를 보고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 약 4년에 걸쳐 편집을 完了하고 1990년 말에 譜書를 上梓하게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海州 崔氏 1,000년을 재 조감해 보는 뜻 깊은 역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紀念譜書 편찬에 있어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는 宗末이 譜書編纂 委員長의 중책을 맡게 되어 나름대로 誠과 熱을 다 마쳐 勞心焦思하며 애를 쓴다고 썼으나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많았으며 그간 종종 여러 어른들에게도 본의 아니게 缺禮를 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음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自愧하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 종친의 熱火와 같은 후원과 협조 그리고 編纂委員님들과 收單指導委員님 및 實務委員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많은 종친들의 아낌 없는 찬조로 可히 우리 海州 崔氏 1,000년의 金子塔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훌륭한 紀念譜書를 발행하게 된 것을 다 함께 동경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번 紀念譜書 발행의 의의와 그 과정및 편찬에 있어서의 力點사항 등을 적어 종종 여러 어른에 대한 보고를 겸하여 後日에 남기고자 합니다.

2. 紀念譜書 發行의 意義

우리 大同譜는 文憲公 死後 676년이 지난 1744년에 甲子譜가 처음 발간된 후 1807년에 丁卯譜, 1866년에 丙寅譜, 1891년에 辛卯譜, 1919년에 己未譜, 1961년에 辛丑譜가 발간되어 이번이 일곱번째가 되는 譜書이나 종전과는 다르게 이번 紀念譜書는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海州崔氏는 首陽山下 大寧郡(고려때 地名)에서 新羅末 高麗初에 諱 溫으로 부터 시작하여 1,000여년을 이어온 名門인 것입니다. 그 아드님이신 諱 冲 文憲公은 穆宗 8년(1,005년)에 甲科에 장원급제 하신 후 50년간을 出將入相 국가요직을 두루 거쳐 首相인 門下侍中에 9년간이나 재직하시면서 고려 朝廷의 기틀을 확립하고 文化를 크게 일으켜 열 한개의 功臣 칭호를 받으신 고려 제일의 社稷之臣이었으며 致仕후에는 九齋學堂이라는 私學을 개설하여 後學양성에 誠力을 다하여 고려 文運의 흥륭을 가져왔고 北宋의 程子, 朱子보다 40여년이나 앞서 性理學을 주체적으로 제창함으로써 그때까지 漢唐學風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 儒學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신 경륜 높은 위대한 大學者로서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後世人들의 師表로 추앙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훌륭한 선조의 誕辰 1,00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가지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紀念譜書를 발행함으로써 1,000여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면면히 이어온 우리 家門의 역사를 재 조감하면서 다시 한번 文憲公의 偉業을 똑바로 인식하고 모든 후손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譜書직전에 발간된 1961년의 辛丑譜는 여섯번째의 大同譜이나 6·25전화로 越南한 종친들이 전국 각지에 이산되어 나름대로의 생활토대를 확보하지 못하고 일일도식에 급급한 때 였으며 더욱이 4·19, 5·16 등으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때여서 일반적으로 뿌리찾기나 大同譜 편찬 등에 관심을 가질만한 경제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때에 극히 제한된 人士에 의하여 편찬업무가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종친의 전국적인 분포상황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충분한 홍보활동도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收單업무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가지 면에서 미흡한 譜書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紀念譜書는 辛丑譜의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 전 종친의 總意에 의한 編纂업무의 진행과 最다人員의 收單 참여

이번 紀念譜書는 大宗會에 관여하고 있는 몇 몇 人士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편찬업무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계시는 많은 종친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 集約된 의사에 따라 편찬 업무가 운영되었다는 데 큰 意義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文憲公 誕辰 1,0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후 전국 종친 간에서는 기념사업으로 大同譜의 발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일어나 각종 회의석상에서 자주 거론됨에 따라 大宗會의 最高議決機關인 運營委員會에서 이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1986년 12월 13일에 개최된 第11次 運營委員會에서 기념 譜書 발행을 만장일치로 의결확정하고 譜書編纂委員會 規約(別紙 第1號表 참조)을 의결함으로써 모든 편찬업무가 이 규약에 의하여서만 진행되도록 하였고, 동 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各系派 및 전국 각지에서 공정하게 선출된 종친으로 大同譜 編纂委員會(別紙 第2號表 참조)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편찬위원회에서는 일차적으로 진지한 토의끝에 전국 종친의 의사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編纂細則(別表 第3號表 참조)을 제정하여 이 細則대로 편찬업무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몇몇 人士의 자의에 의하여 편찬업무가 專行되는 일이 없도록 制度化하였고, 編纂委員長은 議決事案과 編纂업무의 진행상황을 每期에 개최되는 運營委員會에 보

고하여 추인을 받는 한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 종중의 전체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한 것은 지금까지의 譜書편찬에서 볼 수 없었던 일로 가장 특기할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譜書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종친이 한 사람도 빠짐 없이 納單을 하여 이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나 종전까지의 譜書는 오늘날에 비하여 말할수 없이 교통 통신이 불편하고 홍보 활동도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收單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많은 인원의 漏譜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에 특별히 유의하여 여러번의 大宗會 會報발행과 日刊신문에 광고게재 그리고 大宗會 총회 등 각종 회의석상에서의 弘報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함은 물론 특히 전국각지에 산재해 있는 集姓村 또는 일정한 地域이나 各系派別로 門中사정에 정통하고 收單업무에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을 收單業務指導委員로 위촉하여(別表 第4號 表 收單業務 指導委員名單 참조) 전국을 빠짐 없이 巡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찬위원과 지도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收單업무를 추진한 결과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譜書を 발행할 때마다 戶籍에는 海州 崔氏로 등재되어 있으나 여러가지 사유로 그 뿌리를 알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收單에 참여하지 못하는 종친이 상당 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런 종친들을 가능한 한 많이 구제하기 위하여 編纂細則 第8條 및 9條의 규정에 의하여 그 뿌리가 어느정도 확인되고 소속 系派의 編纂委員이 이를 인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開放的으로 수용함으로써 다음 181頁의 收單實績表와 같이 당초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인원이 收單에 참여하여 이번 譜書編纂의 의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확신합니다.

4. 家藏 및 文獻의 完譯

우리 家門은 전술한 바와 같이 文憲公이후 代를 이어 훌륭한 先祖님들이 많이 배출됨으로써 명실공히 고려조 제일가는 貴族家門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李朝時代에도 계속해서 많은 人材를 배출했으나 文憲公을 비롯한 先祖님들의 著書는 물론 關係史料가 거의 일실되어 훌륭한 업적을 소상하게 밝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남아있는 史料도 순 漢文으로 되어 있어 오늘의 후손들이 거의 이를 이해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이번 紀念譜書 발행에 있어서는 편찬위원회내에 家藏 및 文獻번역 小委員會를 두어 首陽世譜 崔子全 또는 家藏 등에 수록되어 있는 文獻을 체계적으로 재 배치하고 이를 완전히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번 번역에 있어 일부만을 他門의 학자에게 위촉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弘益大學校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文學博士 康賢 종친과 祥明女子大學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文學博士 起鎬 종친이 바쁘신 가운데 이를 담당하였고, 그 편집은 宗誌 編纂委員會 副會長이신 愚 종친이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세 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사의를 표하며 이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 종중에서는 史料발굴에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家藏 및 文獻翻譯 小委員

委員長 吉 竣 (32世)

委員 愚(31世) 康賢(37世) 起鎬(34世)

5. 系派의 新設 및 補完

甲子譜에서는 系派數가 대략 12世에서 15世를 기준으로 하여 총 20個派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그 후 譜書편찬 때 마다 系派數에 다소의 변동이 있었으며 이는 교통통신의 불편 등으로 譜書편찬에 전혀 참여하지 못

하였던 系派가 새로이 수록되거나 한번 참여한 系派에서도 그 후 연락두절로 누락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된 것으로 인정되며 이번 譜書직전의 辛丑譜에서는 총 21個派로 분류되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譜書편찬에 있어서는 編纂細則 第 8條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확실한 舉憑資料가 있을 때에는 이를 開放的으로 수용한다는 원칙을 세워 전 종친이 收單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유하였던 바 지금까지는 無後로 처리되었던 系派의 후손이 현재 상당수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지는 등 여러가지 사실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새로이 6個派를 신설하게 되어 총 系派數가 27個派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事變中 單身 또는 一部家族만이 越南하거나 其他의 사정 등으로 자기의 家系를 알 길이 없는 종친이 상당 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희망할 때에는 이번 紀念譜書에 한하여 附錄編에 수록하고 다음 大同譜書 발행때에 所屬系派를 찾아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 直提學公派(派祖 諱 河) 신설

副司果公派(명칭 변경 후에는 文貞公派)의 派祖 諱 淑의 兄 諱 河(直提學)의 후손이 甲子譜 이후 辛丑譜까지 無後로 처리되어 왔으나 諱 河의 祖父 13世 諱 關께서 鄭道傳 亂을 피하여 平北 龜州로 이거한 후 그 후손들이 그 地方에 정착 거주하면서 1860년과 1917년 2차에 걸쳐 派譜를 발간하였고, 이 派譜를 가지고 6·25 당시 越南한 종친 得範이 이번의 收單에 참여하게 되어 直提學公派를 새로이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2) 執義公派(派祖 諱 承順)신설

전술한 13世 諱 關의 長子 諱 厚元의 二子중 次子 諱 淑은 甲子譜에 副司果公派(이번에 文貞公派로 개칭)로 등재되었고, 長子 諱 河는 이번 에 그 후손이 확인되어 前項과 같이 直提學公派로 신설되었으며 諱 關의

次子 諱 繡은 子 承順과 함께 父의 遠竄時(鄭道傳亂때)에 和順으로 피난하였다가 子 承順이 다시 平北 寧邊으로 피난 정착하면서 父의 피난地인 「和順」을 本貫으로 定하여 그 후손 100여 世帶가 戶籍에도 和順 崔氏로 등재하고 그간 和順 崔氏 世譜 1帙3券을 발간한 바도 있으며 그 世譜를 考證한 바 上系가 海州 崔氏임이 확실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紀念譜書 편찬소식을 듣고 그 후손들간에서 본래의 本貫인 海州 崔氏로 복귀할 것을 활발히 논의한 바 있다고 하나 전체 의사가 집약되지 못하고 일부 후손만이 紀念譜에 入譜할 것을 희망함으로써 15世 諱 承順을 派祖로 한 執義公派를 신설하고 우선 희망하는 종친에 한하여 수록한 바 있습니다.

3) 進士公派(派祖 諱 尹望)신설

承旨公派祖 諱 尹範의 弟 諱 尹望은 甲子譜에 無後로 처리되어 있었으나 1899년에 발간된 領郎將公(諱 安澤)派譜와 1960년의 和順譜 및 1975년의 承旨公派譜에 이미 후손들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번 紀念譜書에서는 이를 追認하여 進士公派로 系派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4) 進士公派(派祖 諱 尹卓)신설

지금까지의 大同譜에 將仕郎公派는 13世 諱 洪(奉常寺副正)의 孫 15世 諱 孝宗(將任郎公)을 派祖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世 諱 洪의 弟 諱 齋의 후손까지도 따로 系派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將仕郎公派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派譜인 1960년의 和順譜, 1975년의 承旨公派譜에 13世 諱 齋의 孫 15世 諱 尹卓을 派祖로 하여 系派名을 進士公派로 하여 등재처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追認하여 大同譜에도 새로이 系派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5) 典書公派(派祖 13世 諱 河) 신설

海陵君派는 12世 諱 永祉의 次子 諱 澤의 후손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三世文莊公(尙書令)의 宗派로 되어 있고 전기한 諱 澤의 兄인 13世 諱 河는 甲子譜 이래로 후손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발간年度 미상인 派譜 海州 崔氏家譜卷之六大護軍公派에 그 후손이 수록되어 있고 1982년에는 諱 河의 후손으로 구성되어 있는 典書公派譜를 기히 발간하고 있어 이번에 典書公派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6) 縣監公派(派祖 11世 諱 瑀)신설

3世 文莊公의 子 忠景公의 三子인 5世 諱 湊의 후손은 11世 諱 瑀이 후 후손이 없는 것으로 甲子譜 이래로 처리되어 있으나 6世 諱 允義로부터 25세에 이르기까지 20代 獨子로 繼孫이 되어오면서 현재 28代 孫이 江華郡 喬桐島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누대로 전해 내려오는 家乘에 의하여 판명되어 11世 諱 瑀를 派祖로 한 縣監公派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7) 副司果公派를 文貞公派로 名稱變更

15世 諱 淑의 후손은 甲子譜 이래로 副司果公派로 통칭되어 왔으나 이번에 派宗中에서 派祖의 諡號가 文貞公이므로 文貞公派로 系派명칭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해 음에 따라 편찬위원회에 附議하였던 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기에 文貞公派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6. 體裁와 外樣

譜書의 부피를 좀더 줄이고 현대 감각에 맞도록 아름답게 꾸미기 위

하여 종래에 各 門中에서 많이 사용하여 온 모조紙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 코팅을 한 최신 용지인 라이온코트紙를 사용하고 서식에 있어서는 七段縱書는 종전 書式을 그대로 따르되 行數와 字數를 약간씩 증가시켰으며 字體는 楷書體를 사용하여 譜書의 輕量化와 美麗化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譜書의 判型은 4·6倍判으로 하고 表紙는 진곤色 布크로스에 金箔字를 넣어 호화 장정을 함으로써 書庫속에 깊이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書齋나 居室의 장식용으로도 활용하며 수시로 손쉽게 펼쳐 볼 수 있도록 유의하였습니다.

편집內容은 始祖부터 各派의 派祖까지를 總編에 수록하고 各系派分은 間紙로 구분하여 系派順으로 系派祖부터 새로이 始作하여 편집을 하였으며 舊譜書에서는 世數를 첫머리와 世數가 바뀔 때에만 表示하여 世數식별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每帳마다 世數를 表示하였습니다.

7. 記載 內容

譜書의 기재내용은 고유한 전통을 존중하는 뜻에서 될수있는 대로 전래되어 오는 방식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현대 감각에 비추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사항에 한하여 그 기재내용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譜書내용이 더욱 충실해 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 配偶者의 경우

종전의 譜書에는 入籍한 配偶者(妻)의 경우 本貫과 姓만을 기재하고 名은 기재하지 아니하여 男女차별이 심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男性 配偶者와 동일하게 姓名을 전부 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2) 女息 및 外孫

出嫁女의 경우에 婿의 本貫과 姓名만을 기재하고 女息의 이름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女息을 主格으로 하여 먼저 女息의 이름을 기입하고 그 다음에 婿의 本貫과 姓名을 기재하도록 하여 男女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현대 사조에 맞도록 시정하였으며 그 子女는 下段에 姓名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3) 經 歷

經歷은 官職, 勳爵에 한하여 기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慣例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職業과 身分이 극히 다양화된 현 產業社會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답습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인정되므로 男女의 구별없이 最終學校名, 學位, 勳爵, 公務員職級 및 社會的 經歷 등을 관계서류의 제출을 받아 그 사실이 확인 될때에는 이를 기재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4) 年 號

종전에는 주로 干支年號를 사용하고 간혹 中國이나 우리나라 王朝의 年號를 병용하였으나 이는 年代식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번에 새로이 등재되는 것 부터는 전부 西紀年號로 통일하여 年代 구분이 명확하도록 하였습니다.

8. 會計 處理

譜書편찬 업무의 성공은 전국각지에 산재해 있는 종친이 모두 收單에 참여하고 이들이 납부한 收單料가 추호의 착오도 없이 전액 大宗會 사무국까지 도달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畵宗친이 확실한 믿

음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편찬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會計업무 처리에 가장 力點을 두어 다음과 같이 제도적으로 不正이나 착오가 발생할 수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결과 한편의 不正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1) 收單料

각종 收單料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譜書편찬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조달 뿐 아니라 文憲書院의 건축등 각종 宗中 숙원사업의 지원基金을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大宗會 運營委員會와 譜書편찬위원회의 合同會議에서 여러번에 걸친 토의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을 보아 그대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가. 冠 1인당 4,000원

나. 童 1인당 2,500원(外孫의 경우에는 收單料를 징수하지 아니함)

다. 經歷, 1행당 10,000원(7자 까지를 1행으로 함)

라. 特別 納入金 100,000원(辛丑譜 이전 譜書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소속 系派가 확인되어 새로이 入譜하게 된 종친 그리고 자기 系派와 世系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종친으로서 이번의 紀念譜書에 한하여 末尾附錄에 수록되기를 희망하는 종친에 대하여는 系派當 100,000원씩 特別納入金을 납부하고 수록된 人名에 대하여는 冠, 童別로 따로 收單料를 납부하도록 함.)

마. 收單指導費 지급

全國각지에 산재해 있는 宗親으로 부터의 納單과 收單料 징수에는 불가피하게 적지 아니한 경비가 소요되므로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收單料를 징수한 收單指導委員은 징수한 收單料에서 1割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後 殘餘金額만을 大宗會에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2) 現金 收領

收單料등 現金영수는 大宗會 사무국과 大邱 및 光州 支會 그리고 편찬위원회에서 위촉한 收單業務지도위원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現金을 징수할 때에는 大宗會에서 미리 교부한 三枚複寫로된 소정 영수증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現金을 받고도 所定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私製 영수증 등은 일체 발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일단 발행된 소정 영수증에 대하여는 大宗會에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러한 사실을 大宗會 會報 또는 각종 회의 석상에서 널리 홍보 주지시킨 결과 現金 사무에서는 단 한푼의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3) 징수한 收單料의 인계 인수

收單業務指導委員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도위원의 사고에 대하여는 지도위원을 추천한 각 支會長 또는 편찬위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여 지도위원 추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고 三枚複寫로 된 영수증 가운데 原本은 보존용으로 비치하고 한통은 현금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한통은 收單用紙따로 現金따로 노는 일이 없이 편찬이 끝날 때까지 현금이 영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收單用紙에 첨부하도록 하였고 書損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영수증은 三枚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현금영수가 끝난 收單用紙를 大宗會 사무국에 인계할 때에는 현금 受收사무의 대사확인이 용이하도록 一定書式의 引繼書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하도록 함으로써 인계 인수에 있어서의 착오발생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9. 贊助金 및 譜書豫約

各門中에서 譜書を 발행할 때 그 소요자금을 收單料에만 의존하지 아

니하고 多小 여유있는 종친으로부터 贊助金을 회사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 있으나 우리 문중에서는 紀念譜書 발행뿐 아니라 文憲書院의 건립 등 각종 숙원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많은 贊助金을 기탁하시도록 적극 홍보를 한 바 남다른 敬祖愛親사상을 가지고 계시는 전국의 종친 339명으로부터 별지 第 5號表(贊助者 名單)와 같이 일금 64,265,000원에 이르는 많은 贊助金이 답지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贊助金을 보내주신 여러 종친에게 다시한번 지상을 통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贊助金을 보내주신 종친중 10만원이상을 贊助하신 종친에 대하여는 사전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그 芳名과 金額을 이번에 발행한 紀念譜書 말미에 등재하여 譜書와 함께 영구히 보존되도록 하였으며 그 중 100만원이상 찬조하신 종친에 대하여는 100만원당 譜書 1冊씩을 증정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쇄전에 譜書 발행 部數의 합리적인 책정과 기금의 사전 조성을 위하여 예약금을 帙當 2만원씩으로 하고 미리 譜書 구입예약을 받기로 하였던 바, 전 종친의 적극적인 협조로 발행 전에 총 7,593帙의 예약을 받게 되어 譜書발행 비용에 대한 사전 지원은 물론 발행부수 책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며, 이와 같은 많은 部數의 예약과 발행은 우리 大同譜書 발행 역사상 처음있는 일로써 참으로 뜨거운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 印刷 및 校正

編纂委員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6인으로 된 印刷 小委員會를 구성하여 印刷에 관련된 제반문제를 전담하도록 위임하였으며 小委員會에서는 여러 印刷所의 시설을 사전에 실지 답사하고 각 회사에서 제출한 見積價格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전국 제일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大田 所在 回想社에 인쇄를 의뢰하였으며 제작에 앞서 인쇄實務를 담당하고 있는 工場직원들과 사소한 문제까지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각 공정마다 세

밀한 점검을 한 결과 종전의 譜書와는 판이하게 훌륭한 보서를 인쇄하게 된 것입니다.

譜書 印刷 小委員會

委員長 吉 竣

委 員 愚·泳鳳·泰 峯·明鎬

그리고 譜書편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마무리 作業이라고 할 수 있는 原稿作成과 印刷原橋에 대한 校正을 철저히 하여 한 字의 脫漏나 誤字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收單 原稿와 印刷 原版에 대한 校正을 각각 네번씩 시행하는 등 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결과 誤字나 脫漏가 많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原稿作成과 印刷 原版작성에 약 10개월이 소요되었으나 그 간 혹독한 伏中 더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譜書발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다는一念으로 자세의 흐트러짐이 없이 차분하게 교정을 보아주신 다음 종친들에게 다시 한번 지상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原稿整理 및 校正

澄植, 秉熙, 泰峯, 泳鳳, 炳疇, 興允, 璋燮, 小炫, 炳順

11. 譜書 頒布 및 決算

이번 譜書는 전국 종친의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절대적인 후원으로 모든 업무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 1990년 12월 20일부터 出刊되어 그 다음해인 1991년 7월 말경까지 대부분의 譜書가 頒布되었으며 이와 같이 短時日內에 끝나게 된 것은 譜書 豫約制度를 강력히 추진

한 결과 7,593책의 예약이 답지하여 譜書구입을 희망하는 종친의 대부분이 예약에 참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譜書頒布 가격에 대하여는 大宗會 運營委員會에서 장시간 진지한 논의를 거듭한 결과 譜書발간에 따른 비용은 물론 大宗會의 각종 숙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豫約分은 帙當 140,000원으로 하고, 非豫約分은 帙當 200,000원으로 책정하고, 別紙 第6號表와 같이 大同譜 頒布規程을 통과시킴으로써 同規程에 의하여 질서있게 譜書頒布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991년 7월 31일 현재 譜書발간에 따른 總收支決算을 보면 181頁의 총수지 결산표와같이 총 915,797,345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미발매보서 대금 23,510,000원을 합산하면 무려 939,307,345원의 잉여금이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 문중에서는 물론 타 문중에서도 부러워 할 정도의 훌륭한 보서를 성공리에 발간하고도 이와 같은 막대한 잉여금으로 大宗會의 사무실 구입 및 文憲書院建立 등 종중의 숙원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게 된 것은 오로지 종중 여러 어른의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이 보고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收單 實績表

區 分	人 員	金 額		비 고
		一人當	總金額	
冠	46,172명	3,600원	166,219,200	收單金額의 10%를 收單費用으로 공제한 金額임
童	51,470명	2,250원	115,807,500	
合 計	97,642명		282,026,700	

총 수 지 결 산 표

(1991년 7월31일 현재)

과 목	내 역	수 입	지 출	잉 여 금
수 단 료	명의전, 경력기재금, 특별납입금 등	356,888,700		
찬 조 금	인원339명	64,265,000		
보 서 예 약 금	7,593帙	137,016,000		
보 서 판 매 대 금	7,480帙	859,870,000		
잡 수 입	이자등 기타	143,646,770		
수 단 정리 및 교정비			43,156,330	
총 제 작 비	한문번역료, 조판, 인쇄 제책료 기타 직간접제작비		567,528,000	
일 반 관 리 비			35,204,795	
합 계		1,561,686,470	645,889,125	915,797,345
미 판매 도서대금		23,510,000		939,307,345

(第1號表)

大同譜 編纂委員會 規約

第 1 章 總 則

第 1 條(名稱) 本 委員會는 海州崔氏 大同譜 編纂委員會(以下 本 委員會라 稱함)라 稱한다.

第 2 條(事務所) 本 委員會의 事務所는 海州崔氏 大宗會 事務所內에 둔다.

第 3 條(目的) 本 委員會는 文憲公誕辰 千周年 紀念事業으로 海州崔氏 大同譜(文憲公誕辰 千周年 紀念譜)를 發行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章 構成 및 任務

第 4 條(構成) 本 委員會는 大宗會 副會長團및 各系派와 地域宗親會에서 推薦하는 宗親으로 構成한다.

但 系派에 代議機構가 없을 때에는 大宗會 會長團이 委囑할 수 있다. 本 委員會에 常任委員會를 두며 常任委員은 5人 以內의 大宗會 副會長인 委員및 若干名의 委囑된 委員으로 構成한다.

第 5 條(任期) 本 委員會의 委員任期는 大同譜 發刊時까지로 하고 缺員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即時 그 後任委員을 選出한다.

第 6 條(召集) 本 委員會는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이를 召集하며 在籍委員 3分之1 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即時 委員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 7 條(成立과 議決) 本 委員會는 在籍過半數 以上의 出席으로 成立되며 議案은 出席委員 過半數 以上 贊成으로 議決한다.

大宗會 會長團은 本 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提示할 수 있다.

第 8條(任務) 本 委員會는 大宗會 決議에 依한 다음 事項을 管掌한다.

- 가. 大同譜 編纂
- 나. 大同譜 編纂에 따른 基本計劃과 豫算 決算에 關한 事項
- 다. 大同譜 編纂에 必要한 施行細則 制定에 關한 事項,
- 라. 其他 委員會 運營上 必要한 事項

第 3 章 任 員

第 9條(構成) 本 委員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 가. 委 員 長 : 1人
- 나. 副委員長 : 若干人
- 다. 幹 事 長 : 1人
- 라. 監 事 : 2人

다만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若干人の 顧問과 諮問 委員을 推戴할 수 있다.

第10條(選任) 委員長 및 副委員長은 大宗會會長團이 大宗會 運營委員會 (以下 運營委員會라 稱함)의 同意를 얻어 委囑하며 幹事長 및 監事는 大宗會 幹事長 및 監事が 兼任한다.

第11條(任期) 任員의 任期는 本 委員會의 存續時까지로 한다.

第12條(任務) 本 委員會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 가.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編纂業務를 統轄하고 委員會議의 議長이 된다.
- 나.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고 委員長 有故時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副委員長의 序列은 年令順으로 한다.
- 다. 幹事長은 委員長의 命을 받아 本 委員會의 實務執行을 管掌한다.
- 라. 監事는 本 委員會의 財政執行狀況 및 運營 全般을 監査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第 4 章 其 他

第13條(規約制定) 본위원회 規約의 制定 및 改正은 運營委員會에서 決定한다.

第14條(會務報告) 委員長은 運營委員會에 본委員會의 進行 狀況을 隨時 報告하여야 한다.

附 則

1. 본 規約은 通過된 날로부터 施行한다.(1986. 12. 13)
2. 본 規約은 改正된 날로부터 施行한다(1987. 5. 30)

(第2號表)

大同譜編纂委員

직 책	성 명	직 책	성 명
委員長	吉 竣(32世)	委 員	泰 鎮(生員公派)
副委員長	翼 列(29世)	"	甲 錫(生員公派)
"	洙 東(30世)	"	鶴 九(進士公派)
"	秉 倫(30世)	"	秉 夏(典翰公派)
"	龍 九(31世)	"	吉 鎬(典翰公派)
委 員	煥 周(司正公派)	"	聖 溥(判司僕寺公派)
"	愚(校理公派)	"	泳 鳳(承旨公派)
"	明 鎬(文貞公派)	"	益 善(左尹公派)
"	承 綬(大寧君派)	"	基 春(監察公派)
"	錫 天(書雲副正公派)	"	奎 炯(司評公派)
"	寅 善(典書公派)	"	昇 煥(海陵君派)
"	在 新(縣監公派)	實務委員	
"	康 賢(縣監公派)	幹事長	承 君(31世)
"	元 植(佐郎公派)	事務局長	炳 弼(31世)
"	泰 峯(佐郎公派)	編纂幹事	澄 植(31世)
"	鎮 滸(佐郎公派)		

(第3號表)

文憲公誕辰 千周年 紀念譜 編纂細則

第 1 章 名 稱

第 1 條 大同譜의 名稱은 「文憲公誕辰 千周年紀念譜」라 하고(以下 紀念譜라 함) 委員會는 「文憲公誕辰 千周年紀念譜 編纂委員會」라 稱한다(以下 委員會라 함.)

第 2 章 收單業務

第 2 條 모든 收單은 辛丑大同譜를 基準으로 하여 1987年 10月 1日부터 業務를 開始한다.

第 3 條 收單業務는 大宗會事務室에서 取扱함을 原則으로 한다. 但, 必要에 따라 各 支會 또는 系派事務室에서도 取扱할 수 있다. 이 경우 委員會의 承認을 얻어 必要經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 4 條 收單業務의 勸獎, 弘報, 收集等の 圓滑한 執行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委員長은 編纂委員 支會長, 系派宗親會長, 運營委員의 推薦을 받아 各 集姓村 또는 一定한 地域別로 指導委員을 委囑할 수 있다.

第 5 條 收單의 記載事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冠 : 男女의 區別없이 配偶者가 있는 경우를 冠으로 하고

가. 既婚男의 경우

名 · 生年月日, 死亡年月日, 墓地, 配偶者의 本貫, 姓名,
生年月日, 死亡年月日, 父의 姓名

나. 出嫁女의 경우

名·生年月日, 死亡年月日, 夫의 本貫, 姓名 그리고 그
子女에 限하여 姓名을 記載할 수 있다.(子女의 姓名字는
크기를 한 호수 낮춘다)

記 載 例

子 先 童 一八九二年 二月 一日 生 一九八〇年 三月 一日 卒 配金海 金順子 父一男 一八九五年 五月 一日 生 忌一九八一年 六月 一日 墓先塋下良座 合封 女 先 淑 一九〇五年 二月 五日 生 忌一九九二年 五月 五日 夫 安東張一東	子. 張吉龍 女. 張吉淑
---	------------------

- (2) 童記載例 : 男女의 區別없이 配偶者가 없는 경우를 童으로 하
고 記載事項은 名과 生年月日 및 經歷으로 한다.
- (3) 經歷 : 本人 또는 配偶者의 最終學校名과 學位, 勳章, 公務員
職級 및 社會的 經歷等を 本人의 申告에 依하여
登載하되 그 內容은 系派를 代表하는 委員이 確認
하여야 하며 不分明한 點에 對하여는 關係證憑書
類의 提示를 要求할 수 있다.
- (4) 年號 : 모든 年號는 新規登載分부터 西紀로 統一한다.

第 3 章 家藏翻譯

第 6 條 家藏 崔子全 文獻集 등에서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部分의 翻譯業
務를 推進키 위하여 委員會內에 小委員會를 두며 委員은 다음
과 같다.

委員長：吉 竣

委 員：愚, 康賢, 起鎬

第 4 章 收單料

第 7 條 收單料는 다음과 같이 徵收한다.

- (1) 冠：配偶者를 一組로 하여 組當 4,000원으로 한다.
- (2) 童：1人當 2,500원으로 한다.
但, 外孫은 徵收하지 아니한다.
- (3) 辛丑 大同譜에 登載된 者라도 現在 生存하고 있는 者는 冠, 童을 莫論하고 新規로 認定하여 全部 所定の 收單料를 徵收하며 辛丑譜上에 이미 死亡으로 記載된 者에 대하여는 經歷및 配偶者 姓名의 追加 等 一切의 加筆을 할 수 없다. 但, 墓所 移轉事由는 記載할 수 있다.
- (4) 經歷은 7字를 1行으로 하고 行當 10,000원으로 한다.

第 5 章 豫約金, 特別納入金 및 贊助金

第 8 條 辛丑譜 以前譜書에는 登載되어 있지 않으나 所屬系派가 確認되어 새로이 入譜를 希望하는 者는 當該系派의 擔當 編纂委員의 確認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特別納入金 100,000원 以上을 納付하여야 한다.

但, 擔當 編纂委員이 결원일 때에는 本 委員會에서 調査 決定한다.

第 9 條 自己의 系派및 世系를 正確히 알지 못하고 있는 者에 對하여는 本人의 希望에 따라 이번의 紀念譜에 限하여 末尾 附錄에 收錄하되 特別納入金 100,000원 以上을 納付하여야 한다.

第 10 條 (1) 譜書 編纂에 對한 贊助金은 姓名과 金額을 大宗會報와 앞

으로 發刊되는 宗誌에 掲載하도록 하고 特히 100,000원 以上을 贊助한 者에 對하여는 紀念譜 附錄에 金額과 姓名을 記載하도록 한다.

(2) 1,000,000원 以上 贊助한 宗親에게는 譜書 1帙을 贈呈하기로 한다.

第11條 紀念譜의 出版과 普及을 促進키 爲하여 譜書 購入希望者로부터 豫約金を 帙當 20,000원式을 納付케 하고 豫約分에 對하여는 普級價의 10% 程度를 控除한 金額으로 引渡한다.

第 6 章 會 計

第12條 紀念譜 編纂에 따른 收入 支出은 大宗會 一般會計와는 別途로 特別計定을 設定整理하여 何時라도 그 內容을 公開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經常費 以上の 支出에 對하여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第13條 모든 收入은 다음에 依하여 處理한다.

- (1) 領收證은 別紙와 같은 書式으로 3枚複寫用만을 使用하여야 하며 原本은 保管用, 1通은 交付用 그리고 副本은 收單用紙에 添附한다.
- (2) 領收證은 1冊當 100枚로 하여 1番에서 100番까지 一連番號를 附하고 領收證 冊別 番號를 記入하여 冊의 受拂을 明確히 한다.
- (3) 書損된 領收證 用紙는 그 事由를 記載後 原副本을 그대로 保管하여야 한다.
- (4) 收單料等 모든 現金을 受領時에는 반드시 本領收證을 交付하여야 하며 本 領收證을 使用하지 아니한 現金受領行爲에 對하여는 大宗會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함을 널리 弘報한다.
- (5) 大宗會 事務局에서는 收入帳을 備置하여 다음과 같이 收入狀

況을 一目瞭然하게 整理한다.

가. 收入年月日

나. 領收證冊의 號數와 領收番號

다. 納付者

라. 收入科目

1. 冠 : 人員數 및 金額

2. 童 : " "

3. 經歷 : 行數 및 金額

4. 特別納入金

5. 譜書購入豫約金 : 帙數 및 金額

6. 贊助金

7. 其他 收入

8. 合計

第14條 監査는 每分期마다 監査를 實施하여 그 結果를 本 委員會 및 運營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7 章 編輯 및 體裁

第15條 編輯은 辛丑譜를 根據로 한다.

第16條 印刷用紙는 特別코팅紙로 하며 印刷는 寫植組版과 平版印刷로 한다.

第17條 體裁는 A倍版 7段組로 하며 洋裝 8卷1帙로 한다.

第18條 校正은 各 系派別 擔當委員의 責任으로 하며 誤記 誤字 等 一切의 最終 責任까지를 同委員이 負하기로 한다.

第 8 章 其 他

第19條 各 委員은 다음과 같이 業務를 分擔하여 直接 指導 監督한다.

業 務 分 擔 表

(系派順)

委 員 姓 名	擔 當 系 派	擔 當 地 域	摘 要
煥 周	司 正 公	서울 仁川	
愚	校 理 公	서울 京畿道	
明 鎬	文 貞 公	서울 忠淸道	
翼 列	大 寧 君	忠淸道	
承 綬	大 寧 君	江原道	
錫 天	書 雲 副 正 公	京畿道	
寅 善	典 書 公	서울	
康 賢	縣 監 公	서울 京畿道	
在 新	縣 監 公	全羅道	
元 植	佐 郎 公	서울 京畿道	
泰 峯	佐 郎 公	釜山 慶尙道	
鎭 澁	佐 郎 公	慶尙道	
泰 鎭	生 員 公	忠淸道	
甲 錫	生 員 公	慶尙道	
鶴 九	進 士 公	慶尙道	
龍 九	典 翰 公	서울, 京畿道	
吉 鎬	典 翰 公	全羅道	
秉 夏	典 翰 公	京畿道	
秉 倫	判 司 僕 寺 公	서울	
聖 溥	"	仁川	
洙 東	承 旨 公 · 將 仕 郎 公	光州 慶尙道	
泳 鳳	承 旨 公	全羅道	
益 善	左 尹 公	서울	
基 春	監 察 公	京畿, 全羅道	
奎 炯	司 評 公	서울	
昇 煥	海陵君 · 僕射公	京畿, 忠淸, 全羅道	

別紙書式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h1 style="margin: 0;">領 收 證</h1>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領收證冊號數 _____ 領收番號 _____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一 金 원 整 ₩ </div>				
<h2 style="margin: 0;">內 譯</h2>				
구분	員數	金額		
冠			幹 事 長	
童			事 務 局 長	
經 歷				
特別納入金			現 金 受 領 人	
豫 約 金				
贊 助 金				
			收 入 帳 記 入	
			監 事	
合 計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上記金額을 正히 領收함</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198 年 月 日</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大憲公誕辰千周年紀念譜編纂委員會</p> <p style="text-align: center;">住所</p> <p style="text-align: center;">姓名 貴下</p>				

(第4號表)

收單業務指導委員名單

司校文	正理貞	公公公	派派派	在偉英老在溶秉元完昌光欽世元仁	文根憲壽成福甲鉉春變赫德雄默植	炳榮秉洪甲星鍾	安變萬筆老老振	基在秉在秉海	德鳳賢輓善鎮	八仁殷萬仁澄	鎬錫變變變植	炳上泰周裕	周柄變溥鎮
大書縣佐	寧副監郎	君正公公	派派派	元完昌光欽世元仁	在變愛泰南洙鉉生殷善洪善熙洙植烈天宇變	元光東吳鳳	善勳變龍鎬	小光鎮晚仁	炫宇成秀煥	在炳在炳尙	日學權珏鶴	允榮鎮榮	植錫斗述
生進典判承	員士翰僕司旨	公公公	派派派	碩良秉炳鍾鳳采圭在長泳洸秉貳華相炳昌熙	在變愛泰南洙鉉生殷善洪善熙洙植烈天宇變	連東秉	壽洙模	溶今	仁變	聖丁吉泳宗	欽太柱仁柱	一泰泳載	炳錫澤休
進將進左監	士仕士尹察	公(尹)公(卓)公公	派派派	在長泳洸秉貳華相炳昌熙	在變愛泰南洙鉉生殷善洪善熙洙植烈天宇變	起慶景利東聖	雲鎮彥涉植浩	在判柄正涓榮	球鎮準洙植柱	壽福	天	琮堡	琮堡
少典海	尹書陵	公(河)君	派派派	在長泳洸秉貳華相炳昌熙	在變愛泰南洙鉉生殷善洪善熙洙植烈天宇變	載定	仁甲	載	天	壽福	天	魯明	倫東
				在長泳洸秉貳華相炳昌熙	在變愛泰南洙鉉生殷善洪善熙洙植烈天宇變	載昌	完烈	魯明	鉉綠	璋道	變植	倫東	圭變

(第5號表)

贊助金寄託宗親芳名錄

名	譽	會	長	在	衡	2,000,000
會			長	元	植	5,000,000
首席副會長	(譜書編纂委員長)			吉	峻	3,000,000
副		會	長	天	溥	2,000,000
		同		洙	東	2,000,000
		同		用	根	2,000,000
		同		萬	基	2,000,000
		同		龍	九	2,000,000
		同		翼	列	1,000,000
		同		奉	燮	1,000,000
		同		明	煥	1,000,000
		同		秉	倫	1,000,000
顧			問	龍	珠	1,000,000
監			事	東	植	1,000,000
宗	誌	編	纂	俊	基	500,000
	同	副	委		愚	1,000,000
	同	副	委	康	賢	1,000,000
幹		事	員	承	君	1,000,000
運	營		員	光	茂	1,000,000
	同	(城	東	永	哲	1,000,000
運	營	區)	委	仁	求	1,000,000
	同	(仁	川	昌	浩	1,000,000
副	幹	北	區)	焯	正	500,000
運	營	事	長	光	高	500,000
		委	員	萬	秀	500,000
		同		在	烈	500,000
전남강진군동면용소리				昌	燮	300,000
佐郎公派서울中和洞門中						500,000
事業幹事						

서울구로구신도림동	鍾根	100,000
서울구로구오류동	鍾漢德	100,000
서울구로구오류2동	鍾忠植	100,000
서울노원구월계2동	鍾吉盛	100,000
서울도봉구수유3동	鍾光弼	100,000
서울도봉구미아7동	鍾昌植	100,000
서울동대문구이문3동	鍾老春	100,000
서울동대문구제기2동	鍾相植	100,000
서울동작구상도4동	鍾相顯	100,000
서울동작구신대방동	鍾鍾禮	100,000
서울마포구대흥동	鍾承學	100,000
서울마포구성산동	鍾閨燮	100,000
서울마포구용강동	鍾榮壽	100,000
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	鍾渭老	100,000
서울서초구반포2동	鍾鎭弼	100,000
서울서초구방배동	鍾萬根	100,000
서울서초구서초동	鍾在植	100,000
서울서초구서초동	鍾在寬	100,000
서울서초구서초동	鍾在虎	100,000
서울서초구서초동	鍾榮垌	100,000
서울성동구금호동	鍾光國	100,000
서울성동구마장동	鍾永善	100,000
서울성동구중곡동	鍾承俊	100,000
서울성동구중곡1동	鍾東植	100,000
서울성동구성수동1가	鍾炳安	100,000
서울성북구장위2동	鍾東原	100,000
서울성북구하월곡동	鍾允根	100,000
서울성북구하월곡동	鍾玉千	100,000
서울송파구문정동	鍾仁範	100,000
서울양천구신정1동	鍾浩範	100,000
서울양천구목2동	鍾永哲	100,000
서울영등포구신길5동	鍾太郎	100,000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下仙	100,000
서울 은평구 녹번동	俊植	100,000
서울 종로구 평창동	載噉	100,000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承錄	100,000
서울 중구 신당 2동	光元	100,000
서울 중구 신당 2동	榮燮	100,000
서울 중구 신당 5동	宗順	100,000
서울 중랑구 중화동	性壽	100,000
釜山 금정구 부곡 2동	在日	100,000
大邱 남구 대명 10동	道植	100,000
仁川 남구 송의동	道承璉	100,000
仁川 남구 옥연 1동	仁順	100,000
仁川 남구 주안 7동	璣燮	100,000
인천 남동구 구월 2동	昌烈	100,000
인천 남동구 만수동	常彦	100,000
인천 동구 화수 1동	光浩	100,000
인천 북구 청천동	永溥	100,000
인천 북구 청천동	順龍	100,000
光州 서구 주월 1동	炳勳	100,000
大田 대덕구 범동	益壽	100,000
大田 동구 오정동	文溥	100,000
大田 중구 호동	鎭燮	100,000
京畿 부천시 남구 상동	俶鉉	100,000
京畿 부천시 남구 심곡동	先昌	100,000
京畿 부천시 남구 송내동	君三	100,000
京畿 부천시 중구 원종동	壽燮	100,000
京畿 수원시 지동	承福	100,000
京畿 안양시 관양동	英燮	100,000
京畿 안양시 안양동	聖善	100,000
京畿 안양시 안양 8동	鍾賢	100,000
京畿 의왕시 내손 2동	熙大	100,000
京畿 의정부시 신곡동	昌植	100,000

京畿강화군교동면지석리	貞洙	100,000
京畿김포군양촌면학운리	明淳	100,000
京畿안성군안성읍신흥동	承鎬	100,000
京畿안성군삼죽면용월리	八鎬	100,000
京畿용인군남사면원암리	秉夏	100,000
京畿용인군수지면성복리	鍾弼	100,000
京畿이천군부발면신하리	夏榮	100,000
京畿과주군광탄면신산리	京鉉	100,000
京畿과주군과주읍향양리	殷敏	100,000
京畿평택군고덕면율포리	光洙	100,000
京畿포천군관인면삼울리	光雲	100,000
京畿화성군봉담면상3리	壹權	100,000
京畿양주군남면신산리	斗基	100,000
京畿여주군북내면주암리	在元	100,000
京畿안성군안성읍연지동	椿泳	100,000
江原춘천시죽림동	庚喆	100,000
江原동해시북3동	承萬	100,000
江原속초시중앙동	淳哲	100,000
강원횡성군공근면어둔리	順泰	100,000
忠北제천시청전동	光烈	100,000
忠北단양어상천면대전리	在鉉	100,000
忠南온양시권곡동	老壽	100,000
忠南천안시다가동	義淳	100,000
忠南당진대호지면송전리	永大學	100,000
忠南당진군면천면송학리	興大學	100,000
忠南당진군신평면신송리	秉萬	100,000
忠南당진군우강면부장리	在鳳	100,000
忠南보령군청라면의평리	明植	100,000
忠南보령군청라면의평리	光亨	100,000
忠南서천군비인면칠기리	上柄	100,000
忠南아사군도고면신언리	重益	100,000
忠南아산군둔포면장재리	光爽	100,000

忠南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	裕 鎭	100,000
忠南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起 燮	100,000
忠南 홍성군 홍성읍 신성리	秉 奭	100,000
忠南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三 相	100,000
忠南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興 燮	100,000
忠南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	喜 燮	100,000
忠南 공주군 유구면 문금리	容 喆	100,000
全北 전주시 동산동	長 鎬	100,000
全北 전주시 평화동	廷 燮	100,000
全北 군산시 신창동	頌 基	100,000
全北 이리시 용제동	大 欽	100,000
全北 고창군 대산면 해룡리	寅 燮	100,000
全北 옥구군 옥구읍 어은리	鬯 均	100,000
全北 완주군 비봉면 대치리	東 均	100,000
全北 익산군 삼기면 오룡리	秉 甲	100,000
慶北 구미시 사곡동	佑 鎬	100,000
慶北 포항시 죽도동	聖 玉	100,000
慶北 문경군 영순면 포내리	鶴 九	100,000
慶北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炳 珏	100,000
濟州 서귀포시 중앙동	斗 玉	100,000
濟州 남제주원읍 신례리	永 秀	100,000
佐郎公派 雙栢堂門中		100,000
生員公派 慶北蔚珍門中		100,000
生員公派 黃海道海南門中		100,000
監察公派 慶南晋陽門中		100,000
承旨公派 慶北盈德門中		100,000
경기 광명시 광명4동	文 源	67,000
運營委 員	在 權	50,000
서울 구로구 개봉동	承 燮	50,000
서울 도봉구 수유5동	載 賢	50,000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壽 益	50,000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昌 舜	50,000

서울 송파구 가락동	英植	50,000
서울 은평구 불광1동	五男	50,000
부산 동래구 온천동	成鉉	50,000
인천 남구 옥연동	光春	50,000
인천 남구 청학동	成根	50,000
경기 안양시 관양동	滿變	50,000
경기 강화군 하점면 신삼리	八成	50,000
경기 파주군 금촌읍 근촌리	昌根	50,000
경기 포천군 화현면 화현리	載壽	50,000
충남 금산군 부리면 관천리	鶴洙	50,000
충남 서산군 운산면 상성리	梯烈	50,000
충남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富吉	50,000
전북 익산군 춘포면 쌍정리	玉山	50,000
인천 남동구 간석1동	興允	33,000
서울 구로구 시흥동	炳天	30,000
서울 양천구 신정1동	承哲	30,000
서울 영등포구 당산1동	上鉉	30,000
광주 서구 봉선동	永培	30,000
인천 남구 청학동	鑿	30,000
인천 북구 부평2동	光天	30,000
충북 청주시 사직동	鍾河	30,000
충남 금산군 부리면 관천리	應洙	30,000
충남 금산군 부리면 관천리	欽德	30,000
충남 아산군 도고면 덕암리	永培	30,000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欽文	30,000
서울 강남구 대치동	炳斗	20,000
서울 강동구 신천동	富基	20,000
서울 마포구 서교동	泰炯	20,000
서울 성북구 성북동	榮桓	20,000
서울 송파구 가락동	鳳順	20,0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榮鎬	20,000
인천 남구 만수동	鍾喆	20,000

인 천 남 구 주 안 동	炳 洙	20,000
경 기 이 천 군 대 월 면 단 월 리	廷 煥	20,000
경 기 파 주 군 파 주 읍 백 석 2 리	鎭 燮	20,000
충 북 영 동 군 양 산 면 가 선 리	元 俊	20,000
충 남 금 산 군 금 산 읍	在 龍	20,000
충 남 금 산 군 부 리 면 관 천 리	德 善	20,000
"	滿 善	20,000
"	昞 洙	20,000
"	錫 基	20,000
"	盛 德	20,000
"	承 宰	20,000
"	完 吉	20,000
"	允 洙	20,000
"	禎 基	20,000
"	讚 洙	20,000
"	彰 鶴	20,000
"	泰 玉	20,000
"	欽 福	20,000
"	欽 泰	20,000
충 남 금 산 군 남 일 면 읍 대 리	鉉 洙	20,000
전 북 무 구 준 설 천 면 진 리	元 圭	20,000
전 남 나 주 군 반 남 면 덕 산 리	學 善	20,000
경 북 김 천 시	鍾 雲	20,000
서 울 강 남 구 개 포 동	炳 求	10,000
인 천 중 구 신 흥 동 3 가	炳 曄	10,000
경 기 수 원 시 권 선 구 인 계 동	秉 斗	10,000
경 기 안 성 군 대 덕 면 내 전 지 리	炳 基	10,000
강 원 양 구 군 해 안 면 현 2 리	達 守	10,000
충 북 단 양 군 가 곡 면 보 발 리	允 奎	10,000
충 남 천 안 시 원 성 동	秉 熙	10,000
충 남 금 산 군 부 리 면 관 천 리	喜 湊	10,000
충 남 당 진 군 합 덕 읍 운 산 리	秉 植	10,000

충남당진군대호지면적서리	秉 玉	10,000
충남당진군신평면금천리	元 植	10,000
충남당진군우강면송산리	大 植	10,000
〃	籠 植	10,000
충남예산군예산읍예산리	秉 宇	10,000
충남예산군대술면산정리	雨 植	10,000
충남예산군덕산면둔리	道 植	10,000
충남예산군신암면용궁리	貞 植	10,000
〃	忠 植	10,000
〃	孝 植	10,000
충남홍성군홍성읍오관리	侖 錫	10,000
대전중구용두2동	東 壽	5,000
경기성남시신흥1동	秉 圭	5,000
충남당진군합덕읍운산리	啓 淳	5,000
충남예산군예산읍신례원리	光 燮	5,000
충남예산군삽교읍하포리	鎬 燮	5,000
충남예산군신암면신탉리	悌 植	5,000
충남예산군신암면조곡리	龍 燮	5,000

(第6號 表)

大同譜 頒布 規程

1. 大同譜의 頒布價格은 事前 豫約分과 非豫約分으로 區分하되 非豫約分은 帙當 200,000원으로 하고 豫約分은 帙當 140,000원(豫約金包含)으로 한다.
2. 譜書의 引渡場所는 大田市 所在 回想社와 大宗會事務室로 하고 非豫約分은 大宗會事務室로 局限하며 引渡業務는 1990年 12月 20日 부터 開始한다.(引渡時間 : 平日은 午前9時부터 午後 5時까지 土曜日은 午後 3時까지 公休日은 休務)
3. 譜書를 引受하고자 할때에는 事前에 大宗會事務局에 代金を 納付하고 出庫證을 交付받아 指定된 場所에서 引受한다.
이 경우 引受者의 도장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하며 萬一 出庫證을 紛失하였을 때에는 所屬系派 收單指導委員의 保證을 받아 再發給받을 수 있다.
4. 譜書代金を 郵便換證書로 송금할 때에는 大宗會事務局으로, 現金으로 송금할 때에는 다음의 金融機關을 利用하되 반드시 豫約者名義로 송금함과 동시에 송금자의 所屬系派, 住所, 姓名, 大宗會接受番號, 豫約領收證番號, 引受 希望場所等を 書面 또는 電話로 大宗會에 통보하여야 하며 大宗會事務局에서는 入金을 확인 즉시 別지서식의 領收證과 出庫證을 送金者에게 登記우편으로 郵送한다.
5. 豫約者中 大宗會事務室에서 譜書를 引受할 때에는 帙當 140,000원中 豫約金 20,000원을 除外한 120,000원을 納付하여야 하고 回想社에서 譜書를 引受하고자 할때에는 豫約金 20,000원과 引受經費 5,000원을

除外한 115,000원만을 納付하되 引受經費 5,000원은 引受者가 積의 비용으로 充當한다.

6. 大宗會事務室에서 譜書를 引渡할 때에는 豫約分에 限하여 帙當 5,000원씩을 別도 口座로 정리하여 인도 인수에 따른 비용에 充當하되 使用內譯을 수시 監査받도록 한다.
7. 譜書의 引受便宜를 도모키 위하여 所屬系派 收單指導委員 및 門中代表는 豫約分을 一括하여 代金を 납부하고 出庫證을 교부 받아 譜書를 引受한 後 各豫約者에게 直接 引渡할 수 있다.
이 경우 收單指導委員 및 門中代表는 代金納付時에 別紙 書式의 譜書代金 一括 納付明細書 1通을 大宗會事務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大宗會事務局에서는 별지 서식의 譜書受拂簿와 譜書豫約 및 引渡整理簿를 비치하여 그 受拂狀況을 一目瞭然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9. 大宗會事務局에서는 豫約者 全員에게 譜書 引渡에 관한 案内文을 발송한다.(案内文에는 大宗會接受番號 豫約領收證番號, 帙數를 記入한다.)
10. 回想社에서는 1991年 2月末日까지만 出庫業務를 취급하고 그 後부터는 大宗會事務室에서 出庫를 專擔한다.
11. 譜書豫約은 1991年 2月末日 까지 계속 접수한다.

第 號

第 號

第 號

原 簿

領 收 證

出 庫 證

大宗會接受番號	
豫約領收證番號	
帳數	帳
金額	원
引受者姓名	
引渡場所	
區分	豫約, 非豫約
上記金額을 正히 領收함	
199 年 月 日	
海州崔氏大同譜編纂委員會	
取扱者印	
※ 取扱者の捺印이 없는 것은 無效임	
住 所 名	
姓 名	
貴下	
豫約原簿整理印	

大宗會接受番號	
豫約領收證番號	
帳數	帳
金額	원
引受者姓名	
引渡場所	
區分	豫約, 非豫約
上記金額을 正히 領收함	
199 年 月 日	
海州崔氏大同譜編纂委員會	
取扱者印	
※ 取扱者の捺印이 없는 것은 無效임	
住 所 名	
姓 名	
貴下	

大宗會接受番號	
豫約領收證番號	
帳數	帳
金額	원
引受者姓名	
引渡場所	
區分	豫約, 非豫約
上記金額을 正히 領收함	
199 年 月 日	
海州崔氏大同譜編纂委員會	
取扱者印	
※ 取扱者の捺印이 없는 것은 無效임	
回 想 社 貴中	
大田市東區中洞 47-4	
電話：(042) 253-9881~3番	
出庫日字	引受者
姓 名	印
電 話	話

金融機關 口座

가. 여의도우체국(우편대체)

계좌명의 : 해주취씨 대종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4)

계좌번호 : 012591-31-2807816

나. 농협 여의도지점

계좌명의 : 해주취씨 대종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4)

계좌번호 : 083-01-188122

祝

宗誌第2輯發刊

大宗會總務幹事 崔光宇

서울特別市 中浪區 面牧2洞 138-3

電話 : 434-8048 番

特殊
法人

銃砲火藥安全技術協會

教材課長 崔道植

(大宗會財務幹事)

서울特別市 冠岳區 新林8洞 1657-16

電話 : (職) 515-2342, (自) 855-7171 番

東亞日報方背支局長 崔鳳燮

(大宗會弘報幹事)

서울特別市 瑞草區 方背洞 460-27

電話 : (職) 591-5112, 536-4550

(自) 582-8773 番

譜書編纂을讚함

頌 基

(佐郎公派)

先賢이 이른바 天地之間 萬物之衆에 惟人이 最貴라 했듯이 인간이란 가장 고귀한 존재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바 대저 인류의 起源은 유구하되 그 역사는 數十世紀에 불과하니 이것은 文물의 發祥함에 비로서 각자의 출처와 始祖 先祖의 諱와 내력등 유래를 알지 못하고서야 어찌 人生이라고 할수 있으랴.

인류는 知性이 발달함에 따라 복잡 다기한 사회상을 영구히 유전하기 위하여 史乘과 文獻을 歷編하였던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先人들의 記述이 없었던들 반만년의 人類史를 자세히 알수 없을 것이다. 하물며 각자 선조의 懿德과 行誼를 사실대로 記述하여 百世後裔로 하여금 선조의 업적을 繼述하여 懿德을 본 받아서 그 行誼를 習得 이행 하도록 함이 어찌 긴요치 않으리요.

澄心靜慮 하건대 우리 해주최씨는 受姓以來로 유구한 세월이 지나는 동안 道德 文章 節義 勳閥이 彬彬하여 세칭 三韓의 古家요 羅麗의 名門 勳族이나 누차의 병화를 겪고 雲仍이 零替하여 祖先의 偉蹟 기록이 稀少하니 세대가 흐름에 따라 더욱 泯沒하겠기에 항상 이를 畏懼 留念하여 오던중 今世에 우리 해주최씨중 茂士들이 輩出됨이여!! 元植大宗會長 영도하에 吉坡大同譜 編纂委員長을 중심으로 辛丑譜 이후 宗族의 蕃衍과 六二五 전란 등등으로 인한 收單등 未洽함을 補填키 위한 修譜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들의 先祖이신 文憲公誕辰千周年紀念譜(庚午譜)를 편수함에 心一心力一力 叡智를 총집결 정성 어린 爛商討議를 거듭하여 선조의 懿德 至行을 간직하시고 崇祖 榮孫의 대의에 입각한 열과 성의를 다하시

여 남한에 산재한 二十여만 僉宗
일동의 대망의 紀念寶鑑을 완성
頒布하였고 아울러 在海州文憲書院
이 人於異域하여 闕享이 近五十星
霜에 至하여 우리海州崔氏 전체의
恨이 맺이게하여 오던중 京畿道
烏山市 內三美洞 禎祥之地에 文憲
書院 건립을 추진중에 있음은 宗族
의 榮枯盛衰와 隆替消長을 後人에
體得할수 있도록 傳承하고 祖先의
懿德偉行을 繼述하는 위대한 炭業
을 이룩하는 큰 기대를 가짐과 더불어

어 宗族間에는 돈독한 화목을 성취
할 수 있음과 동시에 국내 다른
宗族의 模楷가 되었으면 하며 우리
해주최씨 문중의 일대 盛事가 아닐
수 없으며 실로 欣喜雀躍의 感이
없지 않아 慶賀하여 마지 않는바이다.

끝으로 叙上炭業에 공이 큰 元植
大宗會長님과 吉俊大同譜編纂委員
長님 및 各實務委員宗人님들의
劬勞에 대하여 衷心으로 감사드리
며 拙文 불구하고 讚한다.

取 扱 品 目



- 대림요업, 대림통상, 로얄-TOTO代理店
- 위생도기 및 각종타일 도산매
- American Standard, Kohler. (美國)
- TOTO. INA. (日本)
- GROHE. (獨逸)



株式 永昌陶器
會社

代表理事 崔慶善
(大宗會運營委員)

서울特別市 中區 乙支路三街 五一五

電話 : (職) 275-2270(代), 273-6555~7, 6831-3
(自) 962-3229 番

獄中에서 冤死하신

雙栢堂 崔沂 할아버지

光 普

(雙栢堂 14代孫)

字는 淸源이요 號는 西村 또는 雙栢堂, 海州人으로 高麗 文憲公 冲의 後孫이요 宣傳官 汝漑의 子며 李朝 明宗 八年 癸丑生으로 宣祖 十八年 乙酉年 司馬에 오르고 그해 가을에 文科에 登하고 承文院 權知副正字에 補하고 淸要의 官을 歷하니 內職으로는 刑曹參議 右副承旨 判決使가 되었는데 이때 李爾瞻 朴承宗 柳稀奮은 權勢가 대단한 터로 自然軋轢이 甚하였고 그中 李爾瞻은 朴柳를 謀陷하여 그 權勢를 除去하는 同時에 그 派黨을 한꺼번에 없애란 惡計로 祕密리에 海州의 朴希一 朴以彬이란 者 둘을 불러 上變할 것을 指示하였으니 그 上變의 事由는 癸丑獄事에 亡命하여 海西로 간 사람들 山谷中에 숨어있으며 徒黨을 鳩聚하여 亂을 꾸민다는 構誣이었다.

그리하여 希一 以彬의 두 朴哥는 元來 行實이 不良한터로 이번에 또 上變함을 들은 父兄들은 크게 두려워하여 (두놈은 容恕치 못할 舊惡이었다) 그 罪目을 一一이 牧使에게 告白하였고 牧使 沂는 兩朴의 上變書가 모두 當時의 名流人物들을 構誣한 것임으로 그 上變狀을 볼때 태워버리고 또 그 父兄들은 兩朴을 迫하여 自殺케하였다.

그런데 이런 事實을 모르고 李爾瞻은 이날 저날 기다리는 兩朴이 오래도록 歸還報告가 없음을 怪異하게 生覺하고 다시 宣傳官 兪世曾을 密派하여 偵察케 하였는데 黃海監司 尹調元이 이 기미를 알고 兪世曾에게 厚賂를 써가며 事件內容을 알아 가지고 自初 兩朴의 上變과 崔沂의 燒棄事實을 上聞케 하였다. 이리하여 兩朴까지 들고 일어나서 牧使 崔沂를 잡아 鞠問할

것을 請하고 沂는 自進하여 事由를 따지려할세 떠나기도 前에 奸黨 許筠은 沂의 婿 柳燦에게 急書를 보내어 如此 如此하면 牧使는 無事可免 하리라 하였는데 其書의 內容이 極히 凶險하여 차마 들을 수 없게된 辭言이었다.

그렇지만 沂는 毅然하게 그런 詐術에 動搖치 않고(曰(死生은 有命인즉 他人에게 轉禍하고 自免하려함은 吾, 取치 않는바라)하고 將次 對訊할 때에 모든 眞狀을 暴露할 態度를 보였음으로 爾瞻은 듣고 大懼하여 다시 心服者를 海州에 보내어 死囚中에서 沂와 척진者를 골라서 그 者로 하여금 逆魁는 바로 崔沂인 것으로 告發하도록 꾸미고 또 兩朴의 죽음도 兩朴이 그런 일을 아는 까닭에 緘口之策으로 沂가 故殺한양 말하게 하여 爾瞻의 한패인 諸奸들은 이에 嚴刑을 加하여 沂는 드디어 獄中에서 冤死하고말았다.

그리고도 얼마後에 大逆으로 追論하여 既葬한 屍身까지 發掘加戮하였으며 이 獄事에서 冤死한 사람이 數百人에 達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마다 惜치 않은사람이 없었다.

仁祖가 反正한 뒤에 그冤을 雪하고 吏曹判書 兩館大提學으로 贈職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沂의 아들 有石도 當 十七세에 先親과 함께 三族清流之事의 慘禍로 投獄되어 追刑 卒於獄中溺宅하였다. 有石 慘禍是年 十七세에 夫人 慶州李氏 (父 判事 如珪)는 生 一男 諱 瀾을 丙辰年에 낳으시고 滿六個月만에 獄中 卒하시였다.

이리하여 雙栢堂 一家가 全滅에 處置된 것이다. 天地神明에 保護인지라 續男 瀾은 乳母와 婢僕의 등에 얹혀 야밤 도주하여 東으로 東으로 질주타가 當時 地名인 楊根 西終面 葛麻洞에 이르러 避身 隱居하고 長成하였다. 夫人 全州李氏 (父 司評(正六品) 惟清)를 맞아 子 世慶을 나시고 五年後 二十세에 卒하심이니라. 政局은 이미 反正되어 仁祖三年 癸亥(1623) 亂後 八年만에 反正하심이니라 曾孫 世慶은 六歲에 일찍히 아버지를 여의시고 春雨先生之門에 學問을 읽히시니 公은 德山縣監至通訓大夫期中에 先祖冤禍之事後爲 先事에 서둘러 着手하시였다. 爲先曾祖 諱 沂 雙栢堂과 祖 贈持平 諱 有石 父子 遺骸를 先親의 墓所이며 公이 出生한 故鄉 楊根에 各各 改葬하여 모시고 雙栢堂 山所는 現 京畿道 楊州郡 西終面 葛麻洞 癸坐에 모시고 祖父山所

는 楊州郡 龍門面 中源洞에 모시었다. 그리고 定州에 達川祠 慶州에 東溟祠 海州에 秉倫祠를 建立케 하시고 外玄孫 正字(正九品) 洪儻이 年譜와 遺事를 지어 雙栢堂을 配享하였다.

이같이 爲先事に 많은 業績을 세우시고 末年에 나라에서 忠南 保寧郡 靑羅에 賜蹟地를 指定받으시고 落鄉하여 사시다 卒墓 保寧郡 靑羅面 內峴里 馬按山 戌坐이다. 이로말미암아 雙栢堂系後孫이 脈을이어 오늘에 이르러 雙栢堂系 門中會 會長 崔允植 雙栢堂 十三代孫은 全後孫들의 힘을모아 現在 楊州等地에 모시여져 있는 雙栢堂 沂 할아버지墓와 贈持平 有石墓와 漢(德士公) 할아버지의 三代墓가 不幸히 他人所有 林野의 名儀로 된것을 痛感한 나머지 年次的 移葬計劃을 세워 서둘러 誠金을 募金中에 있어 앞으로 期待되는바 크다(歷代崔氏名人 傳과 雙栢堂遺事實錄에서)

祝

宗誌第2輯發刊

專門建設業

알미늄, 스텐레스製品 都小賣

利川金屬商社

社長 崔昌燮

(大宗會事業幹事)

營業場所 : 서울 九老區 開峰洞 353-1

電話 : 612-9666, 685-4445~6

自宅 : 서울 江南區 淸潭洞65 진흥아파트 6동 501호

電話 : 542-1935 番

義士 崔在範(字 範九)

泳 澤

(30世孫)

公은 憲宗15년己酉(1849)에 全南 和順郡東面桐林洞에서 27世諱炳鶴의 子로 태어나니 宣祖朝 임진왜란 시 繼의병대장 崔慶長장군의 11代 孫이며 司諫公諱時淳의 曾孫이다. 公은 敦學博識하고, 필법이 특이했다하며 팔척 거구로 위용이 출중하여 장차 큰 人物이 될 사람이라 보느니마다 위압감이 들었다한다. 公이 東學에 가담하여 義擧할때에 倭兵이 東學을 진압함을 빙자하여 國政을 침입함에 이를 분개한 公은 왜구를 물리침의 선봉장이 되어 捷守攻防을 화순과 담양 두곳에서 벌였으니 潭州山城下신흥리에 설진하고 주변 基洞城峙成道리에 望哨壇을 설치하여 자택(지금의 신흥리 633번지건물)에 동지를 규합하니 同助連絡責 崔在基, 崔在希, 金字一 등도 동참했다. 精兵場은 자택의

뒷산 潭州山城趾라 高宗31년甲午1 1月連이은 大雪寒風이 몰아치는날 潭陽南面外東里 곳굴에서 倭兵과 抗戰中被逮되어 和順으로 押送중 장터에서 포박한채로 장작불덤이 위에 生火刑葬하여 公은 모진참화의 불길속에서 永眠煙裡하니 人顔 目不見의 天痛의 憤冤이였어라 連擊因戚은 東離西散하고 公의 遺記物은 水土埋沒 燒却하고 혹은 散失되었으니 不傳遺物이 아쉬울뿐이라 1986년에 公의 曾孫 秉寬氏가 公의 墓를 이장키위하여 合葬된 墓를 발굴하니 公의 盡後 九拾參年이라 公遺骨은 遺灰뿐이라 보느니 一時에 솟아오른 분노에 발굴의 일손을 멈추기도 했는데 配位의 遺骸는 온전하여 夫君과는 대조적이었다.

증손 秉寬氏가 孝心과 至誠을

다하여 東林洞 後麓에 石儀를 갖추어 安葬해 奠香을 하게되니 이 聖域을 지나는 사람들은 九泉에서나마 公의 安寔을 빌도다.

이에 한 門孫이 香을 올리고 다음과 같이 詩를 咏吟하여 公의 冥命을 安慰하노라.

忠國丹心家承傳

나라위한 충정은 집안의 내림이
요.

八尺壯軀對敵敵

팔척의 몸 적앞에 날쌔 장수로
다.

偉勇一掃千敵首

위용은 한손으로 천사람의 적을
쓸고도 남고

未畢義憤百心恨

못다이룬 의분에 골백번 한이
서렸네

永眠薪煙火刑場

생화장 화염속에 연기되어 사라
지니

悽慘衝天無神明

참혹함이 하늘을 찢러 신명도
무심했네

荒林灰陵月影靜

거치른 숲 재의 무덤 달빛은 고요
한데

義聲傳蘇千世聞

의로운 소리는 죽지않고 천세를
들리리리

따라서 公의 夫人 義烈漢陽趙氏

婦人의 殉義를 吟咏해 보면

從夫至協夫義死

따르는 지성에도 부군은 의로히
가고

孤憤一身未已恨

그분함 죽지못해 삶이 한 서렸네
敵圍刀創無散容

둘러친 적의 창칼에 흐트러짐이
없으니

烈節氣像萬人仰

열절의 기상이여 만인의 으뜸이
라.

多數決과 我執

愚

((社)제이씨 研修院 教授)

우리가 日常의 모임에서 자주 느끼는 일이지만, 우리 韓國사람들은 지나친 自己中心的思考에서 自己主張만을 강하게 固執한다. 그것도 幅넓은 知的 뒷받침이 있는 것도 아니요. 普遍妥當性에 근거한 것도 안닌데 말이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모임에서, 또는 어떤 組織體에서 틈이 벌어지는 逆作用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日本國의 有名한 時代小說家인 司馬遼太郎(註:本名은 시바료따로가 아닌데 中國의 유명한 司馬遷을 동경하고 존경하는 나머지 그를 따르기에는 遼遠하다는 뜻으로 이름을 고쳤다)은 그의 글에서 “韓國人들은 모두가 우수해서 日本人들과 1對1로 싸우면, 반드시 韓國人이 이긴다. 그러나, 2對2로 싸우면 서로 비기고 3對3 이상이 되어 싸우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日本人이 이기게 된다”라고 韓國人의 合心團結力不足을 지적한바가 있다.

또 우리 周邊에서 우스개소리로 잘 引用이 되고 있지만, 韓國땅을 처음 밟는 西洋선교사들이 우리 韓國人들에게서 共通的으로 받는 印象이 “한국사람들 너무 시비 많이 합니다. 시비하지 마시오. 작은 시비 큰 시비 되고, 이웃간 시비 동네 시비 됩니다……”이다.

다같이 마음속으로 反省을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다같이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은, 朝鮮朝 500年間 歷史적으로 興하지 못한 原因中 하나가, 남의 意見이나 立場을 존중할 줄 모르고 自己主張의 固執이나 名分論爭으로 餘念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西洋사람들이나 그밖의 先進國 사람들은, 意見의 相衝이 있을 때에는 서로 是非를 하기 보다는 自己의 主張을 조금씩 양보를 해서 서로의 생각을 접근 시키고 調和를 이루어 내는 슬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發展하는 歷史를 쉽없이 創造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타성을 自覺하고 타기 할것은 거침없이 타기할줄 아는 슬기와 勇氣가 아쉽다고 하겠다.

우리 大宗會에서도 가끔 느끼는 일이지만, 事理의 好惡基準을 自身

의 主觀에 따라 設定하고 남이 하는 일을 批判한다던가, 總意(任員會나 運營委員會의 決議)에 의해서 決定된 事案까지도 이러쿵 저러쿵 뒷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勿論 大宗會를 위하는 衷情이라고 말지만 組織運營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거듭되는 말이지만, 어떤 案件이 決定되기전까지는 누구나 自身의 意見을 開陳할 수 있으나 일단 決定이 이루어지면 그 決定에 따라야 하는것이 民主主義的인 마음가짐인 것이다.

影幀閣名稱問題

우리門中의 大役事인 文憲書院을 建立하는 과정에서 文憲公, 文和公, 文莊公 三位분의 影幀을 모실 建物의 名稱을 무엇으로 定하느냐 하는 問題가 公式으로 提起되었다.

즉 文憲影堂이라고 하면 단순히 佛智의 文憲影堂을 移轉하는 것과 같이 될뿐 아니라, 文憲公 한분만 모시는 것이 아닌데서 적절치 아니

하고, 그렇다고 “影堂”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文憲祠”가 어떻겠느냐는 意見도 있었으나 祠는 神主나 位牌를 모시는 곳으로(※ 辭典에 明示되어있음) 影幀을 모시는 建物의 명칭으로는 타당치 아니하고... 그래서 筆者로 하여금 傳統儒教의 總本山인 成均館의 權威있는 諮問을 얻기로 하였다.

成均館의 常勤典儀 몇분의 意見

은 “書院內에 影幀을 모실 建物이라면 影閣, 影堂, 影幀閣으로 해야 하는데 그中 影幀閣으로 定하는 것이 무난할것” 같다는 意見이었다. 大宗會에서는 이 問題를 運營委員會에 上程 議論한 결과 別異論 없이 “影幀閣”으로 定하기로 議決하였다. 이 과정에서 大韓儒道會 忠南會長을 맡고 있는 天溥副會長의 “閣이라고 하면 그 格이 높아 예전에는 함부로 使用할 수가 없었다.”는 參考發言과 “時代가 바뀌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萬基副會長의 贊同發言으로 쉽게 結論이 나고 말았다.

그런데 얼마후 京畿地方의 어떤 宗親은(註:이 宗親이라는 말도 朝鮮朝에서는 가까운 王族에게만 指稱되던 것임) “閣”은 格이 제일 낮은 글字며 中國料理집에 많이 붙히는 이름인데 하필 影幀閣이라고 定할게 무어나고 異論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어떤 學問的인 根據에서 인지 아니면 단순한 自身の 見解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筆者가 <우리말 큰사전>(李崇寧博士 監修 民衆書館 發行)에서 調査한 바로는 다음과

같다.

閣:높은집

殿閣:임금이 거처하는 宮殿

堂:당집, 대청, 店舖의 이름이나

雅號밑에 붙이어 쓰는 말

祠堂:神主를 모셔 놓은 집

詞宇:따로 세운 사당집

그리고 “閣”은 格이 낮다고 하지만 新羅의 善德女王의 影幀을 모신 곳도 崇慕閣이고 御書를 받들어 모신 佛智의 御書閣 저 有名한 新羅의 大學者이자 慶州崔氏의 始祖인 文昌候 崔致遠先生의 영정을 모신 곳도 “影幀閣”이다.(註:慶州市인왕 동상서장 경내에 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書院의 효시인 白雲洞書院(紹修書院)內에 文成公 安珣의 영정등을 모신 건물도 역시 “影幀閣”이며(崔冲연구논총64페이지 上段一行참조) 近世의 高僧인 暎峰스님의 영정을 모신 建物도 “影幀閣”이다(全南松廣寺 경내)

大宗會 運營委員會는 最高議決기관이고 100名 가까운 濟濟多士들이 審議決定한것이니까 그대로 理解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影幀制作과 懸板揮毫



承 君

(大宗會 幹事長)

1. 影幀制作問題

새로 세우는 烏山의 文憲書院내 影幀閣에 봉안할 文憲公, 文和公, 文莊公 三位분의 影幀을 제작하는 문제는 영정각·재실, 강당등 건물을 건축하는 문제와 함께 아주 중요한 사안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書院建立推進委員長직을 겸임하고 있는 元植 大宗會長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分野에 지식이 있는 여러 宗人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그 결과 과거의 影幀들이 한결같이 平面 線畫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人物같이 실감이 없을 뿐 아니라 人體구조로서의 균형도 무시된 듯한 느낌을 주

기 때문에 이를 現代감각으로 補完제작한다는데 의견의 집약을 보았다.

그리고 전통기법인 韓國畫로 제작하느냐 油畫로 제작하느냐도 檢討가 되어 傳統的인 韓國畫 技法으로 제작기로 결정을 보았다.

또 영정의 뿐은 현존하는 영정 가운데 가장 오래된 洪川의 魯東書院에 봉안된 영정과 安城 佛智의 文憲影堂의 影幀으로 하고 그 骨格을 살려 立體畫로 再構成하기로 하였다.

(註: 노동서원의 영정과 불지 문헌영당의 영정이 상이 하게 보이거나 專門家の 감식결과 같은 것인데 模寫를 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再現이 不되였다

고 함)

특히 현존 영정이 모두다 立像이지만, 他姓門의 영정의 경우 文臣인 경우 거의가 坐像이고 또 모시는 後孫들의 입장에서 坐像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에서 坐像으로 결정을 보았다.

(註: 이상의 모든 문제는 大宗會의 公式議決機關인 執行部 任員會와 運營委員會의 결의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극히 一部 宗人이 立像을 主張하였다.)

이렇게 하여 韓國畫技法으로 精巧한 實物畫를 제작하되, 크기도 實物에 가까운 坐像으로 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제작을 위촉할 作家를 다방면으로 접촉 하였다.

그러나 엄청난 제작비 문제가 가로 놓여 좀체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 무렵, 韓國畫壇의 元老인 C畫伯의 소개로 韓國肖像美術協會長인 洪承文畫伯의 뛰어난 테크닉에 신뢰가 갖음은 勿論 金寧金氏의 始祖 영정 제작등 많은 實績을 확인 하고

제작을 위촉 3個月余의 作業끝에 그 完成을 보게되었다.

특기할것은 뿐이 線畫 인데다 顔面이 側面畫로 되어 있어서 이미지를 그대로 再現할 때에는 人物로서의 實感을 주지 못하고 人物로서 實感있게 表現할 때에는 기왕의 영정의 이미지를 100% 再現 할수가 없다는 현실적 고충을 감안, 어차피 寫眞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지는 살리면서 人物寫眞에 가깝도록 제작을 하였으며, 作業과정에 있어서 大宗會長을 비롯한 몇몇분의 체크를 받았으며 元植會長께서는 바쁜中에 作業現場(畫室)에 親히 訪問 체크도 한바 있다.

2. 懸板의 글씨

현판(文憲書院, 影幀閣)의 글씨를 定하는 문제도 公式 非公式으로 여러번에 걸쳐 論議가 되었다.

즉, 현판은 建物の 간판이고 또 千秋에 남을 글씨이기 때문에 書藝界의 元老大家의 揮毫

를 받자는 意見과, 本孫의 글씨로 하는 것이 意義가 있다는 意見, 그리고 과거의 傳統을 살려 成均館이나 儒道會의 代表級人士의 글씨를 받자는 意見 등이 여러 경로로 제기 되었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公式으로 다룬 運營委員會에서는 여러가지 意見이 개진된 가운데, 可及的이면 本孫의 글씨로 懸板을 만들기로 하고, 널리 公告를 하여 글씨를 많이 받아 여기에서 좋은 作品을 고르기로 하되, 만약 採擇할 만한 作品이 없을땐 成均館이나 그밖의 書藝大家에게 위촉을 하여 글씨를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몇 개월동안 宗人글씨는 단 네분(4人)이 몇点的 作品을 보내왔으며, 이것을 가지고 公式 非公式기구에서 의논한 결과 어느 한 사람도 本孫의 글씨에 落点하는 이가 없어 결국은 外部人士에게 위촉을 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書藝를 취미삼아 열심히 하고 있는 O종친은 서예계의 대가인 K氏에게 의뢰

를 하자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많은 宗人이 볼때마다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텐데 누구도 감이 비평을 할수 없는 大家의 글씨여야 할 것” 이라고 말 하기도 했다.

그후 公式모임에서는 어떤 特定人을 지목할것이 아니라 “書藝作品帖”을 많이 수집하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書體를 쓴 國展(현재는 大韓民國書藝大展) 審査委員이상級 大家의 글씨로 定하자는데 意見이 모아지고, “書藝作品帖”은 이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順炫副幹事長이 提示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行書體로 어떤 현판 글씨를 쓴 竹峰 黃晟現氏의 글씨體로 落点이 되고 作家와의 交渉을 平素의 親分이 있는 順炫副幹事長과 진작부터 현판글씨를 外部人士에게 외뢰할 경우 그 사례비(作品料)를 自擔하겠다고한 愚宗親이 맡기로 하였다.

그런데 현판 글씨를 써준 竹峰 黃晟現氏는 우리나라에서 行書體는 第二人者로 評을 받

고 있는 大家이며 우리나라 行書體의 최고봉이었던 우리門中人 故筵村 崔重吉氏의 首弟子이며 현 韓國書藝大展(國展)審査委員이다.

끝으로 特記할것은 書藝界의 많은 大家들은 나름대로의 獨特한 體를 개발하여 즐겨 쓰고 있으나, 이것은 藝術이기 때문에 많은 一般人들과는 친숙하지도 못하고 理解도 잘 안되는 경향이 있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성균관이나 유도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접촉해보았으나, 힘찬 行書體를 선호하는

大宗會會長團의 希望條件에 부합이 되어야하는 문제등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前記 O宗親은 K氏를 지명했지만 K氏는 隸書가 특기인데 大宗會의 정서는 예서의 경우 힘이 없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분위기였음을 添言한다.

특히 이미 制作된 현판의 글씨는 韓國書藝界의 頂上級人士의 作品임으로 宗人마다 나름의 느낌은 있을 수 있겠지만, 專門을 존중 다같이 만족해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祝詩 · 追慕詩 · 頌詩

祝 詩

承 健

(31世孫佐郎公派)

文公先祖千周年	문헌공 선조께서 탄생하신지 천주년을 맞이하여
紀念譜書大寶全	기념하는 정성으로 족보대전을 펴 내었네
各派今爲成宿願	각파 자손들이 이제 숙원을 이루어
諸宗同意感炊然	모든 종친이 한뜻으로 감격하고 즐거워하네
影堂新建占靈地	영당 자리 새로 마련 좋은 터에 새로 짓고
幀座焚香起瑞烟	영정 앞에 향 피우니 상서로운 연기 나네
從此精禋俎登禮	이제부터 깨끗하게 정성드려 차리는 제사
春秋享祀永久傳	봄 가을 향사 범절 오래 오래 전하리라.

文憲公 追慕詩

義 培

(佐·郎 公 派)

天降此地聖姿也	하늘이 이땅에 聖姿를 보냈는데
道德文章千古揚	도덕과 문장은 천고에 찬연하도다.
創設九齋教化極	몸소 九齋를 창설하시고 만민을 교화함에 극진 하였으므로
世稱孔子誕東邦	당시 중국 조야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감탄하여 제2의 공자가 해동 땅에 탄생 하였다고 칭송 하였다.

海陵君(諱賓) 忠勳頌

熙 燮(31世 海陵君派)

倭寇突侵壬辰年	임진년에 왜구의 돌발적 침공을 당하여
孤城出避六月天	도성 한양을 버린 피난 행렬은 6월에 다시 행궁인 평양 성을 떠나도다
急殂御馬負玉體	절박한 처지에 왕이 타신 말이 죽어 해릉군께서 몸소 상감님을 업으시고
路漫弗辭一句連	평탄치 못한 오백리 길을 사양치 않고 달리시어 의주에 무사히 피난 하셨도다.
恩賜圖形不祧廟	상감께서 해릉군의 충성을 포상 하시고 영정과 부조묘 를 하사 하셨나니
千秋不滅香火烟	천추에 끊임 없이 계속 드리는 봉사의 향화 연기는 솟는 도다.
丹書扈聖藏麟閣	호성 공신의 공훈을 鐵卷에 丹書하여 기린각에 영구 보장 하였나니
赫赫忠勳萬世傳	혁혁한 해릉군의 충훈은 천세 만세 전하리라.

〈碩士學位 論文〉

高麗時代의 九齋學堂에 對한 研究

目 次

序 論

- I. 崔冲과 九齋學堂 設立의 背景
- II. 九齋學堂의 教育理念과 教育內
容
- III. 九齋學堂의 教育成果와 歷史的
意義

結 論

濟 實

(運營委員 明鎬 長女)

序 論

모든 制度가 時代的 現實的 要求에 의해서 成立되듯이 高麗時代의 十二徒를 대표하는 九齋學堂 역시 예외는 아니다.

高麗는 太祖以來 佛敎가 國敎로 崇仰되었으나 실제정치의 운용에 있어서는 儒學의 知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으며 官吏를 양성할 必要에서 儒學의 振興을 전제로 하는 學校의 창설을 제도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豪族에 대신하는 新官僚의 배출을 목적으로 실시된 科擧制로 인하여 儒敎的 文風이 크게 일어났으며 成宗때는 儒敎政治理念의 채택으로 儒敎의 體系化가 이루어진 단계였다. 그러나 이후 契丹의 侵入으로 인하여 자연히 官學敎育이 부진하게 되었고, 따라서 官學의 敎育을 대신할 새로운 敎育機關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崔冲은 文宗年代에 九齋學堂을 開設하였다. 지

금까지 九齋學堂에 대한 研究는 史料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많이 研究되어 왔다. 그러나 九齋學堂에 대한 종래의 연구가 크게 教育學的 側面과 儒學史的 側面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 왔을뿐 九齋學堂에 대한 중점적 研究를 추진하지 않으므로써 지금까지 중요시 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教育方法과 教育理念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시키려 한다.

그러므로 종래에 研究되어진 資料를 근거로 하여 정리·검토하면서 九齋學堂이 갖고 있던 教育方法과 教育理念을 통하여 그의 教育的 業績에 대한 再發見과 우리나라 私學發達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는 데 研究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먼저 九齋學堂이 設立될 수 있었던 당시의 國內·外的인 時代的 背景을 살펴보려 한다. 그 다음으로는 九齋의 名稱을 통하여 教育理念을 알아보고 教育方法과 教育成果를 살펴보는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私學發達史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고 高麗社會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I. 崔冲과 九齋學堂 設立의 背景

崔冲의 業績이나 思想은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지만 무엇보다도 本格的인 私學을 최초로 設立하고 高麗時代 儒學의 復興에 큰 貢獻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近者에는 教育家로서의 業績만이 아니라 文學家·政治家로서도 그의 位置가 점차 부각되어 가고 있다.

本稿에서는 먼저 崔冲의 生涯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그가 九齋學堂을 設立하고 우리나라 私學教育의 興起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要因을 찾아보고자 한다.

崔冲은 成宗三年(西紀 984年)生으로 字는 浩然이고 號는 惺齋 또는 月圃, 더러는 放晦齋로 黃海道 大寧郡 出身이다. 그는 海州崔氏로

서 海州崔氏는 원래 지방토호세력으로써 高麗의 統治體制가 정비됨에 따라서 科擧를 통하여 中央의 支配層으로 전환된 가문으로 그의 先代는 자세하지 않으나 ‘侍中 崔冲은 累代로 儒宗’이라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대대로 儒學을 일삼은 文翰家 出身으로서 어려서부터 學問을 좋아하고 글짓기를 잘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崔冲은 穆宗八年(1005年) 弱冠 21세로 甲科第一로 登第했는데 崔沆의 門下였다. 崔沆은 當代 첫손가락에 꼽히는 儒學者로서 新羅 儒學의 脈을 高麗에 이어준 崔彦搆의 손자였으며, 실제로 高麗 建國 初期에는 慶州崔氏系列이 크게 득세하고 있었던 만큼 座主와 門生의 관계가 父子와 같았던 高麗社會에서 崔冲이 慶州崔氏系列의 유력한 한 사람인 崔沆의 門生이 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하겠다.

실제로 顯宗四年 九月에 崔沆이 吏部尙書·參知政事로 監修國史를 제수받았을 때 崔冲은 그 휘하의 修撰官이 되어 太祖로부터 穆宗에 이르는 七朝實錄 편찬을 도운 것을 보면 두사람의 관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崔冲은 그뒤 顯宗十七년에는 內史舍人으로 知貢擧가 된 이후 여러차례 知貢擧를 역임하면서 우수한 人材를 많이 뽑아 世稱 尙書榜이라는 격찬을 들을 만큼 教育家로서의 타고난 역량을 보여주었으며 이것은 훗날 九齋學堂 設立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뒤 德宗初에는 右散騎常侍 同知中樞院事에 轉任되자 일찍이 成宗 9年 7月 金審言의 封事에 따라 관청벽에 써 붙인 바 있는 「說苑」의 六正六邪와 「漢書」 刺史六條令을 다시 써 붙이게 한 후 官吏들로 하여금 귀감으로 삼도록 한 사실이 있다. 이것은 그의 儒敎的 政治 倫理 思想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다.

崔冲은 단순한 文官으로서의 活躍만 한 것이 아니라 文武兼備한 高麗社會에 알맞는 이상적 지도자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즉 靖宗朝에는 尙書左僕射로서 判西北路兵馬使가 되어 北界의 寧遠·平

虞등에 鎭을 설치하고 城堡를 쌓음으로써 後日 靖宗 十年에 完成되는 北界 千里長城의 일부를 이루어서 戰略家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崔冲은 또 文宗元年에는 64세로 門下侍中職에 올랐고 다시 守太保와 開府儀同三司守太傅를 가한 뒤에 推忠贊道功臣의 號를 賜하였으며 都兵馬使 職을 兼有하였다.

文宗七年에 이르러서는 退職을 요청하였으나 文宗은 특별히 詔書를 내려서 「侍中 崔冲은 累代의 儒宗이며 三韓의 耆德이므로 이제 年老하여 退職을 요청하나 차마 허락할 수 없으니 마땅히 所司로 하여금 古典을 상고하고 箠杖을 賜하여 일을 보게 하라」고 하였으며 거기에 推忠贊道協謀同德致理功臣의 號와 開府儀同三司守太師 兼門下侍中 上柱國이라는 最上의 官職과 勳爵을 더하고 계속 出仕케 하여 文宗九年이 되어서야 內史丞을 더한 뒤 致仕케 하였다.

지금까지의 考察에 의하면 崔冲은 顯·德·靖·文의 四朝를 두루 歷任하면서 50年間の 화려한 官職生活에서 얻은 경험과 넓고 깊은 학문적 성과로 九齋學堂을 일으키는 礎石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九齋學堂 設立 당시 高麗社會의 性格과 時代的 背景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의 高麗社會는 儒敎와 佛敎가 병행하여 發展한 貴族社會였다.

高麗는 北宋보다 약 40年 앞서 建國하였지만 政治制度나 學術 文化면에서는 오히려 北宋을 배우는 입장이었고 建國 후 근 1세기를 지나서야 高麗 나뭇의 면모와 내실을 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崔冲이 10대의 소년기를 보낸 成宗代는 建國以來 갖추어지지 않았던 地方行政組織을 完結했던 시기였고 官僚體制가 確立되면서 官制·軍制에서 衣冠에 이르기까지 모든 文物制度를 完成시킨 것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敎育振興을 추진하였던 시기였다.

특히 成宗六年에는 중앙은 물론 지방귀족자제의 敎育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시도되었다.

즉, ‘州·郡·縣의 자제를 뽑아 開京에서 공부시켰는데 이들 중에서 고향생각이 간절하여 면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자신의 희망에 따라 거주지를 정하도록 하고 經學博士와 醫學博士 各一名씩 12牧에 파견하여 귀향한 學生들과 地方官吏와 地方民의 子弟를 가르치게 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成宗代는 政治·學術·教育面에서 儒敎化하는데 노력하였고 이를 전면적으로 推進하였던 時期였다. 따라서 이 時期의 官僚制의 지향은 儒敎가 지닌 民本爲民 精神과 合治하는 시책으로써 科擧出身의 儒敎的 知識人들이 官界를 주도하게 되었고, 科擧制度·教育制度·政治制度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儒學은 활기를 띄어 나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成宗의 급격한 崇儒政策은 非儒學者들의 반발을 사게되면서 ‘時成宗樂慕華風 國人不善’ 이라고 하여 비판받았다. 더욱이 晩年에는 女眞과 契丹과의 交戰으로 인해서 教育상태가 차츰 나태하여졌고 더욱이 成宗이 38歲로 일찍 세상을 떠남으로써 그가 추진하던 적극적인 教育振興策은 자연히 퇴조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穆宗대에 이르러서는 外患뿐 아니라 內部的으로 千秋太后와 私通한 外戚 金致陽의 專橫으로 國政은 극히 문란해졌고 그로인해 康兆의 政變이 일어나므로 해서 契丹에게 침략의 기회를 허용하여 3차에 걸친 侵略戰爭으로 말미암아 社會全般에 걸친 황폐화가 나타났으며 특히 教育의 심각한 침체 현상을 초래케 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속에서 高麗의 官學은 극도로 衰退하였다가 文宗代로 접어들면서 儒學은 貴族社會에 편입되기 위한 수단으로써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지만 오랜 戰時體制로 인하여 儒學 教育을 담당하는 기관이 전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었다. 「高麗史節要」에 전하는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도 官學教育의 침체된 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國子監 諸生이 近來에 學業을 폐하는 자가 많은 것은 訓導를 잘 하지 못한 책임이 學官에게 있으니 이제부터는 특히 힘을 더 쓰도

록 하라. 年末에 이르러서 잘하고 못함을 가려서 退職과 留任을 결정하며, 儒生은 國子監에 머문지 9년, 律生은 6년 동안에 成就가 없는 자는 모두 물리치게 하리라.’

위의 기록에서 살필 수 있는 바와 같이 國子監 教育에 문제가 發生한 原因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처럼 官學이 제구실을 못하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高麗의 科擧制度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高麗의 科擧는 試官(知貢擧, 同知貢擧)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知貢擧는 光宗朝에 科擧施行時 考試官을 말하는 것으로 雙翼이 최초로 임명되었으며 그후 명칭은 여러번 변하여 景宗 三年에는 讀卷官이라 하였고 成宗 十五年에는 都考試官이라 했다가 다음해에 다시 知貢擧라 하였다.

知貢擧는 當代에서 學識과 德行이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翰林學士·禮部侍郎·左可郎中·內史舍人·中樞院直學士·國子司業·左僕射·秘書監·禮賓卿·給事中·國子祭酒·左諫議大夫·左丞·門下侍郎·內史侍郎 等 3품 내지 4품의 現職官吏 가운데서 우수한 사람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初期에는 한 사람이 여러 차례씩 知貢擧를 맡았으나 高麗의 文運이 점점 진전하여 儒學이 발전되고 그에 따른 學者의 배출이 늘어나며 또한 知貢擧의 重任은 座主·門生制와 같은 門閥을 형성시켜 여러가지 폐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知貢擧의 重任을 막았다.

여기에서 知貢擧와 門生사이에는 엄격한 上下關係가 맺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특정한 座主와 그 門生을 포괄하는 집단으로서 일종의 學閥을 형성하기에 이르게 되었으며 훗날 私學의 興起에 따라서 더욱 촉진되었다.

그러므로 科擧 志望生은 숨막히는 官學에서 節制를 받아가며 공부하는 것 보다는 유력한 座主를 찾아 그 아래에서 공부하는 것이 훨

씬 有利했었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官學의 權威와 機能은 땅에 떨어지고 그 침체와 부진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文宗年間은 그만큼 실력있는 文士가 必要한 時期였으며 더욱 그런 人材가 많이 養成되고 배출되어야 할 새단계의 貴族社會로 접어든 時期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崔冲은 이러한 現實的 要求를 반영하면서 朝廷의 利害中心으로 영위되는 官學을 가지고는 儒敎本來의 人文世界를 達成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官學과는 달리 學問에 대한 自律性과 人材教育의 開放性이 教育에 있어서 중요함을 알고 九齋學堂을 設立하여 儒學의 興起를 꾀하고 儒學의 精神으로 다듬어진 官吏를 養成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崔冲은 그 자신이 教育家로서 갖추어야 할 人格을 갖춘 儒學界의 大學者였으며, 50여년간의 官職生活을 통하여 쌓은 學德과 經綸으로써 儒學振興의 時代的 運勢를 타고 九齋學堂을 設立하여 教育家로서 成功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先代로부터 傳受한 遺業이 많았으며 그 자신이 國家의 元勳이었기 때문에 國家로부터 받은 俸祿도 적지 않았으므로 상당한 規模를 갖춘 學堂을 세우고 教育할 수 있는 經濟的 여건이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예로써 「朝鮮王朝實錄」을 보면

‘高麗時代に 崔冲이 사는 집과 노비를 내놓아서 九齋에 속하게 하여 生徒들을 教育하였는데, 비록 詞章에 치우쳤으나 文教에 가히 보탬이 되었다.’ 라는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당시 훌륭한 스승을 만나지 못하여 방황하던 젊은이들이 崔冲이 九齋學堂을 設立하자 모여들어 ‘學徒全集 填溢街巷’의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松岳山下 紫霞洞에 校舍를 마련하고 學堂을 九齋로 나누어 가르치니 齋名은 樂聖·大中·誠明·敬業·造道·率性·進德·太和·待聘이라 하였던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II. 九齋學堂의 教育理念과 教育內容

九齋學堂의 教育理念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九齋의 이름이 갖고 있는 性格과 意味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高麗時代 性理學的인 學問 傾向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사실은 九齋學堂의 명칭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지금까지 性理學이 韓國에 처음 도입된 것은 13C 高麗 忠烈王때 安珦과 白頤正이 元에 갔다가 朱子學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워왔다는 것이 定說이었다. 그러나 朱子學은 性理學임에는 틀림없지만 性理學은 광범위한 學問이어서 朱子學이 性理學의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性理學은 時代에 입각해서 고려될 경우에는 宋學·明學이고, 學者에 따라서는 朱子學·陽明學이며, 問題意識에 입각해서 고려될 경우는 理學·義理之學·性理學·心學이고, 傾向에 의해서는 道學과 新儒學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朱子學은 단지 北宋의 理學을 집대성한 南宋期 性理學의 結晶에 해당하며 唐末에 韓愈(768~824)·李翱(770~846)등에 의하여 원초적인 性理學이 형성되고, 宋代에 周敦頤(1017~1073)·張載(1020~1077)·邵雍(1011~1107)에 의하여 研究되고 程顥(1032~1085)·程頤(1033~1107)에 의하여 성숙단계에 들어간 學問이다.

한편 당시 高麗가 北宋의 學問傾向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高麗史〉睿宗十年條의 기록으로 알 수가 있다.

‘進士, 金端·甄惟底·趙爽康·就正·權適등 五人을 보내 大學에 들게 하였다.’ 는 내용과 같이 高麗는 宋의 學問의 진수를 터득하고 수입하기 위해 人材를 뽑아 宋의 大學에 수학하도록 하였다. 高麗와 宋의 文物交流는 光宗때부터 시작하여 文宗때에는 더욱 활발하여졌다. 그리고 高麗는 宋과의 交流를 통하여 여러 文物을 들여왔지만 특히 書籍의 수입에 매우 적극성을 보였던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

아 北宋의 學問경향을 高麗의 學者들이 비교적 자세히 알 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崔冲은 어떠한 취지에서 자신이 세운 學堂에 九齋를 設置하고 命名을 했었을까?

다행히 현재 전하여지고 있는 崔子全의〈九齋衍義〉의 내용으로 그 취지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다.

‘九齋의 命名은 十八字에 지나지 않지만 그 規模와 節目은 中庸·大學과 같다.’

라고 한 기록과 같이 九齋의 齋名들이 대부분 中庸·大學·易經에 나오는 用語들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위에 언급된 冊들은 性理學의 발흥과 함께 중요시 되던 책들이다.

더욱이 鄭圃隱 先生이 말하기를

‘先生이 後進을 區劃한 것은 濂洛의 大老師에 떨어지지 않는다.’

고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九齋의 名稱과 性理學과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곧 崔冲이 性理學의 학문경향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음을 意味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이때는 程氏兄弟가 30代에 해당할 時期였으므로 성숙단계의 性理學이 아니라 周·張·邵氏 등의 性理學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이처럼 九齋의 名稱이 시사하는 含意는 곧 당시 朱子學 以前의 北宋 性理學의 傳知라 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고찰에 의하면 이러한 견해는 상당히 妥當性이 있어 보이며, 崔冲은 확실히 北宋初의 性理學者들과 마찬가지로 高麗儒學史上, 高麗의 儒學者로서 나름대로 儒學을 性理學的인 方向으로 轉換시키려는 참으로 새롭고 劃期的인 試圖를 기도했던 學者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고, 그가 갖고 있던 教育理念에도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崔冲의 高麗儒學史上의 評價는 海東野乘 및 中京誌에 쓰여 있는 ‘實我東方理學之祖.’ ‘先生首倡性理之說’이라는 표현과 같이 韓

國 性理學의 선구자로 보는 견해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九齋學堂의 教育理念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九齋의 名稱이 가지는 意味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鄭仲夫의 文人屠殺 및 文獻毀滅 행위로 인하여 九齋學堂을 命名한 十八字의 意味를 고증할 아무런 資料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해서 本稿에서는 九齋의 名稱을 곧이곧대로 해석해 보는 방법으로 九齋學堂의 教育理念에 접근하고자 한다.

우선 九齋衍義에서 그 요점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九齋命名 不過十八字 而其規模節目 與中庸大學略同 有綱目有條目’ 이라 하여 九齋의 命名한 것이 불과 十八字에 지나지 않으나 그 規模와 節目은 中庸과 大學으로 더불어 대략 같아서 綱領도 있고 條目도 있다고 하였다. 즉 樂聖·大中·誠明은 綱目이 되고 敬業造道·率性·進德·太和·待聘은 條目이 되므로 이것은 그들의 意味가 조직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으로, 洙泗의 古義에 근거하여 修己治人의 입장에서 九齋의 名稱을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둘째로, 崔子全의 말을 빌리면 九齋의 九라는 숫자가 갖는 妙理를 바탕으로 命名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부연하면 箕子의 九疇라는 九字와 朱子の 九曲이라고 할 때의 九字가 같으며, 蔡沈의 皇極內篇을 살펴보다라도 ‘하늘에는 九野가 있고, 땅에는 九州가 있어서 九禮 九行·九歌·九韶라는 것이 있게 되었으니 대체로 九라는 숫자가 모두 皇極洛書의 숫자가 되었으며, 그러므로 九齋·九曲·九疇는 모두 다를 바가 없는 聖數로서 九의 妙理에 입각한 九齋의 命名으로 說明하고 있다.’

셋째로, 先儒들의 말을 빌려가지고 九齋의 意味가 洙泗의 根本義에 근거하였고 동시에 中庸學의 本旨를 천명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九齋衍義에서는 九齋學堂의 名稱을 中庸의 근본의에 의거하여 洙泗學的 孔子學과 연관지어서 說

明하면서 先秦儒學의 大義에 접근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九齋가 갖는 개별적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一. 樂聖이란 聖人の 道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사랑하고 즐거움이란 뜻으로 樂이라는 것은 朱子가 소위 聖人들의 詩를 외우고 글을 읽음에 기뻐 흥모하고 愛樂한다는 樂과 같은 뜻이며, 聖이란 옛날의 聖人으로 聖人이란 갑자기 배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樂字를 붙여서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발을 딛고 나갈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이것은 論語에서 말하는 君子悅樂과도 통하는 것이다.

二. 大中이란 크게 中道를 지키는 것으로 聖人の 표준이 되는 것이다.

三. 誠明이란 진실로 善을 밝힌다는 뜻으로 ‘聖人大中之道 立於誠明者 故 三曰誠明’이라 하여 聖中誠三者一如論을 근거로 하여 九齋가 中庸思想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백히 해주고 있다.

四. 敬業은 學問을 공경함을 意味하는 것으로 변함이 없는 것이 敬이고, 朋友간에 講論하고 익히는 것을 業이라 한다. 이것은 君子의 道를 말하는 것이다.

五. 造道란 道에 나아간다는 뜻으로 道란 中庸에서 절대적 윤리적 규범이다.

六. 率性이란 性을 따른다는 뜻으로 中庸 首章인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라는 글의 核心語이다.

七. 進德이란 德으로 나아간다는 말이다.

八. 太和란 크게 화한다는 뜻이다.

九. 待聘이란 스승을 맞는 禮를 뜻하고 있다.

즉 이들은 모두 儒生이 갖추어야 할 德目を 말하는 것으로 樂聖에서 시작한 儒生의 德行은 뒤에가서 待聘의 禮로서 마무리지어짐을 알 수 있다. 이렇듯 九齋學堂은 性理學的 학문경향을 갖고 있었으며 崔冲의 教育理念은 단순한 科擧準備만의 性格이 아니라, 人間의 內在心性을 바르게 닦고 儒者의 도덕적 실천을 중시하여 儒敎的인 소양을 갖춘 人格者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教育理念은 1170년의 武臣의 亂 이후 武人들의 學者仇視와 學問憎惡 등 高麗社會의 學問과 敎育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해서 그가 지향한 순수학문을 통한 全人敎育의 꿈이 실현되어 나가지 못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지금까지는 九齋學堂의 教育理念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이제 九齋學堂이 어떤 敎育內容과 敎育方法으로 그의 教育理念을 구현시키려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九齋學堂에서 사용한 敎材와 그 敎育內容을 알아 보면 九經三史를 敎材로 하고 여기에 詩賦詞章의 學을 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 즉 九經이란 周易·尙書·毛詩·禮記·周禮·儀禮·春秋左氏傳·同公羊傳·同穀梁傳을 말하며 더불어서 史記·漢書·後漢書의 三史를 가르치고 文學을 공부시켰다. 이것은 당시 學生들의 目的이 個人的으로 볼 때는 科擧에 급제하여 官吏가 되는 것이었으므로 科擧準備를 위하여 文章공부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光宗때부터 시작된 科擧制度는 唐式을 모방하였고, 學科目에 있어서도 唐代學制를 그대로 본받아 실시한 것으로 製述·明經의 二科와 醫·卜·地理·律·書·算·三禮·三傳·何論등의 雜科를 설치 운영하였다.

이 가운데서 雜科는 별로 성하지 못하였고 製述·明經은 꾸준히 시행되었지만 理論的인 經典의 공부를 필요로 하는 明經業은 다소 어려워 學生들이 이를 기피하는 형편이었다. 반면에 實用的이며 國家的要求에도 부합하는 詞章學으로 말미암아 科擧에서도 製述業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九齋學堂의 學科目도 그 당시 科擧를 考慮하여 官學의 學試와 일맥상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九齋學堂의 入學資格에 관하여 살피고자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論하고 있는 史料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時代의 科擧應試 資格을 살핌으로 해서 추측할 수 밖에 없었다.

九齋學堂에서 修學하는 學生들은 大部分 科擧에 應하려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자연히 科擧應試 資格이 있는 學生들이 九齋學堂에서 공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高麗時代에 있어서 科擧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地方에서 選上되는 鄉貢과 中央의 國學生인 士貢 및 在官者들이었다. 이들은 대개 中央貴族子弟와 地方豪族子弟로서 학문적 정도나 사회적 신분에 따라 製述業·明經業·雜業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文宗 九年 十月 內史門下 秦에 「氏族不付者 勿今赴擧」라 한 기록과 같이 「氏族不付者」는 科擧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때 「氏族不付者」란 中央에서 작성한 氏族志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文宗朝에는 이미 文臣貴族家門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각기 자기의 氏族을 다른 氏族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姓氏를 가지게 되었는데 姓氏를 가지는 방법에는 國家로부터 賜姓을 받거나 中國 姓을 따르기도 하고 스스로 創姓하는 것 등이 있었다.

따라서 高麗 前期에 國家는 이러한 姓氏를 갖고 있는 支配氏族을 파악키 위해 氏族誌와 같은 것을 만들어 두고 있었지만, 國王의 입장에서 보면 되도록이면 광범위한 계층에서 人材를 선발하기를 원하였

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貴族 세력을 누르고 王權을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科擧應試資格에 대한 제한은 뒷날 점차 緩和되어 가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九齋學堂의 學生들은 科擧를 볼 수 있는 資格을 갖춘 대략 14세에서부터 17,18세의 사람들로써 이 점에서 볼때 九齋學堂이 일반 庶民을 위한 대중교육기관이 아니라 特殊階級の 教育機關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九齋의 名稱과 次序問題이다. 九齋의 순서가 學生들의 進學 순서로 공부진행의 과정과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九齋學堂 전반에 걸친 학문추구의 性格으로 學年이나 教育進行 과정과는 무관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齋라고 한 것을 보면 단순히 가르치는 講堂, 즉 齋室의 이름 같기도 하다. 하지만 齋室의 이름을 구태여 史書에 羅列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보면 學業의 성취도에 따라 順次로 進급하는 學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하여는 學問的으로 실제자료가 없어서 추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일찍이 洪良浩는 「紫霞洞九齋遺墟碑文」에서

‘초보자는 먼저 樂聖齋에 들어가 六藝를 익히고, 다음에 造道齋로 나아가며 마지막에 待聘齋를 거쳐 끝맺게 하였다.’

고 기록하여 九齋名을 進學의 순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으며, 또 中國측의 文獻을 살펴보면,

‘옛날의 敎學課程은 ……每年 入學을 시키고, 中年에 시험을 치른다. 一年生은 離經辭志함을 보고, 三年生은 敬業樂群함을 보며, 五年生은 博習親師함을 보고, 七年生은 論學取友함을 보는데, 이를 小成이라 한다. 그리고 九年 동안 배워서 知類通達하고 獨立不反하면 비로소 大成이라 일컫는다.’

고 하였는데 이는 敎學年限과 敎學段階 그리고 修業內容을 포괄적

으로 알려주는 자료이다. 그러나 여기서 九年의 수업년한과 九齋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치하는 면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三史의 수업시간이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九齋名을 進學의 순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예로써 九齋學堂에서 공부하여 高麗의 文運을 주도한 人物 가운데 李奎報의 年譜를 살펴보면

‘14세로 文憲公徒 誠明齋에 들어간 다음 夏課 試賦會때 장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九齋學堂은 아홉개의 각기 다른 班으로써 다른 內容의 科目을 공부하는 교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九齋名의 순서는 年級이나 공부진행 과정과는 무관하다고 보인다.

훗선 후의 일이지만 睿宗四年 國學에 七齋를 設置하였는데 그 內容을 보면 周易을 가르치는 곳은 麗澤, 尙書는 待聘, 毛詩는 經德, 周禮는 求仁, 戴禮는 服膺, 春秋는 養正, 武學은 講藝 등이었으며 말하자면 七齋는 일곱 齋室로서 그 齋室에 따라 教科目이 달랐다고 한다. 이 七齋는 崔冲 死後 40년 뒤에 설치한 것으로 아마도 國學에서 崔冲의 九齋學堂을 본따 도입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崔冲의 九齋도 教科目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九齋學堂의 교육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高麗史〉列傳 崔冲條에 보면,

‘여름이 되면 절간을 찾아가서 여름 수업을 하는데 徒中에는 科擧에 합격하고 學問이 우수하면서 아직 官職에 나아가지 않은 자로 敎導를 삼아 九經三史를 講論케 하고 간혹 先進들이 찾아와서 刻燭賦詩를 하고 次第를 매긴후 차례대로 호명하면 들어가서 술을 마시는데 이때 어린이와 어른들이 左右에 열립하여 술잔을 받들고, 進退함에 예의를 갖추며, 長幼가 서로 질서를 지키며 서로 더불어 酬唱하다가 날이 저물면 노래하고 읊으며 돌아오니 보는 사람이 모두 아름답게 여겼다.’는 간단한 內容이 전한다. 이것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첫째로, 여름에는 시원한 寺院으로 옮겨서 夏課를 공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夏課는 詩文을 익히는 것으로 朝鮮時代에도 여름에는 이런 교육방법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딱딱하고 난해한 經典에서 벗어나 풍류적인 文章에 접하고 자연과 더불어 性情을 도야하는 교육방법은 私學만이 가질 수 있는 自律性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寺院을 夏課의 교육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예로써 「奉先弘慶寺碣記」의 비문을 보면 「又莊子設濂廬而視仁義」라고 하면서 절을 포교의 근거지로 보지 않고 仁義를 베푸는 여관에 견주어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崔冲이 儒·佛을 모두 겸통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敎導가 있어 직접 學生들을 가르쳤다는 점이다. 그 당시 崔冲의 나이는 70이 넘는 노령으로 몸소 수 많은 學生들을 가르치기는 힘들었고 실제 敎學에 종사하는 中堅學者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들 敎導들은 學問이 뛰어났었고 후일에는 崔冲의 學脈을 유지계승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셋째로, 先後輩가 어울려 詩를 짓고 唱名 設酌의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이런 과정은 花郎徒의 相悅以歌樂이라는 대목과 상통하는 것으로 學生들의 情緒를 도야하므로 해서 道德敎育을 강조하였고, 先後輩가 어울려 친밀을 도모하면서 飲酒禮의 의식을 행하였는데 이것은 독서의 여가를 이용한 風流的인 정취를 보여 주는 것이다.

넷째로, 타고 있는 촛불에 금을 그어 놓고 불이 그 금에 이르는 동안 詩를 짓는 刻燭賦詩의 행사는 당시 學生들의 학문적 수준을 말해주는 것으로 일종의 科擧演習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考察에 의하면 九齋學堂의 교육방법은 融通性이 적은 官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儒敎的 生活倫理를 중시하면서 학문적 결속을 통한 人間敎育과 아울러 個人의 인격도야에도 많은 비중을 두어 교육하였다. 이런 점들은 高麗 中·後期에 九齋學堂이 확고히 지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것으로 私學만이 가질 수 있었던 敎育的인 기반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Ⅲ. 九齋學堂의 教育成果와 歷史的 意義

崔冲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비교적 規模있고 內實있는 私學教育機關인 九齋學堂을 일으켜 「海東孔子」라는 美稱을 받고있으며 특히 九齋學堂은 기존의 官學이 갖고 있던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私學教育 發展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意義를 찾을 수 있다.

그러기에 麗末의 學者인 李齊賢은

‘公卿의 嫡庶로부터 州縣의 子弟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에 籍을 두고 聖人之道를 배우니 文物이 이로부터 점차 성하였다.’

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學問의 發展과 儒敎的 實踐倫理의 정착에 끼친 공헌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그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惟善·惟吉등 두 아들에게 훈계한 글을 통하여도 그의 교육목표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집에 대대로 내려온 長物은 없으나, 오직 값진 보배를 천해 간직 하니 文章은 바로 비단이 되고, 德行은 곧 옥으로 만든 귀중한 구슬이 된다. 오늘 너희에게 나눠주니 뒷날 이것을 잊지 말라. 이것을 잘 가져 조정에 쓰면 대대로 더욱 번영하리라’

이 글에서는 文章과 德行을 그 어느 것보다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점은 弟子들의 教育에 있어서도 같았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기록이다.

이렇듯 九齋學堂은 체계적인 教育方式으로 儒敎的 소양을 갖춘 많은 人材를 배출하였고, 이들은 高麗 中·後期 政界·學界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실제로 金石文을 비롯한 여러 文獻에서 살필 수 있는 九齋學堂에 관한 기록을 몇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明宗때에 監察御史 李勝章은 文憲公徒 率性齋에 유학하고 國子試官 金敦中門下에서 제2위로 進士에 뽑혔다.」

「李奎報는 明宗11年 14歲때 文憲公徒 誠明齋에 入徒하여 夏課에서 壯元하였다.」

「自後로 赴學者는 역시 다 九齋籍中에 이름을 걸었다.」

이상의 기록에서 보면은 率性齋나 誠明齋등은 明宗代에도 실제로 성행하였고 九齋出身이 어느정도 高麗社會에서 우대되고 등제하여 활약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

한편으로는 顯宗으로부터 文宗간에 仕官한 그의 師友나 門人 가운데 知名한 人物로는 姜邯贊·王可道·皇甫兪義·黃周亮·金良鑑·崔惟善·文正·尹瑾·崔惟吉·崔思諒·崔思諷등이 있었다. 또한 睿宗·仁宗代에 활약한 崔文憲公徒로 들 수 있는 金仁存·尹彥頤·柳仁著·崔允儀·金富儉·李之氏등을 보아서도 九齋學堂의 教育成果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와같이 많은 師弟가 儒學教育과 研究를 목적으로 한데 엉키어 가르치고 배워나가면서 오랜 세월을 두고 유지 계승되어 高麗儒學發達史에 크게 작용하였다. 특히 九齋學堂의 教育成果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十一徒 私學 開設에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九齋學堂이 성황을 이루자 이를 模倣하여 따로이 私塾을 開設한 것으로 이것과 崔冲의 九齋學堂을 합하여 흔히 十二徒혹은 十二公徒라고 하였다.

〈高麗史〉, 崔冲列傳에 의거하여 十二徒의 號稱과 設立者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設 立 者			號 稱			
侍中	崔	冲	文	憲	公	徒
侍中	鄭	倍 傑	弘	文	公	徒
參政	盧	旦	匡	憲	公	徒

祭酒	金	尙	賓	南	山	徒
僕射	金	無	滯	西	園	徒
侍中	殷		鼎	文	忠	公
平童	金	義	珍	良	慎	公
平童	黃		瑩	貞	敬	公
	柳		監	忠	平	公
侍中	文		正	貞	惠	公
	徐		碩	徐	侍	郎
	(未		詳)	龜	山	徒

이들 設立者들은 거의 文宗 前·後의 文臣들로서 學識이 높은 儒學者들이었고 특히 그 가운데 鄭倍傑·文正·盧旦은 文宗代에 知貢舉를 歷任하였으며, 設立年代는 黃瑩의 貞敬公徒만 肅宗때 設立된 것으로 나머지는 모두 文宗 中·末년에 設立되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名稱에 관한 점이다. 이들의 名稱은 모두가 設立者나 所在地의 名稱을 부각시켜 個人的·地域的인 私學으로서의 性格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徒라는 名稱의 사용은 教育史的 견지에서 중요한 意味를 갖는 것으로, 즉 徒란 ‘學을 따르는 무리’ 라는 뜻으로 新羅時代의 花郎徒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일찍이 申采浩氏는 崔公徒·盧公徒 등은 花郎徒의 原郎徒·冰郎徒 등을 모방한 것이라고 하여 그 연관성을 皮력하였다. 그리고 徒의 일반적 性格으로 보건대 徒란 원래 결사단체의 뜻으로 이 時期의 十二徒는 물론 儒學의 教育에 치중한 단체 혹은 무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므로 共同體意識, 師弟와 學友간의 道德的 결속력과 人格教育 및 진지한 學問 연마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高麗初 中葉에 花郎이 그 思想으로만 社會에 전한 것만이 아니라 존속하여 왔으므로 花郎을 반대하는 儒家에서도 그 名稱과 의식을 많이 盜取하였다고 지적하면서 私學의 徒는 그대로 花郎의

式과 일치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朴性鳳氏는 十二徒는 中國式 官學教育機關과는 달리 popular한 조직체로써 독특한 教育的인 효능을 발휘하여 그들 사이에 道義的 訓育이 잘 행해지고 共同生活을 통하여 특별한 우정관계가 생김으로써 소위 同門兄弟關係가 成立될 수가 있었다. 그리고 儒徒도 그들이 學堂에서 共同으로 學問을 연마할 뿐 아니라 師弟가 서로 서로 道義로 굳게 결속되어 官學과는 따로이 독특한 조직체로서 世人에게 popular한 存在가 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보았을 때 九齋學堂은 科擧準備를 위한 儒學教育機關의 制限的 性格을 다소는 내포하고 있었으나 封建貴族社會내에서나마 人間教育과 社會發展을 이룩하려는 私學 본래의 전통적 맥락을 계승해 私學教育의 傳統을 확립하였던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夏課나 詩賦會등의 教育方法은 뒷날 學科와 계절을 조화시켜 학습하게 한 朝鮮時代 書堂 教育에서도 행해져서 九齋學堂이 朝鮮時代 私學 教育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九齋學堂은 官學보다도 훨씬 체계적인 教育方式으로써 私學의 융성을 가져 왔으나 자연히 官學의 衰退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王朝體制下에서 官學의 부흥은 필수적인 과제였고, 이것은 私學의 억제를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睿宗때에는 官學振興策을 세워 國學七齋를 設置하였고 國學의 신축 이전과 學舍廣設 및 學官 強化 등 國學의 振興을 꾀하였고 養賢庫의 設置로 財政의 확립을 보게 됨으로써 私學은 다소 위축되었으나 九齋學堂은 그후에도 지속되어 崔冲 死後 300여년 동안 운영되어 오다가 恭讓王 3年(1391) 停廢되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의 考察을 기초로하여 우리나라 教育史에서 崔冲의 九齋學堂이 차지하는 位置를 알아보고 그 歷史的 意義를 살펴

보겠다.

우리의 教育的 傳統은 古來로 敬天愛人の 理念아래서 道德規範을 중시하면서 社會的 發展에 기여해 온 것이고 특히 私學의 發展은 近代的 教育制度가 確立되기까지 우리 民族의 高유한 文化的 傳統을 지탱해 오는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우리나라의 教育制度를 크게 官學과 私學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圖式을 세울 수가 있다.

時 代	官 學	私 學
高 句 麗	大 學	扃 堂
新 羅	國學(통일신라)	花 郎 徒
百 濟	五 經 博 士	
高 麗	國 字 監·鄉 學	十 二 公 徒
朝 鮮	成 均 館	書 堂·書 院
甲 午 更 張 以 後	育 英 公 園 國·公 立 學 校	私 立 學 校

특히 그 가운데서 九齋學堂의 位置를 考察하기 위해서는 먼저 九齋學堂 以前의 私學機關인 扃堂과 花郎徒의 性格과 以後의 書堂·書院의 性格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高句麗의 扃堂은 그 設立年代를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中國側의 기록에서 보면,

‘風俗이 매우 書籍을 사랑하여 거리마다 큰 집을 지어 이를 扃堂이라 하고 子弟가 未婚前에 晝夜로 讀書하고 習射하니 그 책은 五經과 史記·漢書·後漢書·三國志·晉春秋·玉篇·字統·字林이나 또 文選이 있어 더욱 중히 여긴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儒敎의 經典과 弓術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며 이는 扃堂이 教育機關인 동시에 군사적인 훈련도 병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新羅의 花郎徒는 原始社會에서 비롯된 것으로 未成年 靑年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훈련하는 풍속을 新羅 肅성기에 해당하는 眞興王때 당시 高句麗·百濟와의 鬪爭이라는 상황하에서 新羅 社會에 맞게 再組織한 것으로 평소 武術을 연마하여 戰爭때에는 新羅軍의 선두에 나서서 싸웠고 또한 詩經·尙書·禮記·春秋傳 등 儒敎의 經典을 공부하여 支配階層으로서의 교양을 닦았던 制度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扃堂이나 花郎徒는 어느 특정한 個人이 設立한 것이 아니며, 이 둘은 우리민족의 순수한 敎育的 형식으로써 靑少年의 人格과 道德的 성숙·강인성 등을 배양했던 敎育으로 社交團體·敎育團體·武士團體로서의 性格을 함께 갖고 있었다.

이런 점들은 高麗時代 九齋學堂 設立과 그의 敎育理念에 영향을 주었으나 이 두 敎育機關은 九齋學堂만큼 체계적인 敎育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私學 본래의 性格과도 거리가 멀었으므로 어찌면 崔冲의 九齋學堂을 우리나라 私學의 元祖라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朝鮮時代의 書堂과 書院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書院은 지금의 中等學校에 해당되며 그 기원은 中宗 38年(1543)에 周世鵬이 高麗의 學者 安珦을 추념하기 위해 白雲洞書院을 세운 데서 비롯되었다. 書院의 운영은 郡안에 生員과 선비들로 하여금 맡아서 하도록 하였고 田土의 免稅와 같은 특전을 받았으며 이로인하여 正祖 때에는 650여개나 書院이 設立되어 朋黨 조성, 良民에 대한 토색질 등 書院을 근거지로 한 폐단이 생겨났다. 이런 폐단으로 인하여 大院君이 집권하면서 書院撤廢를 시행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처럼 書院은 私學이지만 政治的·社會的인 연관을 가졌으며 敎育과 先賢을 享祀 제사하는 목적을 함께 갖고 있었다.

書堂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글방으로 지금의 初等學校에 해당하는 곳이며 庶民의 子弟들을 위한 민간의 私設 敎育機關이었다. 書堂敎育의 궁극적인 목적은 四學과 鄉校에의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地方의 靑少年들에게 漢文의 讀解力을 理解시키고 儒敎에 대한 初步的 知識을 理解케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書堂의 設立은 기본 資産이나 認可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누구나 뜻있는 사람이면 訓長 한 사람과 방 한 칸으로써 마음대로 設立할 수 있었으며 學生의 年齡이 보통 7, 8세부터 15, 16세의 아동들이었고 오늘날의 학교교육에서처럼 一律的으로 학습이 進行된 것이 아니고 주로 個人的인 지도방법에 의하여 個人的 能力에 따라 教育內容과 진도가 달랐다. 이처럼 書堂이 大衆의 文字敎育과 그 마을의 道德的, 禮讓的 鄉風을 수립하고 순화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各 時代마다 제나름의 體制를 갖춘 私學機關이 發達하였다. 高麗時代의 九齋學堂은 扁堂이나 花郎徒에서 傳統的인 敎育思想을 계승하면서 독특한 敎育방법과 敎育理念으로 高麗社會에 기여하였으며, 훗날 朝鮮時代 書院과 書堂의 成立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九齋學堂이 門閥尊重의 경향과 함께 學閥重視라는 새로운 폐단을 초래하고 儒學이 保守·偏狹化하는 계기가 되어 武臣의 亂을 유발하였다는 견해도 있으나, 반면에 <東國通鑑>의 기록에서 보면,

‘崔冲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나라의 學校가 일어났고, 이때부터 文章이 뛰어난 선비가 쏟아져 나와 國家의 문필제작을 도움으로써 中國에까지 詩書의 나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九齋學堂의 영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九齋學堂이 朝鮮時代 書堂과 같이 일반 庶民들을 위한 大衆敎育과는 거리가 먼 貴族階級을 배경으로 한 儒敎的 知識人을 양성하였다는 점은 九齋學堂의 한계성으로 지적할 수 있다.

結 論

以上으로 高麗時代 九齋學堂 設立의 時代的 要因 및 體系的인 教育方式을 통한 全人的 教育을 실시하려는 教育理念과 우리나라의 私學 教育 發達에 끼친 影響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술을 근거로 하여 高麗時代 九齋學堂의 歷史的 意義와 그 影響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儒學의 發達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三國時代부터 儒學의 振興은 늘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졌으나 高麗初 官學의 부진으로 인하여 儒學教育을 담당할 새로운 機關의 필요성을 認識하게 되고 이런 時代的 요청에 부응하여 九齋學堂이 設立되었을 것으로 본다. 또한 崔冲은 일찍이 四書중의 하나인 中庸의 교리를 터득하고 이를 齋名으로 채택하므로 해서 실로 東方儒學 發興의 일대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九齋學堂은 睿宗·仁宗年間の 官學振興에 직접 작용함은 물론 高麗末에 新儒學을 받아들여 크게 文運의 진전을 가져오는 素地를 닦아주는 등 儒學의 發達에 이바지했던 것이다.

둘째로, 官學보다도 體系的인 教育方法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九齋學堂은 科舉準備的인 性格을 갖고는 있었으나, 夏課나 詩賦會같은 教育過程을 통하여 人間教育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고 個人의 人格 陶冶를 중시하는 全人教育을 追求하면서, 儒生상호간의 學問的 結속을 통한 人間教育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의 규범과 협동정신을 길렀다. 그리고 儒教的 소양을 갖춘 社會 中堅人을 양성하였으며 이들은 高麗社會의 文運을 주도하여 나갔다.

셋째로, 最初로 個人이 設立한 私立高等教育機關이었다는 점이다. 高句麗의 扃堂이나 新羅의 花郎徒는 어느 특정한 個人이 設立한 것이 아니었고, 教育機關인 동시에 군사적 훈련도 병행하였으므로 순수한 意味에서 私學 본래의 性格과는 거리가 멀었으므로, 崔冲의 九齋學堂을 우리나라 私學의 元祖라고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넷째로, 十一徒 私學의 모범이 되어서 高麗時代 私學의 發達을 促進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教育的인 공헌은 朝鮮時代 書院 設立등에 영향을 끼쳐 高句麗의 廡堂과 新羅의 花郎徒에서 朝鮮時代 書院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私學發達의 디딤돌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폐쇄적인 官學의 教育體制를 止揚하고 비교적 개방적인 教育方法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九齋學堂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지 못하고 官學振興策의 실시로 인하여 九齋學堂 設立 당시의 教育理念이 退色되어 準官學化되고 科擧準備나 하는 官學양성소로 전락되어 恭讓王때 가서는 30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九齋學堂이 停廢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겠다.

參 考 文 獻

1. 〈基本史料〉

- 高麗史, (鄭麟趾等撰).
- 高麗史節要, (金宗瑞等撰).
- 東史綱目, (安鼎福著).
- 補閑集, (崔滋著).
- 崔子全實記, (崔暉植編), 1922.
- 海州崔氏家藏, (崔承龍編), 海州文憲書院, 1917.
- 東國李相國集, (李圭報著), 1913.
- 東國通鑑, (徐居正編).
- 牧隱詩藁, (李穡著), 1915.
- 櫟翁稗說, (李齊賢).

- 海東名臣錄, (金堉著).
- 首陽世稿, (崔元溥編), 서울, 1962.

2. 〈著 書〉

- 金用駟, 〈韓國教育思想史〉, 三光出版社, 1978.
- 金忠烈, 〈高麗儒學史〉, 高大出版部, 1984.
- 申千湜, 〈高麗教育制度史研究〉, 中大大學院, 1983.
- 尹絲淳·高翊晉, 〈韓國의 思想〉, 열음사, 1984.
- 李基白·閔賢九 編著,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高麗編), 一志社, 1985.
- 李丙燾, 〈韓國儒學史〉, 아세아문화사, 1987.
- 韓基彥, 〈韓國教育史〉, 박영사, 1963.
- 海州崔氏宗誌, (創刊號), 海州崔氏大宗會, 1986

3. 〈論 文〉

- 金貞玉, 〈高麗時代 教育制度에 관한 考察〉, 梨大大學院, 1957.
- 金忠烈, 〈崔冲私學과 高麗儒學〉, 《崔冲研究論叢》, 경희대 전통문화연구소, 1984. 11.
- 朴貴煥, 〈高麗時代의 私立學校研究, - 十二徒를 중심으로〉, 연대교육대학원, 1969.
- 朴性鳳, 〈海東孔子 崔冲 小考〉, 《史叢》 1, 1955.
- ——, 〈高麗時代의 儒學發達과 私學十二徒의 功績〉, 《史叢》 2, 1957.
- ——, 〈榮華속의 海東孔子〉, 《한국의 인간상》 4, 1965.
- ——, 〈國子監과 私學〉, 《韓國史》 6, 1975.
- ——, 〈崔冲의 人間像과 私學十二徒〉, 《崔冲研究論叢》, 경희대 전통문화연구소, 1984. 11.
- 孫仁銖, 〈韓國私學의 전통과 崔冲의 位置〉, 《崔冲研究論叢》, 경희대

전통문화연구소, 1984. 11.

- 申鐵淳, 〈高麗私學十二徒와 李朝書院의 비교연구〉, 서울대 대학원, 1965.
- 尹南漢, 〈儒學의 性格〉, 《韓國史》 6, 1975.
- 李乙浩, 〈韓國儒學史上 崔冲의 位置〉, 《崔冲研究論叢》, 경희대 전통문화연구소, 1984. 11.
- 李能和, 〈高麗 崔冲〉, 《靑丘學叢》 22, 1935.
- 李熙德, 〈崔冲의 思想과 儒教政治倫理〉, 《崔冲研究論叢》, 경희대 전통문화연구소, 1984. 11.

文憲書院

享 祀 儀 節

在 夏

(宗 務 幹 事)

祭官差定記(諸執事)

初獻官	제례의 제일 주된 분
亞獻官	제례의 두번째 주된 분
終獻官	제례의 세번째 주된 분
大 祝	축을 읽는 직분
執 禮	제례의 순서를 지휘하는 사회자
典 祀	제례를 집행하는 해설역
贊 引	제관을 안내하는 분
奉 香	향합을 관리하는 직분
奉 爐	향로를 관리하는 직분
奉 爵	잔을 받들어서 헌관에게 전하는 직분
奠 爵	헌관에게서 잔을 받아 제상에 올리는 직분
司 罇	제주를 관리하는 직분

祭位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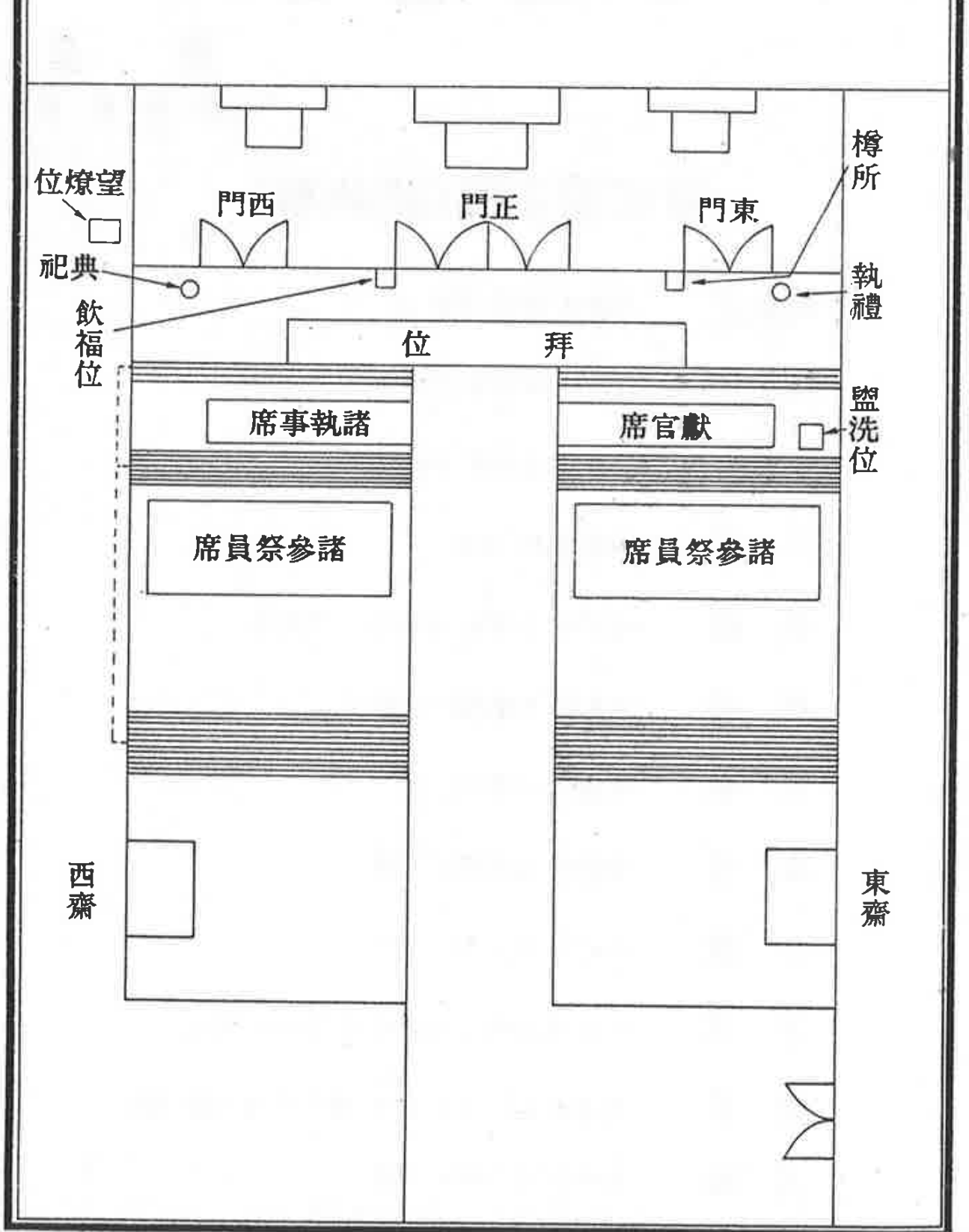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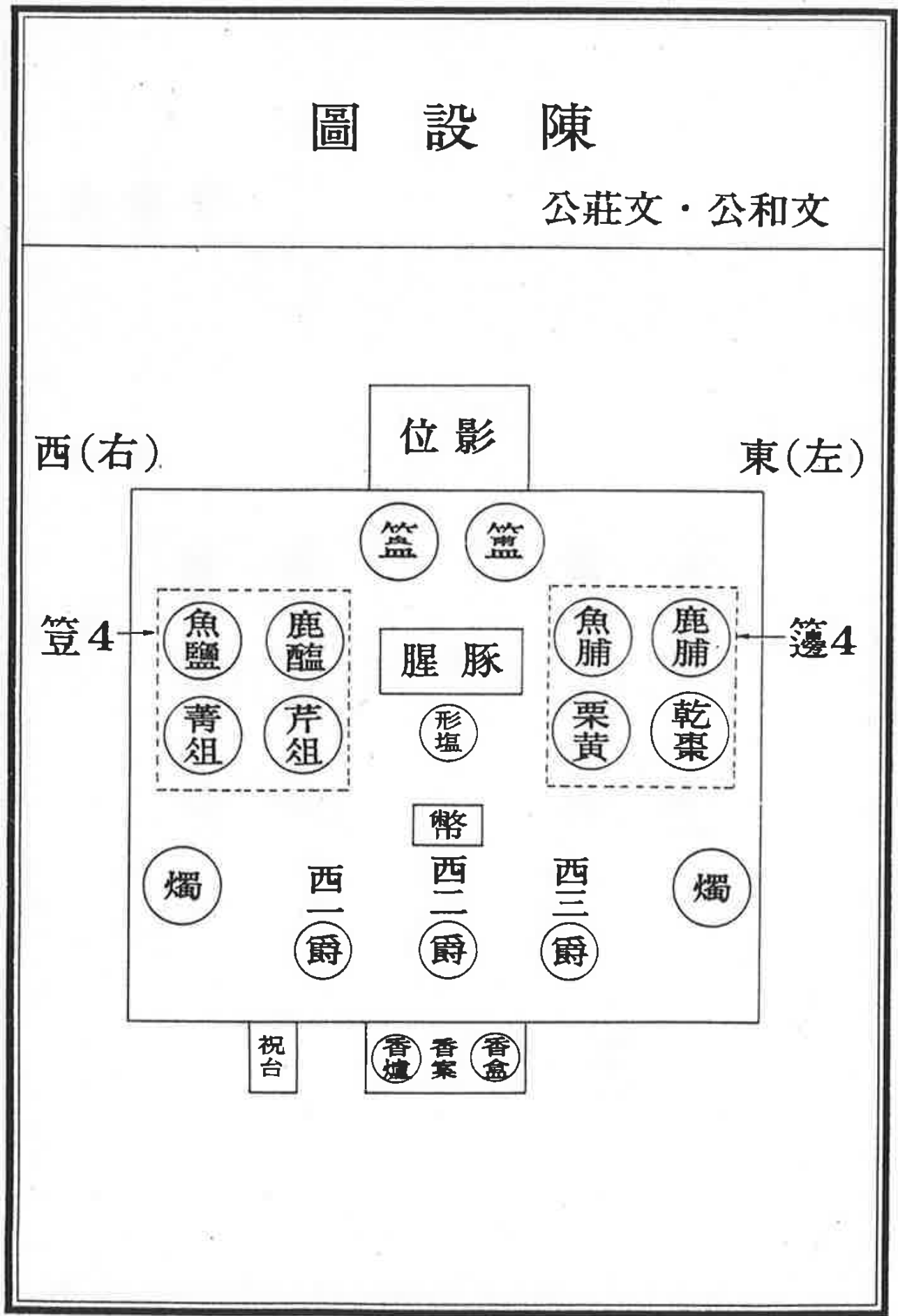


圖 設 陳

公莊文 · 公和文



祭需品目

鹿脯	牛肉乾脯(쇠고기 포) 丈一尺 幅一寸五分 十五片
魚脯	無鱗魚脯(비늘이 없는 해물포) 민어·숭어 乾脯
乾棗	마른대추 三升
栗黃	生栗(겉질까지 얇은 밤) 三升
莢仁	銀杏(은행) 三升
菱仁	胡桃(호두) 三升
鹿醢	牛肉(쇠고기) 三斤
魚鹽	石首魚(절인 해물) 鹽沈五尾
筍俎	竹筍無함으로 桔梗으로 代替一斤(도라지)
菲俎	부추 一束
芹俎	미나리 一束

菁俎	무우 무靑달린것 三個
豚腥	黑色 도야지머리(돼지머리)
形鹽	고운소금 一合
幣	白布(흰 비단) 三尺

祝 文 式

維

歲次某年某月某朔某日干支 後孫 某 敢昭告于
 先祖考文憲公肇開我庠獨尊仲尼猗歟敬學百世之師
 謹以牲幣醴齋粢盛庶品式陳明薦以文和公文莊公
 配 尙饗

文憲書院 儀節

請外儀

執禮○獻官及諸執事號唱序立○ 初獻官祭物陳設點視訖
 ○還出○大祝奉幣篚祝文○詣樽所置于○還出○執禮典祀
 贊引先就拜位○再拜(鞠躬拜興拜興)平身○詣盥洗位○盥
 水悅手訖○各就位○贊引引大祝及諸執事就拜位○再拜
 (鞠躬拜興拜興)平身○詣盥洗位○盥水悅手訖○各就位○
 贊引引初獻官亞獻官終獻官各就位○大祝贊引詣文憲公影位
 前○開扉○點火○仍啓簠簋籩豆○次詣文和公影位前○開
 扉○點火○仍啓簠簋籩豆○次詣文莊公影位前○開扉○點
 火○仍啓簠簋籩豆○還出○贊引進初獻官之前○謹具請行
 事

行奠幣禮

○贊引引初獻官詣盥洗位○盥水悅手訖○詣文憲公影位前
 跪○奉香奉爐詣樽所立于○奉香○奉香盒詣獻官之右 跪
 ○奉爐○奉香爐詣獻官之左 跪○獻官三上香○香盒香爐
 故處環置○奉香奉爐降復位○初獻官俯伏興平身○小退
 跪○大祝奉幣篚○詣獻官之右 跪○授獻官○獻官受之○
 獻幣○授大祝○大祝受之影位前奠于○降復位○獻官俯伏

興平身○次詣文和公影位前 跪○奉香奉爐詣樽所立于○
 奉香○奉香盒詣獻官之右 跪○奉爐○奉香爐詣獻官之左
 跪○獻官三上香○香盒香爐故處還置○奉香奉爐降復位○
 獻官俯伏興平身○小退 跪○大祝奉幣篚○詣獻官之右 跪
 ○授獻官○獻官受之○獻幣○授大祝○大祝受之影位前奠
 于○降復位○獻官俯伏興平身○次詣文莊公影位前 跪○
 奉香奉爐詣樽所立于○奉香○奉香盒詣獻官之右 跪○奉
 爐○奉香爐詣獻官之左 跪○獻官三上香○香盒香爐故處
 還置○奉香奉爐降復位○獻官俯伏興平身○小退 跪○大
 祝奉幣篚○詣獻官之右跪○授獻官○獻官受之○獻幣○授
 大祝○大祝受之○影位前奠于○降復位○獻官俯伏興平身
 ○降復位○贊引引獻官就拜位○獻官及諸參祭員皆再拜
 (鞠躬拜興拜興)平身○獻官各就位

行初獻禮

○贊引引初獻官詣文憲公影位前 跪○司罇詣樽所 跪○奉
 爵奠爵樽所 跪○奉爵取爵○司罇舉罇酌酒○奠爵詣獻官
 之左 跪○奉爵獻官之右 跪○授獻官○獻官受之○獻爵○
 授奠爵○奠爵受之奠于西端第一占○奉爵奠爵降復位○大
 祝樽所入取祝○詣獻官之左東向 跪○奉祝○讀祝訖○祝
 文故處還置○降復位○獻官俯伏興平身○次詣文和公影位
 前 跪○奉爵奠爵詣樽所 跪○奉爵取爵○司罇舉罇酌酒○
 奠爵詣獻官之左 跪○奉爵獻官之右 跪○授獻官○獻官受

之○獻爵○授奠爵○奠爵受之奠于西端第一占○奉爵降復位○獻官俯伏興平身○奠爵小退立于○次詣文莊公影位前跪○奠爵詣獻官之左 跪○奉爵詣樽所 跪○奉爵取爵○司罇舉冪酌酒○奉爵獻官之右 跪○授獻官○獻官受之○獻爵○授奠爵○奠爵受之奠于西端第一占○奉爵奠爵降復位○獻官俯伏興平身○贊引引獻官降復位

行亞獻禮

○贊引引亞獻官詣盥洗位○盥水悅手訖○詣文憲公影位前跪○奉爵奠爵詣樽所 跪○奉爵取爵○司罇舉冪酌酒○奠爵獻官之左 跪○奉爵獻官之右 跪○授獻官○獻官受之○獻爵○授奠爵○奠爵受之奠于西端第二占○奉爵降復位○奠爵小退立于○獻官俯伏興平身○次詣文和公影位前 跪○奉爵詣樽所 跪○奉爵取爵○司罇舉冪酌酒○奠爵詣獻官之左 跪○奉爵獻官之右 跪○授獻官○獻官受之○獻爵○授奠爵○奠爵受之奠于西端第二占○奉爵奠爵降復位○獻官俯伏興平身○贊引引獻官降復位

行終獻禮

○贊引引終獻官詣盥洗位○盥水悅手訖○詣文憲公影位前
 跪○奉爵奠爵詣樽所 跪○奉爵取爵○司罇舉罇酌酒○奠
 爵獻官之左 跪○奉爵獻官之右 跪○授獻官○獻官受之○
 獻爵○授奠爵○奠爵受之奠于西端第三占○奉爵降復位○
 奠爵小退立于○獻官俯伏興平身○次詣文和公影位前 跪
 ○奉爵詣樽所 跪○奉爵取爵○司罇舉罇酌酒○奠爵獻官
 之左 跪○奉爵獻官之右 跪○授獻官○獻官受之○獻爵○
 授奠爵○奠爵受之奠于西端第三占○奉爵降復位○奠爵小
 退立于○獻官俯伏興平身○次詣文莊公影位前 跪○奉爵
 詣樽所 跪○奉爵取爵○司罇舉罇酌酒○奠爵詣獻官之左
 跪○奉爵獻官之右 跪○授獻官○獻官受之○獻爵○授奠
 爵○奠爵受之奠于西端第三占○奉爵奠爵降復位○獻官俯
 伏興平身○贊引引獻官降復位○司罇降復位○贊引引諸獻
 官拜位○獻官再拜(鞠躬拜興拜興)平身○獻官降復位

行飲福禮

○贊引引初獻官○詣飲福位東向 跪○大祝升由○爵一器
 脯一器取爵○進初獻官之左 跪○初獻官受之飲福酒○虛
 爵授祝○大祝受之殿內置于○撤籩筮(小移)降復位○初獻

官俯伏興平身○贊引引初獻官降復位○贊引引獻官及諸執事拜位○獻官以下參祭員皆再拜(鞠躬拜興拜興)平身

行望燎禮

○贊引引初獻官詣望燎位北向立于○大祝殿內入○奉祝幣獻官之前○詣坎焚祝幣○獻官大祝降復位○贊引初獻官之前○白禮畢○獻官諸參祭員以次出○大祝贊引殿內復入○閉扉○消火○降復位○大祝以下諸執事拜位○再拜(鞠躬拜興拜興)平身○以次出○執禮典祀贊引拜位再拜(鞠躬拜興拜興)平身○次出

禮畢

우리말 풀이

祭官差定記(諸執事)

初獻官	제례의 제일 주된 분
亞獻官	제례의 두번째 주된 분
終獻官	제례의 세번째 주된 분
大 祝	축을 읽는 직분
執 禮	제례의 순서를 지휘하는 사회자
典 祀	제례를 집행하는 해설역
贊 引	제관을 안내하는 분
奉 香	향합을 관리하는 직분
奉 爐	향로를 관리하는 직분
奉 爵	잔을 받들어서 헌관에게 전하는 직분
奠 爵	헌관에게서 잔을 받아 제상에 올리는 직분
司 罇	제주를 관리하는 직분

祭位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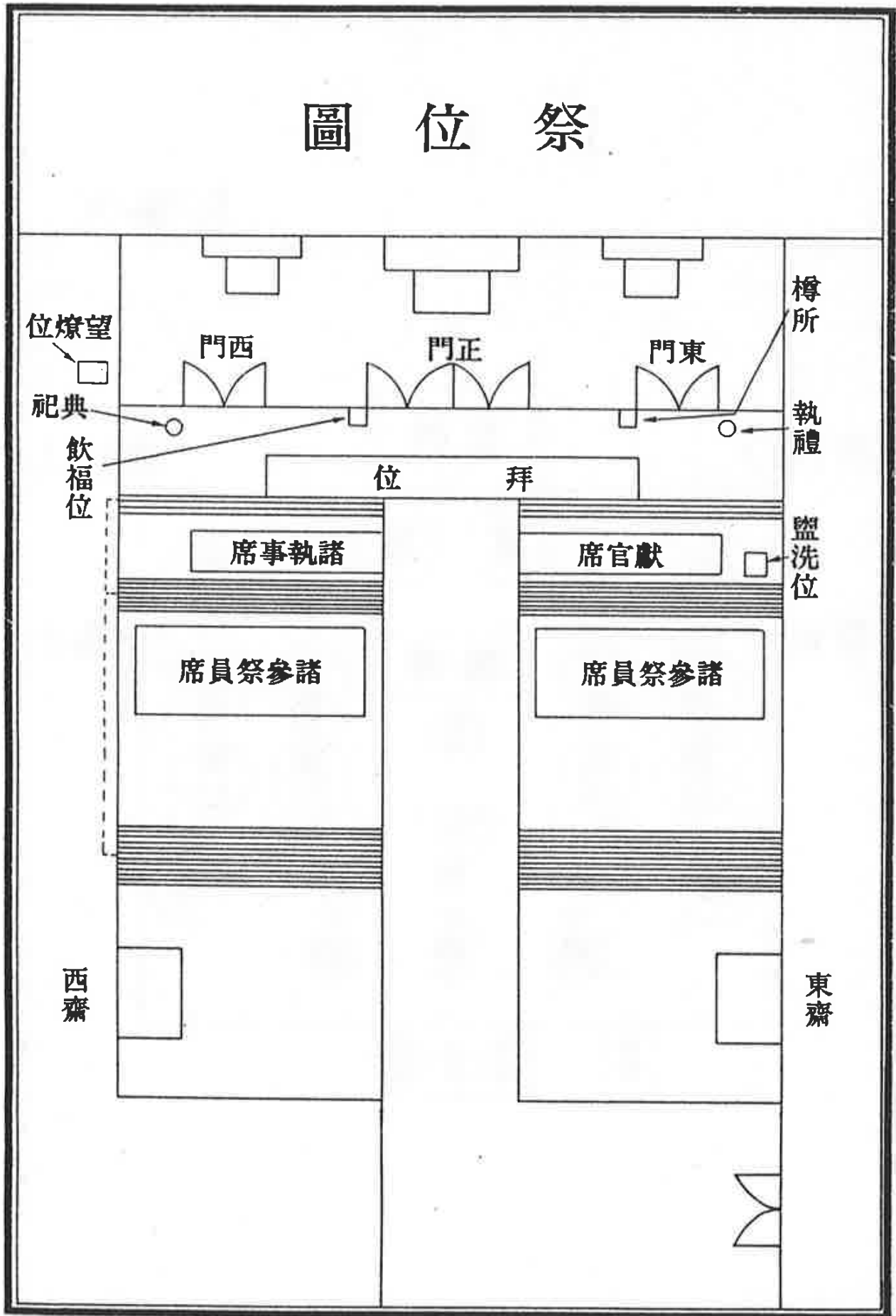


圖 設 陳

公 憲 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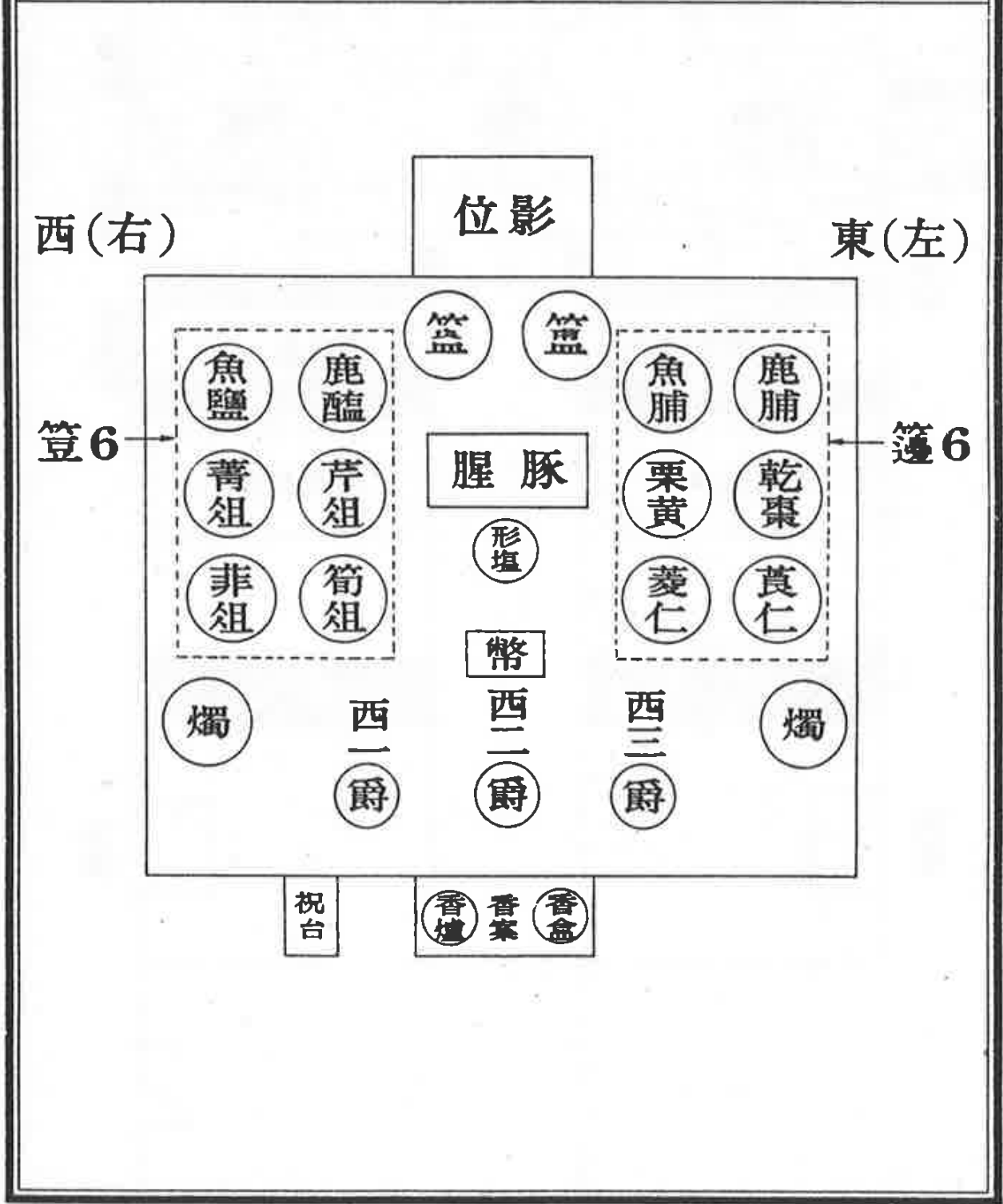


圖 設 陳

公莊文 · 公和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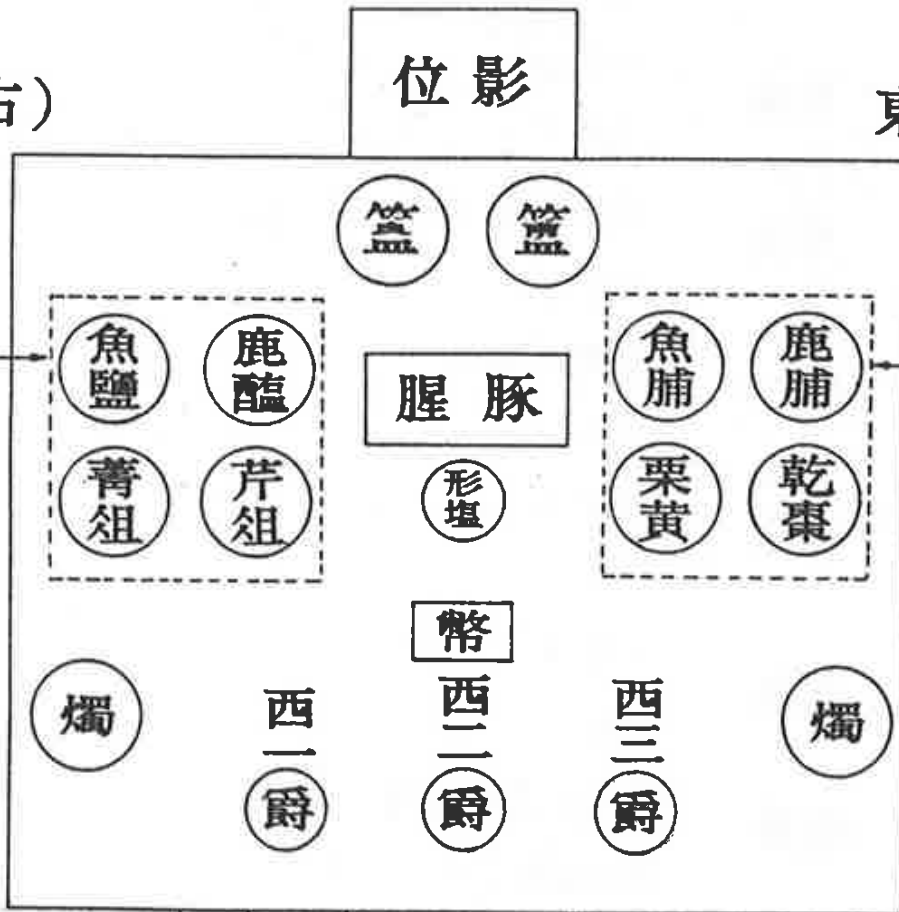
西(右)

位 影

東(左)

筮 4

籩 4



祝台

香爐 香案 香奩

燭

西

一爵

幣

西

二爵

西

三爵

燭

腥 豚

形 塩

魚 鹽

鹿 醢

菁 俎

芹 俎

魚 脯

鹿 脯

栗 黃

乾 棗

籩 4

籩 4

祭需品目

鹿脯	牛肉乾脯(쇠고기 포) 丈一尺 幅一寸五分 十五片
魚脯	無鱗魚脯(비늘이 없는 해물포) 민어·숭어 乾脯
乾棗	마른대추 三升
栗黃	生栗(겉질 까지 얇은 밤) 三升
萁仁	銀杏(은행) 三升
菱仁	胡桃(호두) 三升
鹿醢	牛肉(쇠고기) 三斤
魚鹽	石首魚(질인 해물) 鹽沈五尾
筍俎	竹筍無함으로 桔梗으로 代替一斤(도라지)
菲俎	부추 一束
芹俎	미나리 一束

菁俎	무우 무靑달린것 三個
豚腥	黑色 도야지머리(돼지머리)
形鹽	고운소금 一合
幣	白布(흰 비단) 三尺

축 문 식

유

세차○○년○월○일에 후손 ○○가 삼가 고합니다.

문헌공 할아버님께서는 친히 사학을 여시었으며 공자님과 같은 독보적 존경을 받는 분이시며 백세의 스승이시니 공경스러운 학문에 경탄하옵고 삼가 예물과 생물·단술을 정성스럽게 가려서 함께 진상하옵나이다. 문화공, 문장공 두 아드님과 함께 흠향하소서.

집례 : 지금으로부터 제사를 모시겠습니다.

- 헌관과 제 집사는 대기장소에 정렬하여 주시오.
(헌관, 제 집사 호명)
- 초헌관은 경내의 진설상황을 점검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대축은 축문과 폐비를 준소에 갖다 놓으시고 나가시오.
- 집례, 전사, 찬인은 절하는 장소에 가서 두 번 절을 하시고
(국궁, 배홍, 배홍)
- 손을 씻고 수건에 닦으신 다음 자기 위치로 돌아가시오.
- 찬인은 대축과 제 집사를 절하는 장소에 인도하시어
- 두 번 절을 하시게 하시오(국궁, 배홍, 배홍)
-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신 다음
- 자기 위치로 돌아 가시오.
- 찬인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을 자기 자리에 인도하시오.
- 대축과 찬인은 문헌공 영위 앞에 나아가
- 영정 봉안대문을 열고 초에 불을 당기시오.
- 덮여 있는 제기의 뚜껑을 벗겨 주시오.
- 다음 문화공 영위 앞에 다가가서
- 영정 봉안대문을 열고 초에 불을 당기시오.
- 덮여 있는 제기의 뚜껑을 벗겨 주시오.
- 다음 문장공 영위 앞에 다가가서
- 영정 봉안대문을 열고 초에 불을 당기시오.
- 덮여 있는 제기의 뚜껑을 벗겨 주시오.
- 자기 위치로 돌아 가시오.
- 찬인은 초헌관 앞에 가서
- 삼가 제사를 올리도록 청하시오.

폐백(예물)을 올리는 예를 진행하겠습니다.

- 찬인은 초헌관을 손씻는 장소에 인도 하시고
-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게 하신 후
- 문헌공 영위 앞에 꿇어 앉으시도록 하시오.
- 봉향과 봉로는 준소에 가서 꿇어 앉으시오.
- 봉향은 향합을 받들고 헌관 우측에 꿇어 앉으시오.
- 봉로는 향로를 받들고 헌관 좌측에 꿇어 앉으시오.
- 헌관은 향을 세 번 향로에 넣어 연기가 나도록 하시오.
- 향합과 향로를 제자리에 놓으시오.
- 봉향, 봉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오.
- 헌관은 엎드려 예를 한 다음 조금 뒤로 물러나 꿇어 앉으시오.
- 대축은 폐비(예물)를 받들고
- 헌관 우측에 꿇어 앉아
- 헌관에게 드리고
- 헌관은 받아서 받들어 예를 하시고
- 다시 대축에게 드리시오.
- 대축은 영위 앞에 올리시오.
- 그리고 나오시오.
- 헌관은 엎드려 예를 한 다음 일어서시오.
- 다음 문화공 영위 앞에 꿇어 앉으시오.
- 봉향과 봉로는 준소에 가서 꿇어 앉으시오.
- 봉향은 향합을 받들고 헌관 우측에 꿇어 앉으시오.
- 봉로는 향로를 받들고 헌관 좌측에 꿇어 앉으시오.

- 헌관은 향을 세 번 피워 연기가 나도록 하시오.
- 향합과 향로를 제자리에 놓으시오.
- 봉향, 봉로는 자기 자리로 돌아 가시오.
- 헌관은 엎드려 예를 한 다음 조금 뒤로 물러나 꿇어 앉으시오.
- 대축은 폐비(예물)를 받들고
- 헌관 우측에 꿇어 앉아
- 헌관에게 드리고
- 헌관은 받아서 받들어 예를 하시고
- 다시 대축에게 드리시오.
- 대축은 받아서 영위 앞에 올리시오.
- 그리고 나오시오.
- 헌관은 엎드려 예를 한 다음 일어서시오.
- 다음 문장공 영위 앞에 꿇어 앉으시오.
- 봉향과 봉로는 준소에 가서 꿇어 앉으시오.
- 봉향은 향합을 받들고 헌관 우측에 꿇어 앉으시오.
- 봉로는 향로를 받들고 헌관 좌측에 꿇어 앉으시오.
- 헌관은 향을 세 번 피워 연기가 나도록 하시오.
- 향합과 향로를 제자리에 놓으시오.
- 봉향, 봉로는 자기 자리로 돌아 가시오.
- 헌관은 엎드려 예를 한 다음 조금 뒤로 물러나 꿇어 앉으시오.
- 대축은 폐비(예물)를 받들고
- 헌관 우측에 꿇어 앉아
- 헌관에게 드리고
- 헌관은 받아서 받들어 예를 하시고
- 다시 대축에게 드리시오.

- 대축은 받아서 영위 앞에 올리시오.
- 그리고 나오시오.
- 헌관은 옆드려 예를 한 다음 일어나
- 자기 자리로 돌아 가시오.
- 찬인은 헌관들을 절하는 장소에 인도하시오.
- 헌관과 제사 참석자 전원은 두 번 절하시오(국궁, 배홍, 배홍)

첫잔을 올리는 예를 진행하겠습니다.

- 찬인은 초헌관을 문헌공 영위 앞에 인도하여 꿇어 앉으시도록 하시오.
- 사준은 준소에 나가 꿇어 앉으시오.
- 봉작, 전작은 준소에 나가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은 잔을 받으시오.
- 사준은 봉작이 받들고 있는 잔에 술을 담아주시오.
- 전작은 헌관 좌측에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은 헌관 우측에 꿇어 앉아서
- 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헌관은 잔을 받아서 예를 한 다음
- 전작에게 주시오.
- 전작은 잔을 받들어 서단 제1점에 올리시오.
- 봉작, 전작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오.
- 대축은 준소에 가서 축문을 받들고

- 헌관 좌측에 동쪽을 향해 꿇어 앉으시오.
- 축문을 받들고 읽으시오.
- 축문을 축함에 놓고
- 옆드려 예를 한 다음 일어나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오.
- 헌관은 옆드려 예를 한 다음 일어나시오.
- 다음 문화공 영위 앞에 꿇어 앉으시오.
- 봉작, 전작은 준소에 나가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은 잔을 받들고
- 사준은 봉작이 받들고 있는 잔에 술을 담아주시오.
- 전작은 헌관 좌측에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은 헌관 우측에 꿇어 앉아서
- 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헌관은 잔을 받아서 예를 한 다음
- 전작에게 주시오.
- 전작은 잔을 받아서 서단 제1점에 올리시오.
- 봉작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전작은 조금 물러나 일어서시오.
- 헌관은 옆드려 예를 한 다음 일어나서
- 다음 문장공 영위 앞에 꿇어 앉으시오.
- 전작은 헌관 좌측에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은 준소에 나가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은 잔을 받들고
- 사준은 봉작이 받들고 엮는 잔에 술을 담아주시오.
- 봉작은 헌관 우측에 꿇어 앉아서
- 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헌관은 잔을 받아서 예를 한 다음
- 전작에게 주시오.
- 전작은 잔을 받들어 서단 제1점에 올리시오.

- 봉작, 전작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오.
- 헌관은 옆드려 예를 한 다음 일어서시오.
- 찬인은 헌관을 제자리로 인도하십시오.

두번째 잔을 올리는 예를 진행하겠습니다.

- 찬인은 아헌관을 손씻는 장소에 안내하시고
-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게 하신 후
- 문헌공 영위 앞에 인도하여 꿇어 앉으시도록 하시오.
- 봉작, 전작은 준소에 나가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은 잔을 받드시오.
- 사준은 봉작이 받들고 있는 잔에 술을 담아주시오.
- 전작은 헌관 좌측에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은 헌관 우측에 꿇어 앉아서
- 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헌관은 잔을 받아서 예를 한 다음
- 전작에게 주시오.
- 전작은 잔을 받들어 서단 제2점에 올리시오.
- 봉작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오.
- 전작은 일어서서 조금 물러나 있으시고
- 헌관은 옆드려 예를 한 다음 일어나
- 다음 문화공 영위 앞에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은 준소에 나가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은 잔을 받드시고

- 사준은 봉작이 받들고 있는 잔에 술을 담아주세요.
- 전작은 헌관 좌측에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은 헌관 우측에 꿇어 앉아서
- 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헌관은 잔을 받아서 예를 한 다음
- 전작에게 주시오.
- 전작은 잔을 받들어 서단 제2점에 올리시오.
- 봉작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전작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있으시고
- 헌관은 옆드려 예를 한 다음 일어나
- 다음 문장공 영위 앞에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은 준소에 나가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은 잔을 받드시고
- 사준은 봉작이 받들고 있는 잔에 술을 담아주세요.
- 전작은 헌관 좌측에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은 헌관 우측에 꿇어 앉아서
- 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헌관은 잔을 받아서 예를 한 다음
- 전작에게 주시오.
- 전작은 잔을 받들어 서단 제2점에 올리시오.
- 봉작, 전작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헌관은 옆드려 예를 한 다음 일어서시오.
- 찬인은 헌관을 제자리로 인도하시오.

세번째 잔을 올리는 예를 진행하겠습니다.

- 찬인은 종헌관을 손씻는 장소에 안내하시고
-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게 하신 후
- 문헌공 영위 앞에 인도하여 꿇어 앉으시도록 하시오.
- 봉작, 전작은 준소에 나가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은 잔을 받드시오.
- 사준은 봉작이 받들고 있는 잔에 술을 담아주시오.
- 전작은 헌관 좌측에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은 헌관 우측에 꿇어 앉아서
- 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헌관은 잔을 받아서 예를 한 다음
- 전작에게 주시오.
- 전작은 잔을 받들어 서단 제3점에 올리시오.
- 봉작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오.
- 전작은 일어서서 조금 물러나 있으시고
- 헌관은 엎드려 예를 한 다음 일어나
- 다음 문화공 영위 앞에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은 준소에 나가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은 잔을 받드시고
- 사준은 봉작이 받들고 있는 잔에 술을 담아주시오.
- 전작은 헌관 좌측에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은 헌관 우측에 꿇어 앉아서
- 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헌관은 잔을 받아서 예를 한 다음
- 전작에게 주시오.

- 전작은 잔을 받들어 서단 제3점에 올리시오.
- 봉작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전작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있으시고
- 헌관은 옆드려 예를 한 다음 일어나
- 다음 문장공 영위 앞에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은 준소에 나가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은 잔을 받드시고
- 사준은 봉작이 받들고 있는 잔에 술을 담아주소.
- 전작은 헌관 좌측에 꿇어 앉으시오.
- 봉작은 헌관 우측에 꿇어 앉아서
- 잔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 헌관은 잔을 받아서 예를 한 다음
- 전작에게 주시오.
- 전작은 잔을 받들어 서단 제3점에 올리시오.
- 봉작, 전작은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 헌관은 옆드려 예를 한 다음 일어서시오.
- 찬인은 헌관을 제자리로 인도하십시오.

음복의 예를 진행하겠습니다.

- 찬인은 초헌관을 음복하는 장소에 인도하여 동향으로 꿇어 앉도록 하시오.
- 대축은 전내에 들어가서 술 한잔 포 한접시를 들고 초헌관 앞에 나아가 전하시오.

- 초헌관은 술을 받아 마시고 빈 잔을 대축에게 주시오.
- 대축은 잔을 받아 전내 제자리에 놓으시오.
- 제기의 뚜껑을 덮고 제자리로 가시오.
- 초헌관은 엎드려 예를 한 다음 일어서시오.
- 찬인은 초헌관을 제자리로 인도하시오.
- 찬인은 헌관과 제 집사를 절하는 장소로 인도하시오.
- 헌관과 제사 참석자 전원은 두번 절을 하시오.
(국궁, 배홍, 배홍)

축문 불사르는 예를 진행하겠습니다.

- 찬인은 초헌관을 축문 불사르는 장소에 인도 하시오.
- 대축은 전내에 들어가 축문과 폐백을 받들어 헌관앞으로 가시오.
- 축문과 폐백을 불사르고 헌관과 대축은 제자리로 가시오.
- 찬인은 초헌관 앞에 나아가 향사가 끝났음을 알리시오.
- 헌관과 제사의 참석자 전원은 나가시오.
- 대축과 찬인은 전내에 들어가
- 영정 봉안대문을 닫고 촛불을 끄고 제자리로 가시오.
- 대축과 집사들은 절하는 장소에 가서 두번 절하시오.(국궁, 배홍, 배홍)
- 전원 나가시오.
- 집례, 전사, 찬인은 절하는 장소에 가서 두번 절하시오.(국궁, 배홍, 배홍)
- 향사를 마치겠습니다.

大宗會任員名單

(年齡順)

顧問



顧問 崔龍珠 (17.8.22生) (承旨公派)
 三陽物産(株) 會長
 서울 西大門區 延禧洞 38
 ☎ 자) 393-9383 직) 336-0021~5
 〒 120-110



顧問 崔明憲 (29.6.16生)
 (前國會議員 勞動部長官)
 서울 瑞草區 方背本洞 12-13
 ☎ 자) 532-8117
 〒 137-069

會長團





會長 崔元植 (23.11.27生) (佐郎公派)
 仁川港運(株) 代表理事 會長
 서울陽川區木洞903 목동신시가지 아파트313동 504호
 ☎ 자) 646-0604 직) 784-0144, 786-1144
 〒 158-050 (032) 884-3691



首席副會長 崔吉竣 (24.11.26生) (校理公派)
 協進産業(株) 代表理事(前 國稅廳間稅局長)
 서울 江南區 道谷洞465 우성4차아파트 5동206호
 ☎ 자) 575-0360 직) 577-0928, 0938
 〒 135-270

	<p>副會長 崔翼列 (14.5.17生) (大寧君派) 醫學博士 大東外科醫院長 忠南 禮山郡 禮山邑 禮山里 137 ☎ (0458) 31-2223 직) (0458) 33-2676 〒 340-800</p>
	<p>副會長 崔天溥 (16.12.9生) (典翰公派) 三榮製藥合資會社代表理事 忠南 天安市 社稷洞 146 ☎ 자) (0417) 551-2325 직) (0417) 62-4300~2 〒 330-040</p>
	<p>副會長 崔洙東 (19.5.24生) (承旨公派) 養苗酪農業 光州 北區 牛山洞 현대아파트 106동 301호 ☎ 자) (062) 262-0506 〒 500-080</p>
	<p>副會長 崔用根 (21.5.30生) (佐郎公派) 大現織物社 會長 大邱, 北區 東湖洞 548-7 ☎ 자) (053) 312-0411 직) (053) 32-4935 〒 702-320</p>
	<p>副會長 崔萬基 (23.5.25生) (校理公派) 水踰產業 社長 서울 江南區 論峴洞105 동현아파트1동 1002호 ☎ 자) 544-9445 〒 135-010</p>
	<p>副會長 崔東植 (24.5.12生) (佐郎公派) 大東特殊고무工業社 會長 서울 麻浦區 大興洞 500-5 ☎ 자) 716-6451 직) 716-6990 〒 121-080</p>

	<p>副會長 崔秉完 (33.3.5生) (佐郎公派) 尙進土建會社 社長 京畿 廣州郡 廣州邑 역리 3-13 ☎ 자) (0347) 64-3360, 61-3360 〒 464-800</p>
	<p>副會長 崔秉倫 (38.1.9生) (判司僕寺公派) 辯護士(前서울地方法院判事) 서울 松坡區 잠실동 86아시아선수촌아파트2동1002호 ☎ 자) 417-0896 직) 554-6365, 558-2405 〒 138-220</p>
	<p>副會長 崔光云 (39.3.24生) (佐郎公派) 儒城溫泉食堂代表 大田 유성구 鳳鳴洞469-22 ☎ 자) (042) 822-4889, 2422 〒 305-301</p>
<h2>監 事</h2>	
	<p>監 事 崔光敏 (24.3.15生) (佐郎公派) 新安相互信用金庫會長(前 第一銀行支店長) 京畿 九里市 仁倉2洞 495-7 ☎ 자) (0346) 63-2741 〒 471-010</p>
	<p>監 事 崔大善 (41.9.28生) (監察公派) 韓醫學博士 麻浦韓醫院長(前 圓光大學教授) 서울 麻浦區 桃花洞183-6 ☎ 자) 324-7171 직) 712-1191, 717-1191 〒 121-040</p>

執行部 任員



幹事長 崔承君 (30.8.20生) (佐郎公派)
 東部青果(株)專務理事(前 國會事務處書記官)
 서울 松坡區 風納2洞388-7 우성아파트2동 1105호
 ☎ 자) 483-7775 직) 962-2537, 966-5227
 〒 138-042



副幹事長 崔順炫 (40.9.9生) (縣監公派)
 韓國學院總聯合會事務總長(行政高等考試合格)
 서울 西大門區 北加佐洞 300-18
 ☎ 자) 372-3701 직) 798-8881~4
 〒 120-130



副幹事長 崔焯正 (40.12. 3生) (承旨公派)
 大進運輸(株) 代表理事
 서울 江南區 淸潭洞 113-3
 ☎ 자) 542-3806 직) (032) 576-2192, 577-1482
 〒 135-100



總務幹事 崔光宇 (34. 10. 21生) (佐郎公派)
 事業
 서울 中浪區 面牧2洞 138-3
 ☎ 자) 434-8048
 〒 131-202



總務副幹事 崔賞均 (35.6.18生) (校理公派)
 事業
 서울 城東區 紫陽洞695-1 한양아파트2동1103호
 ☎ 자) 444-6603
 〒 133-190

	<p>財務幹事 崔道植 (33.3.1生) (進士公派) 銃砲火藥安全技術協會教材課長(前治安本部外事課主任) 서울 冠岳區 新林8洞 1657-16 8/1 ☎ 자) 855-7171 직) 515-2342 〒 151-018</p>
	<p>財務副幹事 崔基奉 (40.11.22生) (海陵君派) 事業 서울 江西區 禾谷本洞 46-68 궁전빌라301호 ☎ 자) 693-2965 〒 157-019</p>
	<p>組織幹事 崔禎燮 (44.1.13生) (典翰公派) 中央海難審判院 首席調査官(書記官) 서울 陽川區 新亭6洞 목동아파트1304동507호 ☎ 자) 646-0646 직) 392-9895 〒 158-072</p>
	<p>組織副幹事 崔光勳 (36.8.10生) (佐郎公派) 事業 서울 中浪區 面牧2洞 133-24 ☎ 자) 434-7152 〒 131-202</p>
	<p>事業幹事 崔昌燮 (42.2.19生) (縣監公派) 利川金屬商社 社長 서울 江南區 淸潭洞65 진흥아파트6동501호 ☎ 자) 517-4007 직) 612-9666, 685-4445 〒 135-100</p>
	<p>事業副幹事 崔鮮植 (39.3.13生) (佐郎公派) 事業 서울 蘆原區 倉1洞297-1 창동상아아파트1동502호 ☎ 자) 908-4408 직) (0356) 84-3998 〒 139-041</p>

	<p>弘報幹事 崔 鳳 燮 (38.9.15生) (海陵君派) 東亞日報方背支局長 서울 瑞草區 方背洞 460-27 ☎ 자) 582-8773 직) 591-5112, 2946. 536-4550 〒 137-060</p>
	<p>弘報副幹事 崔 英 憲 (40.7.17生) (文貞公派) 裕山綜合商社 社長 仁川 西區 佳佐4洞 주공2단지 103동 102호 ☎ 자) (032) 579-0387 직) (02) 691-6846, 605-4344 〒 404-254</p>
	<p>宗務幹事 崔 在 夏 (37.6.3生) (典翰公派) 서울 西部教育廳 管理局長(書記官) 서울 麻浦區 大興洞 18-63 ☎ 자) 717-0320 직) 362-1201 〒 121-080</p>
	<p>宗務副幹事 崔 明 植 (48.4.9生) (文貞公派) 日星堂代表 서울 江東區 千戶洞 48-16 ☎ 자) 479-2814 직) 478-2814, 488-2814 〒 134-020</p>
	<p>婦女幹事 崔 慶 順 (56.12.13生) (校理公派) 文化部 文化財管理局 主事 서울 麻浦區 大興洞 12-133 ☎ 자) 723-0203 직) 720-2122 〒 121-080</p>
	<p>事務局長 崔 炳 弼 (19.2.16生) (校理公派) (前 仁川地方法院勤務) 서울 龍山區 山泉洞122-3 韓一빌라 C-202호 ☎ 자) 717-3658 직) 782-2014 〒 140-040</p>



總務部長 崔 澄 植 (35.5.17生) (大寧君派)
仁川 北區 桂山3洞 342-1 삼보아파트 7동306호
☎ 자) (032) 544-9502 직) 782-2014
〒 403-053

宗誌編纂委員



委員長 崔 俊 基 (25.4.4生) (校理公派)
文學博士 漢陽女子專門大學長
서울 城東區 紫陽洞 220-4
☎ 자) 444-9006 직) 293-4102, 292-8181
〒 133-190



副委員長 崔 愚 (31.12.1生) (校理公派)
(株)曉承物産代表理事(前韓國JC副會長 新聞社編輯部長)
서울 鍾路區 社稷洞 262-8
☎ 자) 722-6279, 8123 직) 722-6698
〒 110-054



副委員長 崔 康 賢 (36.9.28生) (縣監公派)
文學博士 弘益大學校 師大教授
서울 麻浦區 西橋洞 331-13
☎ 자) 337-3302 직) 320-1792
〒 121-210



委員 崔 永 哲 (23.12.31生) (校理公派)
(前 國民學校長)
仁川南區 官校洞 13-9 星志아파트103동 1203호
☎ 자) (032) 421-2698
〒 402-080

	<p>委員 崔承萬 (26.9.9生) (佐郎公派) (前 國民學校長)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洞43-4 미주아파트 B동408호 ☎ 자) 782-3527 〒 150-010</p>
	<p>委員 崔理燮 (29.1.1生) (典翰公派) (前 女商校庶務課長) 서울 江南區 清潭洞134-18 三益아파트5동303호 ☎ 자) 542-9087 〒 135-100</p>
	<p>委員 崔光植 (39.12.7生) (佐郎公派) 大慶機械技術(株) 常任監事 서울 江南區 大峙3洞 972 로알타운306호 ☎ 자) 562-5220 직) (0522)73-8712 〒 135-283</p>
	<p>委員 崔昌燮 (42.3.13生) (佐郎公派) 新聞學博士 西江大學校新放科教授 서울 陽川區木1洞 913 신시가지아파트522동403호 ☎ 자) 647-2113 직) 705-8382 〒 158-051</p>
	<p>委員 崔起鎬 (42.4.25生) (典翰公派) 文學博士 祥明女子大學校國文科教授 서울 瑞草區 瑞草洞 신동아아파트 3동 110호 ☎ 자) 566-1655 직) 398-5095 〒 137-070</p>
	<p>委員 崔雲植 (42.10.27生) (佐郎公派) 文學博士 韓國教員大學校 教授 서울 城北區 下月谷洞90-1854 ☎ 자) 912-4909 직) (0431) 60-3509 〒 136-130</p>



委員 崔 漢 秀 (47.6.25生) (文貞公派)
 政治學博士 建國大學校 政治學科教授
 서울 松坡區문정동혜미리아파트308동804호
 ☎ 자) 404-6656 직) 450-3554, 444-2124~9
 〒 138-200

運營委員名單(가,나,다順)



委員 崔 慶 鎮 (23.8.16生) (承旨公派)
 덕산관광 代表
 全南 和順郡 東面 梧桐里 150
 ☎ 자) (0612) 72-8077, 직) (0612) 72-2072
 〒 519-880



委員 崔 京 完 (40.1.23生) (佐郎公派)
 商 業
 서울 九老區 禿山1洞331-37 현대맨숀연립가동104호
 ☎ 자) 805-8341
 〒 152-011



委員 崔 慶 善 (43.11.15生) (監察公派)
 (株) 永昌陶器代表理事
 서울 東大門區 里門洞264-213 30/1
 ☎ 자) 962-3229 직) 273-6555~7
 〒 130-080



委員 崔 桂 根 (09.6.26生) (校理公派)
 서울 城東區 馬場洞784 世林아파트2동401호
 ☎ 자) 295-2113
 〒 133-050

	<p>委 員 崔 觀 郁 (32.9.10生) (承旨公派) 三祐鹽業社 社長 서울 東大門區 長安4洞 93-28 영풍연립101호 ☎ 자) 213-4377 직) (0455) 64-1255 〒 130-104</p>
	<p>委 員 崔 光 勳 (23.12.3生) (佐郎公派) 서울 中浪區 新內洞468 ☎ 자) 433-1898 〒 131-130</p>
	<p>委 員 崔 光 高 (25.3.29生) (佐郎公派) 서울 中浪區 中和洞 20 ☎ 자) 433-5391 〒 131-120</p>
	<p>委 員 崔 廣 洙 (28.2.24生) (海陵君派) 日新煉瓦工業(株) 代表理事 서울 江南區 新沙洞 570-4 日新빌딩 ☎ 직) 540-0633 〒 135-120</p>
	<p>委 員 崔 洸 善 (29.2.1生) (左尹公派) 聖山教會長老 京畿 城南市 중원구 금광1동 541 ☎ 자) (0342) 47-1420 〒 462-241</p>
	<p>委 員 崔 廣 善 (36.6.14生) (佐郎公派) (株) 安興밸브 代表理事 서울 東大門區 龍頭洞 39-875 ☎ 자) 967-0512 〒 130-070</p>

	<p>委員 崔光茂 (37.6.17生) (佐郎公派) 商業 京畿 九里市 水澤洞404-9 ☎ 자) (0346) 63-6266 직) (0346) 63-2318 〒 471-030</p>
	<p>委員 崔光烈 (49.12.15生) (典翰公派) 美術文化院長 서울 麻浦區 龍江洞 149-31 ☎ 자) 719-5586 직) 730-4948~9 〒 121-070</p>
	<p>委員 崔圭鉉 (39.3.20生) (海陵君派) 水原電信電話局水原分局長 京畿 水原市 장안구 華西洞 82-7 ☎ 자) (0331) 43-4242 직) (0331) 211-1321~2 〒 440-150</p>
	<p>委員 崔圭哲 (40.7.12生) (承旨公派) 새마을운동서울시협의회계획위원장, 전국씨름인동우회부회장 서울 西大門區 延禧3洞 6-54 ☎ 자) 336-0875, 2488 직) 330-1454 〒 120-113</p>
	<p>委員 崔根春 (48.12.10生) (佐郎公派) 進明物産(株)營業部 서울 瑞草區 方背2洞 432-3 ☎ 자) 584-0208 직) 642-3100 〒 137-062</p>
	<p>委員 崔基喆 (34.3.21生) (文貞公派) 極東機械工業社社長 서울 銅雀區 舍堂洞 449-12 ☎ 자) 588-2511 직) (0333) 62-0905 〒 156-090</p>

	<p>委員 崔基福 (40.12.18生) (海陵君派) 商業 大邱, 中區 三德洞 2街 228-12 ☎ 자) (053) 424-6607 직) (053) 425-5240 〒 700-412</p>
	<p>委員 崔南熙 (25.1.29生) (海陵君派) 海陵君派宗親會長 京畿 始興市 新川洞 595-44 ☎ 자) (032) 691-6960 〒 492-020</p>
	<p>委員 崔南奎 (27.11.14生) (佐郎公派) 大-고무商社社長 大邱 中區 市場北路110 ☎ 자) (053) 555-4191 직) (053) 554-8735, 9735 〒 700-290</p>
	<p>委員 崔魯鉉 (26.1.15生) (海陵君派) 大韓老人會高陽郡支部事務局長 京畿高陽郡一山邑 楓1里318-22건풍빌라8동2호 ☎ 자) (0344) 975-3090 직) (0344) 64-7851 〒 411-820</p>
	<p>委員 崔大允 (17.1.4生) (佐郎公派) 서울 中浪區 墨1洞 122-312 ☎ 자) 975-0784 〒 131-141</p>
	<p>委員 崔大植 (24.4.8生) (佐郎公派) 아모레 代理店 社長(前 農協郡支部長) 京畿果川市別陽洞6주공아파트507동602호 ☎ 자) 502-0717 직) (0331) 6-5977 〒 427-040</p>

	<p>委 員 崔 大 善 (41.6.27生)(校理公派) 대림상사 대표 서울永登浦區 汝矣島洞30-2삼부아파트8동2층3호 ☎ 자) 783-7525 직) 755-7854~5 〒 150-010</p>
	<p>委 員 崔 德 龍 (26.6.10生)(大寧君派) 東鮮觀光(株)代表理事 大田.中區 太平2洞 삼부아파트34동12층6호 ☎ 자) (042) 533-4287 직) (042) 533-2929 〒 301-152</p>
	<p>委 員 崔 東 烈 (29.3.1生)(典書公派) 忠南 瑞山郡 音岩面 星岩里 216 ☎ 자) (0455) 63-5265 〒 352-840</p>
	<p>委 員 崔 東 燮 (32.11.10生)(佐郎公派) 忠南 唐津郡 新平面 富壽里 54 ☎ 자) (0457) 362-8097 〒 343-810</p>
	<p>委 員 崔 東 燮 (35.3.15生)(海陵君派) 酒造場經營 全北 益山郡 龍東面 大鳥里 799-1 ☎ 자) (0653) 862-4827 〒 572-870</p>
	<p>委 員 崔 得 珠 (27.11.20生)(佐郎公派) 光明市政 諮問委員 京畿光明市 所下1洞 177-3 ☎ 자) 802-9343 〒 423-051</p>

	<p>委員 崔萬秀 (47.10.18生) (大寧君派) 樂園開發(株)代表理事 華川樂園農場代表 江原春川市 후평2동 한신아파트 4동 403호 ☎ 자) (0361)54-3363 직) (0361)52-8089 〒 200-162</p>
	<p>委員 崔明鎬 (33.4.6生) (文貞公派) 明進企業代表 忠南 溫陽市 防樂洞 408 ☎ 자) (0418) 44-5757 〒 336-070</p>
	<p>委員 崔珉燮 (58.8.16生) (縣監公派) (株)中原타워代表理事 서울 瑞草區 瑞草洞 1303-40 정인빌딩 401호 ☎ 직) 569-2451~5 〒 137-070</p>
	<p>委員 崔秉熙 (16.11.13生) (監察公派) 京畿 安養市 安養 5洞 622-366 ☎ 자) (0343) 49-1141 〒 430-015</p>
	<p>委員 崔秉宇 (22.3.19生) (文貞公派) 忠南 禮山郡 禮山邑 禮山里 5구 703 ☎ 자) (0458) 32-6740 〒 340-800</p>
	<p>委員 崔炳學 (25.5.25生) (佐郎公派) 第一火災海上保險서울弘益代理店代表 서울 瑞草區 반포본동 반포주공아파트81동302호 ☎ 자) 535-4668 직) 741-4907~8 〒 137-049</p>

	<p>委員 崔秉愛 (26.8.3生) (判司僕寺公派) 仁川.南洞區 論峴洞 513-2 ☎ 자) (032)433-4470 〒 405-300</p>
	<p>委員 崔秉羽 (30.7.20生) (文貞公派) 東光韓醫院長 서울 恩平區 龜山洞 5-1 ☎ 자) 359-2676 직) 763-4409 〒 122-050</p>
	<p>委員 崔炳安 (32.11.23生) (校理公派) 商業 서울 城東區 聖水洞 1街 93 14/1 ☎ 자) 463-7558 〒 133-110</p>
	<p>委員 崔炳一 (34.10.2生) (佐郎公派) 성남운수(株)代表理事 서울 恩平區 葛峴洞 327-43 ☎ 자) 387-3594 직) 777-6877 〒 122-050</p>
	<p>委員 崔炳壽 (40.5.15生) (承旨公派) 방송문화연구원(주)院長 서울 松坡區 잠실 장미아파트 17동601호 ☎ 자) 418-7671 직) 632-2486 〒 138-220</p>
	<p>委員 崔寶圭 (34.11.21生) (司正公派) 商業 京畿 城南市 중원구 中洞 140 ☎ 자) (0342) 734-2937 〒 462-170</p>

	<p>委員 崔福鎭 (26.10.14生) (生員公派) 忠南 禮山郡 禮山邑 山城里 260-3 ☎ 자) (0458)33-1877 〒 340-800</p>
	<p>委員 崔奉燮 (35.2.9生) (典翰公派) 醫學博士 崔齒科醫院長 서울 龍山區龍門洞 23-1 ☎ 자) 576-0001 직) 712-7019 718-1001 〒 140-080</p>
	<p>委員 崔奉萬 (36.4.11生) (佐郎公派) 全北 扶安郡 幸安面 驛里 180 ☎ 자) (0683)83-4764 〒 579-830</p>
	<p>委員 崔富植 (36.2.8生) (進士公派) 三益피아노 모래내 특약점 代表 서울 冠岳區 新林3洞 635-9 17/2 ☎ 자) 856-3507 직) 302-3611~2 〒 151-013</p>
	<p>委員 崔三求 (39.7.25生) (佐郎公派) 水原週末農場管理部長 京畿 華城郡 峰潭面 水機里 7-78 ☎ 자) (0331) 34-1995 직) (0331) 32-3886 〒 445-890</p>
	<p>委員 崔尙善 (22.2.14生) (佐郎公派) 大田 儒城區 九岩洞 621-1 ☎ 자) (042) 822-5911 〒 305-311</p>

	<p>委員 崔 尙 哲 (34.12.25生) (校理公派) 亞洲貨物運輸(株) 代表理事 서울 銅雀區 上道洞 335-55 ☎ 자) 813-8326 직) 546-2041~5 〒 156-030</p>
	<p>委員 崔 湘 鎬 (37.5.27生) (承旨公派) 世紀化學 代表 光州 北區 龍鳳洞1074-8현대아파트102동1004호 ☎ 자) (062) 222-2838 직) (062) 222-5961 〒 500-070</p>
	<p>委員 崔 相 植 (37.8.23生) (典書公派) 商 業 서울 東大門區 제기2동 928-1 ☎ 자) 963-1623 〒 130-062</p>
	<p>委員 崔 錫 天 (29.3.2生) (書雲副正公派) 東洋中學校 教師 서울 銅雀區 舍堂4洞 266-9 ☎ 자) 583-3043 직) 814-9652, 815-1857 〒 156-094</p>
	<p>委員 崔 聖 溥 (21.10.18生) (判司僕寺公派) 園藝業 仁川 南洞區 論峴洞 132 ☎ 자) (032) 433-6590 직) (032) 433-1545 〒 405-300</p>
	<p>委員 崔 盛 國 (28.11.14生) (佐郎公派) 運輸業 서울 城東區 中谷洞 246-57 ☎ 자) 467-0393 〒 133-220</p>

	<p>委員 崔世均 (36.3.8生) (校理公派) 青寶青果商會代表 江原 春川市 竹林洞 80-2 三基연립303호 ☎ 자) (0361) 55-1176 직) (0361) 3-5640 〒 200-050</p>
	<p>委員 崔壽福 (19.12.10生) (監察公派) 全南 咸平郡 咸平邑 大德里 1006 ☎ 자) (0615) 22-2122, 2132 〒 525-800</p>
	<p>委員 崔壽敬 (25.10.26生) (佐郎公派) (前 鐵道廳 檢修係長) 서울 西大門區 南加佐洞 124-552 21 / 6 ☎ 자) 373-3129 〒 120-120</p>
	<p>委員 崔秀逸 (36.10.25生) (縣監公派) 現代重工業(株) 代表理事 서울 江南區 新沙洞 607-10 현대맨손22동302호 ☎ 직) (0522) 30-2004 〒 135-120</p>
	<p>委員 崔承律 (10.3.27生) (佐郎公派) 京畿 富川市 中區 원미2동원미아파트9동209호 ☎ 자) (032) 652-2853 〒 421-112</p>
	<p>委員 崔承福 (27.10.29生) (佐郎公派) 서울 冠岳區 新林5洞 1437-19 14 / 2 ☎ 자) 878-4331 〒 151-015</p>

	<p>委員 崔承綬(30.4.12生)(大寧君派) 구만국민학교 校監 江原 春川市 孝子1洞 547-18 ☎ 자) (0366) 33-2811 직) (0366) 33-0211 〒 200-091</p>
	<p>委員 崔承祚(46.3.28生)(大寧君派) 韓國電力公社 永登浦支店(前大統領總務秘書室勤務)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91-28 ☎ 자) 846-6166 직) 670-2293 〒 150-051</p>
	<p>委員 崔億培(36.6.26生)(司正公派) 商業 仁川 南洞區 南村洞 339 ☎ 자) (032) 428-1199 〒 405-100</p>
	<p>委員 崔連壽(35.6.29生)(生員公派) 慶北 醴泉郡 知保面 首月2洞 494 ☎ 자) (0584) 53-2587 〒 757-850</p>
	<p>委員 崔榮祚(20.3.10生)(佐郎公派) 서울 龍山區 元曉路 1街51-2 ☎ 자) 713-2763 〒 140-111</p>
	<p>委員 崔永哲(32.4.3生)(佐郎公派) 國一製紙工業(株) 代表理事 會長 서울 城東區 玉水洞 220-1 한남하이즈아파트1동905호 ☎ 자) 297-3391 직) 267-4252 〒 133-100</p>

	<p>委員 崔煥周 (33.12.12生) (司正公派) 벨알주택건설(株) 代表理事 서울 江南區 論峴洞 16-51 대원빌딩301호 ☎ 자) 985-9039 직) 511-2552~3 〒 135-010</p>
	<p>委員 崔永坤 (44.11.7生) (承旨公派) 陸軍上士 서울 松坡區 巨餘洞山71 비호아파트5동306호 ☎ 자) 408-2511 〒 138-110</p>
	<p>委員 崔榮燮 (47.9.18生) (文貞公派) 唐津郡內務課行政主事 忠南 唐津郡 唐津邑 邑內里 정우아파트A동107호 ☎ 자) (0457) 2-3416 직) (0457) 50-3231 〒 343-800</p>
	<p>委員 崔玉燮 (29.11.25生) (海陵君派) 視聽覺教育社 常務 서울 麻浦區 염里洞 30-47 ☎ 자) 717-1118 직) 363-2051, 2052 〒 121-090</p>
	<p>委員 崔溶仁 (29.2.18生) (生員公派) 慶北 蔚珍郡 蔚珍邑 新林里 524 ☎ 자) (0565) 83-2681 〒 767-800</p>
	<p>委員 崔龍九 (34.10.2生) (典翰公派) (株) 大一代表理事 서울 銅雀區 上道3洞 335-95 18/2 ☎ 자) 814-2628 〒 156-033</p>

	<p>委員 崔禹鎭 (39.3.8生) (承旨公派) 서일자동차정비공업社長 光州 西區 농성동 646-34 ☎ 자) (062) 33-6612 직) (062) 674-0821~3 〒 502-200</p>
	<p>委員 崔元植 (29.2.11生) (佐郎公派) (前 南面副面長) 京畿 楊州郡 南面 閑山里577 ☎ 자) (0351) 63-5843 〒 482-870</p>
	<p>委員 崔元溥 (33.12.29生) (進士公派) 美8軍 文官 大邱 壽城區 巴洞 110-89 ☎ 자) (053) 762-7519 〒 706-070</p>
	<p>委員 崔允燮 (31.9.15生) (文貞公派) 洪城葉煙草生産組合長 忠南 洪城郡 洪東面 月懸里 247-1 ☎ 자) (0451) 33-3146 직) (0451) 32-2011 〒 350-810</p>
	<p>委員 崔益善 (29.4.15生) (左尹公派) 아이젠버그(株) 理事 서울 江南區 淸潭洞 117-36 ☎ 자) 544-1786 직) 266-6403 〒 135-100</p>
	<p>委員 崔仁植 (37.3.26生) (佐郎公派) 新又建設産業(株) 代表理事 서울 銅雀區 大方洞 393-25 ☎ 자) 823-4669 직) 783-5271~5 〒 156-020</p>

	<p>委員 崔 仁 求 (37.5.6生) (佐郎公派) 世明染織工業社 社長 大邱 中區 大鳳洞 111-1 청운맨손7동 1208호 ☎ 자) (053) 423-2019 직) (053) 355-1441~2 〒 700-430</p>
	<p>委員 崔 仁 範 (49.1.14生) (僕射公派) 友田메디칼 社長 서울 松坡區 문정동 41 ☎ 자) 408-4901 직) 549-6624 〒 138-200</p>
	<p>委員 崔 將 燮 (44.6.14生) (佐郎公派) 서울 西大門區 南加佐1洞 273-19 37/2 ☎ 자) 305-8739 〒 120-121</p>
	<p>委員 崔 在 焜 (24.7.7生) (典翰公派) (前 中學校教師)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2 극동아파트1동1203호 ☎ 자) 407-1878 〒 138-160</p>
	<p>委員 崔 在 植 (31.7.29生) (佐郎公派) (前 國民學校長) 서울 江西區 禾谷4동 842-16 ☎ 자) 644-8474 〒 157-014</p>
	<p>委員 崔 載 休 (33.10.9生) (承旨公派) 慶北 盈德郡 柄谷面 伊川洞 28-3 ☎ 자) (0564) 32-2498 〒 766-850</p>

	<p>委員 崔 載 赫 (34.6.18生) (監察公派) 法務士 京畿 安城郡 安城邑 鳳南洞 335-2 ☎ 자) (0334) 675-2450 직) (0334) 675-2400 〒 456-800</p>
	<p>委員 崔 在 新 (35.2.8生) (縣監公派) 全南 康津郡 郡東面 龍沼里 700 ☎ 자) (0638) 33-5248 〒 527-850</p>
	<p>委員 崔 在 權 (35.10.3生) (佐郎公派) 結城鹽田代表 星南사슴牧場代表 忠南 洪城郡 結城面 星南里 481 ☎ 자) (0451) 33-8093 〒 350-870</p>
	<p>委員 崔 在 文 (35.10.14生) (司正公派) 商 業 仁川 南區 朱安5洞 13-2 광명아파트·나동201호 ☎ 자) (032) 872-6413 〒 402-205</p>
	<p>委員 崔 在 源 (38.3.7生) (佐郎公派) 韓一不動產 代表 서울 九老區 梧柳2洞108-46목화연립자동205호 ☎ 자) 688-7447 〒 152-102</p>
	<p>委員 崔 載 豊 (45.9.1生) (海陵君派) 裕進建設(株) 專務理事 忠南 公州市 玉龍洞5 금강빌라 3동 503호 ☎ 자) (0416) 52-9110 직) (0416) 52-9111~6 〒 314-040</p>

	<p>委員 崔在昊 (46.11.16生) (司正公派) 仁川 南洞區 間石2洞 193-2 희망아파트1동111호 ☎ 자) (032) 432-1612 〒 405-230</p>
	<p>委員 崔在光 (72.5.17生) (典翰公派) 서울 麻浦區 城山2洞 200-10 1/1 ☎ 자) 308-0435 〒 121-252</p>
	<p>委員 崔定甲 (28.2.15生) (監察公派) 慶南 鎭海市 자은동716 ☎ 자) (0553) 44-5660 〒 645-300</p>
	<p>委員 崔鍾勳 (25.8.30生) (佐郎公派) (前 瑞山郡 近興面長) 忠南 瑞山市 東門洞 923-1 ☎ 자) (0455) 665-7293 직) (0455) 665-5125 〒 352-800</p>
	<p>委員 崔鍾千 (31.3.10生) (大寧君派) 충남 唐津郡 松山面 柳谷里 ☎ 자) (0457) 53-7968 〒 343-830</p>
	<p>委員 崔鍾常 (32.8.24生) (佐郎公派) 서울 江西區 공향동 41-75 16/1 ☎ 자) 666-1212 〒 157-240</p>

	<p>委員 崔宗植 (34.9.2生) (進士公派)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洞 47 한성아파트B동1309호 ☎ 자) 783-1052 〒 150-010</p>
	<p>委員 崔鍾琯 (36.6.10生) (進士公派) 호서관광당진영업소 代表 忠南 唐津郡 唐津邑 邑內里 224-18 ☎ 자) (0457) 355-4276 직) (0457) 52-2001 〒 343-800</p>
	<p>委員 崔宗燮 (39.2.13生) (典翰公派) 安國火災海上保險(株)常務理事 서울 松坡區 방이동 극동아파트 7동 702호 ☎ 자) 403-4945 직) 752-0591, 777-9541 〒 138-150</p>
	<p>委員 崔鍾健 (41.9.9生) (校理公派) 서울제21지구 의료보험조합 代表理事 京畿 果川市 中央洞 주공아파트 1011동 102호 ☎ 자) 503-2209 직) 557-5149 〒 427-010</p>
	<p>委員 崔種仁 (43.1.3生) (海陵君派) 建築業 서울 城北區 長位2洞 66-140 ☎ 자) 911-0537 〒 136-142</p>
	<p>委員 崔鍾弼 (43.2.5生) (佐郎公派) 玉山實業 社長 경기 龍仁郡 水枝面 城福里 477-2 ☎ 자) (0331) 281-3220 직) (0331) 281-1212, 1775 〒 449-840</p>



委 員 崔 周·溥 (20.7.19生) (文貞公派)
 全北 沃溝郡 開井面 鉢山里 96-11
 ☎ 자) (0654) 451-2201
 〒 575-920



委 員 崔 周 鎬 (34.1.24生) (典翰公派)
 全南 靈岩郡 郡西面 東鳩林里 312
 ☎ 자) (0693) 72-0139
 〒 526-850



委 員 崔 俊 錫 (23.7.9生) (生員公派)
 (前 迎日郡 副郡守)
 大邱 東區 新川 4洞 434-6
 ☎ 자) (053) 755-1115
 〒 701-024



委 員 崔 重 鎬 (37.4.14生) (典翰公派)
 安山市教育廳 獎學士
 仁川 北區 曉星洞 320-4 단위미술학원
 ☎ 자) (032) 92-2455, 5984 직) (0345) 80-6624
 〒 403-040



委 員 崔 鎮 燮 (32.3.29生) (佐郎公派)
 大田 中區 虎洞 91-1
 ☎ 자) (042) 253-4661
 〒 301-092



委 員 崔 鎮 成 (40.10.25生) (佐郎公派)
 忠南 禮山郡 鷹峰面 後寺里 351-1
 ☎ 자) (0458) 2-6454
 〒 340-830

	<p>委員 崔 珍 泰 (45.12.18生) (司正公派) 農 業 仁川 南區 朱安4洞 303-21 11/3 ☎ 자) (032) 438-7122 〒 402-204</p>
	<p>委員 崔 鎮 鎬 (54.7.13生) (書雲副正公派) 驪州郡廳 기획실 京畿 驪州郡 驪州邑 倉里 63 ☎ 자) (0337) 85-2235 직) (0337) 84-3121 〒 469-800</p>
	<p>委員 崔 昌 壽 (15.5.15生) (佐郎公派) 醫學博士 崔昌壽眼科醫院長 서울 鍾路區 慶雲洞 96-21 ☎ 자) 735-5052 직) 735-5053 〒 110-310</p>
	<p>委員 崔 昌 浩 (35.8.6生) (執義公派) 行政學博士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長 서울 江南區 驛三3洞 684-18 ☎ 자) 552-5885, 562-5349 직) 450-3270 〒 135-083</p>
	<p>委員 崔 喆 熙 (23.6.13生) (佐郎公派) 合名會社 韓一稅務法人社長(前서울地方國稅廳直稅局長) 서울 西大門區 北阿峴洞1-554 ☎ 자) 362-5001 직) 780-7323-4, 783-7402 〒 120-190</p>
	<p>委員 崔 詔 寬 (23.10.26生) (佐郎公派) 서울 龍山區 孝昌洞 5-203 ☎ 자) 715-5124 〒 140-120</p>

	<p>委員 崔 泰 辰 (28.8.28生) (文貞公派) 安城農業專門大學教授, 農業開發研究所長 京畿 安城郡 孔道面 蠅頭里62 대원과수원 ☎ 자) (0333) 53-2008 직) (0334) 73-2701~3 〒 456-820</p>
	<p>委員 崔 憲 (25.1.23生) (書雲副正公派) 圖書出版 學音 代表 서울 道峰區 放鶴3洞 신동아아파트9동1001호 ☎ 자) 907-4750 직) 362-1971, 393-8948 〒 132-022</p>
	<p>委員 崔 鉉 (53.9.16生) (少尹公派) (株) 楚石디티시 代表理事, 한국이슬람복지재단 理事 서울 瑞草區 方背2洞 954-8 현대파크빌라 C동302호 ☎ 자) 522-0605 직) 798-3370 〒 137-062</p>
	<p>委員 崔 洪 燮 (36.4.25生) (佐郎公派) 京畿 城南市 수정구 신흥2동 한신아파트 6동 402호 ☎ 자) (0342) 732-5955 직) (0331) 281-0586 〒 461-162</p>
	<p>委員 崔 和 燮 (34.7.30生) (典翰公派) 京畿 安城郡 三竹面 內長里 173 ☎ 자) (0334) 72-4402 〒 456-880</p>
	<p>委員 崔 欽 德 (26.4.14生) (佐郎公派) 忠南 錦山郡 富利面 冠川里 413 ☎ 자) (0412) 53-0738 〒 312-840</p>



委 員 崔 興 善 (33.1.15生) (監察公派)
 서울 麻浦區 城山洞 137-3
 ☎ 자) 373-4602
 〒 121-250



委 員 崔 紘 一 (42.12.15生) (監察公派)
 商 業
 서울 松坡區 可樂洞 가락시영아파트 120동 404호
 ☎ 자) 403-6826
 〒 138-160



委 員 崔 在 殷 (33.5.16生) (典翰公派)
 一剛빌딩 管理常務
 京畿 城南市 中院區 金光2洞 山21 보라아파트 3동 109호
 ☎ 자) (0342) 45-5517 직) (02) 812-4495
 〒 462-242

編 輯 後 記

◇ 1986年4월에 宗誌 創刊號(第一輯)를 펴내고 滿7年만에야 二輯을 發刊하게 되니 나름대로 감회가 깊은바 있다.

사실 “말 같이 쉬운 것이 없다”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卓上論과 같지만은 않은 것이 宗誌를 펴내는 일이다. 하기가 專門家들이 모여서 일을 進行하고 또 宗誌에 걸맞는 글을 써서 제때에 척척 보내만 준다면이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實情이고 보면 當務者의 고충이 그 얼마나 컸겠는가…….

어떤이는 門中에 學者가 많으니까 原稿걱정은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學者도 각자의 專攻이 따로 있고 宗誌는 宗誌대로의 性格이 있기 때문에 宗誌에 실릴 만한 적합한 글을 써줄 宗人 學者가 그렇게 여러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또 外部人士에게 原稿를 請託하는 問題도 그렇다. 다룰만한 內容의 것들은 이미 <崔冲研究論叢>에다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수록을 하였기 때문에 별로 새삼스러운 原稿가 기대되지 않으며, 설혹 請託을 한다해도 反覆되는 內容에 表現만 조금씩 달라질 뿐일것이다.

한편 企劃을 하고 編輯을 하는 當務者의 立場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生業이 따로 있는 처지에 몇개월간 奉仕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저런 일로 복잡한 가운데 宗誌 만드는 일에다 마음을 集中시키는 것도 사실 상 無理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宗誌를 엮어 낸다는 일은, 일의 內容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단순한 것이 아님을 거듭 밝히면서 다소간 未洽한데가 있더라도 널리 理解있기를 바란다.

◇ 이번의 宗誌第二輯에도 좋은 內容의 玉稿가 여러편 실렸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전 公報處長官 昌潤宗親의 훌륭한 “激勵辭”와 成均館大學 崔根德

教授(慶州人)의 “崔冲 先生의 生涯와 教學思想”, 그리고 建大行政大學院長인 昌浩宗親의 “우리가 사는 時代는 어떠한 時代인가?”, 韓國教員大 元容文教授의 “최자의 생애와 문학”, 延世大 安大會教授의 “기개와 풍류의 시인 孤竹”, 韓國教育大學 崔明煥教授(慶州人)의 “清白吏詩人 孤竹 崔慶昌” 등은 錦上添花가 되고 있다. 이분들께 거듭 感謝를 드린다.

◇ 끝으로, 앞으로는 당초 計劃한대로 우리의 海州崔氏宗誌가 2年이나 3年만에 한번씩 發刊이 될 수 있도록 모든 宗人이 깊은 關心을 갖이고 原稿 執筆에서 과문혀진 各種 資料의 발굴 정리, 宗誌제작에 도움이 되는 情報의 제공등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 않는다.

이번 宗誌의 校正을 맡아준 炳弼事務局長, 滄植總務部長, 月刊誌 記者出身의 金蓮休嬢 에게 고맙다는 뜻을 表하는 바이다.

1992. 6, 20

— 愚 —

海州崔氏宗誌 (第二輯)

1992年 7月 10日 印刷

1992年 7月 15日 發行

發 行 海州崔氏大宗會

會 長 元 植

編 纂 宗誌編纂委員會

委 員 長 俊 基

編 輯 副委員長 愚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45-14(東北빌딩 607號)

電話：782-2014 · 3806

印 刷 成志文化社

代 表 朴 洵 根

서울特別市 중구 수표동 56의 12 동신B / D 305호

祝

宗誌第2輯發刊

海州崔氏大宗會

會長崔元植

文憲書院 建立委員長

서울特別市 陽川區 木洞 903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313동 504호

電話：(職) 784-0144

(自) 646-0604 番



寫真說明：京畿道 安城郡 元谷面 上芝文里 白蓮峯山麓
佐郎公派 派祖(諱：堉)墓 全景
(西紀：1466年 封墳 西紀 1991年 補修)

佐郎公派 監察公後孫宗中會

仁川直轄市 南區 論峴洞 山 5番地

顧問：元 植, 承 健,
承 律, 在 翼

會長：光 敏

副會長：光 云, 允 植, 衝 燮

常任理事：炳 學

監事：尙 善, 秉 熙